

한반도 중부와 유라시아 - 교류의 제 양상

2022년 정기학술대회

중부고고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한반도 중부와 유라시아 - 교류의 제 양상

한반도 중부와 유라시아 | 교류의 제 양상



기관 후원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국강고고학연구소
국토문화재연구원	기남문화재연구원
백두문화재연구원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예맥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한성문화재연구원	한양문화재연구원
한울문화재연구원	화서문화재연구원
해안문화재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박물관 내
중부고고학회 (우)24252
TEL 033-248-2853 FAX 033-252-1826
E-MAIL jbgogo@jbgogo.or.kr
인터넷 주소 <https://www.jbgogo.or.kr>

한반도 중부와 유라시아 | 교류의 제 양상

일시 2022.6.10.(금) 10:00~17:30

장소 서울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서울 중구 명동길 26)
* 대면 및 유튜브 생방송 병행

주최 주관  중부고고학회  한국고대사·고학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부고고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한반도 중부와 유라시아 - 교류의 제 양상

일시 2022.6.10.(금) 10:00~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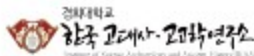
장소 서울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서울 중구 명동길 26)

* 대면 및 유튜브 생방송 병행

주최
주관



중부고고학회
The Angkor Archaeological Society



경희대학교
한국 고고사·고미술연구소
Korea Institute of Korean Archaeology and Cultural Heritage

후원



한국연구재단

중부고고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한반도 중부와 유라시아 - 교류의 제 양상

일 시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10시 ~ 17시 30분
장 소 서울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서울 중구 명동길 26)
 * 대면 및 유튜브로 진행

주최/주관 중부고고학회,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후 원 한국연구재단

기관 후원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국강고고학연구소, 국토문화재연구원, 기념문화재연구원
 백두문화재연구원,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예맥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한성문화재연구원, 한양문화재연구원
 한울문화재연구원, 화서문화재연구원, 해안문화재연구원

학술대회 일정

1부(10:00~12:20)		사회: 김한상(서울문화유산연구원)
10:00~10:10	개회사	심재연(중부고고학회장)
10:10~10:40	기획취지발표 유라시아 고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 중부지역	발표: 강인욱(경희대학교)
10:40~11:30	주제발표 1 황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쪽구들 유라시아 확산 현상에 대한 검토	발표: 김재윤(부산대학교) 토론: 오승환(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11:30~12:20	주제발표 2 유물로 본 한반도 중부지역 부여계 문화의 도입	발표: 윤정하(국립문화재연구원) 토론: 유은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2:20~13:30	점심식사	
2부(13:30~17:30)		사회: 정해득(한신대학교)
13:30~14:20	주제발표 3 고조선문화권 차마구의 전개와 사회	발표: 이후석(경희대학교) 토론: 손루 ^연 (내몽고대학교)
14:20~15:10	주제발표 4 고구려와 선비의 문화교류 양상	발표: 양시은(충북대학교) 토론: 오진석(고려대학교)
15:10~16:00	주제발표 5 소와 말 유존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반도 중부지역의 고대 교역	발표: 홍종하(경희대학교) 토론: 김현석(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6:00~16:10	장내정리	
16:10~17:30	종합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 강인욱(경희대학교)
17:30	폐회	

목차

■ 기획취지발표

유라시아 고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 중부지역

- 포크로프카 신라 환두대도와 중도 말갈계 토광묘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5

■ 주제발표 1

한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쪽구들 유라시아 확산 현상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북한강 유역, 청천강 유역, 자바이칼 홍노 -

김재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25

■ 주제발표 2

유물로 본 한반도 중부지역 부여계 문화의 유입

윤정하 (국립문화재연구원) 71

■ 주제발표 3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의 전개와 사회

- 중원-북방-홍노 차마구의 유입과 변용

이후석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89

■ 주제발표 4

고구려와 선비의 문화교류 양상 - 모용선비를 중심으로 -

양시은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25

■ 주제발표 5

소와 말 유존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반도 중부지역의 고대 교역

- 유전학적 분석 보고를 중심으로 -

홍중하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157

기획취지발표

유라시아 고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 중부지역

-포크로프카 신라 환두대도와 중도 말갈계 토광묘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강인욱(경희대학교 사학과)

목 차

- I. 서론
- II. 유라시아와 중부지역 고고학의 주요 쟁점
- III. 포크로프카 출토 신라 환두대도
- IV. 춘천 중도의 말갈계 토광묘
- V. 고찰
- VI. 결론을 대신하여

I. 서론

한국 고고학에서 북방 유라시아와의 관련성을 실질적으로 논하고 조사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벌써 30여 년이 넘었다. 지금은 1년에 20여 개 팀 이상이 조사를 하며 한국 고고학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유라시아 지역은 한국 고고학의 발달과 함께 해왔다. 하지만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중부지역이 차지하는 유라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로 접한 한반도의 고고학에서 북방지역은 육상을 통한 지역간 교류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정학적으로 중부지역은 남한과 북한, 나아가서 북방 유라시아지역을 잇는 교두보와 같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유라시아 각 지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야함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중부지역을 북방 유라시아 일대와의 다양한 교류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유라시아에 논의는 주로 신라를 매개로 하는 영남지역, 그리고 바다를 통한 교류는 호남지역에서 논의되었을 뿐이다. 정작 지정학적으로 중부지역이 유라시아와의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중부지역은 주로 낙랑/고조선과 같은 한정된 지역과의 교류 및 이민, 그리고 삼국시대 삼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과정 등에만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다소 때가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럼에도 최근 청주 오송의 동병철검이나 정선 아우라지의 초기 청동기, 중도 레고랜드의 말갈 관련 유적, 고구려와 북방 토기의 관련성 등 자료가 등장하면서 유라시아 일대와의 관련성을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막연한 북방지역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북방지역을 세분하고 주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성과 그 의의를 논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취지 설명을 통하여 먼저 중부지역이 유라시아 고대문화와 어떠한 관계였는지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를 통하여 한반도와 고대사회 형성에서 중부지역이 차지하는 역할을 상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례의 연구로 최근에 발견된 연해주 포크로프카에서 출토된 신라의 환두대도와 중도 레고랜드의 말갈 토광묘 등 기존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자료를 통하여 가설적으로 논의되어왔던 말갈의 실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유라시아와 중부지역 고고학의 주요 쟁점

필자는 최근 한국고고학회의 발표서 한국과 유라시아의 관계에 대한 제언을 한 바 있다(강인욱 2021). 이에 여기서는 중부지역이 가진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지난 20세기 한국고고학은 북방지역과의 관련성을 지나친 흑백논리, 즉 이주와 독자발전론, 그리고 북방지역을 예매한 실체로 상정하여 비한국적인 요소에 대한 시공간적인 맥락을 생략한 채 막연히 북방계로 통칭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지역의 자료가 폭증하고 유라시아 일대의 자료에 대한 전공자가 많아지면서 그 관련성은 세분되고 각각의 유물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와 중부지역과의 관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1>. 동쪽부터 본다면 백두대간의 환동해지역의 루트(1), 부여계문화의 확산(2), 흉노 및 선비와의 교류(3), 그리고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고조선의 길(4)이다¹⁾. 그리고 그 관련성에 대한 분석도 단순한 유물의 비교에서 벗어나서 지리환경을 감안하고 DNA 등 인접과학과의 협력 또한 눈에 띈다.

1) 전체 한반도를 놓고 본다면 2번과 3번의 길은 크게 초원지역의 유물과 연관성이 많다는 점에서 하나로 볼 수 있다.

첫번째 초원의 길은 초기 청동기시대에서 흉노, 선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먼저 정선 아우라지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동북한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온 최초의 청동기임을 공반하는 홍성식 토기 및 주거지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강인욱 2017; 강인욱 김경택 2019). 그리고 최근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파형동검에서도 북방지역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중도 129호 주거지 출토 비파형동검은 기존 남한 비파형동검의 성분과는 완전 상이한 구리(Cu)-비소(As)-철(Fe)의 삼성분계 합금이다. 이는 유라시아 북방 지역 초기 청동기시대에서 보이는 합금방법이다. 이러한 합금 비율은 중국의 청해성 동덕현 파구향(青海省同德县巴沟乡)에 위치하는 종일 유적(宗日 遺蹟)에서 확인된 바 있다(김규호 외 2020). 神銅이라 불리는 이런 합금은 신강-감숙 및 내몽골 등 중국 북방 초원지대의 이른 시기 청동기에 보이는 특징으로 증원의 청동기와는 다른 맥락이다.

필자는 기존의 견해를 깨고 비파형동검문화가 기존의 기원전 8-9세기보다 훨씬 더 이른 기원전 11세기 경부터 존재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강인욱 2017). 정선 아우라지의 돌대문단계 기원전 13세기의 청동기를 고려하면 종합하면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제작이 세이마-투르비노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청동기에서 기원했으며 그 루트는 크게 2방향으로 진행된다. 돌대문토기 단계에서는 동북한을 통한 소량의 장신구 제작 전통이 유입되고, 비파형동검이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전기 청동기시대 말기부터는 내몽골 동남부에서 만주를 거쳐 서북한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동북한과 서북한을 나누지만 유라시아에서 본다면 지형적인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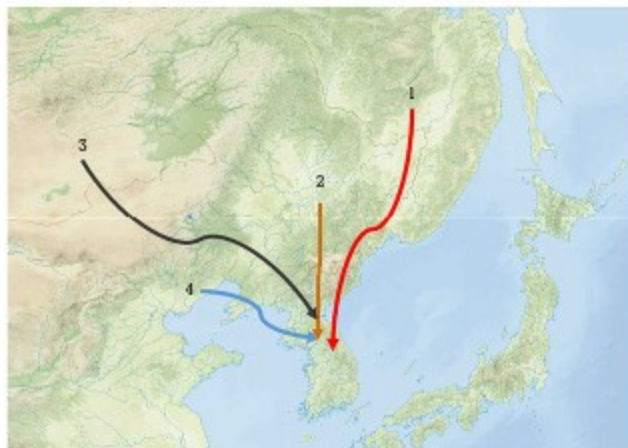
이후 한반도의 고인돌과 송국리문화에 해당하는 시기에 초원지역과의 관련성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비파형동검말기-세형동검 초기로 기원전 5-4세기가 되면서 초원지역의 스키타이 동검(=오르도스계동검)의 전통이 유입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조선에서 남한으로 유입되는 세형동검문화의 시작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 시기 중국 북방은 전국시대 북방 제후국의 팽창으로 유목계 문화가 붕괴되는 시점이었다. 특히 연산산맥 일대의 옥황묘문화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 요소가 비파형동검 문화권으로 유입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 치가 가미고텐의 스키타이식 단검의 거푸집은 이러한 과정에서 장인들의 이동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한반도를 넘어서서 긴끼지방에서 돌출적으로 나온 현상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세형동검문화권의 영향이 약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고조선 및 낙랑과의 관련은 가장 많은 연구가 집중된 분야이다. 남한 세형동검문화의 성립 이후 삼국의 정립기에 이 루트를 통한 역할은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관련하여서는 여기에서 재론을 하지는 않겠으며, 이번 학회의 이후석의 발표에서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부여의 길은 최근 청주 오송의 동병철검 출토로 촉발되었다. 서차구 및 노하심과 유사한 이 동병철검은 상대적으로 긴 전세기구를 고려할 때에 백제에 편입된 이주세력의 선민의식이 상당기간 지속된 결과임을 밝혀준다(윤정하-강인욱 2021). 그 관련성이 높은 서차구가 최

근 중국에서 발간된 바, 향후 백제와의 관련성은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부여의 경우 주로 그에 편입된 초원계문화가 남하하는 양상이 강하다. 이것을 북방초원계의 영향인지 아니면 예맥계의 관련성인지는 향후 좀더 정치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여계의 또 다른 특징인 중국계는 낙랑을 통한 유입, 부여의 자체적인 문화는 고구려와 많이 유사한 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반면에 이후 철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초기까지 동물형 대구가 널리 유행했음은 초원계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남한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감안하며 부여는 초원계통의 문화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로 환동해의 길은 위의 3길과 달리 백두대간과 동해안이라는 뚜렷한 지형적 특성에 기반하여 후빙기 이후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영위해왔다. 최근 김재운의 여러 논고와 저서를 통하여 환동해 지역의 선사시대 교류상은 확대되며 또 개별 주제가 심화되어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옥저가 발흥하고 난 뒤의 삼국시대 정립기(=말갈시기)에 해당하는 서기 4세기 이후는 상대적으로 그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다만 심재연(2017; 2018)은 그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료가 단편적이라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는 형편이다.



- 1-환동해(옥저-읍루)와 중부지역
- 2-부여계문화의 확산과 중부지역
- 3-흉노, 선비와 중부지역
- 4-위만조선-낙랑과 중부지역(또는 청동기시대)

<그림 1> 중부지역과 유라시아의 관련 모식도

2. 연구 방법론 상의 문제

북방지역에 대한 자료의 부족 및 연구의 한계는 최근 많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관련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교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서해안과 동해안의 지리적 특성을 함께 하는 한반도 중부지역이 논의의 중심에 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유라시아 연구

에서 한반도 중부지역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논의가 매우 제한되어왔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남한에 지나치게 특화된 지리적 범주를 들 수 있다. 한국 고고학에서 지역 간의 교역이나 주민들의 이주와 교역에 대한 회의를 품는 근거로는 자생적인 점을 강조하며 남한의 고립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는 지극히 상대적이며 어디까지나 근거리이고 장거리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분명한 점은 지중해의 교역권이나 실크로드를 보아도 남한의 범위와 같은 극히 작은 지역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허베이성(북경 및 천진) 일대는 섬을 제외한 남한 전체의 2.5배에 달한다. 하지만 허베이성과 북부와 남부의 문화적 차이를 극대화하거나 문화적 교역권으로 설정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면적은 유라시아의 일부분인 한반도와 같은 작은 지역 내부에서 서로의 지역권을 논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공백상태가 70년 넘게 지속되면서 중부지역은 유라시아와의 가교보다는 오히려 남한 고고학의 변방과 같은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다. 중도식도기문화, 암사동유형, 한강유역의 전기 청동기문화 등 중부지역에서 번성한 고고학적 문화는 그 북쪽 범위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백상황인 반면에 남한 중부지역은 세계적으로 유적의 조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자료의 부족과 남한 자료의 조밀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중부지역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초래된 인위적인 상황이 중부지역이 유라시아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막고 있다.

중부지역이 유라시아와의 교류에서 소외되고 있음은 최근 경주박물관에서 주최한 “고대 한국의 외래계분물”전에서도 잘 드러났다. 한반도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매우 참신한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유라시아와 관련된 것은 사실상 남부지역의 신라와 가야가 중심이었다. 더욱이 전시품 중에는 만주 일대에서 서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고조선의 비파형동검과 십이대영자의 다뉴브문경도 함께 출품되었다. 고조선과 관련된 비파형동검문화를 한반도에서 타자화된 외래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교류의 중심을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세 번째로 중부지역, 나아가서 한반도가 가진 지형적인 특성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후와 지형은 매우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아열대에 가까운 한반도 남부부터 시베리아의 극한 기후인 백두대간가 좋은 예이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의 생계적응 방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그 다양한 지형이 모두 보이는 곳이 중부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실제 지리환경에 맞으며 북한의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부지역과 유라시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교류를 탐색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I. 포크로프카 출토 신라 환두대도

최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5세기대 신라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삼루환도대도가 발견되었다. 이하 그 정황을 서술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겠다.

1. 연해주 포크로프카 유적

이 유물이 발견된 포크로프카마을은 연해주 남부에서 옥저와 발해의 유적이 밀집한 우수리강의 지류인 라즈돌나야 강변에 위치해있다. 강을 따라서 하류에는 최근에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극동과학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발해의 평지성터인 스타로레첸스코예가 위치한다. 상류쪽으로는 시넬니코보산성과 체르나찌노 등 거점마다 발해의 유적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 외에도 보리스프카, 아브리코스, 코르사코보 등 발해의 불교사원유적도 밀집해 있는 바, 발해의 중심부에서 동해로 나아가는 경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

포크로프카마을의 바로 뒤편에는 청동기시대-폴체-말갈-발해-여진으로 이어지는 고지성 산성 유적으로 다층위의 유적인 센키나 샤프카가 위치한다. 센키나 샤프카는 평원지대에서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산이며, 한쪽은 비교적 가파른 절벽으로 방어성 성지로 매우 적합하다. 포크로프카 마을 근처에서도 이전부터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된 바 있다.

이번 유물은 포크로프카의 주민 드미트리 시넬니코프씨가 밭을 경작하던 중에 발견된 것을 아르세니예프기념 연해주 주립박물관에 기증했다. 연해주 주립 박물관의 야쿠포프씨는 이 유물을 입수하고 정리하여서 2022년 5월 24일에 정식으로 공개했다²⁾. 이 장점이 발견된 곳은 대규모의 고분군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돌로 쌓은 벽같은 것이 있었고, 인골 및 토기편들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는 바, 돌 시설을 한 무덤으로 추정된다. 다만 나머지 유물들은 현장에서 버렸다고 한다. 현장을 직접 답사한 막심 야쿠포프 연해주주립박물관 유물팀장에 따르면 지금도 이 일대에는 대규모 무덤군이 있었던 듯 강가의 단애면에 인골 및 대량의 토기편이 잔존한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철기시대부터 말갈, 발해시대에 이르는 다층위의 문화층이 약 1.5m두께로 남아 있으며, 현장에서 수습되는 토기편들은 발해시대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 기형을 보면 대형의 옹과 호 위주여서 근처에 비슷한 조건의 발해평지성인 스타로레첸스코예와 비슷한 발해 평지성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돌이 함께 발견되었지만 석곽같은 것이 아니라 묘장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적석시설을 한 토광묘일 가능성이 크다. 아쉽게도 환두대도가 발견된 장소는 사유지로 직접 접근하기는 어려웠던 바, 추후 추가조사를 한다면 무덤의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

2) <https://www.newsvl.ru/vlad/2022/05/24/209337/>

이 기사는 러시아 대표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를 통해서 5월 24일에 공개되었다.

<https://ria.ru/20220524/nakhodka-1790345274.html>

이 보도와 아울러 이 유물을 정리한 막심 야쿠포프씨로부터 관련 자료와 정황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감사드린다.



1. 체르냐찌노 2. 센키나 샤프카 3. 시넬니코보 4. 스타로레첸스코예 5. 보리소프카 6. 라코바

<그림 2> 포크로프카 유적(📍)과 주변 유적

질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소개

막심 야쿠포프씨가 제공한 사진과 신문 기사에 제시된 사진에는 규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추가로 막심씨로부터 받은 자료³⁾를 중심으로 유물의 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길이는 71.7cm이고 검날은 57cm이다. 병단의 삼루장식부분은 3.87×2.7cm, 청동으로 만든 병부 테두리 장식은 각각 3.3×2.7×1.6cm, 3.0×2.38×1.9cm가 된다. 칼 날은 한쪽으로부터 발달했다. 삼루와

3) 유물의 성분분석 및 전체 유적에 대한 고찰은 막심 야쿠포프씨와 공동논문으로 따로 작성중에 있다.

병부 테두리 장식은 청동제이며 으며 병부는 병단과 격에만 테두리를 두른 청동으로 장식되었다. 삼루의 병단장식은 철관으로 병부에 이어서 rivet으로 고정을 시켰다. 그밖에 별다른 장식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림 3> 포크로프카 출토 삼루환두대도(주 2의 자료)

포크로프카 출토품은 최근에 환두대도를 분류한 우병철(2019)의 안에 따르면 삼루환 A식에 속한다. 청동으로 만든 점, 그리고 칼날의 형태로 볼 때 양산 부부총 출토품과 가장 유사하다. 형태로만 본다면 신라 금관총을 비롯한 경주 일대에서 확인되며, 일부 양산이나 대구에서도 출토되지만 기본적으로 신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서기 5세기대에 사용된 것이다.

한편, 출토과정에서 일부 결실되기도 했지만, 포크로프카 출토의 환두대도는 전반적으로 잔존 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 청주 오송의 예에서 보듯이 대를 이어서 전세하여 사용하는 경우 병부의 마모가 심하고 심한 경우 칼날을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한 예가 있다. 청주 오송과 비교하면 환두대도를 만들고 매납하기까지의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삼루환두대도 또는 삼루환두대도는 구름 또는 연꽃무늬가 변형되어서 C자형의 고리가 연달아 붙어있는 것이다. 이 형식의 환두대도는 다른 환두대도와 달리 지역성이 매우 뚜렷하다는 특징이다. 있다. 집성표<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삼루환두대도는 경주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며 경주의 대형목곽분을 중심으로 대구, 창녕, 양산, 부산 등 신라의 세력이 확산되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환두대도 중에서도 신라의 적석목곽분을 대표하는 장식대도⁴⁾라 부를 수 있다. 그 재질은 황금, 은입청동, 청동으로 나뉘는데, 경주의 고위 적석목곽분(황남대총, 금관총, 천마총 등)은 예외 없이 황금 또는 금동으로 제작된 것이 것이 출토된다.

환두대도는 대체로 5세기 중엽정도가 되면 경주는 물론 그 주변지역으로 널리 확산된다. 서기 6세기경부터는 용봉문환두대도가 등장하면서 그 급이 떨어진다(국립대구박물관 2007). 따라서 그 연대는 5세기를 중심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늦어도 6세기 전반기를 넘지는 않는다.

4) 국립대구박물관, 2007, 『한국의 칼』, p. 65.

포크로프카의 출토품은 청동이며 길이도 78cm인 바, 다른 신라의 제작품들과 비슷하다. 또한 연대의 경우 외견상으로 본다면 청동인 바, 양산 부부총 등과 같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5세기 후반~6세기 초반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포크로프카 출토품은 발굴 과정에서 일부 파손이 되었으나 검날이나 손잡이에서 장기간 전세가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신라의 검이 연해 주로 유입된 시점은 5세기후반대 전후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삼루환두대도 출토예 및 편년

유적	시기	편년의 근거	사진
달성 문산리 II지구 1호	5세기 2/4	김용성 2011	
달성 죽곡 1호	5세기 3/4	김용성 2011	
부산 북천동 10 11호	5세기 2/4	홍보식 2018	
양산 부부총	5세기 후반	한국고고학사전 (박광춘)	
황남대총남분	4말5초	최병현 2021	
금관총	5세기 후엽	최병현 2021	
경주 덕천리 1호	5세기말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경주 천마총	5세기말	한국고고학사전 (최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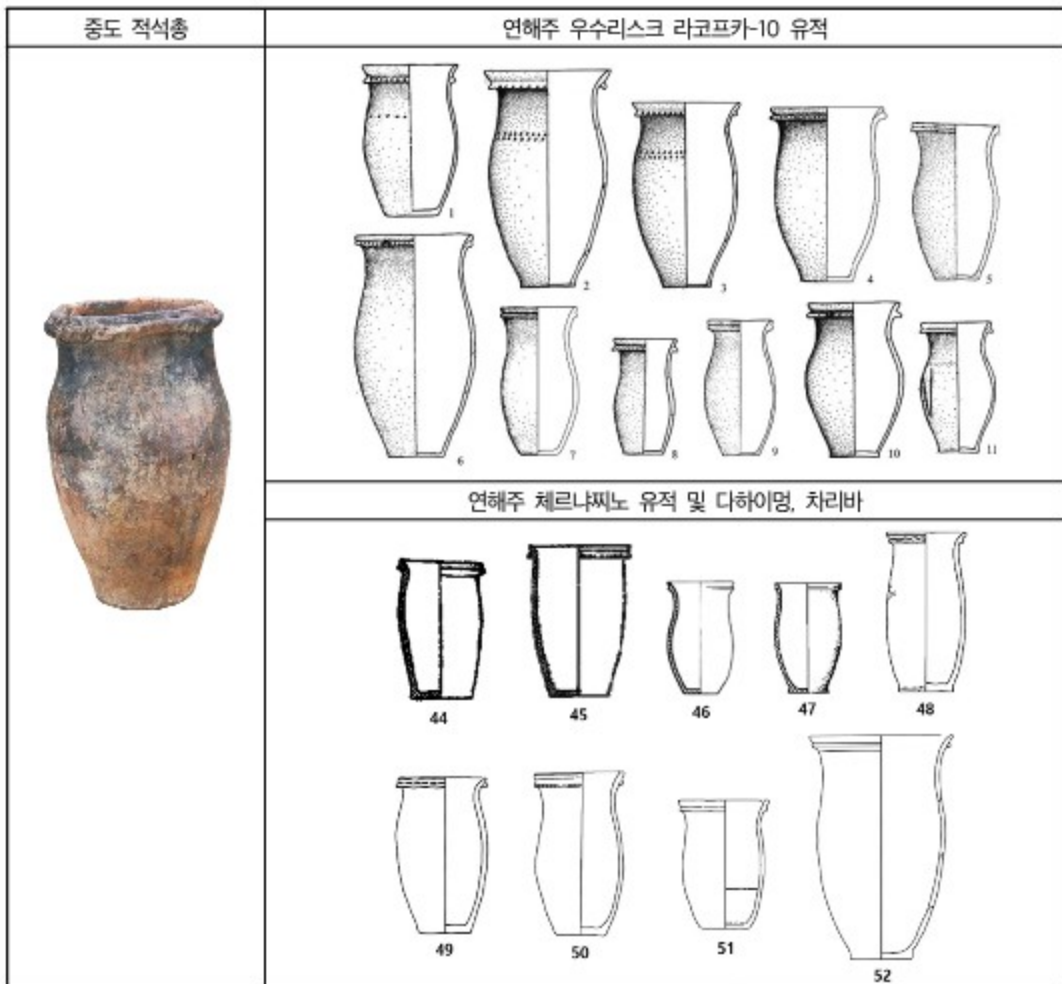
유적	시기	편년의 근거	사진
경산 북사리 1호분	5-6세기	한국고고학사전 (장용석)	
경주 안계리 43호	6세기 중엽	문화재연구소 (1981)	
옥포총 (노동동 142호)	5세기말	한국고고학사전 (함순섭)	
금령총	5말6초	한국고고학사전 (최병현)	
쪽샘 B2 연결묘			
쪽샘 B1 연결묘			
황오리 4호분	6세기초	한국고고학사전 (함순섭)	
포크로프카			

IV. 춘천 중도의 말갈계 토광묘

중도 C1 구역에서는 모두 3개의 토광묘가 발견되었고 C2 구역에서도 발견되었다. 그 중 2기는 유물이 없으며 C1 3호에서는 말갈관이 발견되었음이 일찌기 심재연(2017, 2018)에 의해 누차 지적되어 왔다. 최근 정식발간된 보고서에서 심재연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일련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 묘제와 공반유물은 모두 연해주 남부와 송화강 중류의 말갈 유적들과 유사성이 매우 깊기 때문이다.

1. 토기

중도 3호분 토기(기고 16.2cm)는 전반적으로 무문이며 상하로 정면을 치밀하게 했다. 최대경은 동체의 중앙에서 약간 위에 있으며 구연부에는 말갈관 특유의 돌대문이 마무리 되었다.



이 토기의 형태는 안재필(2020)의 형식분류에 따르면 Bv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식의 말갈관은 일부 제2 송화강 수계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백산, 즉 백두산 일대의 라즈돌나야 강에 있다(안재필 2020). 즉, 중도 적석총의 말갈관은 백산말갈 지역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연해주의 말갈관을 분석한 피스카료바(2006)의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토기는 수이푼그룹과 라코프카 그룹에서 주로 보인다. 즉, 연해주로 한정한다면 그 분포지역은 시넬니코보, 포크로프카, 체르나찌노 등 러-중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라즈돌나야 강 지역에서 주로 나온다.

2. 매장양상

3호분묘는 길이 200cm×80cm의 토광묘로 그 상부에 적석을 불규칙하게 충전한 상태이다. 보고자는 경작 등으로 교란되어서 다수 결실된 것으로 보았는데, 인골은 극히 상태가 안좋아서 니질화된 상태이다. 다른 2개 분묘와 달리 인골을 신전장으로 묻은 흔적이 보인다. 실제 말갈은 2차장과 신전장이 같은 무덤에서 혼재되는 바, 각각의 매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했다.

또한, 말갈관의 출토 위치는 관의 밖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말갈의 토광묘에서도 흔히 보이는 특징이다. 토광 안에 목관을 설치하고 그 목관의 밖에 별도로 말갈관을 두기 때문에 관의 밖에 얹어져 있고 상부에 그대로 놓인 채 발견된다.



3. 철지은장 세환이식

중도 3호묘에서 공반유물로 직경 2.4cm의 철지은장 세환이식이 있다. 두개골의 좌측에서 발견되어서 귀걸이로 추정되며 얇은 철봉을 휘고 그 외부는 얇은 은판을 말아서 둥글게 만들었다. 말갈의 무덤에서는 철제 및 은제의 귀걸이가 다수 발견되었다. 연해주의 경우 체르나찌노, 아무르지역에서는 트로이츠크에 무덤 등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도 대부분의 말갈 유적에서 흔히 보이는 유물이다. 철제의 경우는 여기에 옥으로 만든 별도의 수식을 달고 있으며, 은제의 경우는 별도의 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도 3호묘는 은박을 입혔기 때문에 별도의 수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V. 고찰

1. 포크로프카 신라 환두대도의 출토 배경

거의 완형에 가까운 신라의 환두대도가 어떠한 맥락에서 연해주에 출토된 것인지 생각해볼 자. 먼저 그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발굴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고 난 뒤에야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하지만, 무덤에서 출토된 토광묘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포크로프카 유적 주변에서 발해의 토기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무덤의 성격이 발해시기 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삼루장식을 병부에 부착하고 추가로 리벳으로 박아서 고정된 흔적은 검신을 바꾸면서 사용했던 증거로도 볼 수 있는 바, 포크로프카 무덤의 연대가 삼루환두대도의 중심연대보다 늦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발해가 이 지역으로 진출한 시점은 7세기 이후로 삼루환두대도의 중심연대보다 상당히 늦는 바, 신라와 교류를 한다고 해도 5세기대의 삼루환두대도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포크로프카 무덤의 삼루환두대도는 5세기-6세기초반의 이 지역과 신라의 관계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삼루환두대도는 경주 일대에서만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남한의 다른 집단에 사여를 한 흔적이 없다. 주로 경주와 양산, 대구/달성 등 신라의 확장과 함께 주변지역에서 나온다. 환두대도는 아니지만 소도의 삼루장식이 강릉 병산동 8호분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다. 따라서 신라가 변

방으로 진출하면서 주변지역에서도 사여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포크로프카 유적은 물론 연해주 일대 어디에서도 신라와 관계있는 유물은 전혀 발견된 바가 없다. 신라가 직접 영역을 확장하지 않은 연해주의 삼루장식 환두대도는 다른 맥락에서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와 관련하여 삼루환두대도의 중심연대가 5-6세기 전반대임에 주목해보자. 이 시기 연해주 일대의 고구려 진출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구고에서 살펴본 바 있다(강인욱 2018). 연해주 일대가 고구려 성립 초기에 책성이 설치와 함께 고구려에 편입되었음에도 고구려 계통의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연해주 일대는 옥저문화의 소멸 이후 풀계계통 문화를 계승한 말갈계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다. 즉, 고구려가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것은 실질적인 이민이나 고구려문화의 유입과 관계가 없다. 두만강 유역과 연해주의 백산말갈 분포지 일대는 토착세력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말갈계의 문화는 옥저계의 문화와 아예 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환동해 지역에서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생계 전략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화차이이다(강인욱 고영민 2020). 가파른 산악 지역에서 사냥과 채집의 비중이 강한 집단(읍루-말갈-여진)과 강가의 좁은 평야지대에 정착을 한 집단(옥저-발해)경제에 따른 선택의 차이인 셈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거버넌스를 인정하되 옥저에서 말갈로 이르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의 영위라는 고구려의 간접적인 귀속 형태는 이타인의 묘지로도 증명된 바 있다. 포크로프카의 환두대도는 5세기후반, 늦어도 6세기 전반으로 정확하게 편년된다. 따라서 그 출토의 맥락은 고구려에 복속이 되어 있는 연해주의 말갈계 세력과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삼루환두대도는 다른 환두대도와 달리 그 출토지가 경주 또는 신라의 영역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신라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혀 출토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이 한반도다 아닌 연해주에서 출토가 된다는 것은 삼국의 상식적인 증여 또는 사여체계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계있는 기록은 광개토왕 대의 활발한 고구려군의 활동을 참고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고학계에서는 서기 400년 광개토왕이 신라에 파견한 수군을 반복적으로 재인용하고 있다. 또한, 역사학계에서는 평양 또는 남평양의 백제 경락을 원용하여서 평양쪽의 수군이 남한 일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한다(여호규 2022; 정동민 2021).

그런데 이때 고구려의 상황을 고려하면 광개토왕의 수군 운용은 동해안에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⁵⁾. 당시 고구려의 형세는 지금의 북한 해군의 운용과 지리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남해안으로 통하는 경로가 막혀서 동, 서해가 양분된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상세력의 통합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북한은 서해 함대사령부와 동해함대 사령부로 완전 분리시켜 운용하고 있음은 물론 서로 제대로 소통이 되기도 어렵다(홍성표 2005). 단순한 동/서의 지리적 고립을 넘어서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안 특성이 서로 완전 다르다. 수심이 깊은 동해안은 대형 선박 위주

5) 말갈이 고구려군 편제로 재편되어 단일 부대로 전투를 벌인 기사는 그 밖에도 468년 자비마립간 11년에 고구려와 말갈이 실직성 공격을 들 수 있다.

로 운용 가능하지만 정박을 할 항구의 하구에는 모래톱이 만들어져서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작은 병선이 석호에 정박하는 상황이다(홍영호 2013)⁶⁾. 또한,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심하여 배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은 고구려가 치한 상황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당시 고구려는 서북방으로 막강한 중원왕조 및 유목국가들과 접경하여서 주요 군사력을 집중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여호규 2022) 당시 광개토왕의 수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서해안의 해군을 운용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또한, 동해안은 고구려 초기부터 책성을 설치하여 고구려에 복속되어왔다. 따라서 동해안을 통한 수군의 활동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필자의 지적대로(강인욱 2018) 동해안에 고구려의 전형적인 수도권과 같은 유적은 없고 백산말갈이 복속되어서 고구려의 통치를 수행했다. 아울러, 읍루와 말갈은 원래부터 수전에 능했다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 또한 참고가 된다. 즉, 고구려의 상황에서는 말갈계로 대표되는 세력을 동해안의 수군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호우총에서 발견된 광개토왕의 호우와 같은 예에서 보듯 서기 5세기 경 신라와 고구려는 밀접한 외교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다양한 위신재가 오고 갔을 것으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정황을 본다면 포크로프카 출토 신라계 환두대도는 고구려의 영향력에 있었던 서기 5~6세기 연해주의 토착집단이 고구려의 군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신라와 접촉을 하고 중어의 형태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중도 말갈계 토광묘의 등장 배경

심재연(2017)은 이미 중부지역에서 말갈 계통의 토기 요소가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수가 매우 단편적이며 전체 기형을 모르는 말갈 토기의 경우 문양이 없으면 사실상 중도식토기와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무덤에서 토기와 귀걸이 등이 모두 출토된 중도 CI 3호묘가 주는 의의는 매우 크다.

보고서에서 말갈계 토광묘의 연대를 철기(=원삼국시대)로 규정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해주와 송화강 종류의 말갈계 토광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 말갈계 토광묘는 고구려 시기에 해당하는 서기 4세기경에서 축조되기 시작하여 말해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필자가 이미 지적한 바, 서기 3~4세기대로 뚜렷이 규정지을 수 있는 초기의 토광묘는 거의 없다(강인욱 2009). 대부분의 말갈 토광묘들은 5세기경 나이펠드유형이 등장하고 이후 6~7세기의 말해 건국 이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말해의 묘장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여진문화의 성립기에도 계속 말갈계는 잔존한다(양시은 2019). 따라서 중도의 말갈계 토광묘는 5세기 옥저계문화가 중언을 고하고 말갈계로 재편되는 5~6세기대로 보는 것이 합

6) 러시아 연해주의 동해에 위치한 대표적인 성인 크라스키노 역시 넓은 모래밭에 위치해서 배를 정박하기 쉽지 않다. 이에 러시아 학자들은 그 건너편의 수심이 깊은 포시에트항구 근처에 큰 배를 두고 작은 배로 오고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하다.

이러한 필자의 연대관은 바로 인접한 고구려계 적석총의 등장과 잘 맞물린다. 고구려계통의 적석묘는 탄소연대상으로 420~610 및 420~630(2sigma)의 연대가 제출되었다. 즉, 고구려계통의 석실묘 및 황금 귀걸이 장식들이 춘천 지역에 유입되는 시기와 동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강원도 일대의 고구려와 말갈계통의 유적은 실제 전형적인 토기와 생활유적이 매우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구려의 생활유적은 거의 없어서 홍천 철정리, 홍천 역내리, 원주 건동리 등에서 토기가 발견된 바가 있을 뿐이다. 고구려 계통 분묘유적으로는 춘천 중도, 춘천 방동리 1,2호, 신매리, 만천리 1,2호, 천전리, 홍천 철정리, 역내리, 화천 거례리, 양양 포월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귀속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전형적인 고구려의 무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구려 세력이 강원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재지계 토착사회가 서로 다른 수준으로 변화를 거쳐서 재편되었다(신광철 2019)는 견해는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강원도 일대의 고구려 토기는 수도권의 6세기대 보루군과는 차별화가 되며 토기의 수 자체가 매우 적다. 따라서 5세기 후반 고구려의 강원도 진출이라는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한강유역과는 차별적인 강원도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진출 전략 배경에는 책성을 중심으로 고구려에 편입된 말갈, 그리고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지역의 상이한 자연환경에 맞는 적절한 대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양상은 이미 책성 지역에서 수백 년 고구려화 한 말갈집단이 4세기 말 고구려의 남진에 맞추어 강원도 일원의 재지계 집단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높으며, 고구려가 동북지역 말갈 세력의 일부를 신라 동북방 지역으로 사민하여 안착시켰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文安植 1998, 179).

분명한 점은 우리가 ‘고구려’라고 통칭하는 세력은 결코 균일된 문화가 아니며 동해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현지의 말갈과 공존했었다(강인욱 2018)기. 남한 학계에서 규정하는 ‘고구려’의 정의는 그 수도권과 남한의 한강 하류 일대를 중심으로 규정된 것이다. 또한, 고구려군의 남진은 평야 중심의 한강유역과 강원도 산악지역은 결코 일률적일 수 없다. 강원도 지역에서 보이는 말갈계통의 흔적은 그동안 도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7) “고구려의 정체성”이라는 명제는 매우 증명하기 힘들다. 남한에서는 고구려 평양과 집안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토기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전체 고구려의 영역에서 이들 토기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고학자료를 쉽게 결론내리는 연구경향을 지양해야한다는 양시은의 지적(2011)은 매우 타당하다.

VI. 결론을 대신하여

이 발표에서는 취지 설명이라는 자리를 빌어서 중부지역의 지리적 특성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남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유라시아 문화의 교량역할을 강조했다. 중부지역은 유라시아와의 가교인 동시에 남한의 고고학으로 본다면 북쪽으로 북한이라는 인위적 경계에 막혀서 20세기 이후 변방과 같은 위치에 처해있다. 아울러, 중부지역의 지리적 상황, 즉 환동해를 중심으로 하여 연해주에서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산악지형과 한강의 하류라는 평야지대가 공존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그 사례의 한 예로서 중도 레고랜드의 고구려와 말갈토광묘, 그리고 연해주 포크로프 카 출토의 신라 환두대도를 예로 분석했다. 그 결과 서기 4세기 이후 등장하는 말갈 세력이 사실은 강원도와 연해주 지역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지형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며, 이들이 고구려의 남진과 함께 중부지역에서 일정정도 역할을 해왔던 가능성을 제시했다. 향후 연해주 발해 유적의 중심지인 라즈돌나야강에서 발견된 신라의 5세기대 삼루환두대도의 발견은 기존의 모든 인식을 깨는 동시에 그동안 공백으로 있었던 발해 이전의 서기 5-7세기의 연해주와 한반도 일대의 관계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를 통하여 우리 역사에서 철저히 타자화되었던 말갈, 그리고 위말갈이라는 개념으로 애매하게 정의되었던 강원도 지역의 말갈 세력에 대한 최신 고고학자료를 통한 재평가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본격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함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중부고고학계가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거의 시도해보지 못했음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적어도 고대사학계에서 한국사를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간혀왔기 때문에 고구려의 다문화성을 변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한다는 반성이 나오는 것(이정빈 2018)도 새로운 말갈의 인식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중부지역은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일대와의 관련성에서 가장 변방과 같은 위치였다. 그는 남한의 미시 지역의 세부 편년과 형식적 변천을 강조하는 남한의 고고학계에서 북한이라는 블랙홀에 접한 정치 사회적 현상이 결합된 기형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부지역 고고학의 중요성은 한국 고고학의 국제화, 유라시아와의 접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서 한반도 고대 문화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유라시아와의 연결고리인 중부지역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할 경우 한국의 고고학이 유적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갈라파고스화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드는 것이 지나치지는 않은 것 같다.

<참고문헌>

- 강인욱, 2009, 「靺鞨文化의 形成과 2-4 세기 挾婁·鮮卑·夫餘系文化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33, 고구려발해학회.
- 강인욱, 2017, 「한반도 청동기 사용의 기원과 계통: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초기 및 전기 출토품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 한국청동기학회 10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강인욱, 2018, 「고고자료로 본 백산말갈과 고구려의 책성」, 『동북아역사논총』61, 동북아역사재단.
- 강인욱, 2021, 「초원문화와 한반도의 고고학」, 『한국 고고학, 한반도를 넘어서』 한국고고학회 제45회 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 강인욱고영민, 2020, 「옥저계 문화의 확산으로 본 강원도 중도식토기문화의 정체성과 대의 교류」, 『고대 강원 문화교류』, 강원학연구소.
- 구자봉, 2004, 「삼국시대의 환두대도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국립대구박물관, 2007, 『한국의 칼-선사에서 조선시대까지』.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편, 2019, 『한국고고학사전-고분편』.
- 국립경주박물관, 2021, 『고대 한국의 외래계문물』.
- 김규호김나영박영아, 2020, 「춘천 중도동유적(E구역) 내 출토 금속 유물의 재질 및 특성분석」, 『춘천 중도동유적』 제VI권, 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 김용성, 2011, 「대구 서북부 고총과 그 축조집단의 성격」, 『중앙고고연구』8,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재운, 2017, 「환동해문화권의 역사적 조망: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고고자료를 통해서」, 『동북아 문화연구』5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김재운, 2021, 「환동해문화권 선사문화의 이동과 동해의 기온변화 관련성에 대한 검토」, 『동북아 문화연구』6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김현숙, 2018,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61, 동북아역사재단.
- 신광철, 2019,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의 南進」, 『한국상고사학보』105, 한국상고사학회.
- 심재연, 2017, 「최근 조사 성과로 본 영동·영서지역과 북방지역의 상호 작용 - 철기-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21-1, 한국-시베리아센터.
- 심재연, 2018, 「토기로 본 고대 북방과 한국 문화-폴체-원말갈-말갈계토기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안재필, 2020, 「만주·연해주지역 “말갈관(靺鞨罐)” 검토」, 『인문학연구』44,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양시은, 2011,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사공간적 정체성」, 『고고학』10-2, 중부고고학회.
- 양시은, 2019, 「말갈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인 검토」, 『고구려발해연구』65, 고구려발해학회.
- 여호규, 2020,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99, 한국고대사학회.
- 우병철, 2019, 「가야 신라 무기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정하강인욱, 2021, 「청주 오송 유적 출토 부여계 동병철검의 의의」, 『한국상고사학보』112, 한국상고사학회.
- 이정빈, 2018, 「고구려 다종족사회 연구의 성과와 새로운 모색」, 『증원문화연구』26,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 정동민, 2021,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3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최병현, 2021,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한성백제박물관, 2022, 『서울에서 만나는 경주 쪽샘 신라고분』.
- 홍보식, 2018, 『신라와 금관가야의 교류』, 『한국고대사탐구』3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홍성표, 2005, 『북한의 해군전력과 남북한 비교』, 『북한』 4월호, 북한연구소.
- 홍영호, 2013, 『신라의 동해안 연안항해와 하슬라』, 『백산학보』95, 백산학회.
- 홍형우, 2011, 『서(西) 아무르 지역 말갈(靺鞨) 토기의 특성과 그 전개』, 『한국상고사학보』74, 한국상고사학회.
- 홍형우, 2012, 『토기를 통해 본 동(東)아무르 지역 중세문화의 전개』, 『고구려발해연구』42, 고구려발해학회.
- 홍형우, 2017, 『연해주의 고고 문화와 강원도』, 『강원사학』29, 강원사학회.

Кривуля Ю.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поселении Раковка-10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2002.

Пискарева Я.Е. Ч. III, гл. 5. Лок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 Владивосток : Изд-во Дальнаука, 2005. С. 419-438.

Деревянко, Е.И., 1975.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среднего Амура.

Дьякова О.В.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1998.

<https://www.newsvl.ru/vlad/2022/05/24/209337/>

<https://ria.ru/20220524/nakhodka-1790345274.html>

*발굴보고서류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주제발표 1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쪽구들 유라시아 확산 현상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북한강 유역, 청천강 유역, 자바이칼 홍노

김재윤(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목 차

I. 머리말
II. 연구성과 및 연구방향제시
III. 각 지역의 쪽구들 자료 검토
IV. 쪽구들 유라시아 확산현상
V. 맺음말

I. 머리말

쪽구들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온돌의 기원적 형태로 방바닥 전체가 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데워지는 부분온돌이다(송기호 2019).

러시아 연해주 크로우노프카 I유적을 발굴한 오클라드니코프는 쪽구들이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최초로 나왔고 러시아 원동¹⁾의 철기시대 주민들의 발명품이라고 했다(오클라드니코프-테레비얀코 1973). 이 문화의 쪽구들이 가장 이르며, 고구려, 발해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온돌의 기원이라고 한국학계에 알려진 것은 송기호(2006)이다.

기원전 5세기경에 나타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은 기원전 3세기-2세기 동안에

1) 러시아에서 연해주 및 아무르강 지역은 극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학계에서는 극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이 많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이 지역을 '원동'이라고 부르는데, 극동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청천강 유역, 자바이칼 지역 등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도 남해안에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며, 중부지역에는 기원후 2세에 북한강을 따라서 확인된다.

그런데 쪽구들은 3000년 전 알래스카의 에머크넥 유적에서도 발굴되었다. 서주만기 화북성의 동혹산 유적에서도 발견되지만 산발적인 자료이다(송기호 2019). 이 외에도 다수의 지역에서 쪽구들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보다 먼저 생겨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만 문화적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쪽구들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나타나서 고구려, 발해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송기호 2006). 남북한에서도 북방의 쪽구들을 수용하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현대까지 온돌로 발달되었다(송기호 2019). 북방에서도 발해 이후에 금, 원 시대 그 이후 북방민족들 및 현존하는 나나이족 등 여러 민족도 사용하고 있어서 발생한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자리잡은 곳은 주로 러시아 연해주 및 인접한 중국과 북한이다. 이들 지역은 신석기시대 이후로 남북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관련성(김재운 2017)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조망하고자 고안(강인욱 2006)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 일대를 환동해문화권의 북부지역(김재운 2019)으로, 이곳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제작된 쪽구들이 한반도를 거쳐서 유라시아(자바이칼)까지 확산되는 그 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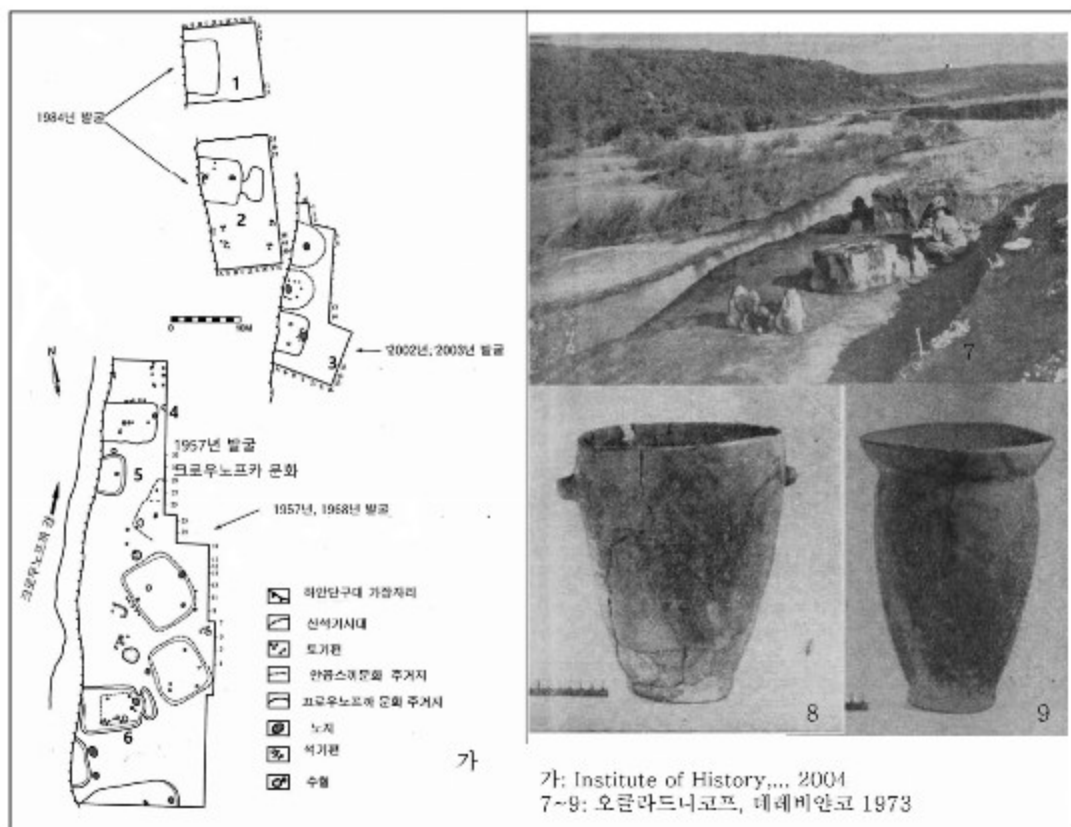
II. 연구성과 및 연구방향제시

오클라드니코프는 1957년 크로우노프카 I유적 발굴상황을 자신의 저서(오클라드니코프·데레비야코 1973)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크로우노프카 강에 의해서 쓸려간 단구대 위에서 고대 주거지를 발굴했는데 크게 2층(신석기시대 층과 초기철기시대 층)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내에서 특징적인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토기 외벽이 마연되어 있고, 파수가 부착된 것이다. 그 모양은 깡통처럼 생겼는데, 몇몇 사람들은 나무그루터기 모양<그림 1-8>이라고 했다. 이 주거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남쪽벽 끝에서 납작한 돌이 남쪽벽을 따라서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크기 50×35cm 크기의 돌을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를 수평으로 깔아서, 턱날처럼 만들었고, 아궁이는 남서벽 모서리에서 시작하고 있다<그림 1-7>.

2002년과 2003년에 러일 공동조사단이 발굴할 때는 크로우노프카 강의 침식으로 인해서 1957년, 1968년, 1984년 발굴지는 없어진 뒤이다<그림 1-가>. 그 뒤에 올레니 A유적, 페트로바 섬 등을 발굴해서 쪽구들이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주거지 내의 특징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데레비안코(1984)는 연해주 뿐만 아니라 아무르강 하류의 쪽구들을 정리했다. 시대를 잘못 표기한 유적이 있지만, 현재 아무르 강 하류나 연해주의 소수민족들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유전통이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쪽구들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보다는 발해, 여진시대 유적을 조사하면서 연구되고 있다(아르테미예바 1998, 크라딘 2011). 이 지역에서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부터 폴체문화, 발해, 여진시대, 오늘날 소수민족들도 쪽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크로우노프카 1유적의 평면도와 주거지 및 출토유물

크로우노프카 1유적과 같은 강의 수계에 위치한 단결 유적과 대성자 유적에서도 쪽구들이 확인된다. 단결 유적의 하층에서 12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지만 현재 알려진 것은 하층 1기의 9호와 하층 2기의 1호 주거지이다(김재운 2007). 대성자 유적에서도 7자형 쪽구들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黑龍江省博物館, 1979, 송기호 2019의 표 5-1).

필자는 쪽구들이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특징인 것에 동의하면서 이 문화의 편년에 따라

2) 단결 유적의 보고서를 당시에 송기호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2007년 당시에 발표할 수 있었다.

서 기원전 5세기경³⁾에 등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상징적인 토기인 파수가 붙은 발형토기 가운데 청동기시대 류정동 유형과 가장 가까운 기종을 근거로 해서 분기를 나누었다. 러시아 및 중국의 탄소연대 및 러시아 학계의 의견에 따라서 기원전 7세기로 판단했었다(김재운 2007). 그러나 노보고르데예프스코예 유적과 올레니 유적의 연대가 너무 이르고 다른 연대들과는 차이가 컸다<표 1>. 그래서 필자는 대성자 유적, 단결 하층의 연대 및 블로치카 15-나호 연대와 오수전 등을 참고로 해서 기원전 5세기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수정했다(김재운 2016, 표 1, 표 24). 이즈웨스토프카 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세형동검 및 동사 등을 근거로 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상한연대도 기원전 4세기경이다(강인욱 2018, 이후 석 2022).

<표 1>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절대연대(김재운 2016 재인용)

문화	유적명	절대연대		참고문헌	
			보정연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노보고르데예프스코예	2480±85B.P.(ТИГ-243)	790-410cal B.C	Кузьмин Я.В. 1989	
	블로치카 15-나	2150±80B.P. 2150±60B.P. 1710±40B.P.	390-1cal B.C. 370-50cal B.C. 240-410cal A.D		
		키예프카 1호	1980±50B.P.(МАГ-367) 1820±80B.P.(ЛЕ-4184)		100B.C.-110cal A.D 20-390 A.D.
		페트로바 섬	1770±25B.P.(СОАН-1543)		140-340 A.D.
	올레니A	6호주:2180±260 B.P.(ДВГУ-ТИГ-82) 4호주:1800±120 B.P.(ДВГУ-ТИГ-81)	830 B.C.-380 A.D. 50 B.C.-530 A.D.		
		대성자2호	2160±90B.P. 2100±90B.P.	B.C 350-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 1991
	단결하층1기	F6	2120±85 2060±85	B.C.200-A.D,47	
		F9	2080±95 2030±95	B.C. 171-A.D.62	
	단결하층2기	F5	2290±100 2355±100	B.C. 410-210	
		F1	1925±80 1870±80	A.D. 31-232	
오수전		B.C.74-B.C49			

3) 오승환(2021)의 연구에서는 오해가 있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라고 수정했다고 했으나, 필자는 분명히 기원전 5세기 가량이라고 밝히고 있다(김재운 2016).

4) <표 2>는 필자의 2016 편년표에서 쪽구들이 있는 주거지와 그렇지 않은 주거지를 구분한 것이다.

<표 2> 단결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주거지 편년 (김재윤 2016 재편집)

		수분하(라즈돌나야)		두만강 및 지류		연해주바다	
		쪽구들 주거지	일반주거지	쪽구들 주거지	일반주거지	쪽구들	일반주거지
B.C.5	I	대성자1호 크로우노프카1호(57년 발굴)	노보고르데예 프스코예				
B.C.3	II	단결하층1기(9호), 크로우노프카68년, 대성자2호 코르사코프스코예2		묘포 유적	범의구석5기(37 호, 44호) 범의구석 6기, 일송정2, 안전 초도 4	페트로바 섬 키예프카1호, 2호, 4호 블로치카 15-나	키예프카 6호 블로치카 14호
B.C. 1	III	단결하층 2기(1호)		하알		올레니A	
A.D. 1							

필자는 나무그루터기형 파수가 달린 토기의 편년<그림 6>을 통해서 수분하(라즈돌나야 강) 주변에서 가장 이른 대성자와 크로우노프카 1유적의 57년도 발굴된 주거지로부터 시작해서 II기가 되면 해안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밝혔으나(김재윤 2007) 상기한 지역의 쪽구들의 기원이나 확산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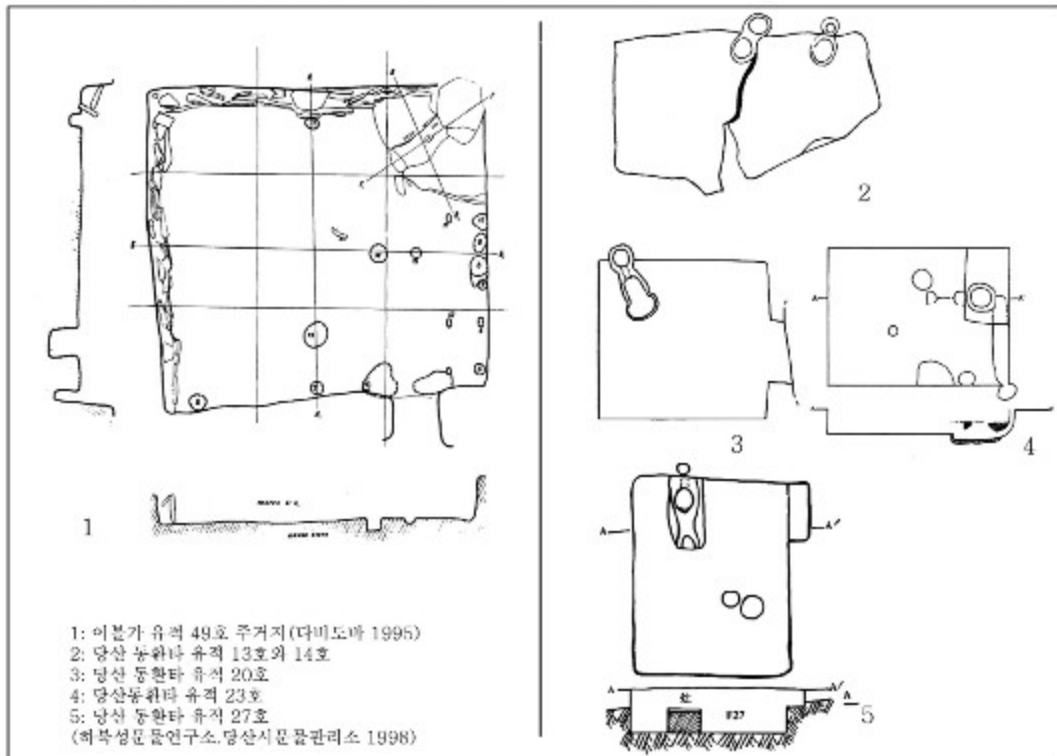
하지만 유은식(2015)은 동북아시아 각 지역의 쪽구들을 검토하고 기원에 대해서 논했다. 그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뿐만 아니라 요녕지역, 청천강 유역에서 비슷한 시점에 동북지방 여러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류정동 유형의 연대와 장각두 고배의 편년으로 기원전 3세기에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지역과 같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쪽구들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자바이칼 지역의 쪽구들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회의적이었다.

오승환(2018, 2021)은 쪽구들의 기원지로 기존의 논지와는 다른 지역을 지적했다. 내몽골 하가점하층 문화의 흥륭구 유적에서 ‘ㄱ자형 은돌’이 나왔고 전국시대 후기의 하북성 당산 東歡坨 유적 23호<그림 2-4>에서 같은 구조의 주거지가 발견되어, 기존의 쪽구들 기원지로 거론되던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은 기원전 5세기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후기인 기원전 4-3세기의 동환타 유적보다 이른다.

하가점하층 문화(용산 후기-상대전기)시기(동북아역사재단 2021)의 흥륭구 유적과 전국시대 후기의 동환타 유적을 하가점하층문화의 동일한 문화권으로 여겼지만 시간적차이가 너무 크다. 동환타 유적의 쪽구들이 유수노하심으로 영향을 주었고, 이 유적에서 다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이 기원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철자형 주거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장방형 주거지도 다수 있다. 노하심 1호 주거지 뿐만 아니라 단결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기타 물질문화로 전체 양상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자바이칼 지역 흉노의 취락인 이불가 유적, 듀로니, 버러 유적에서도 쪽구들이 조사되었다. 이불가 유적을 발굴한 다비도바는 흉노 유적에서 기원전 2-기원전 1세기 경 쪽구들은 원동의 주민들이 이주했다고 견해를 밝혔고, 브로 스키(1985), 크라딘(2011)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기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그림 2> 자바이칼 흉노의 이불가 유적과 전국시대 동환타 유적 비교

필자는 결론적으로 자바이칼 지역과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는 역사적맥락상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러시아 연구자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시베리아와 연해주가 단결된 문화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라숙 문화와 유사한 청동유물 비율이 연해주에서도 확인되며(콘코바 1989), 타가르 문화의 동검을 모방한 안콥스키 문화의 석검(안드리예바 1970)도 같은 맥락이다.

자바이칼 쪽구들이 청천강 유역의 노남리 유형(大貫靜夫, 1998, 강인욱 2012), 내몽골의 거연 유적의 화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시대 후기의 동환타 유적에서 관련성을 찾았다(오승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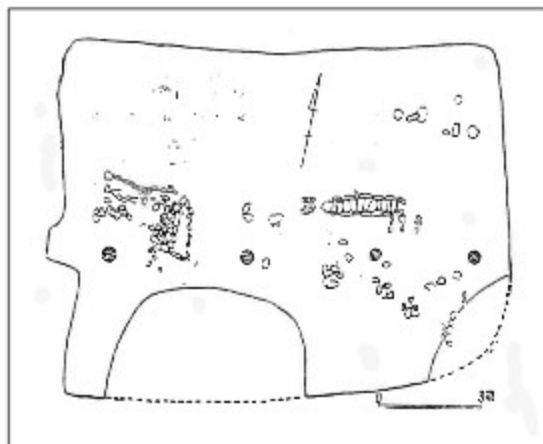
내몽골 거연 유적의 화장(火塼)은 쪽구들과 구분되는 것으로 일종의 벽구들이다. 비어 있는 벽체에 불기운이 통과하면서 벽면을 데우는 방식이다(송기호 2019). 하지만 집의 구조가 다르고, 흉노 유적의 쪽구들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다<그림 2-1>.

초기 고구려 유적인 노남리 유형에서 흉노 쪽구들과 관련성은 기록에서 찾은 것이다. 두 국가가 서로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노남리 유형의 쪽구들 자료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 노남리 유적의 주거지의 쪽구들은 정찬영이 고찰하면서 처음 출판되었을 때는 12×10m의 대형 주거지의 중앙에 쪽구들 2기<그림 3>가 보고되었다가(정찬영 1966), 나중에 각각 다른 주거지의 쪽구들로 보고되었다(정찬영 외 1983). 노남리 유형의 연대는 크게 기원전 보다 올려보는 견해와 기원 전후로 보는 견해로 구분된다. 유적을 발굴한 정찬영은 기원전 2세기(1973)로 보았고, 박순발(1999)은 유적 출토의 토기를 대남구 석관묘 출토토기와 비교해서 기원전 200년으로 상정했다, 김상민(2018)은 기원전 2-기원전 1세기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기원전후로 보는 의견은 철기류(이남규 2005) 및 노남리 1호 쪽구들 오수전의 주조연대, 회백색토기, 강철제품, 다양한 형식의 철촉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유은식 2015).

그런데 청천강 유역에는 노남리 유형 이전에 이미 세죽리 유적과 대평리 유적에서 쪽구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남리 유형 쪽구들도 결국 재지의 전통 아래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쪽구들 등장은 세죽리 유적-연화보 유형의 쪽구들 연원을 살펴야 할 것이다.

흉노문화와 한나라와의 관련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흉노의 궁성에서 쪽구들이 확인되지 않고 생활유적 3곳에서 발견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불가 유적의 가장 큰 주거지는 100㎡가 넘는 데⁵⁾ 9호는 행정관청으로 여겨진다. 흉노가 다민족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고 이불가 유적에는 4-5개의 집단이 있었고, 그 중에 유목민 흉노인이 높은 계급을 이루고 있다(크라딘 2011). 그리고 이불가 유적에서는 43기 이상에서 쪽구들이 발견되었고, 이불가, 듀로니, 버러 유적의 쪽구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으로 인한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동한타 유적에서 보이는 구조와 거의 흡사한 난방기구가 흉노 유적에서 발견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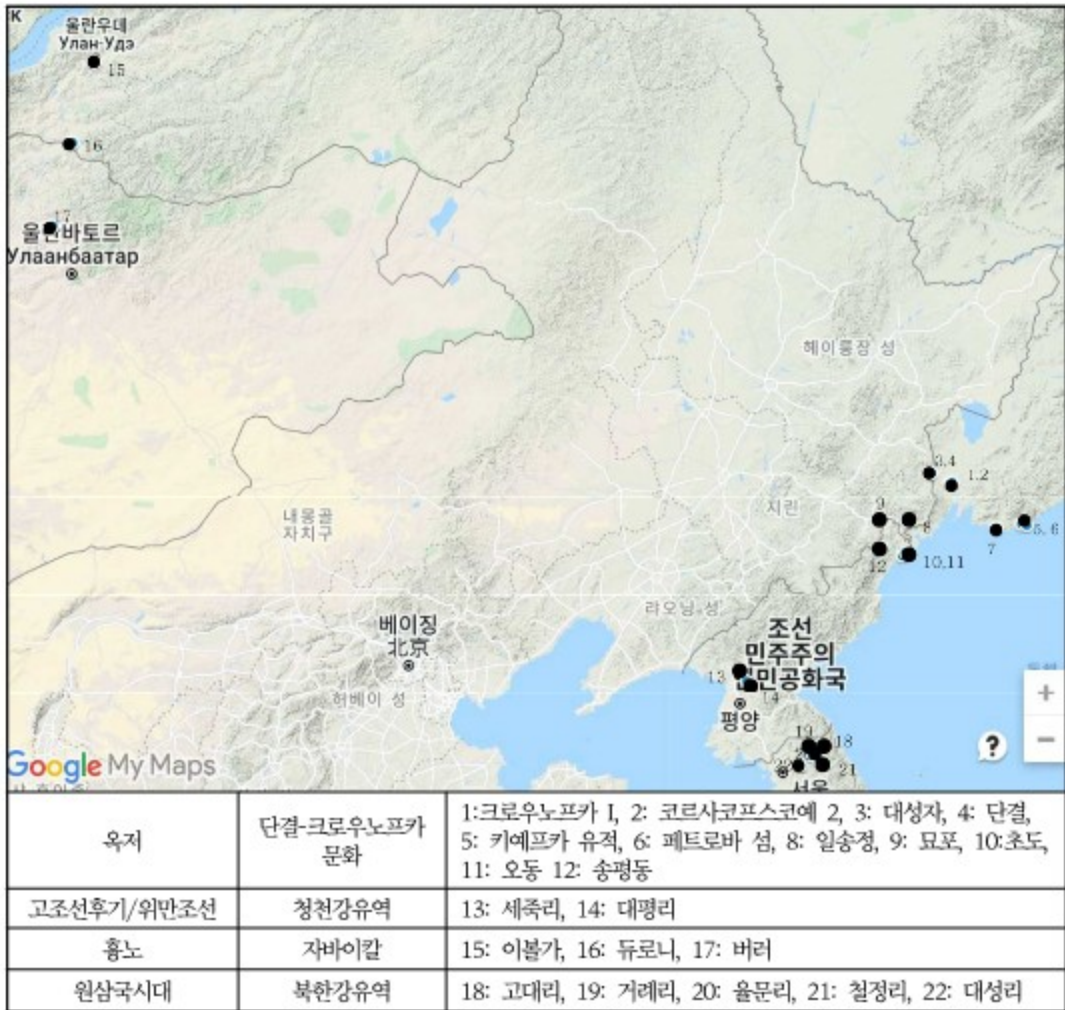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지방 보다는 남부지방에서 먼저 쪽구들이 발견된다. 현재까지 늑도 쪽구들의 연원을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로 보는 견해(송기호 2006, 2019, 동아대학교박물관



<그림 3> 노남리 유적 2호(정찬영 1966)

5) 다른 주거지의 평면적이 10㎡ 미만 4기, 20㎡미만 13기, 30㎡ 24기, 30㎡ 13기이다.

2005, 공봉석 2007)가 대체적이지만, 점토대토기와 관련될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완전히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영향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김현 2006). 남해안의 쪽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도 1>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및 유라시아의 쪽구들 유적

끝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쪽구들은 앞서 대상지역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등장한다. 북한강 유역의 기원후 2세기 유적이다. 파수부토기와 함께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물질문화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중부지역에서 발견되는 T자형 쪽구들이 모두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는 아니며 쪽구들의 위치에 따라서 부여, 고구려 문화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박중국 2016).

그런데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유적에서는 철자형 주거지인 키예프카 유적<그림 4>과 같이 측벽에 쪽구들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크로우노프카 1유적에서는 같은 유적 내에서도 장방형과 철자형주거지 내에서 쪽구들이 발견된다<표 3>. 그래서 연해주의 자료는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같이 후벽과 측벽을 구분해서 쪽구들 위치변화에 대한 발전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후벽에 설치된 쪽구들만 연해주의 것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유적 가운데 봉림성지 쪽구들을 포함시켰는데(박중국 2016), 이 유적은 봉림 문화의 유적으로 3-5세기에 해당된다.

한편 요녕의 요원 석대망 유적에서 쪽구들이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주거지 안에는 매우 넓고 두터운 소토가 벽가장자리에서 발견되는데 이를 쪽구들로 보기에 구체적이지 않다. 유적은 청동기시대 용두산 문화라고 알려졌지만(唐洪源周傳波, 1994), 출토유물 가운데는 가로로 파수가 부착된 호형토기 등이 출토되어서 문화적 소속도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이후에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자바이칼 지역에 등장하는 쪽구들 확산현상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III. 각 지역의 쪽구들 자료 검토

1.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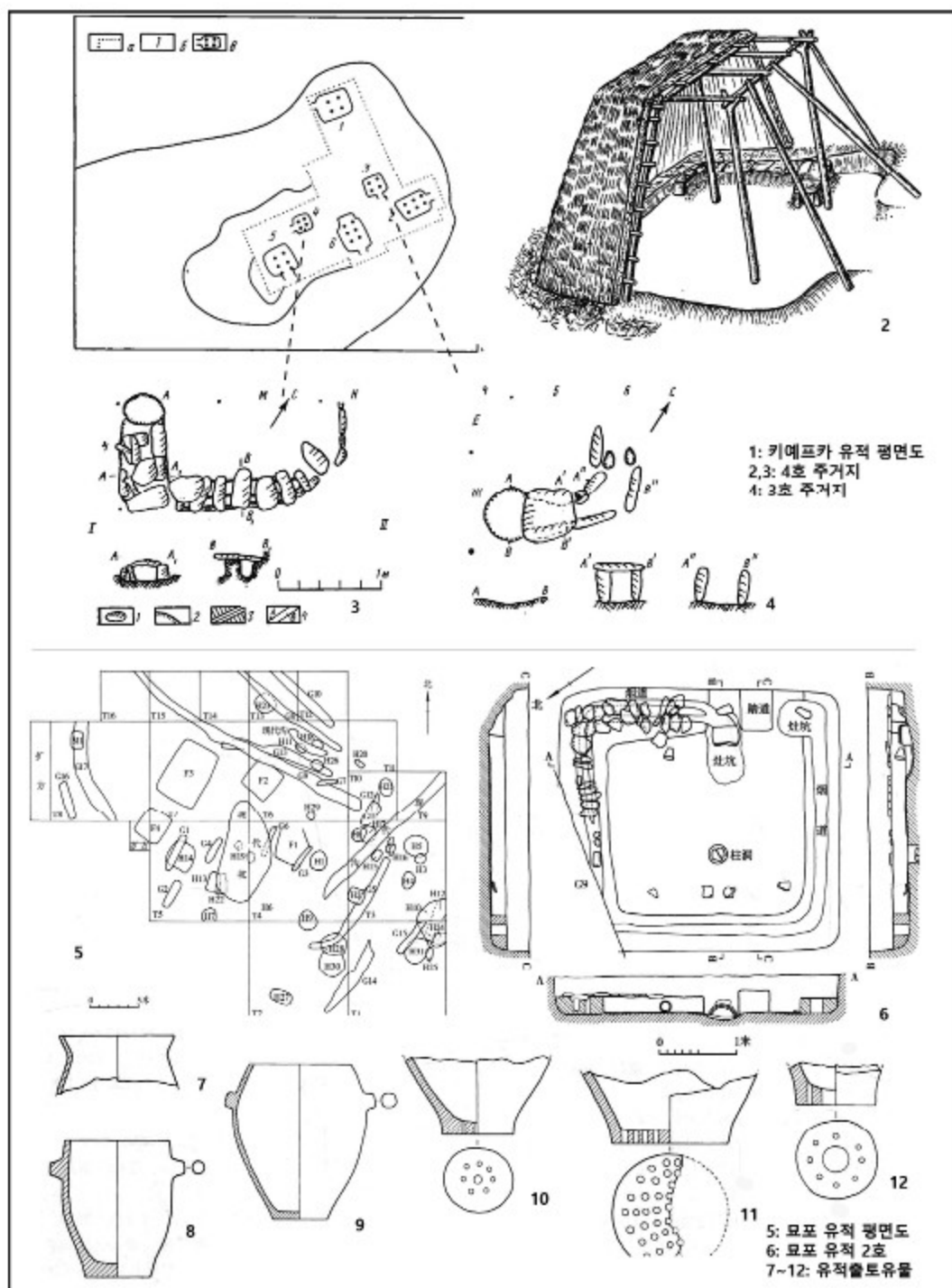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은 주로 라즈돌라냐 강(수분하)주변의 유적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필자가 분석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I기로 기원전 5세기부터 나타난다.

1) 쪽구들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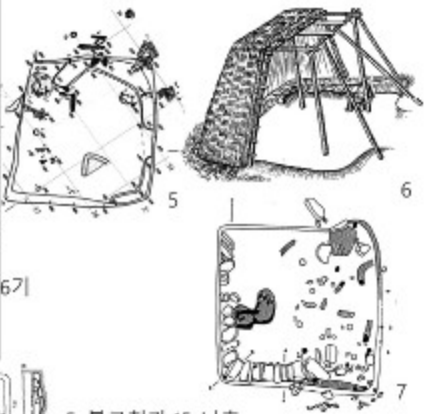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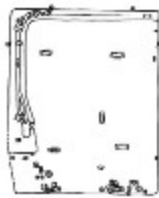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에서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를 시작으로 해서 폼체문화, 말갈, 발해, 여진시대까지 쪽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는 III기로 구분되었고, I기부터 쪽구들이 발견되었다. 기원전 5세기 I기(김재윤 2016)의 유적은 대성자 유적과 크로우노프카 유적 1호(1957년발굴)인데, 두 곳 모두 쪽구들이 보고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로우노프카 1유적의 1957년 발굴된 주거지는 서쪽벽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쪽구들도 반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오클라드니코프-테레비안코 1973). 쪽구들의 형태는 같은 유적의 9호를 참고로 할 때 -자보다는 꺾인 쪽구들의 형태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참고할 수 있는 도면이 없는 점이 아쉽다. 대성자 유적에서도 쪽구들이 보고되었지만 참고할 수 있는 도면은 없다. 하지만 T자형으로 석재로 된 쪽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黑龍江省博物館 1979, 송기호 2019의 표 5-1).

기원전 3세기 II기는 수분하 유역 뿐만 아니라 두만강 및 연해주 바다로 유적이 확산되는 현



<그림 4> 키에프카 유적과 묘포유적

	라즈돌라냐 강(수분하)	두만강	해안
I 기	대성자 1호 : ㄱ자형? 크로우노프카 1 유적 1호(57년발굴): ㄱ자형, ㄷ자형?		
II 기	 <p>1: 단결 하층 1기(9호) 2: 코르사코프스코예 2 유적</p> <p>크로우노프카 1 유적 68년 발굴 대성자 2호</p>	 <p>4: 묘포 2호</p> <p>범의구석 5,6기 입송정 초도 4기</p>	 <p>5: 블로치카 15-나호 6: 키예프카 4호 7: 페트로바 섬</p> <p>키예프카 1호, 2호</p>
III 기	 <p>8: 단결하층 2기(1호)</p>		 <p>9: 올레니 A 유적</p>

〈그림 5〉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 변화

단결하층의 9호 주거지와 같이 ㄷ자형 고래는 코르사코프스코예-2 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아궁이를 석판으로 덮지는 않았다. ㄱ자형 쪽구들은 라즈돌라냐(수분하) 유역 뿐만 아니라 두만강 유역 및 해안가와 가까운 곳에서도 발견된다. 묘포 유적, 블로치카와 키예프카 유적, 페트로프카 섬 유적이 대표적이다.

크로우노프카 1유적의 1호(57년), 키예프카 유적의 3호, 4호, 페트로바 섬의 2호와 3호는 석재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키예프카 유적에서 발견된 쪽구들의 고래는 수혈의 주거지 바닥 바닥에 납작한 돌판을 점토로 붙여서 제작한 것이다. 아궁이, 고래가 발견되었고 지붕으로 통하는 굴뚝 시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기가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 4기의 주거지에서 쪽구들 시설이 발굴되었다. 쪽구들은 모두 3가지 형태가 확인되었는데, 1호에는 一자형⁶⁾이 설치, 3호

는 ㄱ자형<그림 4>, 4호는 ㄷ자형이다<그림>(보스트레초프 1985). 유적을 발굴한 보스트레초프는 기술적인 이유로 1호와 2호가 조금 더 빠른 쪽구들이라고 생각했다(보스트레초프 1985). 그러나 같은 유적에서 기(期)가 달라질 정도로 시간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5호와 6호 주거지는 큰데 이 곳에서는 쪽구들이 설치되지 않았다<그림 4-1>.

주거지 면적이 작은 집에서 쪽구들이 확인되는 현상은 두만강과 가까운 묘포 유적에서도 발견된다. 1호 주거지보다 작은 2호에서만 ㄱ자형 쪽구들이 설치되었다<그림 4-5>.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편년(김재운 2007, 2016)에서 누락되었는데, 토기 특징 가운데 내만하는 구연부의 파수가 부착된 발형토기와 범의 구석에서 출토된 시루와 비슷한 점 등은 대체로 II기에 해당된다. 블로치카 유적에서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뿐만 아니라 폴체문화의 쪽구들(유은식 2015)도 잘 남아 있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은 1호와 15-나호인데<그림 5-5>, 도면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ㄱ자로 된 석재 쪽구들이다.

III기의 유적으로는 단결하층 2기인 1호 주거지와 올레니 A유적 등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쪽구들 양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브로단스키 1974). 그래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쪽구들의 모습은 I기부터 있었던 ㄱ자형이다.

두만강 유역의 일송정, 안전 유적은 오래전에 발굴되고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林沅, 1985) 묘포 유적으로 보아서 이 지역의 주거지에도 쪽구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은 크로우노프카 I유적 9호(1968년 발굴)와 코르사코프스코예-2유적의 2호, 키예프카 유적을 제외하고는 (장)방형 주거지 내에 ㄱ자형, ㄷ자형, ㄱ자형 이 설치되었다. 아궁이는 석판으로 고래는 점토로 한 것이 많다. 단결 유적에서는 하층인 9호 주거지와 상층인 1호 주거지에서 재료에 변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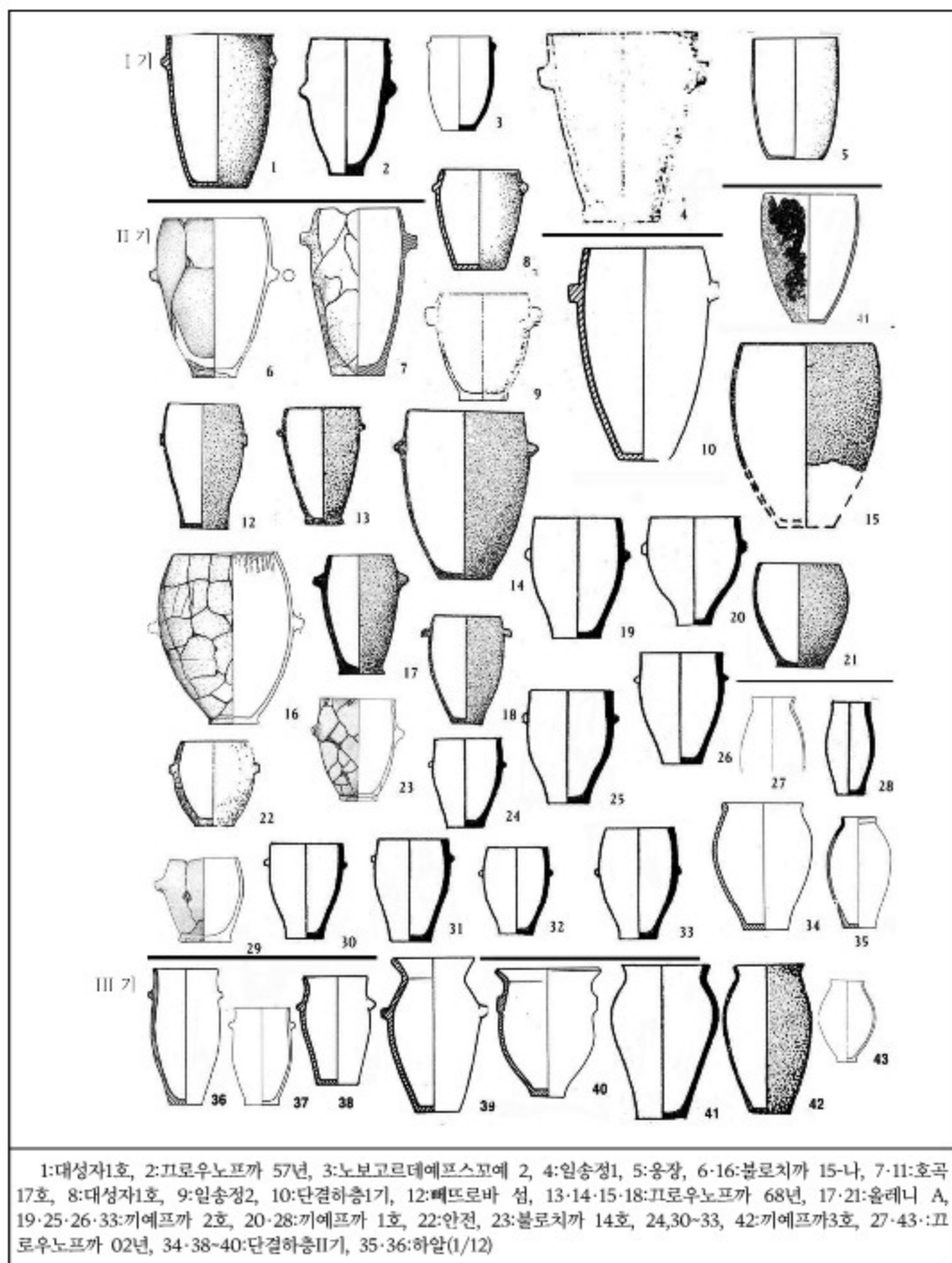
필자에 앞서서 동북아시아 쪽구들을 고찰한 유은식(2015)이 지적한 대로 연해주에서 평면형태, 축조재료, 단면형태 등은 일정하게 변한다는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I기로 편년된 두 유적의 쪽구들은 최소 꺾인 형태(ㄱ자형)일 수 있다. II기에서는 ㄱ자형, ㄷ자형, ㄱ자형 등 대부분의 형태가 다 존재하며 점토, 석재로 된 것이 존재한다. 다만 묘포 유적의 2호 ㄱ자형 쪽구들<그림 5-4>은 2호 주거지는 ㄷ자형이나, ㄱ자형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유은식 2015).

단결 크로우노프카 문화에는 쪽구들의 기원지인 만큼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축조된 재료도 석재뿐만 아니라 점토로 만든 것도 존재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재료이다.

2) 출토유물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 유적에서는 파수부가 부착된 발형토기, 시루,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문화의 I기에 해당하는 유적 가운데 쪽구들이 있는 주거지(크로우노프카-1유적의 57년 발굴)에서는 파수가 부착된 발형토기와 외반구연호가 출토되었다.

6) 1985년에는 키예프카 유적의 1호와 2호에서 일자형 쪽구들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1990년 논고에는 2호가 누락되어 있어서, 필자가 질문한 결과, 2호에는 쪽구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림 6>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파수부토기 변화(김재운 2007제인용)



<그림 7>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유물

특히 파수가 붙은 발형토기<그림 1-8>는 대성자 유물<6-1>과 비슷하다. 또 키예프카 유적 1호 고베<그림 7-13>, 파수부 발형토기<그림 7-10>, 외반구연호<그림 7-9>는 단결 유적 하층

출토품<그림 7-1~6>과 거의 유사하다.

파수가 부착된 발형토기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데, 1기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III기까지 변화가 생긴다. 동체부가 역사다리꼴 모양이 가장 이르고, 구연이 내만하고 동체부가 둥글어지며 파수가 부착된 지점에 동최대경이 생기는 기형으로 변화된다. 구연부가 외반하면서 둥근동체는 장타원형으로 변하면서 구연부가 외반하는 특징이 있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편년<그림 6>을 했다(김재운 2007, 2016).

시루는 이 지역에서는 처음 보이는 기형이다. 파수가 달린 발형토기의 바닥에 구멍이 하나 있는 대성자 1호로부터 단결 유적 하층의 2기에서 출토되는 다공시루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배는 이 지역의 안콥스키 문화에서 먼저 보이고,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전 시기에 발견된다. 안콥스키 문화의 고배처럼 다리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변화된다(김재운 2007).

그래서 쪽구들 주거지 뿐만 아니라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토기는 파수부 발형토기나 고배형 토기는 이 지역의 전통 유물로 인식된다.

토기 외에 페트로바 섬에서는 청동을 제작하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도가니, 슬래그 등이 보고되었으나(브로단스키 1987), 참고할 수 있는 도면은 알려지지 않았다.

2. 자바이칼의 흉노 유적

1) 쪽구들 주거지

흉노의 성지는 모두 20여 개 정도 발견되었고 몽골, 자바이칼, 중국 내몽골자치구와 산서성에 분포하고 있다. 흉노 유적에서 궁성으로 여겨지는 헤를렌강의 성터에서는 쪽구들은 발견되지 않고, 생활유적에서만 이불가, 듀로니, 버러 등 성터에서 확인되었다(에렉젠, 양시은 2017).

이불가 유적에서는 51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 43기에 쪽구들의 시설이 남아 있었다. 듀로니 유적에서는 조사된 6기의 주거지 내에 쪽구들이 발견되었다. 버러 유적에서는 6기의 조사된 주거지 가운데 파손되지 않은 20호와 33호 주거지에서 쪽구들이 남아 있었다<표 4>.

<표 4> 자바이칼 흉노 유적의 쪽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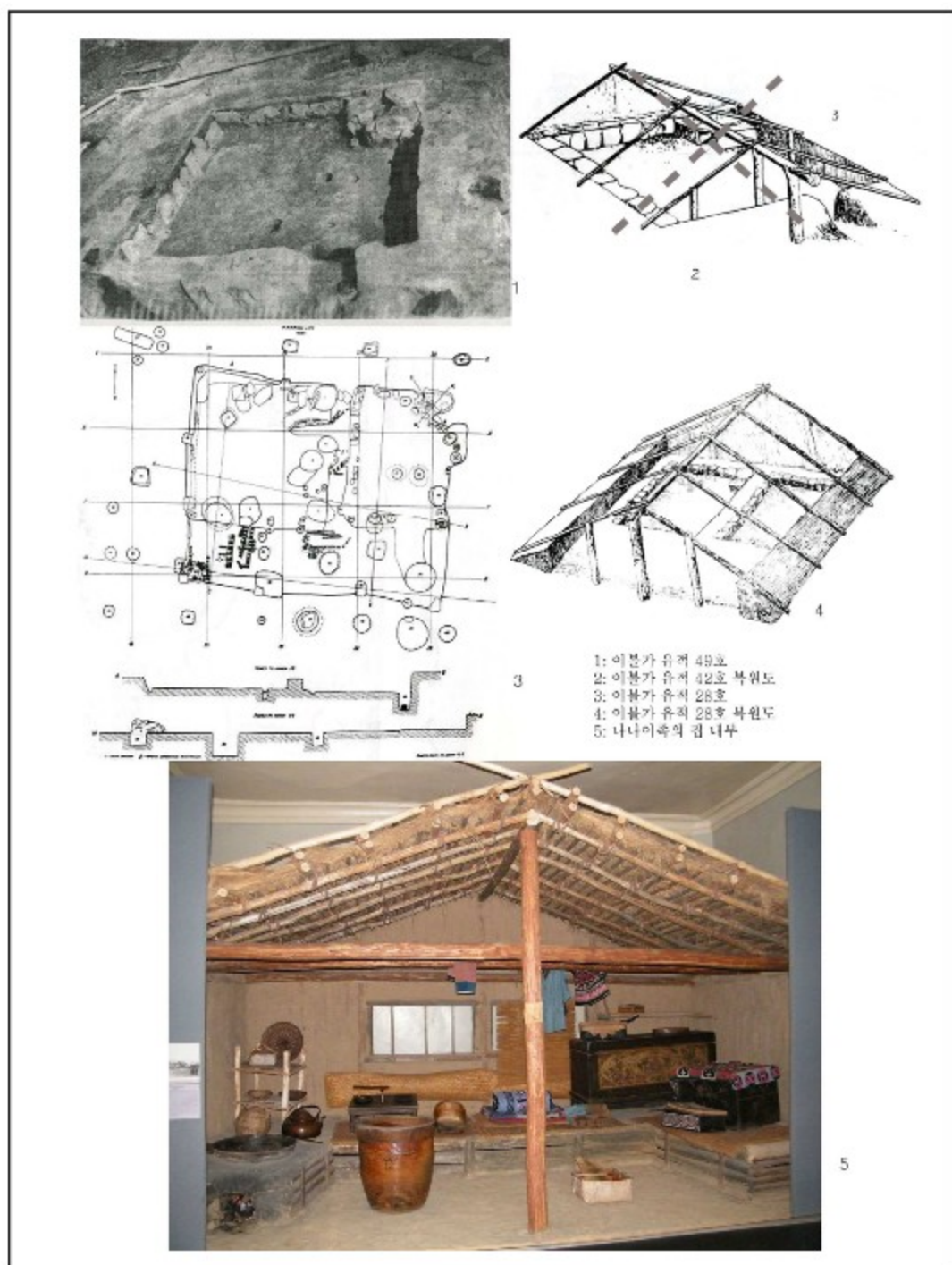
유적	호수	평면형태	평면적	쪽구들					
				아궁이	위치	평면형태	축조재료	고래수	
듀로니	1호	(장방형)	(1.8×2.4)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다비도바, 미나예프 2003
	2호	(장방형)	(1.35×6.3)		(북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3호	장방형	5.5×4.9		북벽, 동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4호	장방형	4.2×4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	1	
	5호	장방형	6.82×5.2	북동벽	북 →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유적	호수	평면형태	평면적	쪽구들					
				아궁이	위치	평면형태	축조재료	고래수	
	6호	?	?	북동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이불가	1호	장방형	4.5×3.8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다비도바 1995
	2호	장방형	4.9×2.6	?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3호	장방형	4.4×3.3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추정	일 자형	고래에 석재만 약간 남음	1	
	4호	장방형	4.8×3.2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5호	장방형	6×5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6호	?	×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7호	장방형	12.5×12.9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8호	장방형	6×4.5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9호	장방형	10×10.1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남벽	ㄷ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0호	방형	3.75×3.33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11호		×						
	12호		×						
	13호		×						
	14호	장방형/두 칸	7.6×4.2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15호	장방형	5×3.33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17호	장방형	4.7×4.1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18호	장방형	6.4×5.8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19호	(장)방형	4.8×4.6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20호	(장)방형	4.8×5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21호	(장)방형	4.4×5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22호	(장)방형	4.4×4.8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23호	장방형	4.7×3.7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24호	장방형	5.8×4.5	북동벽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25호	방형	2.7×2.7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26호	방형	1.9×(1.5)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27호	장방형	2.7×2.2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유적	호수	평면형태	평면적	쪽구들				
				아궁이	위치	평면형태	축조재료	고래수
이불가	28호	장방형/ 2칸집	3.1×2.5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29호	(장)방형	2.7×2.4	?	북벽과 서벽 흔적	ㄱ자형 흔적	흔적	1
	30호	장방형	6.7×5.2	?	북벽과 서벽 흔적	ㄱ자형 흔적	흔적	1
	31호	(장)방형	2.1×1.8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흔적	ㄱ자형 흔적	아궁: 석재 고래: 흔적	1
	32호	(장)방형	2.1×2.5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34호	장방형	3.2×2.7	?	북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35호	(장)방형	4.9×4.6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36호	장방형	2.6×2.2	남동벽 모서리	북벽과 동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37호	장방형	2.7×1.9	?				
	38호	장방형	2.7×2.2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39호	장방형	2.5×3.2	없음				
	40호	(장)방형	2.1×2.3	북서벽 모서리	남아있지 않음			
	41호	(장)방형	2.9×2.8	북동벽 모서리	동벽만 남아 있음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42호	장방형	2.53×2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43호	(장)방형	2.4×2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44호	(장)방형	1.5×1.7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45호	장방형	1.6×2.3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46호	장방형	3.1×2.6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47호	장방형	3.5×3.1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48호	장방형	2.9×2.1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49호	(장)방형	2.65×2.5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
50호	?							
51호	방형			?	?	?	?	

이불가 유적과 듀로니 유적은 기원전 2~기원전 1세기로 추정하는데(다비도바 1995, 크라닌 2011), 버러 유적에는 절대연대 측정치가 존재하는데, 이와 부합한다(Nicole Pousaz 외 2013). 중국에서도 이불가 유적의 연대를 이에 따르고 있다(송기호 2019⁷⁾).

7) 潘玲, 2007, 『伊沃爾加城地和墓地及相關匈奴考古問題研究』, 科學出版社, 송기호 2019에서 인용



<그림 8> 흉노의 복원된 쪽구들과 현존 나나이족의 쪽구들

이들 유적에서 발견된 주거지는 대부분 장방형 혹은 방형 평면형태에 아궁이는 북동쪽 모서리에 설치되었고 북벽과 서벽으로 진행되는 ㄱ자형 고래모양이다. 아궁이와 고래 모두 납작한 돌판으로 제작된 것이다.

특히 이불가 유적에서는 조사된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쪽구들이 발견되었다. 이불가와 듀로니를 조사한 다비도바와 미냐에프는 두 유적의 취락 유형주거지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았고(다비도바 1995, 버러 유적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에렉젠, 양시은 2017).

이불가 유적의 집을 지붕의 끝이 지면에 닿는 형식<그림 8-2,4>으로 복원되었다. 하지만 주거지의 외곽에 기둥구멍이 있는 42호<그림 8-3>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49호<그림 8-1>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주거지의 형태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쪽구들을 사용하는 현존하는 여러 민족<그림 8-5>들을 참고로 할 때 벽기둥을 높이 올려서 지붕을 높인 집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바이칼 유역의 쪽구들은 바닥을 데운 것으로 벽을 데우는 화장과는 다르다.

이불가 성지와 복합유적인 무덤을 분석해서 4-5개의 지위를 가진 집단이 성내에 거주했다.(Kradin, Danilov, Kononov 2004). 발굴된 이불가 성지의 주거지 중에서 9호<그림 9>는 100평방미터 이상으로<표 4>, 다른 집들과 월등하게 차이가 커서 일반적인 집이 아닌 행정관청으로 보인다(크라딘 2011). 흉노사람들 중에도 농경을 하는 집단이 있으며, 유목민보다는 낮은 지위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크라딘 2011) 이불가 유적 내의 쪽구들은 유목집단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불가를 발굴한 다비도바는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유적의 주류세력이라고 생각했으나(1985), 이 유적의 성격을 흉노인이라고 정정했으며(다비도바 1995), 대다수 몽골(에렉젠, 양시은 2017)과 러시아 연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크라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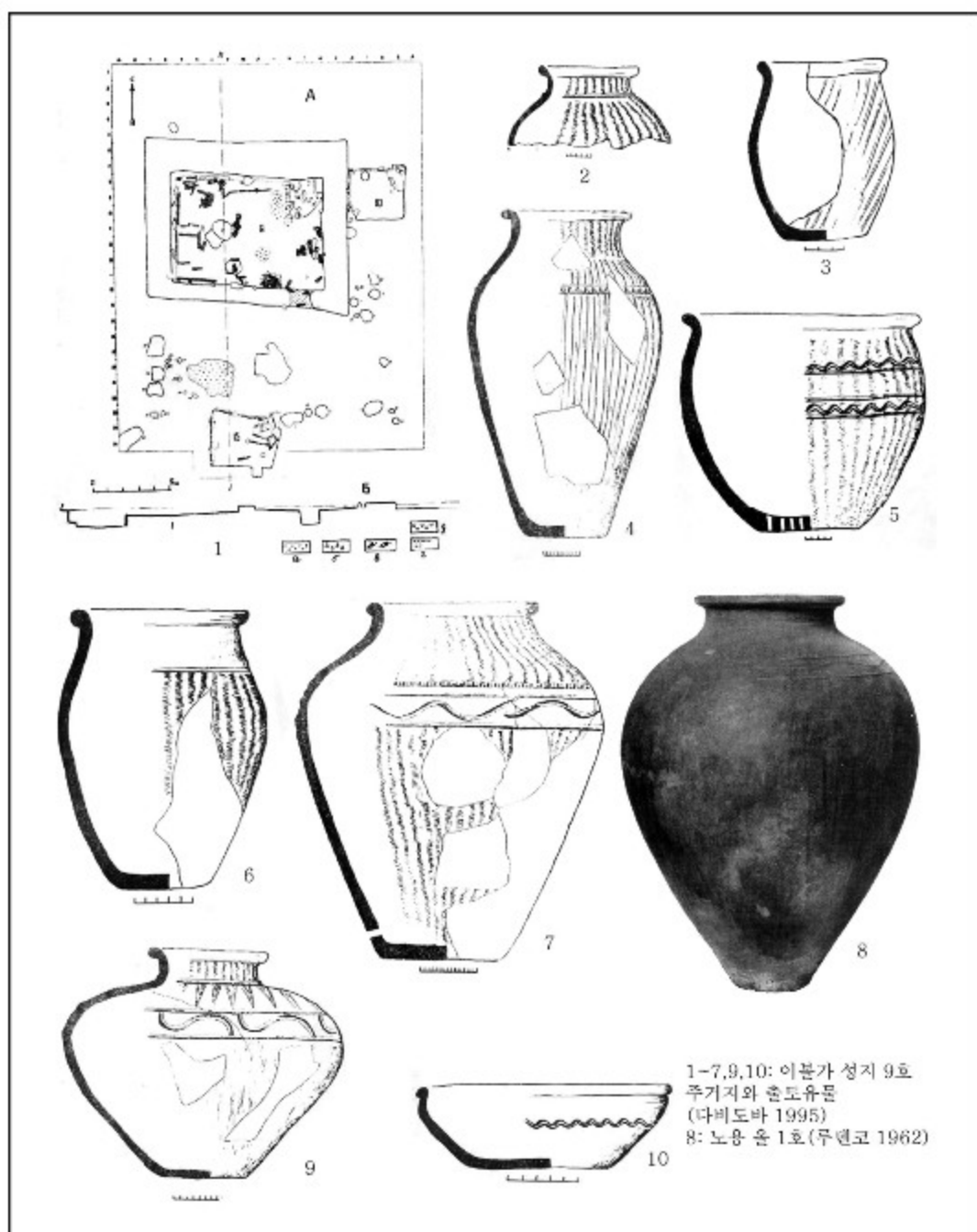
2) 유물

쪽구들이 확인된 이불가, 버러, 듀로니 유적은 같은 연대의 생활공간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거지가 발굴된 이불가 유적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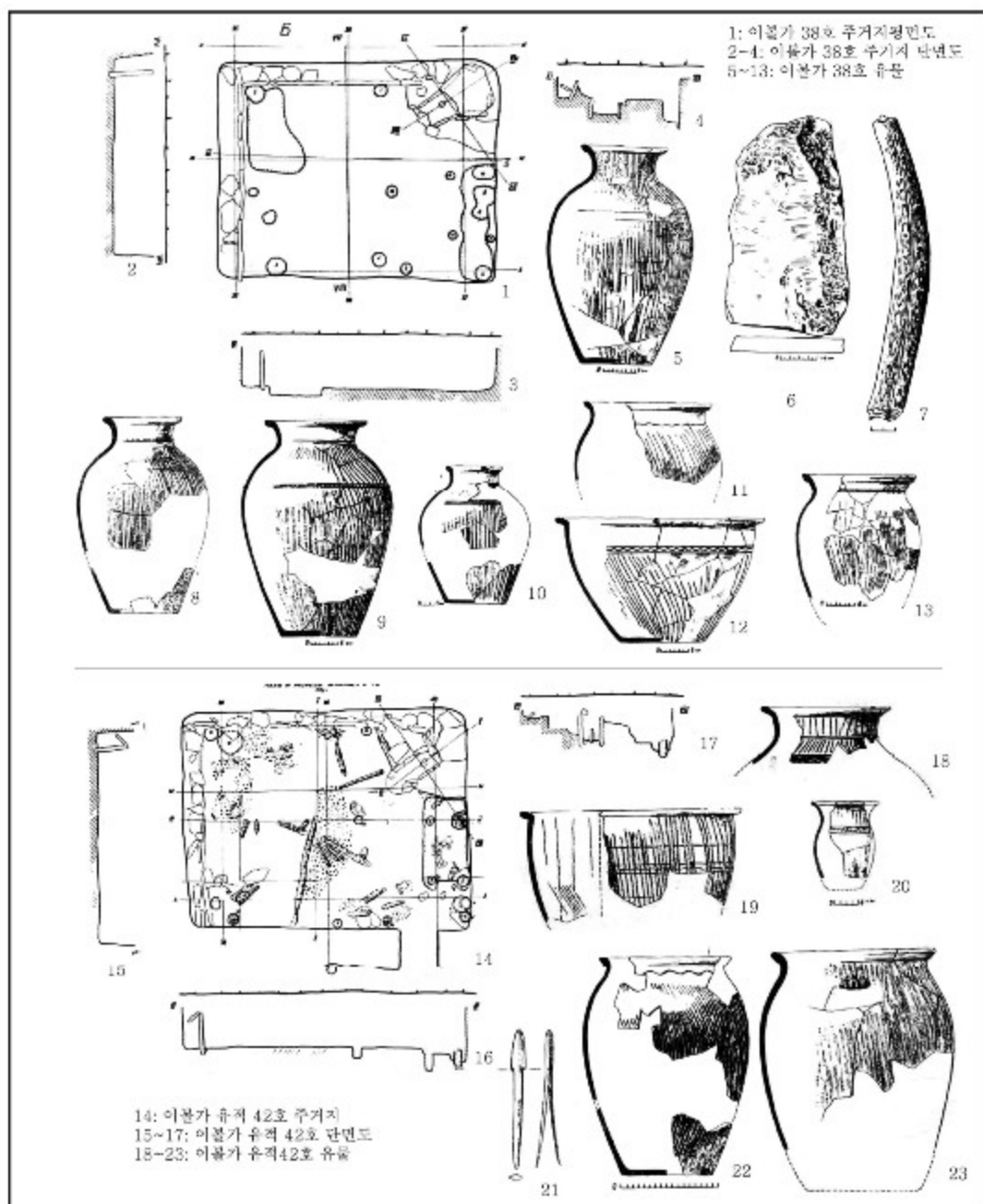
이불가 성지의 주거지에서는 토기, 각종 철제 생활도구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구연부가 넓은 웅형토기, 호형토기, 화분형토기와 시루 등이 있다. 호형토기는 소형과 대형이 있는데 동최대경과 기고에 따라서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유적에서 가장 큰 주거지인 9호에서는 높이가 78cm, 83cm가량의 대형 호형토기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세로 방향으로 음각을 하고 어깨 높이에 용기문을 부착한 토기이다<그림 9-4·6·7> 유적을 발굴한 다비도바는 토기 내부 바닥에 남아 있는 물질로 보아서 술을 위한 저장용기로 추정했다(다비도바 1995). 술 저장을 위한 대형 토기는 노용 울 1호<그림 9-8>에서도 출토되었는데, 토기의 기형, 시문방법 등이 유사하다. 도르지수렌은 노용 울 1호 출토품을 곡물저장용기로 보기도 했다(에렉젠 2007).

이 외에도 대형 무덤 타힐팅 흘거르 1호, 고모드 20호 등에서도 유사한 기형의 토기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덤에 부장된 대형 호형토기는 대형목곽묘와 연도 달린 방형무덤

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G. Eregzen, 2009).



<그림 9> 자바이칼 이불가 유적 9호 주거지와 토기 및 노용 울 1호의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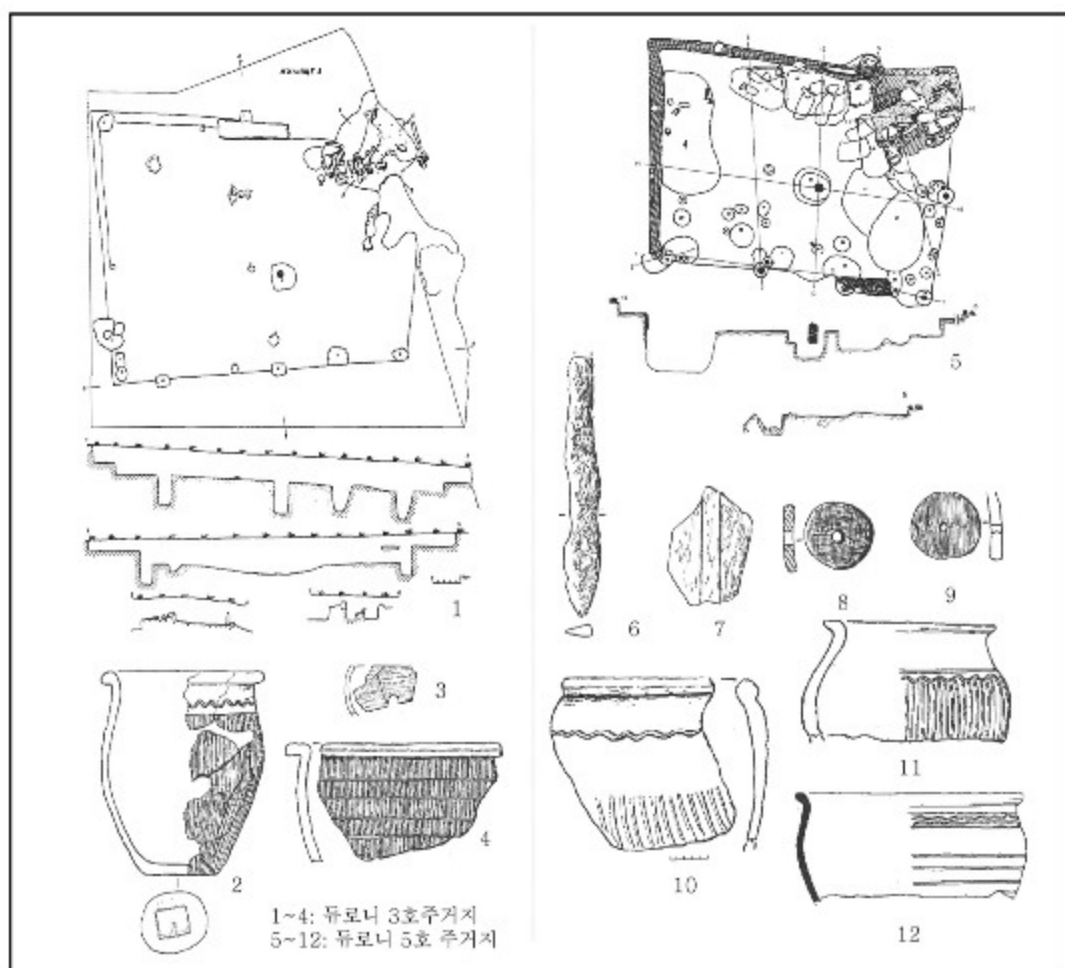
<그림 10> 이불가 유적 38호와 42호

홍노 토기에서 보이는 음문은 표면을 문질러 정면하면서 생기는데, 토기의 건부 위쪽에서 중방향 혹은 반원문의 음문을 그린다. 동체부와 저부에도 암문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문양은 홍

노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선비 등 북방민족의 토기에서만 확인되는 기법이라는 연구가 있다(양 시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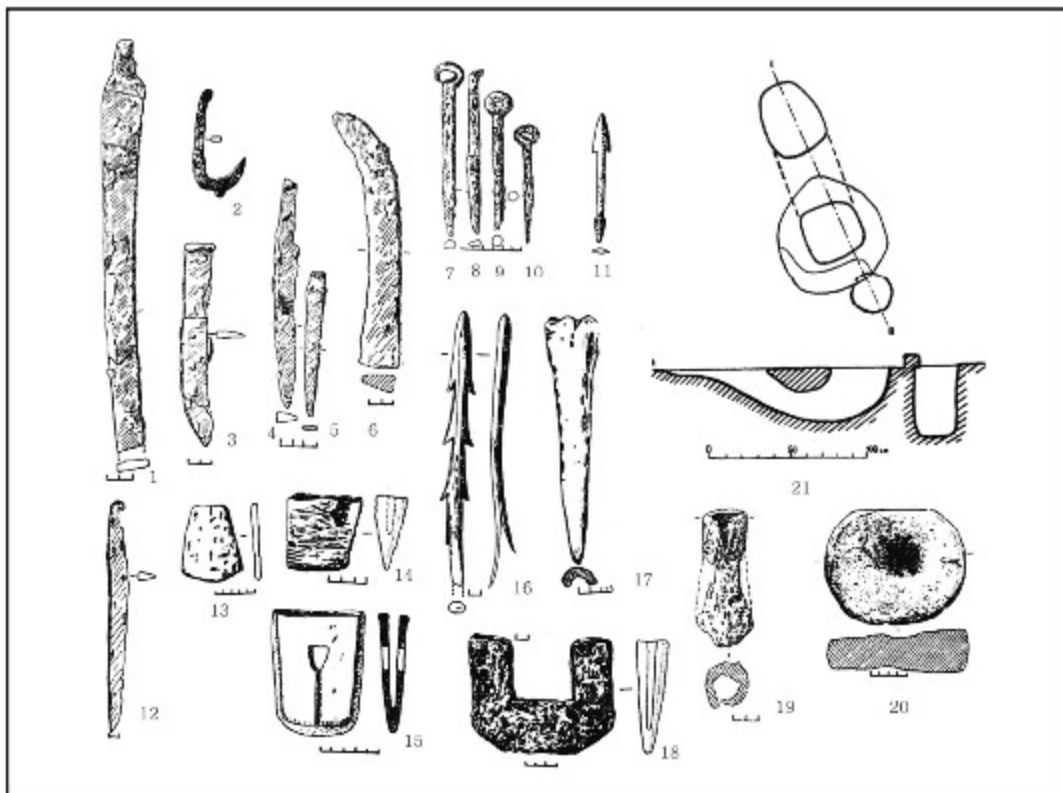
이불가와 듀로니 유적에서는 다공시루의 바닥도 출토되었다. 다공시루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및 서북한 지역의 대평리, 노남리 유적에서도 출토되어서 북방의 여러 지역에서 다공시루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것이 들어갔는지 특정하기 힘들다.

한편 이불가에서는 명문이 새겨진 토기도 발견되었는데, 정착-농경 기원의 이민자 혹은 중국인 포로에 의해서 이불가 성지 내에 남겨졌을 수 있다. 이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철제품은 도끼, 삽날, 보습 등이다(다비도바 1995).



<그림 11> 듀로니 유적 3호, 5호 주거지

이 외에도 유적에서는 칼, 검, 낫, 낫바늘, 마구, 숲 등 다양한 철제품<그림 12>이 출토되었고 제련로도 발견되었다. 출토된 철제 슬래그 분석을 통해서 단조제품이라는 것을 다비도바는 강조했다. 철 광산이 자바이칼 지역의 드질제, 코로트코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확인되어서 원료 획득에 매우 유리했다. 그래서 이볼가가 당시 자바이칼 지역의 철생산 담당을 했을 수 있다(다비도바 1995).



<그림 12> 이볼가 유적의 철기와 제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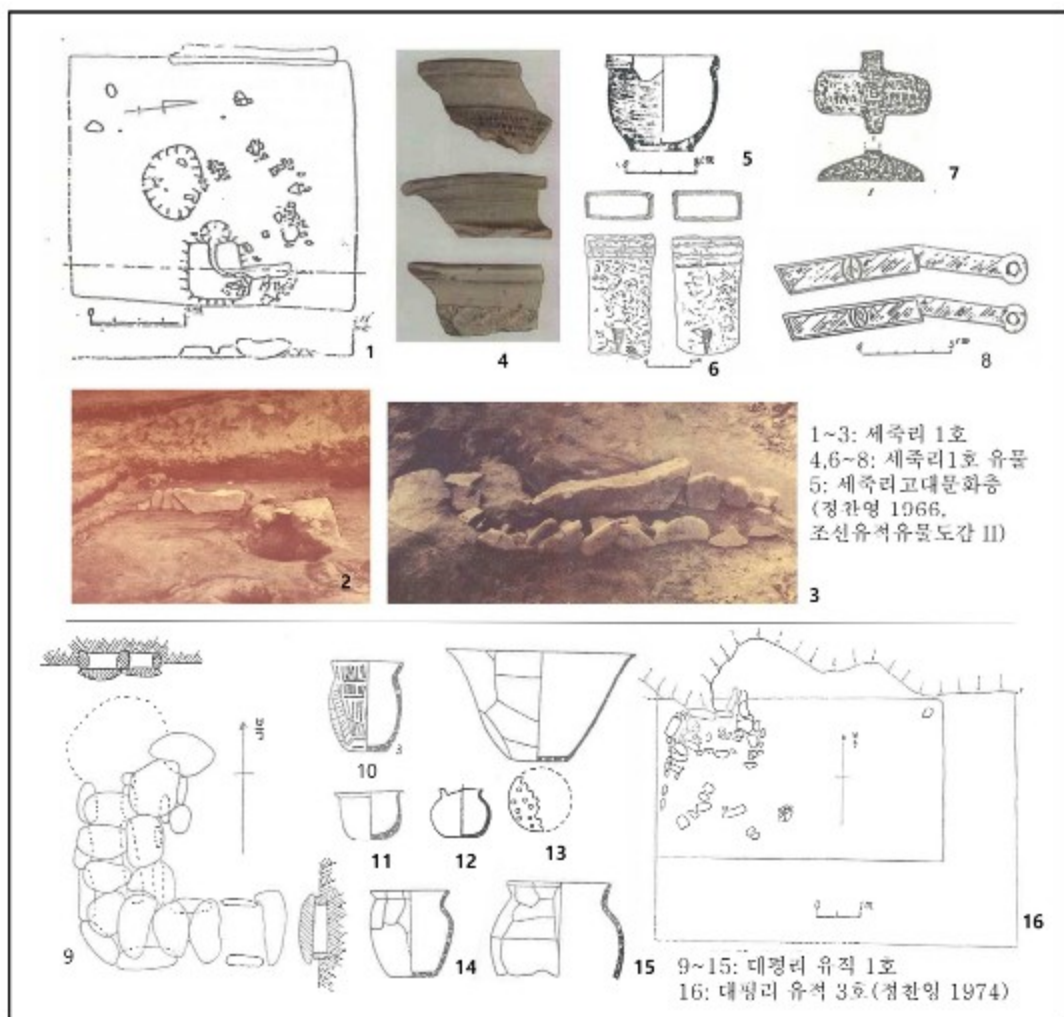
3. 북한 청천강 유역

1) 쪽구들 주거지

세죽리 유적과 대평리 유적에서 모두 쪽구들이 조사되었다. 세죽리 유적은 출토유물과 주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전반(사회과학연구소 1977, 이청규 2014, 이 후석 2014, 유은식 2015)으로 여겨진다. 세죽리-연하보 유형을 정리하면서 유적이 모두 8개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 세죽리 유적이 이 유형의 대표주거지라고 했다(사회과학연구소 1977). 하

지만 북창 대평리 유적 보고에서는 세죽리 유적과 같이 비교되며, 기원전 2세기로 보고되어서 같은 유형이다(정찬영 1974, 송기호 2006, 유은식 2015),

세죽리 유적에서 쪽구들의 양상을 알 수 있는 1호 주거지<그림 13-1-3>에서는 7자형으로 아궁이는 점토, 고래는 석재로 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 내부에서는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대평리 유적에서는 3개의 문화층이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 아래층과 가운데층에서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아래층 2호 주거지<그림 13-9>는 납작한 강돌로 만든 7자형 쪽구들이 설치되었는데, 고래는 한 줄이다가 북벽으로 꺾이면서 2줄로 변했다. 가운데층의 3호 주거지는 완전한 모습이 남아 있지 않지만, 매우 넓은 쪽구들 및 굴뚝 시설도 남아 있다(정찬영 1974, 표 5).



<그림 13> 청천강 유역의 세죽리-연화보 유형

세죽리 유적에서는 아궁이와 고래 모두 석재를 사용하고, 대평리에서 아궁이는 점토로, 고래는 석재로 만드는 변화양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평리 유적 아래층에서는 부분적으로 2줄 고래가 등장하고, 가운데층 주거지에서는 넓은 고래가 만들어지는데, 기원전 3~2세기경의 다른 지역 쪽구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발전된 형태이다.

노남리 유형의 쪽구들은 세죽리 유형에 비해서 대형의 집 안에 설치되기 시작한다는 점이 앞 시기와는 다르다.

<표 5> 청천강 유역 세죽리-연화보 유형

유적	호수	평면형태	평면적	쪽구들					참고문헌	
				위치		평면형태	축조재료	고래수		
세죽리	1호	장방형	5.8×5		동벽	ㄱ자형	아궁: 점토, 고래: 석재		정찬영 1966	
대평리	아래층 2호	장방형	5×3.5	북서벽 모서리	서벽과 남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2	정찬영 1974	
	아래층 6호	?								
	아래층 7호	파괴심함								
	아래층 8호	장방형		쪽구들 흔적				?		
	아래층 9호			쪽구들 흔적			아궁: 석재, 고래: 석재			
	가운데층 1호	장방형		흔적						
	가운데층 3호	장방형	6.5×3.6	북동벽 모서리	북벽과 서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가운데층 4호	?								
가운데층 5호	?									

2) 유물

청천강 유역의 세죽리 유적은 쪽구들 연구 보다는 주로 유물 중심으로 그 문화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죽리 유적의 보고서가 출판된 이후(1964), 세죽리-연화보 유형은 기원전 3~2세기에 철기가 널리 사용된 고조선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유형의 범위와 무덤과 집자리, 유물의 특징이 정리되었다(조선고고학개요 1977). 세죽리와 연화보 유적에서는 유사한 토기가 출토되는데 타날문 회도편, 두형토기, 흑색마연토기, 부형토기 및 시루 등이다. 철기는 돌대가 2조 돌아가는 철부, 반월형철도, 세형동검과 명도전과 반량전 등이 특징이다.

세죽리-연화보 유형을 중국계통으로 보기도 하지만(서영수 1988, 윤무병 1980, 송호정 2003), 독자적인 고조선의 문화로 보는 연구자들도 다수이다. 토기(정인성 2014), 철기(김상민 2018), 화폐 연구(최몽룡 1988, 박선미 2009, 강인욱 2011), 석제형 검파두식과 세형동검 연구(이후석 2014, 2022)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⁸⁾.

세죽리-연화보 유형에서는 연식부형토기 외에도 요동식 부형토기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점

8) 이 외에도 세죽리-연화보 유형의 단계별 물질문화 변화는 이창규(2014)가 자세하게 정리했다.

토대토기, 회도가 후기 고조선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정인성 2014). 사용된 철기가 연나라 기반이지만, 요서에서는 고성지(취락)에서 요동에서는 무덤과 취락에서도 출토되는 양상이 다르다. 특히 요동에서는 재지계통과 함께 출토되어 혼재된 상태로 확인된다. 또 기원전 2세기에는 연나라 철기도 사용되지만 이 유형에서 돌대가 2줄 돌아가는 철부와 철검의 재활용하는 것은 연나라와는 다른 계통이라고 한다(김상민 2018). 명도전은 오래전부터 고조선 무역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최봉룡 1988), 천산산맥 이동에서 발견되는 명도전은 모두 토착문화의 유적이고(박선미 2009), 그 대상이 모피교역이라고 제시되기도 했다(강인욱 2011).

청천강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던 세죽리-연화보 유형과 세형동검 문화는 북한 및 요동동부의 상보촌 유형과 요동남부의 윤가촌 유형으로 재정리되었다. 세죽리 유적은 청천강 유역의 세형동검과 검파두식으로 보아서 비파형 동검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상보촌 유형의 기원전 3세기 경(중엽이후) 네트워크에 들어가며, 쌍조형동검으로 보아서 기원전 2세기 위만조선의 영역으로 재편된다(이후석 2022).

4. 우리나라 북한강 유역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쪽구들은 철기시대(원삼국시대)부터 백제한성기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지만 쪽구들 확산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쪽구들이 등장하는 시점의 유적이 대상<표 6>이다. 가평 대성리 유적, 홍천 철정리 II지구, 울문리 유적에서 가장 이른 쪽구들이 발견되고 기원후 2세기이다(유은식 2015). 또한 비슷한 시기의 거례리와 고대리 유적에서도 쪽구들이 발견되었다(박경신 2018).

이들 유적에서는 ‘ㄱ’자형 쪽구들이 설치되었고 출입구의 반대벽인 후벽에 배치되다가 측벽으로 쪽구들의 위치가 시간상 변하는데, 시간상 변화로 볼 것인지 계통의 문제로 다를 것인지는 연구자 마다 차이가 있다(송만영 2018의 표 1). 대체로 후벽 ‘ㄱ’자형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를 기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측벽부 ㄱ자형은 후벽 ㄱ자형의 변화된 모습(송만영 2015, 이병훈 2016)으로 보인다.

중부지방 쪽구들은 이 지역 원삼국시대인 처음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며 부석식노지와 무시 설식 노지가 사용되다가 2세기 이후부터 쪽구들이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유은식 2015, 박경신 2018).

<표 6> 2세기 북한강 유역의 쪽구들 유적

유적	호수	주거지		쪽구들			
		평면형태	평면적(m)	아궁위	위치	평면형태	축조재료
울문리	1호	철자형	5.6×4.3	동벽중앙	북벽과 동벽	ㄱ자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대성리	원9호	장방형	3.26×2.6	북동벽모서리	북벽만	ㄱ자형 추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원22호	장방형	3.5×3.1	남동벽 모서리	동벽과 북벽	ㄱ자형으로 추정	아궁: 석재, 고래: 석재
	원30호	장방형	3.84×3.24	?	북벽만 일부	ㄱ자형으로 추정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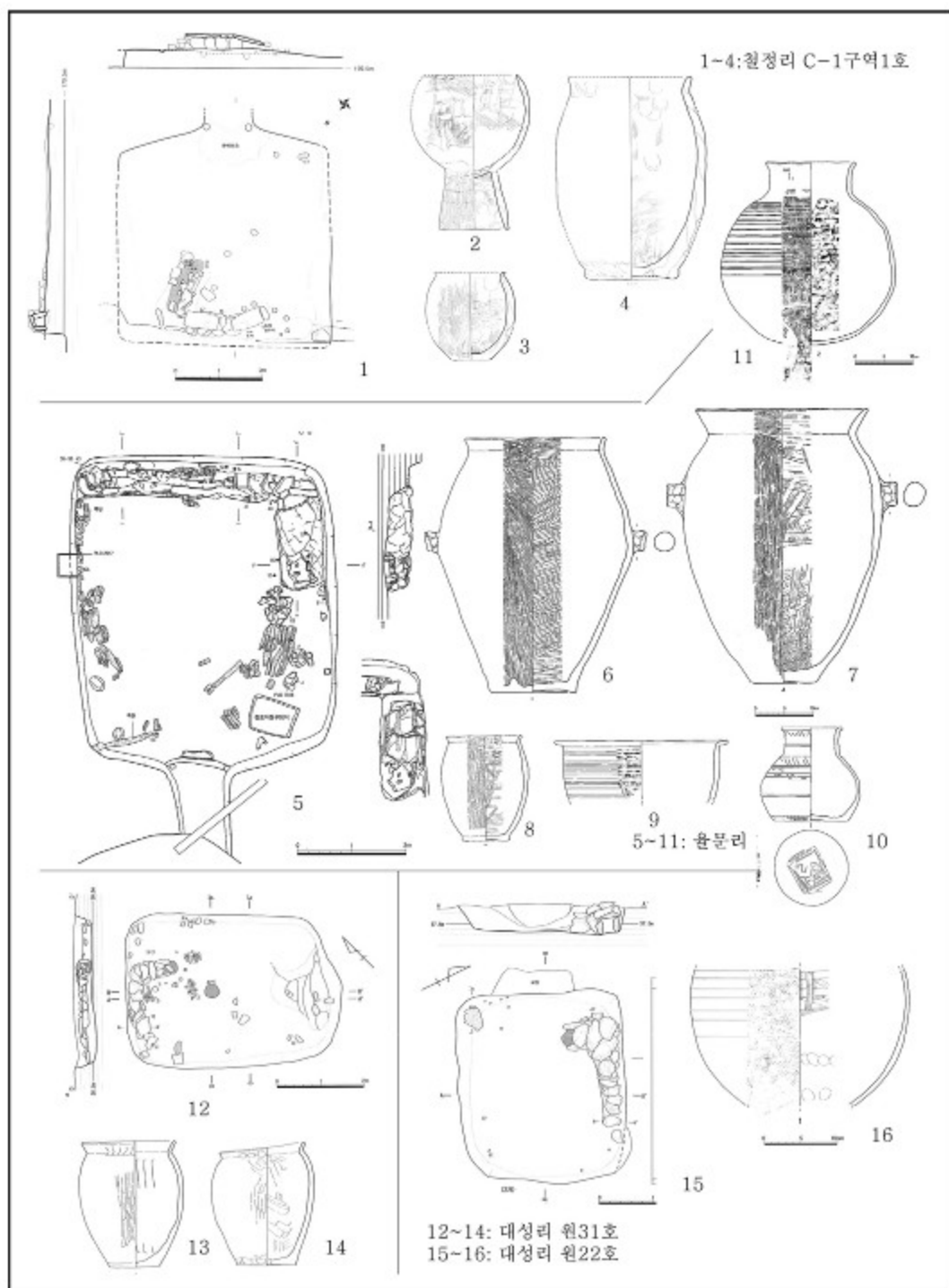
유적	호수	주거지		쪽구들			
		평면형태	평면적(m)	아궁위	위치	평면형태	축조재료
	원31호	장방형	3.26×2.8	서벽 부근에서 시작.	서벽과 서벽 중앙에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철정리	II지구C-1호	철자형	5.3×4.9	북서벽 부근	북서벽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거례리	11호	장방형	11.53×8.43	동벽부근	동벽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8호	(장)방형	6.67×5.71	동벽부근	북벽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3호	(장)방형	5.23×4.33	동벽부근	동벽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0호	(장)방형	4.97×4.05	동벽부근	동벽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고대리	1호	철자형	5.84×4.04	동벽	동벽과 북벽	ㄱ자형 외줄구들	잔존하지 않음
	4호	철자형	5.7×4.19	동벽	동벽과 북벽	ㄱ자형 외줄구들	잔존하지 않음
	6호	철자형	7.3×5.64	동벽부근	동벽과 북벽	ㄱ자형 외줄구들	잔존하지 않음
	9호	방형	4.79×4.78	동벽	동벽과 북벽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0호	방형	4.97×4.26	동벽	동벽과 북벽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1호	방형	5.17×5.06	동벽	동벽과 북벽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12호	(방형)	4.32×4.20	동벽	동벽과 북벽	ㄱ자형 외줄구들	아궁: 석재, 고래: 석재

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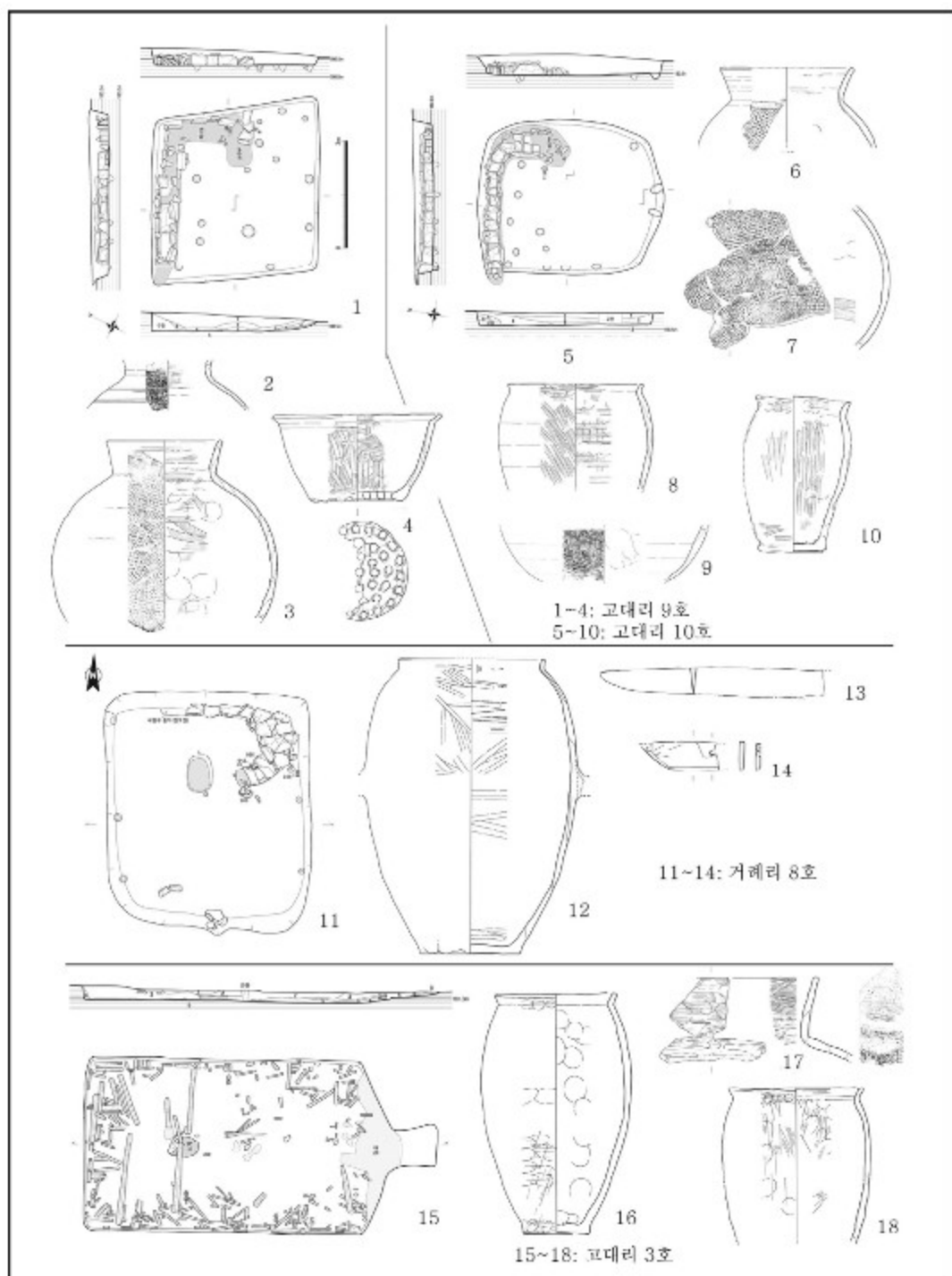
고대리 유적에서는 쪽구들이 발견된 모든 유적에서 중도식 무문토기, 타날문토기가 확인되며, 10호 유적에서 이 외에도 낙랑계 토기인 분형토기가 출토된다. 거례리 유적에서도 중도식 무문토기, 타날문, 낙랑계 평저장경호 3호와 10호에서가 출토된다<표 7>.

<표 7> 2세기 북한강 유역 쪽구들 출토유물

유적	호수	평면형태	중도식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낙랑계토기	
			외반구연	외반구연+파수	시루		분형토기	평저장경호
대성리	원9호	장방형	●					
	원22호	장방형	●			●		
	원30호	장방형	●					
	원31호	장방형	●					
철정리	C-1호	철자형	●					
울문리	1호	철자형		●	●		●	●
거례리	11호	장방형	●			●		
	8호	(장)방형		●				●
	3호	(장)방형	●			●		
	10호	(장)방형	●			●		●
고대리	1호	철자형	●			●		
	4호	철자형	●			●		
	6호	철자형	●			●		
	9호	방형	●		●	●		
	10호	방형	●			●	●	
	11호	방형	●			●		
	12호	(방형)				●		



<그림 14> 2세기 북한강 유역의 쪽구들 주거지와 출토유물



<그림 15> 2세기 북한강 유역의 쪽구들 주거지와 쪽구들 없는 주거지

그 중에서 8호에는 율문리와 유사한 파수가 달린 외반구연호가 출토된다. 율문리 1호 주거지에서는 파수가 달린 외반구연호와 타날문토기, 낙랑계통의 분형토기와 평저장경호 및 시루가 출토되었다. 특히 파수가 달린 외반구연호<그림 14-6·7>는 단결 유적의 유물과 매우 유사한 기형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심재연 2009).

중부지역의 쪽구들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외반구연호), 타날문토기,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닮은 외반구연호와 낙랑계 분형토기 등이 공반된다<표 7>. 중부지역 낙랑계 분형토기는 운북동에서 출토되는 유입품과 구분되는 모방품으로 재지에서 제작된 것이다(박경신 2018).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토기는 유입품과 모방품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중부지역 연구자들이 해결 할 것으로 생각한다.

쪽구들이 발견되는 유적에서도 같은 시기에 쪽구들이 설치된 주거지와 그렇지 않은 주거지 간의 유물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15>.

IV. 쪽구들 기원지와 유라시아 확산현상

1. 생성과 발달

현재 쪽구들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가장 이른 쪽구들이 발견되며 앞서 고찰한 지역에 비해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쪽구들과 축조재료 등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쪽구들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을까? 쪽구들은 벽가에 붙어서 설치되기 때문에 최소한 아궁이가 벽쪽에 붙는 시설이 발견된다면 쪽구들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오동 6호<그림 16-1>를 주목하고자 한다.

오동 유적에서는 8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고 그 중에서 8호→2호→4호→5호 순으로 층서를 이루며, 1호와 7호는 2호 주거지의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보고되었다. 필자는 오동유적의 청동기 문화를 연해주의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및 흥성문화와 비교한 바 있다(김재운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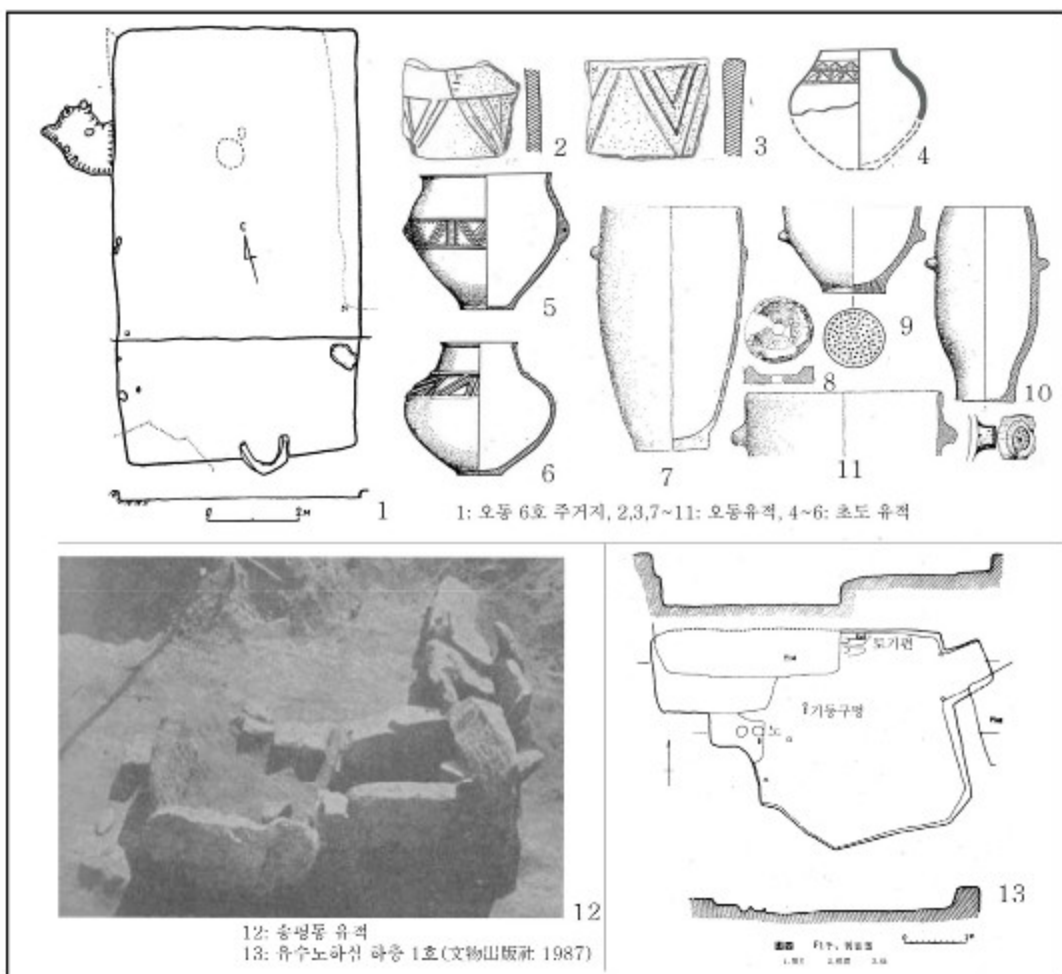
그런데 오동 6호 주거지에서는 쇠도끼가 출토된다 하고, 주거지 소속이 불분명하지만 유적에서 단결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토기도 출토되기 때문에 6호를 단순히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로 판단했다(김재운 2007). 하지만 이 유적에서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토기뿐만 아니라 이보다 이른 안콥스키 문화의 유물<그림 16-2,3>도 출토된다. 그렇다면 쇠도끼가 출토되는 6호 주거지는 두 문화 중 정확하게 어떤 문화인지 단정하기 힘들다.

출입구가 붙은 장방형 주거지의 동쪽 벽에 흙과 돌로 쌓아 올린 말밭굽 모양의 노지가 설치되었다. 노의 상부는 없어진 상태인데, 벽쪽에 붙은 부분의 높이는 100cm가량이고, 쌓아 올리기 시작한 쪽의 높이는 30~50cm 가량이다. 이와 같은 시설은 오동 뿐만 아니라 초도와 송평동 유적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고되었고,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 그 이전에는 없는 문화적 특징이라고 한다(과학원출판사 1950).

초도 유적에서도 안콥스키 문화의 토기와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토기가 발견된다(김재운 2016). 그렇다면 오동 6호 주거지의 정확한 문화는 불분명하지만,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안콥스키 문화가 모두 존재한 기원전 5세기 정도(김재운 2021 표7)의 주거지 일 수 있다.

오동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송평동 유적<그림 16-12>에서는 쪽구들이 보고되었다. 부뚜막에 고래가 붙어야 쪽구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지역에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이전 혹은 등장시기에 부뚜막 시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변화양상을 알 수 있는 유적의 발견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전통의 문화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단산문화기의 榆樹老河深 하층의 1호 주거지<그림 16-13>에 장방형의 노지가 확인되었다.



<그림 16> 두만강 유역과 요녕지역의 관련유적

주거지는 불완전한 상태인데, 서쪽벽에서 장방형으로 길이 88cm, 너비 80cm, 높이 30cm 가량의 노지가 설치된 것이 보고되었다(文物出版社 1987). 이를 동북지역에서 가장 이른 아궁이로 보고 있다(Onuki Shizuo, 1996¹⁰⁾). 하지만 주거지의 벽선이 불분명한데, 노지가 설치된 곳이 벽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부뚜막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 든다.

기원전 5기~3기로 보고 있는 I기의 쪽구들은 크로우노프카 유적 1957년도 발굴된 1호와 대성자 유적에서는 아궁이와 고래를 석판으로 덮었고 꺾인 형태(ㄱ자형 혹은 ㄷ자형)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전모를 알 수는 없다<그림 5>.

기원전 3~기원전 1세기의 II기 쪽구들 평면형태는 ㄱ자형, ㄷ자형, ㄹ자형 등 다양하다. 고래도 점토로 제작한 것 뿐만 아니라 석판으로 덮은 것도 페트로바 섬 유적과 키예프카 3호 주거지에서 발견된다. ㄷ자형 쪽구들은 단결하층 1기의 F9호와 키예프카 4호, 코르사코프스코예-2 유적이다. ㄹ자형은 ㄷ자형이나 ㄱ자형에서 발전될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5>.

III기의 쪽구들은 단결하층 2기인 F1호와 올레니 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올레니 유적의 쪽구들은 잘 알 수 없고, 단결하층 2기는 ㄱ자형 쪽구들로 점토로 제작된 것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키예프카 유적에서는 고래의 축조 재료를 달리 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현존하는 나나이족도 쪽구들을 사용하는데, 그 위를 나무판으로 덮어서 사용하고 있다<그림 8-5>. 이를 참고로 한다면, 이 단계에서 축조재료는 큰 의미가 없다.

연해주에서 평면형태, 축조재료, 단면형태 등은 일정하게 변한다는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열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래방향과 아궁이의 위치가 직교하게 만든 것(유은식 2015)이 여진시대까지 지속되며(아르테미예바 1998), 그 이후의 북방민족들도 사용하고 있다. 후대로 갈수록 여러 줄의 고래가 설치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는 점 등은 앞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기원지인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를 제외하고는 청천강 유역, 자바이칼 지역에서는 쪽구들 평면형태가 ㄱ자형으로 유사하다.

2. 쪽구들 유라시아 확산현상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를 제외하고는 기원전 3세기에 우리나라 남부, 기원전 3세기 후반~기원전 2세에는 청천강 유역, 기원전 2세기경에 자바이칼 지역에 나타나며 우리나라 중부지역 북한강 유역에는 기원후 2세기경 유적에서 확인된다.

자바이칼의 유적에서 쪽구들이 발견된 유적은 특정 집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구역의 대부분 집자리에서 설치되었고, 물질문화도 다른 유적과 다르지 않다. 음문이 새겨진 대형토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각종 철제품과 한경, 각종 골각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불가, 버러

10) 유은식 2015에서 재인용.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또 다른 마을 유적인 니지니 망기르토이, 설비 올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대형토기는 노용 올 1호, 타히팅 홀거리 1호, 골모드 20호 등에서도 확인되어서 무덤에도 부장되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는 북한강 상류 유적에서 가장 이른 쪽구들이 발견되며 쪽구들이 없는 주거지와 큰 차이가 없는 유물 구성이다. 또 본고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늑도 유적에서도 66기 이상 주거지에서 쪽구들이 발견되는데, 원형점토대 토기 뿐만 아니라 왜래계토기도 함께 발견된다(김현 2006). 이는 쪽구들 주거지만의 특징이 아닌 전체 늑도 유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쪽구들 주거지의 유물만으로 그 기원지를 추정하는 것은 힘들고 그 문화 전반을 살펴야 할 것이다.

1) 청천강 유역

세죽리 유적 1호와 대평리 유적에서 ㄱ자형 쪽구들이 발굴되었다. 세죽리 쪽구들은 ㄱ자형으로 아궁이에는 점토로, 고래는 석재로 만들어진 것이다<표 5>. 대평리 유적의 쪽구들은 1줄고래가 2줄 고래로 만들어져서 세죽리 유적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이 지역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유은식 2015).

기원전 3세기의 세죽리 유적 쪽구들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로부터 들어온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청동유물로 양 지역이 단절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해주는 비파형동검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는 이즈웨스트프카 유적 등지에서 세형동검과 동경이 알려져서 세형동검이 사용된 지역이라는 점은 잘 알려졌다(강인욱·천선행 2003). 최근에는 미하일로프카에서 축각식동검(쌍조식동검), 우수리스크 부근에서 반량전, 청동모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물은 기원전 4~3세기 청천강 유역에서 연해주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강인욱 2018). 연해주의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청동유물 가운데 쌍조식동검, 다뉴세문경은 기원전 2세경 위만조선과 연해주 북옥저 교류의 산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후석 2022).

그런데 세죽리 쪽구들에서는 타날문 회도와 명도전이 출토되었고(김정문 1964), 유적에서는 삼각형점토대 토기도 알려졌다. 이들 청천강 유역으로 정가와자 유형이 확산과정에서 유입되었고 요동 동부와 서북한이 교류한 기원전 3세기 중엽이후(이후석 2022)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쪽구들도 이 시점 이후에 만들어졌을 수 있다.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대평리에서는 쪽구들이 세죽리 보다 발전되는 양상이 보이고 기원전 2세기라는 점에서 세죽리 유적은 기원전 3세기 마지막에 등장했을 수 있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라즈돌나야(수분하)유역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II기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인데, 이 때에 연해주 해안가뿐만 아니라 청천강 유역까지 확산 되었을 것이다.

2) 자바이칼 흉노

자바이칼이나 몽골에서 발견되는 흉노의 생활유적에서는 수혈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그 중에서 쪽구들이 발견된 곳은 기원전 2세기경 이불가, 듀로니, 버러 유적이다. 버러와 듀로니는 발굴된 주거지에서 모두 쪽구들이 확인되었고, 이불가 유적에서도 51기 집자리 가운데 43기 이상에서 쪽구들이 발견되었다.

이불가 유적<그림 9, 그림 10>에서 확인된 쪽구들은 7자형으로 북동벽 모서리에 아궁이가 위치하고 북벽과 서벽에 고래가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고래 모두 석판으로 덮은 구조이다. 듀로니 유적<그림 11>에서 비교적 양호한 3호와 5호도 같은 구조이다. 이불가 유적에서는 대형 주거지인 9호 집자리와 2칸 집자리에서도 모두 같은 형태의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청천강 유역의 노남리 유형의 노남리 2호<그림 3>는 형태가 불분명해서 이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에 먼저 사용된 세죽리 유형의 쪽구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세죽리나 대평리 유적<그림 13>에서 확인된 7자형 쪽구들은 기원전 2세기경에 자바이칼 유역의 생활유적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흉노 문화와 고조선과의 관계는 역사기록에도 남아 있고, 물질문화로도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강인욱 2010). 이불가 유적을 발굴한 다비도바는 기르는 가축, 유물양상과 주거지 구조로 보아서 흉노가 다민족국가라고 결론 내렸다. 동물뼈 가운데 개뼈가 가장 많은데, 만주와 한반도, 중국에서 널리 식용되던 것이었고 쪽구들의 건축전통도 원동주민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다비도바 1995, 니콜라이 N. 크라딘 2011).

그래서 충분히 이불가와 듀로니 성지에서 나타나는 쪽구들은 유입된 기술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다만 다비도바는 쪽구들을 원동 주민들 즉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연결했다. 이는 러시아 학계에서는 시베리아 초원 문화가 연해주와 단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흉노가 교류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 물질문화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다. 기원전 3세기경에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및 세죽리-연화보 유형에서 모두 쪽구들을 사용했다면 오히려 후자와 흉노문화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연구된 바에 따르면 흉노계 표비(장은정 2012)인 도르릭나르스 5호 표비가 서북한에서 발견되는데 그 시기는 낙랑설치 이후이다. 같은 유적의 2호에서 방격규단경이 출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흉노에서 흉노계 표비가 이미 전한대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흉노계 마구 자체가 낙랑설치 전에 이미 서북한지역으로 퍼졌을 수 있다(이후석 2014).

흉노계 마구가 들어온 경위는 기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과 한이 전쟁중에 화친을 위해서 한에게 말 5천필을 주려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말 확보는 흉노와 교섭을 통해서 가능했고(박경철 2014), 마구도 이때 공급받았을 것이다(조원진 2017)

이에 비해서는 고조선 후기 문화와 흉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긴밀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조선을 흉노의 왼팔로 표현한 부분¹¹⁾은 당시 한이 흉노의 오른팔을 서역으로 인식한 것과

11) 漢書 卷73 韋賢傳 第43

견주어 표현했기 때문이다. 서역국이 흉노에게 미쳤던 경제적 영향력과 비교해서 흉노와 위만 조선도 그 정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최슬기 2017, 조원진 2017).

그렇다면 기원전 2세기경 자바이칼 지역에서 나타나는 쪽구들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보다는 청천강 유역의 세형동검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ㄱ자형 쪽구들을 만들던 사람들이 갔거나 혹은 배워갔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불가 유적에서 가장 큰 9호 주거지가 일반용도가 아닌 행정관청용인데, 이곳에서 쪽구들이 발견되는 점은 상류층인 유목민이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발굴된 지역의 80%이상에서 쪽구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1-2명의 이동이 아니었을 것이다. 쪽구들도 청천강 유역의 기원전 3-2세기 고조선 후기 사회와의 어떤 인적 교류였을 수 있다.

3) 우리나라 중부지역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는 북한강 상류의 유적에서 기원후 2세기에 나타나는 쪽구들이 가장 이른다. 쪽구들 평면형태가 ㄱ자형이고 아궁이와 고래의 축조재료는 대부분 석재이다. 출입구가 명확한 주거지에서 쪽구들이 발견되면서 후벽과 측벽의 쪽구들이 구분되는데 후벽에 설치된 것이 빠른 것이고,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쪽구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풀체문화가 남하하면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밀려 내려와서 생긴 것이라는 의견(수보타나 2005, 송기호 2019) 있지만, 중부지역에서 쪽구들이 나오는 시점은 기원후 2세기로, 청천강 유역의 세죽리 유적이나 자바이칼의 이불가 유적 보다 늦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중부지역 북한강 유역에 쪽구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점토대토기 단계(기원전 3세기 무렵) 남해안의 방지리와 늑도에 먼저 쪽구들이 나타난다. 늑도 유적은 반량전, 오수전, 한식동 축과 동경, 낙랑계토기, 왜계토기,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토기 등이 나와서 국제인 항구였다¹²⁾. 그렇다면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남부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환동해 문화권 북부지역에서도(김재운 2019), 늑도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세형동검을 받아들여던 과정(강인욱 2009)에 청천강 유역 고조선 후기 사회에 쪽구들이 확산되었을 것이고 비슷한 시기에 남해안에도 나타났다.

기원전 3세기 마지막에 청천강 유역과 남해안에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북한강 유역에서는 기원후 2세기 대성리 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4기(43기 가운데), 철정리 1기(A지구 14기, C지구 5기 가운데), 울문리 1기, 거례리 유적에서는 4기(12기 가운데), 고대리 유적에서는 7기(24기 가운데)에서 확인되었다. 세죽리-대평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지만, 늑도 유적에서는 60기 이상에서 쪽구들(공봉석 2007)이 발견되었다. 또 이불가 성지에서는 발굴된 주거지 가운데 80%이상에서 쪽구들이 조사되었다(표 4).

자바이칼 흉노 지역은 세죽리-연화보 유형(혹은 상보유형)을 통해서 쪽구들을 받아들였고, 이

12) 늑도와 관련된 국립진주박물관의 특별전이 2016년에 개최되었다.

볼가 유적, 듀로니 유적, 버러 유적에서 거의 흡사한 쪽구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대규모로 이동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중부지역에서 기원후 2세기에 나타난다는 점이나 유적에서 소규모로 쪽구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기원전 3~2세기에 확산되던 시점과는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다.

청천강 유역에서 쪽구들을 받아들인 이볼가 유적에서는 쪽구들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것은 1~2명의 이동이 아닌 인적 교류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부지역 유적에서 나오는 빈도가 낮다. 또한 쪽구들이 사용된 주거지와 그렇지 않은 주거지 간에 유물차이가 없다<그림 15>. 그렇다면 쪽구들은 당시 중부지역 사람들의 집 난방지구로 중부지방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한번 경험해본 쪽구들을 중부지역에서도 짓기 시작했을 수 있다.

한편,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시간적 추이를 보이며 사람들이 이동한 정황이 있는데, 철기시대에도 확인된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한 정황은 기온상승 한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철기시대 쪽구들은 기온 하강기에서 확인된다.

3. 기온변화

우리나라 중부지역에는 중도식무문토기문화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도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가 나타났다.

동해안의 신석기시대 오산리 C 지구의 최하층 및 망상동 유적에는 6500~6000년경 아무르강 하류의 신석기문화, 오산리 A,B 지구 및 C지구의 V~III층, 문암리 유적에는 6000년 전 루드나야 문화(세르게예프카 유형)가 나타난다(김재운 2015, 2019). 3400~2900년전 시나기이 문화는 강원도 영서지역(칠정리 C지구 1호, 대성리 26호, 천동리 2호) 및 남강 유역 평거동 3-1 지구까지 이 문화가 이동한 정황이 나타났다(김재운 2018).

우리나라 중부지역으로 내려온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문화는 기온상승기 A(7000~6000년 전)기간과 청동기시대 G기간(3400~2900년 전)중에 등장하고, 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재운 2021b).

기온 하강기인 D기간(5100~4500년간)에도 생겨난 문화가 있는데 5000년 전 신석기시대 자이사노프카 문화이다. 이 문화는 두만강 유역까지만 분포하며, 한반도 중부지역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에 강원도에는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의 토기들이 등장하며 문화상을 이루었다(김재운 2021b).

철기시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는 안콥스키 문화와 함께 역시 기온하강기 속(H기간, 2900~1900년전)에 등장한 문화이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추운 기후에 발생했고 이 문화에서 쪽구들이 발생했기에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수보티나가 설명(2005)이후에

여러 학자(강인욱 2009, 유은식 2015, 송기호 2019) 등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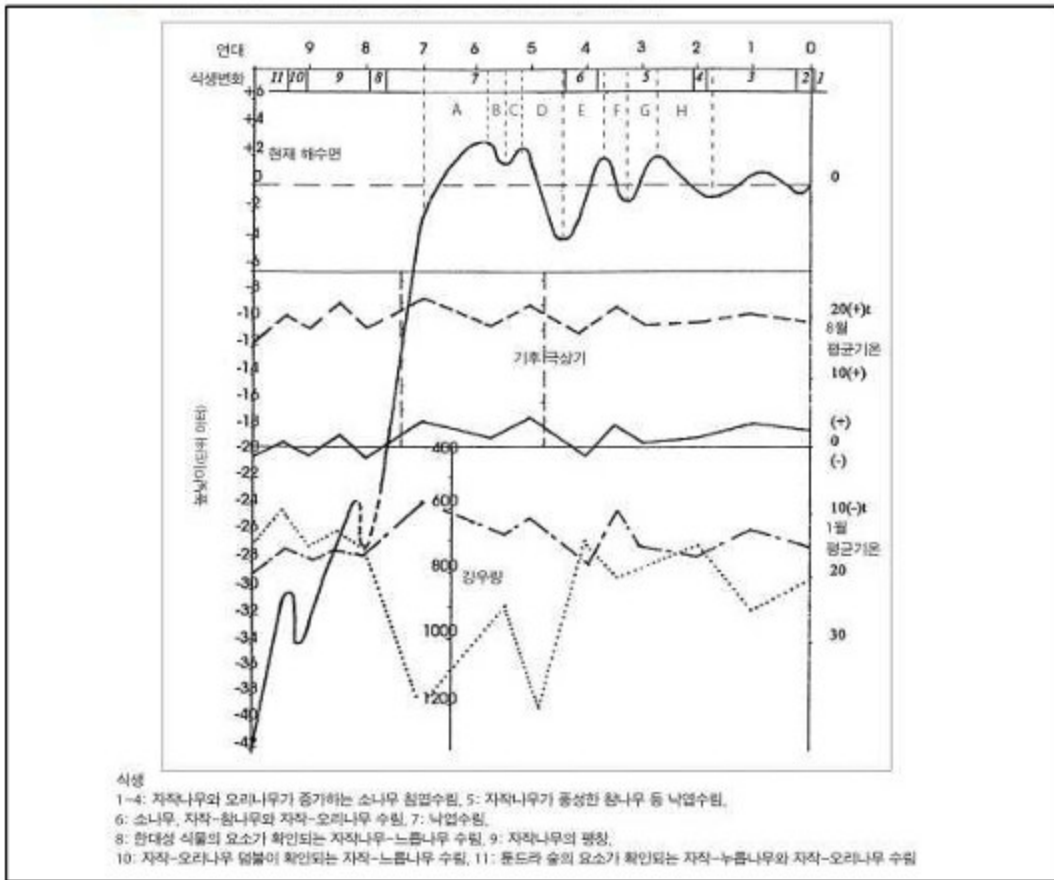
그런데 이 문화가 기후 하강기에 발생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은 신석기시대 자이사노프카 문화와 달리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기원전 3세기경 청천강 유역 및 바닷길을 따라서 남해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쪽구들을 제작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김재운 2021). 더욱이 연해주는 백두대간의 연장인 시호테알린 산맥이 발달하고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산지가 많은 곳이다. 연료인 땔감을 구하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동 6호주거지와 같은 아궁이를 사용했다면 기온하강에 대비해서 쪽구들을 발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는 기원후 2세기에 북한강 수계를 따라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 뿐만 아니라 물질문화가 나타난다. 북한강 유역의 쪽구들이 발견된 철정리 유적에서는 3200년전 청동기시대 연해주 시니가이 문화의 토기도 출토된 바 있다. 청동기시대부터 환동해 문화권 북쪽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쪽구들 제작방법을 채택했을 수 있지만 불분명한 점이 있는데 중부지역 연구자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선사시대-원사시대 환동해문화권과 교류지역(김재운 2021b재인용)

		환동해 문화권				교류	
		북부		남부		남해	
	삼과 바다	오호츠크 예: 아무르강아래	북한강/유수리 유점진 지점	한카호 우노타	동해 두만강하류		
민대 B.P.	시대	신석기	연해주	시호테알린산맥	연해주	대백산맥 연서	소백산맥 이동
		기원후 2000년 이후	김재운 2009, 2011, 2014, 2015a, 2019	김재운 2009, 2011, 2014, 2015a, b, 2016, 2017	김재운 2017, 2018a, 2018, 2019, 2021a, 2021b, 유은식 2016	김재운 2018a, 2019	김재운 2018a, 2019
9000		18000	오시포프카문화	10000	고토기문화		
8000			시호테알린산	자라미계곡			
7000			루드나아 유형	7500			
6000			말리세보문화	신계류 유적하층 진용갑조(기A)	나야 유형	보이스마	6910
5900				신계류 유적상층 진용갑조(기B)	유형	2단계	
5000				아포레보사양	유형	3단계	
4000				자이사노프카 문화	유형	4단계	
3000				시니가이 문화	유형	1단계	
2500				마리거리두프카	유형	2단계	
2300				리도프카	유형	3단계	
1900				문화	유형	4단계	

<표 9> 동해안의 기온변화(카로츠키 박사 작성, 김재윤 2021b재인용)



V. 맺음말

쪽구들은 3000년 전 알래스카의 알머크맥에서도 확인되며, 서주만기의 하북성 연하도에서도 비슷한 시설이 발견되지만 산발적인 자료이고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그러나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인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만들어진 쪽구들은 그 이후 철기시대 문화인 풀체문화, 봉림문화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구려, 발해를 거쳐서 그 이후의 북방민족들과 현존하는 소수민족들의 집에서도 볼 수 있다. 환동해문화권에서 수용된 남쪽의 쪽구들도 원삼국시대, 삼국시대를 거쳐서 현대까지도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쪽구들이 생성되어서 확산되기 시작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지역을 우리가 현재 아는 온돌의 기원지로 생각할 수 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의 쪽구들은 라즈돌라야 강(수분하)의 대성자 유적과 크로우노프카 I유적에서 만들어졌다. 두만강 유역의 오동 6호 주거지에서는 벽에 붙은 아궁이가 발견되며, 묘포 유적에서도 쪽구들이 발견되는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고가 미미한 두만강 유역의 이른 시기 주거지에서도 쪽구들이 있었을 수 있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등장한 시점은 기후하강기에 속한다.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문화가 기후 온난기에 이동한 것과는 달리 기후 하강기에 발생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쪽구들로 추운 기후를 이겨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3세기경에 청천강 유역과 남해안에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쪽구들이 발견된다. 청천강 유역의 기원전 4-3세기 및 기원전 2세기 세형동검, 다뉴세문경, 쌍조형 동검 등으로 보아서 고조선 후기~위만조선까지 문화교류가 있었는데 그 과정중에 쪽구들이 청천강 유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청천강 유역의 쪽구들은 오늘날 자바이칼 지역인 흥노 유적에서 기원전 2세기 유적에 나온다. 가장 많이 발굴된 이불가 유적에서는 80%이상에서 쪽구들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알려진 바 없는 북옥저 보다는 청천강 유역해서 요동동부까지 분포한 고조선후기 사회 혹은 위만조선과의 교류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양 지역간의 인적 교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는 북한강 유역을 따라서 기원후 2세기에 처음 나타난다. 당연히 기원전 3세기 청천강 유역이나 남해안에 나타났을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늑도 유적에서는 최소한 60기 이상에서 쪽구들이 설치되었는데, 북한강 유역에서는 같은 유적 내에서도 쪽구들이 발견되는 숫자는 제한적이다. 아마도 쪽구들이 수용되는 방법의 차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중부지역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선호에 의한 것이었을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욱, 2006, 「청동기시대~철기시대 한국과 연해주의 교류: 환동해문화권의 제안과 관련하여」, 『부산 경남 월례발표회 자료집』제75회.
- 강인욱, 2009,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확산과 전파」, 『철기시대 한국과 연해주』, 환동해고고학연구회 편, 주류성
- 강인욱, 2010, 「기원전 4~서기 1세기의 고고학자료로 본 흥노와 동아시아」, 『中央 아시아研究』15, 중앙아시아학회.
- 강인욱,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64, 한국고대사학회.
- 姜仁旭, 2012, 「北匈奴의 國家形成과 東夷世界로의 影響」, 『흥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 국립중앙박물관·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강인욱, 2018, 「기원전 4-3세기 초기 옥저문화권의 성장과 대외교류」, 『한국상고사학보』99, 한국상고사학회.

- 강인욱, 2020, 『옥저와 음류』, 동북아역사재단
- 강인욱·천선행, 2003, 「러시아 沿海州 세형동검 관계유적의 고찰」, 『한국상고사학보』42, 한국상고사학회.
- 김상민, 2018, 『동북아 초기철기문화의 성립과 고조선』, 서경문화사
- 김재윤, 2007,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기원-토기 자료를 비교로-」,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김재윤, 2011, 「동북한 청동기시대형성과정-연해주와 연변 고고자료의 비교를 통해서」, 『동북아역사논총』 32, 동북아역사재단.
- 김재윤, 2016, 「한중러 접경지역 철기시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범위에 대한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3, 한국상고사학회.
- 김재윤, 2017, 「환동해문화권의 역사적 조망」, 『동북아 문화연구』50-1, 동북아문화학회.
- 김재윤, 2019, 「선사시대 동심원문 암각화를 통해서 살펴본 환동해문화권의 범위와 교류영역」, 『한국상고사학보』104, 한국상고사학회.
- 김재윤, 2021,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진인진
- 김정문, 1964, 「세죽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1)」, 『고고민속』1964-2, 사회과학원출판사.
- 金賢, 2006, 「남해안 초기 쪽구들주거지 등장에 대한 소고-늑도주거지를 중심으로-」, 『石軒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 공봉석, 2007,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구들 연구」, 『韓國考古學報』66, 한국고고학회. 과학원출판사 1950, 오동보고서
- 니콜라이 N. 크라단, 2011, 「이볼가(Ivolga) 성지 유적의 예를 통해 본 흉노제국 내 정착민」, 『韓國上古史學報』71, 한국상고사학회.
- 동북아역사재단. 2021, 『동북아 고고학 개설I-선,원사시대편』.
-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늑도보고서』.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편,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 박경신, 2018,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박사학위 논문.박경철, 2014, 古朝鮮 對外關係 進展과 衛滿朝鮮 동북아역사논총 44.
- 朴淳發, 1999, 「高句麗土器의 形成에 대하여」, 『百濟研究』 29
- Subotina, 2005, 『철기시대 한국과 러시아 연해주의 토기문화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전공
- _____, 2008, 「한반도의 중도식토기문화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비교-옥저문화와 한반도의 상호교류에 대한 실증적 비교연구」,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張恩晶, 2012, 「匈奴係 鐵器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中央아시아研究』17-1, 중앙아시아학회.
- 정인성, 2014, 「燕式土器文化의 확산과 後期 古朝鮮의 토기문화 - 細竹里·蓮花堡類型의 이해를 바탕으로 -」, 『백산학보』 100, 백산학회.
- 정찬영, 1965, 「초기 고구려 문화의 몇가지 측면」, 『고고민속』1965-4, 사회과학원출판사.
- 정찬영, 1966, 「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민속』1966-4, 사회과학원출판사.
- 정찬영 1973, 「기원4세기까지의 고구려 묘제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5, 사회과학출판사.
- 정찬영, 1974,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4, 사회과학출판사.
- 정찬영 외 1983, 「암록강-독로강류역 고구려유적 발굴 보고」유적발굴보고 13, 과학원출판사.
- 조원진, 2017, 「위만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검토」, 『백산학보』109, 백산학회.

- 심재연, 2009, 「강원도 중도식 토기문화에 보이는 동북지방요소」, 『철기시대 한국과 연해주』, 환동해고고학연구회 편, 주류성출판사.
- 송만영, 2015, 「中島式 住居 외출구들의 變化와 意味」, 『古文化』8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송만영, 2018, 「중도식 주거 외출구들 다원기원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中央考古研究』26, 中央文化財研究院.
- 송기호, 2006, 『한국의 고대의 온돌』,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기호, 2019, 『한국 온돌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슬기, 2017, 「衛滿朝鮮과 匈奴의 ‘襜裘’ 交易」, 『先史와 古代』52, 한국고고학회.
- 양시은, 2017, 「몽골지역 흉노 토기의 제작기법 연구」, 『호서고고학』30, 호서고고학회.
- 이병훈, 2016,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외출구들 유형의 변천과정 재검토」, 『古文化』8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유은식, 2011, 「동북계토기로 본 강원지역 중도식무문토기의 편년과 계통」, 『韓國基督教博物館誌』7,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 유은식, 2015, 「동북아시아 초기 쪽구들의 발생과 전개」, 『고고학』14-3, 중부고고학회.
-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승환, 2021, 「濫突 起源地 研究」, 『중앙고고연구』34, 중앙문화재연구원.
- 이남규, 2005, 「高句麗 國家 形成期 鐵器文化의 展開樣相」,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 이청규, 2014,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동북아역사논총』44, 동북아역사재단.
- 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와 古朝鮮」, 『동북아역사논총』44, 동북아역사재단.
- 이후석, 2022,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 『고고학』21-1, 중부고고학회.
- 윤무병, 1980, 『청동기』 『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2, 일조각.
- 손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에렉젠·양시은, 2017, 『흉노』, 진인진.
- 최몽룡, 1985, 「고대국가 성장과 무역-위만조선의 예」,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 G. Eregzen, 2009,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吉林圖門市曲水苗圃遺址的發掘」, 『考古』2013-11. 文物出版社, 2011, 『考古 黑龍江』.
- 唐洪源·周傳波, 1994, 「東豐縣石大望遺址考古調查」, 『遼海文物學刊』1994-1.
- 黑龍江省博物館, 1979, 「黑龍江東寧大成者新石器時代居住地」, 『考古』1979-1.
- 林沅, 1985, 「論團結文化」, 『北方文物』創刊號.
- 潘玲, 2007, 『伊沃爾加城地和墓地及相關匈奴考古問題研究』, 科學出版社.
- 河北省文物研究所·唐山市文物管理處, 1998, 「唐山東歡坨國遺址發掘報告」, 『河北省考古文集』.
- 大貫靜夫, 1998, 『東北アジアの考古學』, 東京: 同成社.

- Артемьева, Н.Г. Домо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журчженей Приморья (XII-XIII вв.),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пресс, 1998. - 302 с
- Андреева Ж.В. 1970 : Древнее Приморье. Железный век. М.: 1970. 148 с.
- Вострецов Ю.Е., 1986, Раскопки поселения Кроуновка 1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84 года. Москва. С
- Вострецов Ю.Е., 1985, Раскопки жилищ кроунов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поселении Киевка в Приморье // КСИА. Вып. 184. С.: 60-63.
- Вострецов Ю.Е., Жущиховская И.С., 1987, Поселение кроунов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рсаковско е-2 в Приморье //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первобытной археолог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препринт).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АН СССР. С.: 22-30
- Давыдова, А.В. Иволгин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Т. 1. Иволг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 А.В. Давыдова. - СПб.: Фонд «АзиатИКА», 1995. - 287 с.
- Е.И.Деревяно, 1984. К истории жилища с каном // Археология Юг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84
- Бродянский Д.Л. Кроуновско-хунские параллели // Древнее Забайкалье и его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 Д.Л. Бродянский.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85. - С. 46-50.
- Бродянский Д.Л. Неолит и палеометалл южного Приморья: Дис. ... докт. ист. наук. - Новосибирск, 1987. - С.129-138, 246-268.
- Конькова Л.В. Бронзолите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берег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1989 - 123с.(콘코바, 『소련 극동의 고대 청동기 제작』, 1989, 123면.)
- Крадин Н.Н., Данилов С.В., Коновалов П.Б.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хунну Забайкалья,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2004. - 106 с.
- Окладников А. П., Деревяно А. П. 1973, Далекое прошлое Приморья и Приаму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 Жущиховская И.С. 2004,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древнего гончарст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쥬쉬호프스까야 2004, 러시아 극동의 고대 토기제작)
- Nicole Pousaz, Denis Ramseyer, Tsagaan Turbat Oerni Akeret, Dunburee Batsukh, Yannick Dellea, Michel Guélat, Sébastien Lepetz, Vincent Sermeels, Sophie Thorimbert, 2013, L'HABITAT XIONGNU DE BOROO GOL Recherches archéologiques en Mongolie (2003 - 2008), Monographie de la Fondation Suisse-Liechtenstein pour les recherches archéologiques à l'étranger
- Institute of History, Archaeology and Ethnography of the Peoples of the FAR EAST, RUSSIAN ACADEMY of Science`Department of Archaeology, KUMAMOTO UNIVERSITY, 2004, Krounovka 1 Site,

토론문 1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쪽구들 유라시아 확산 현상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

오승환(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발표자는 구들¹⁾의 기원지와 그 확산을 밝히기 위해 동북아시아를 전반을 아우르는 폭 넓은 지역 및 시기 그리고 그 안의 다양한 문화상까지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독자적 시각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면서 많은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깊이 있는 연구에 부족하고 얇은 생각이나마 보다 생산적인 연구의 진전을 바라며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들의 발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국 고고학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구들이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다는 ‘다지역 발생설’ 위주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구들이 단일 지역에서 발생하여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단일지역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발표자의 쪽구들 발생과 확산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편년입니다. 즉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기원전 5세기에 시작되며, 이때 처음 구들이 등장하므로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하고 확산되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사된 구들의 사례가 많고 유형도 다양하다는 점 또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는 발표자보다 늦은 기원전 2-3세기로 판단하는 편년안이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편년을 근거로 구들의 발생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비록 기원전 3-2세기까지 하향되더라도 이곳을 구들 발생

1) 발표문은 구들의 발생부터 초기의 확산과정을 다루므로 구들의 분류로 보면 모두 ‘쪽구들’에 해당한다. 쪽구들은 오늘날 구들의 원형이란 점에서 ‘구들’로 칭하였다.

지로 판단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는 구들이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I-III기 동안 출현해서 널리 확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들이 출현하는 단계(I기)의 구들은 그 실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인 크로우노프카 유적(1957년도 발굴) 1호 주거지와 대성자 유적의 구들은 사진이나 도면없이 간략한 보고문을 통한 유추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I기에 해당하는 구들의 형태와 구조는 구들의 기원지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I기의 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 특징을 논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큼니다.

발표자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기온 하강기(H기간, 2900~1900년전)”에 생겨난 문화이고 구들은 이 시기의 추위 극복을 위해 구들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기온 하강은 구들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들 구조의 형성 또는 발달 과정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 구들이 구조적인 발달과정 없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다면, 앞선 구조와 기술이란 전통 없이도 얼마든지 추위 극복을 위해 누구나 어디서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발표자는 구들이 처음부터 ‘ㄱ’자 형태로 완성된 구조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발생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계기적 변화과정을 거치며 I기에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구들이 3시기에 걸쳐 수분하 일대에서 두만강과 연해주 해안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뚜렷한 변화나 발전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ㄱ’자형에서 다시 ‘ㄷ’자형으로 변화 발전하거나, 여기에서 ‘ㄴ’자형으로 변화하는 등의 구조와 형태에서의 변화와 발전과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I기의 사례는 불명확하고 II기에는 모든 구들 유형이 등장하고, III기에는 ‘ㄱ’자형으로 회귀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처럼 구들의 확산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반도의 구들에 대해서입니다.

발표자는 기원전 3세기의 영변 세죽리 유적 1호 주거지 구들을 근거리에 위치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로부터 들어온 기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세형 동검과 동경 등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죽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금속유물은 아시다시피 세죽리연화보 유형으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영향 관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세죽리 유적 1호 주거지의 구들에서 보이는 구조, 축조재료, 축조 방식 등을 보면 동시기의 인접하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구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흥노지역의 구들에 대해서입니다.

발표자는 “자바이칼 흉노 지역은 세죽리-연화보 유형을 통해서 쪽구들을 받아들였고, 이불가 유적, 듀로니 유적, 버러 유적에서 거의 흡사한 쪽구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대규모로 이동이 있었을 수 있다.” “청천강 유역에서 쪽구들을 받아들인 이불가 유적에서는 쪽구들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것은 1-2명의 이동이 아닌 인적 교류로 보인다.”와 같이, 흉노지역 구들의 등장에 관해 고조선의 역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송기호에 의해 구들의 다지역 기원설이 제시되고 그 기원지 중 하나로 흉노지역이 지목되었습니다. 이는 자바이칼과 몽골 북부의 흉노지역이 또 다른 기원지로 알려진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독자적 발생지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2012년에는 강인욱에 의해 시중 노남리 유적의 주거 및 구들이 흉노지역과 유사하므로 상호 연결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에는 자바이칼 등 흉노지역의 구들의 등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나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없이 청천강유역에서 직접 전래된 것처럼 확정하고 있습니다. ‘漢書 卷73 韋賢傳 第43’의 고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라 했던 수사적 표현을 떠나 구들의 전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고고학적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흉노지역 주거지를 보면, 구들의 설치 비율이 높고 특징 또한 대체로 유사합니다. 하지만 청천강유역을 비롯한 한반도 서북한지역의 구들 주거지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원인과 양자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흉노지역의 구들 주거지가 설치된 이불가나 듀로니 유적에서 한자 명문이 새겨진 유물과 다공 시루 등 중국계 유물이 상당수 출토되므로 漢人의 거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곳의 구들이 고조선인의 이동으로 발생하였거나 그 영향으로 생겨났다면 이들의 거주 문제도 알려줄 수 있는 관련 유물이 출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조선과 관련 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2

유물로 본 한반도 중부지역 부여계 문화의 유입

윤정하(국립문화재연구원)

목 차

- I. 머리말
- II. 중부지역의 부여계 유물 출토양상
- III. 원지역과의 유물 형식 비교
- IV. 중부지역 출토 부여계 유물의 유입
- V. 맺음말

I. 머리말

오랜 기간 동안 백제의 출자(出資)와 관련하여 부여계 주민들이 한반도 내로 유입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뚜렷한 물질자료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고고학적 물질문화에서 두 국가 사이의 계승성을 따지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권오영 2018)도 등장했다.

어떤 지역이든 개인 또는 집단 차원의 이주는 항시적으로 존재했다(김장석 2002). 하지만 이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고학적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학자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Anthony(1990)는 이주의 가능성을 고고학적으로 따지기 위해 'push-pull model'을 제시하기도 했고, Zvelebil(1981)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확실한 비토착적인 여러 문화요소가 동시에 군을 이루어 갑자기 등장할 때', '새로운 문화요소의 등장과 동시에 기존의 토착문화요소가 감소할 때', '이와 동시에 전반적으로 주거분포가 변화할 때'

등의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자별로 이주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의 구체성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단순히 한가지의 유물군 혹은 유구의 유사성만으로 이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실제로 이주와 계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유물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묘제 간 비교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와 백제의 이주 혹은 계승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지와 묘제 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의 이주를 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거지와 토기의 경우, 부여의 자료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비교가 힘들다. 부여계 유적에서 주거지 유적의 발굴은 극소수로 진행되었고 발굴보고서가 출간된 경우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부여의 주거지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토기의 경우 기형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토기를 실견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제작과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여에서 확인되는 두형토기(‘부여계 두형토기’)와 같은 특징적인 기형의 토기를 지표를 삼아 부여의 범위를 추정하는 연구(유은식 2016)도 있었으나, 더 나아가 두형토기의 존부를 주 논지의 근거로 삼아 이주와 이민까지 추정할 수 있는지는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서차구(西岔沟) 유적과 노하심(老河深) 유적에서 출토되었던 양식의 동병철검이 청주 오송 유적의 주구토광묘에서 발견되면서 부여와 한반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일보 진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출토된 부여계 유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양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출토된 부여계 유물은 검류와 이식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김포 운양동 유적의 금제이식 3점과 풍납토성 舊미래지구의 은제 이식 부속품 1점, 청주 오송 유적의 동병철검 1점이 있다. 이에 대해 개별 연구는 진척되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비교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유물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주와 이민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운양동 유적과 오송 유적,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부여계 유물들이 실제로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어떤 유적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매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반도 내에서 출토한 부여계 유물들과 비교함으로써 부여계 유물이 출현한 맥락에 대해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부여계 유물들은 출토지역이 중부지역에 한정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유사성이 보이며, 남한 내에서 유사한 모티프를 지닌 유물조차 발견된 사례가 없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덤에서 출토된 운양동 유적의 금제이식과 오송 유적의 동병철검의 피장자 신분상의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1차적으로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출토한 부여계 유물과 유물들이 출토한 유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부여 유적에서 동일한 유형의 유물들이 출토된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후 중부지역에서 출토한 부여계 유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여 중부지역에서 부여계 유물의 출현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부지역의 부여계 유물 출토양상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동일 형식의 부여계 유물은 현재까지 4건 5점이다.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장검이 부여계 유물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병부 없이 검신만 출토되어 본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1. 김포 운양동 유적(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김포 운양동 유적의 분구묘군은 분구묘 32기, 목관묘 3기가 발굴된 원삼국시대 무덤군으로, 김포 일대의 분묘군과 함께 마한 분구묘 중 최북단에 속한다. 운양동 유적에서는 2개의 유구에서 총 3점의 금제이식이 출토되었는데, 운양동 유적의 원삼국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이식류 장신구는 이 3점 밖에 출토되지 않았다. 또 다른 장신구류로는 구슬이 있는데, 금제이식과 달리 구슬은 15기의 분묘에서 출토되었다. 운양동 유적은 전체적으로 토기부장의 비율이 적고, 철제 무기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구에 따라서는 토기의 부장 없이 무기류와 농공구류만 부장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른 마한 무덤군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현상으로 운양동 무덤군의 조성집단 성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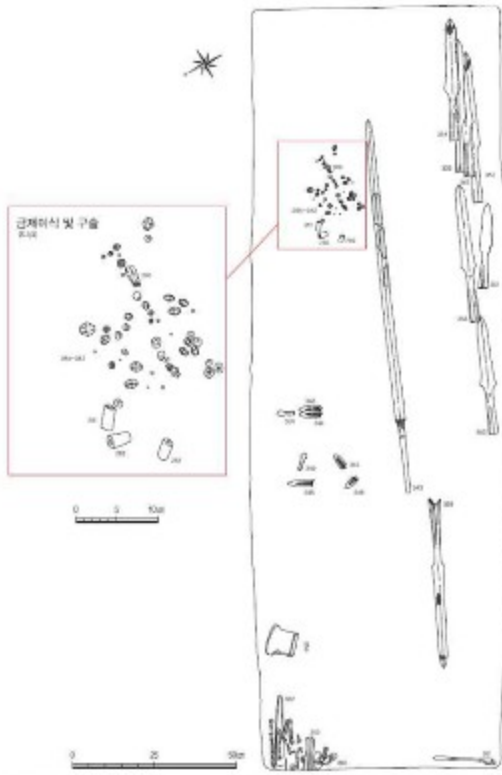
이식이 출토된 두 유구는 60cm 이상의 묘광 깊이와 2:1 이하의 장단비, 대형의 대상부 규모라는 계속적 공통성 외에도, (장)방형의 주구가 조성되어 있고 10점 이상의 유물이 부장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부장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신재에 해당하는 금제이식, 철제장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구슬과 운양동 분묘군에서 출토하는 대부분의 유물종류가 출토하여 위계가 높다는 위계상의 공통점도 보인다.

1) 운양동 1-11지점 12호 분구묘 금제이식

금제이식이 출토된 1-11지점 12호 분구묘는 방형의 주구와 함께 조성된 장방형의 분구묘로, 금제이식 1점을 포함하여 총 31점의 다양한 유물이 부장되어 있었다. 금제이식은 사다리꼴의 금판을 말고, 위에는 나선형으로 2번 말아낸 형태의 나선형 금제이식이다. 공반 유물 중 눈에 띄는 것은 카넬리안과 관옥, 유리구슬류, 철제장검 1점으로, 이 외에도 철착·철모·철촉과 같은 무기류와 마구류도 부장되어 있었다. 다만 토기의 경우 주구에서만 2점이 편으로 확인되며 목관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유구에서는 무기류로 철제장검 1점과 철모 9점, 철촉 7점, 농공구류로 이조선돌대 주조철부 1점, 철부 1점, 철착 1점, 철검 1점, 삽날 1점이 발견되었으며, 토기류는 승문타날호 2점, 표비 1점이 발견되었다. 원삼국시대 철모에 대한 연구(김새봄 2011)에서는 영남지역과 더불어 경기·충청지역에서의 철모의 형식을 분석하여 경기·충청지역이 영남지역과의 철제무기 교류를 통해 군사력 증강과 세력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철모의 형식적 속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분석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 특히 이 유구에서는 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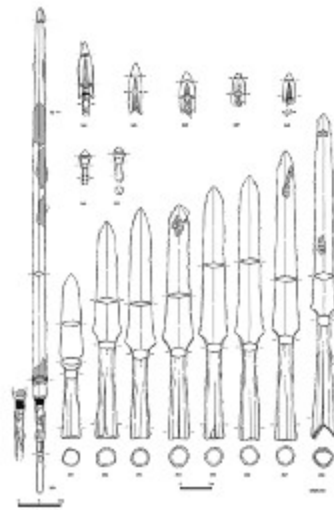
심에서 출토사례가 있는 이조선돌대 주조철부가 출토하기도 했으며, 철모 역시 이단병식 철모 1점을 제외하면 모두 노하심 유적에서 같은 형식의 철모가 출토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1> 1-11지점 12호묘 도면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그림 2> 금제이식
(사진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이유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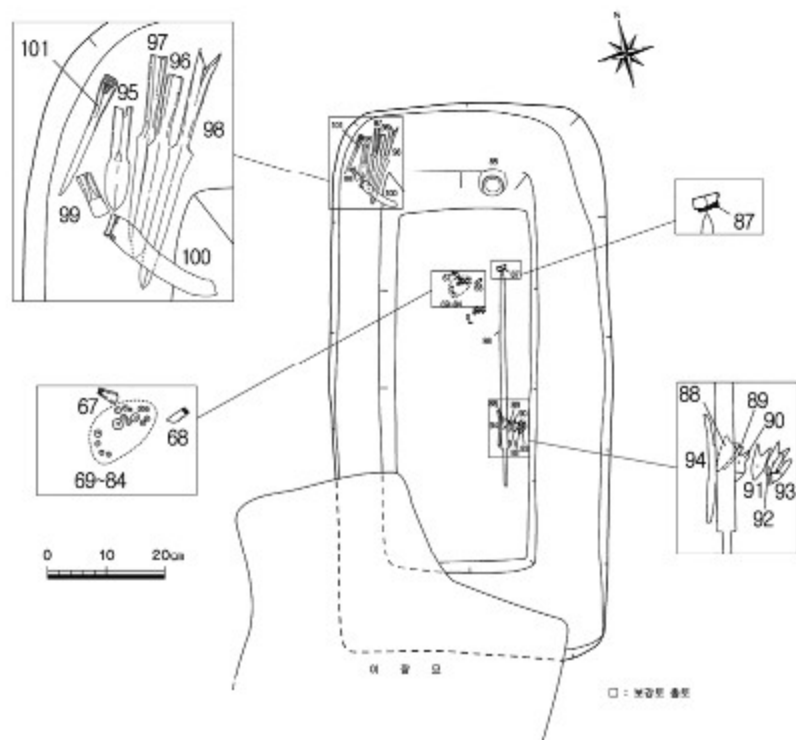


<그림 3> 공반유물 일부 도면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2) 운양동 2-9지점 1호 분구묘 금제이식 1쌍

금제이식이 출토된 2-9지점 1호 분구묘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는 주구와 함께 조성된 장방형의 분구묘로, 교란으로 일부가 훼손된 상태이다. 분구묘 내에는 금제이식 2점을 포함하여 16점의 유물이 부장되어 있었다. 이 유구에서 출토된 금제이식은 1쌍으로, 형태는 1-11지점 12호 분구묘에서 출토된 이식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나선형 금제이식이다. 공반유물은 카넬리안·유리·탄목의 구슬류와 철제장검 1점, 검집을 장식한 초미금구가 있으며, 이 외에도 철촉·철모·철도자

와 같은 무기류와 철착·철검 등이 공반되었다. 자세히는 철모 4점, 철촉 6점과 농공구류로 철도자 1점, 철부 1점, 철검 1점, 철착 1점, 토기류는 단경호 1점이 확인되었다. 이 유구의 철모 역시 영남지역과의 연결성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식만 두고 보았을 때 영남지역에서의 유입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성분분석을 통한 세밀한 연관성 관계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 2-9지점 1호묘 도면(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그림 5> 금제이식 사진(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2. 풍납토성 197번지 은제 이식 부속품 1점(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풍납토성 구 미래마을인 197번지의 나지구 5호 수혈에서 은제 이식 부속품 1점이 출토되었다. 나지구에서 확인된 수혈은 총 167기로, 내부 양상에 따라 폐기기능이나 저장기능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나-5호 수혈의 경우 소토덩어리들이 다량으로 매립되어 있고, 이식의 일부만이 출토하는 양상을 통해 폐기기능의 수혈로 보인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U형으로 조사되었다. 이식 부속품 외에도 5호 수혈에서는 개, 기대, 완, 장란형토기, 사유도기의 작은 토기편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이식 부속품은 은제로, 형태상 銀絲紐環帶葉耳飾(步搖附耳飾, 이하 보요형이식)의 부속품으로 추정된다. 길이는 5.2cm, 너비 1.6cm, 두께 0.1cm이며 상단부는 둥글게 마무리되었으며 직경 0.3cm의 구멍이 뚫려있다. 이 부분을 이식의 본체에 연결시켜 흔들리는 모양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단으로 향할수록 너비가 좁아져 하단의 끝부분은 뾰족한 삼각형으로 마무리하였다(권도희 2020).



그림 6. 나-5호 수혈 도면



그림 7. 은제 이식 부속품

3. 오송 동병철검(중앙문화재연구소 2018)

청주 오송 유적은 한강 유역 이남부터 금강 유역 이북에 걸쳐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주구토광묘의 대형 유적으로, 금강 수계의 하천이 유적의 동·서·남으로 감싸는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북·서쪽에는 산지가 있다. 금강 상류에 위치한 청주 일대는 송절동, 오창 송대리 등의 유적에서 주구토광묘군이 다수 발굴되었다. 이로 인해 이 일대를 당시 중심지적인 역할을 하던 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동병철검이 출토된 15지점 17호 무덤 유구는 마제형 주구토광묘로, 단경호 1점, 원저발 1점, 철부 1점과 함께 동병철검이 출토되었다. 무덤의 형식과 입지조건을 보면 다른 재지계 무덤과 차별성은 없다. 또한 무덤 안에서도 차별적이나 고립적인 성격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공반유물을 보면 동병철검 이외에는 다른 외래계 유물 또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에 관련지를 만한

유물은 없다. 단경호와 원저발이 출토되는 양상이 1단계의 다른 무덤과 큰 차이가 없고, 무덤 형태 역시 충청 내륙 일대 제지세력이 장기간 조성해온 주구토광묘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마제형 주구토광묘이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목관 내부에서 발견된 동병철검(이하 오송 동병철검)은 병부의 끝부분이 없이 출토되었으며, 망치질을 통해 검의 내심이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형태를 보인다. 검의 마모를 제외하면 완형에 가까우며 병부는 청동제이며 검은 철제이다. 청동병부의 경우 별도로 제작되어 신부와 결합된 양상이다. 병부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 죽절형으로, 상·하단에는 원형의 돌기가 열을 지어 돌아간다. 검격의 경우 중앙을 기점으로 사선 방향의 선문이 새겨져있다(윤정하·강인옥 2021).

III. 원지역과의 유물 형식 비교

운양동 유적에서 발견된 금제이식 3점은 노하심 유적에서 3건 5점 출토된 양식과 같은 나선형 금제이식이다. 노하심 유적은 중국 길림성 길림시 유수현(吉林市 榆樹縣)에 위치한 유적으로, 1987년 발굴보고서가 출간되고 2022년에 서차구 유적 보고서가 출간되기 전까지 부여로 추정되는 유적 중 유일하게 보고서가 출간되어 부여 고고학의 주 고고자료로 다뤄졌다.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있는 하층 문화층과 중층인 부여 문화층, 상층인 말갈무덤군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중층에서는 총 129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동경을 토대로 편년이 진행되어 현재는 기원전 2세기 말부터 서기 1세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편년된다.

중국 동북지역은 청동기시대부터 주로 환형 이식이 사용되었으나 기술력이 약해 위신재로 추정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철기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길장지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복잡한 구조의 금제이식이 출토됨에 따라 단순한 장식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오강원 2014).

그 중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한 금제이식과 같은 양식의 이식¹⁾은 노하심 유적의 41호묘에서 2점, 93호묘에서 1점, 103호묘에서 2점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한 이한상(2013)은 운양동 유적과 노하심 유적의 나선형 금제이식의 제작공정 단계를 ‘금판 절단 → 단조·연관 → 성형’로 제시하였고, 제작 기술상 당시의 삼국시대의 금속 가공 기술에 비해 어렵지는 않지만 제작공정의 과정이 비전문가가 행하기 어렵고, 특히 마한의 경우 아직 금공품 제작의 기반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두 유적의 나선형 금제이식이 같은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차운환(2013)은 운양동 유적의 이식과 풍납토성에서 출토한 이식 부속품의 사례를 함께 적용하며 길림성 일대의 부여 문화가 압록강을 거쳐 2세기경 한강유역에 유입되었으며, 이후 백제 제지적 변용과정을 거쳐서 백제의 국가성립과 지방 지배과정에서 서해안안을 따라 그

1) 이외에도 만발발자 유적의 고구려 적석총에서 같은 형식의 나선형 금제이식 1점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남 내륙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고 기술하였다.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이식 부속품은 흔히 보요형 이식이라고 부르는 형식의 부속품으로 보인다. '步搖'란 금판을 원형이나 타원형, 혹은 화엽형으로 오린 것을 말하며(이송란 2015), 이렇게 오린 판을 관이나 허리띠, 귀걸이 등에 달아 걸을 때 흔들리는 효과를 주는 것을 통칭하여 '보요형'으로 칭한다²⁾. 부여계 유적에서는 이러한 보요 기술을 적용한 이식이 발견되는데, 부여 특유의 기술로 여겨지는 끈금속사로 매듭을 만든 형식이 복잡하게 변용된 형태이다. 부여의 이식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끈금속사로 만든 이식은 금속사를 꼬아 매듭을 만든 형태 혹은 간단히 금속사를 끈 다음 아래쪽에 구슬을 다는 형식이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금속사를 꼬아 2단 혹은 3단을 만든 후 끝에 여러 개의 장옥각형(혹은 장오각형)의 금판을 단 형식이 2점 발견되었다. 금과 은이라는 소재의 차이가 있고, 일부만 확인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형태로 보았을 때 노하심 유적에서 나온 보요형 이식의 부속품과 같은 형식으로 보인다.

오송 유적에서 출토된 부여계 동병철검에 대해서는 이전의 논고(윤정하·강인욱 2021)에서 상세하게 논한 적이 있다. 오송 동병철검의 청동 병부는 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하단 절에 여러 개의 원형 돌기가 열을 맞춰 있는 형태로, 검격에는 사선의 선문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청동 병부가 장착된 검류는 한반도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없으며 노하심 유적과 서차구 유적에서 확인된 사례만 존재하기 때문에 부여계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 흔히 원주형 동병철검이라고 부르는 형태에 돌기가 새겨진 부여계 동병철검은 부여의 철검 유물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형식이다.

다만 오송 동병철검은 노하심·서차구 유적의 동병철검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오송 동병철검은 여타 부여계 동병철검과 비교했을 때 병부의 절반이 없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부여계 동병철검은 돌기가 있는 상·하단의 절 위쪽으로 원주형 병부가 더 이어져있고 그 부분에 몇 개의 청동 고리가 장착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오송 동병철검은 이 병부 뒷부분과 청동 고리가 없는 형태이며 병부의 뒷막음이 없이 철검 내심이 꺾여 있는 상태로 병부와 신부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위신재의 기능을 하는 동병철검이 본래부터 위와 같은 임시형태로 장착되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본래 오송 동병철검 역시 현재 잔존한 병부 위로 청동 고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과 청동 고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부지역에서 발견되는 부여계 유물들의 공통점은 한반도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고, 소재의 차이를 두고 같은 모티프로 볼 수 있는 유물도 없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유적에서도 다른 종류의 부여계 위신재가 출토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사하다. 특히 운양동 유적의 경우 나선형 금제이식 3점을 제외하고는 이식류가 출토하지 않았고, 오송 유적에서도 장식성이 있는 병부가 발견된 검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중부지역에서 발견된 부여계 유물들은 제작의 가능성보다는 부여 경내에서 제작된 것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최근 고구려 금금장식 연구를 다룬 연구(김수빈 2022)에서는 같은 형식의 장신구를 '보요' 대신 불교적 의미를 담아 '영락'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도 했다.

IV. 중부지역 출토 부여계 유물의 유입

중부지역의 부여계 유물 출토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유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특히 무덤유구에서 부장품으로 확인된 운양동의 금제이식과 오송 동병철검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1. 시기

첫 번째로 시기적 공통점이다. 운양동 유적은 유물의 출토양상 및 무덤형태를 토대로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김기욱 2012:55), 철제무기를 토대로 보았을 때 해당 무덤군이 2세기 중기부터 조성되었다는 견해(김길식 2014)도 있으며, 포타쉬구슬과 소다구슬이 함께 부장된 양상으로 보아 2-3세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송 동병철검이 출토한 15지점 17호 주구토광묘 역시 유물조합과 묘제의 형태를 근거로 2세기 후반-3세기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특히 토광묘와 주구토광묘가 중복 없이 혼재된 유구의 조성 양상이나 환두도로 전환되기 전 철제장검의 출토, 원저단경호+원저발의 조합, 주구토광묘가 대체로 2세기 중·후반-3세기 초반 무렵에 중서부지역 일대에 등장하여 이후 확산기를 거쳐 4세기 후반 무렵 소멸단계에 이르는 일반적인 견해(강지원 2018)를 통해 봤을 때, 운양동 유적은 원삼국기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깊고 넓어가야하는 부분은 나선형 금제이식이 5건 출토한 노하심 유적의 하한연대가 1세기 초·중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하심 외에서 출토하는 나선형 금제이식과 동병철검은 제작지인 부여 지역과는 연대가 1세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부여계 유적 중 양상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노하심 유적과 서차구 유적이 모두 하한연대가 2세기를 넘어가지 않고, 좀 더 장기간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길림 모아산무덤군의 경우 1,000기가 넘는 무덤이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대로 보고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고고물질문화의 정확한 양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1세기 중반 이후 이후의 부여계 유적에서는 오송 동병철검과 나선형 금제이식과 동일 형식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세기 중반, 늦게 보아 2세기가 넘어가면 이전과 달리 규모가 큰 부여계 유적이 사라지고, 이들이 공유하던 위신제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역사사료상 1-3세기가 부여의 전성기였던 것과는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서 남흉노의 고고자료가 눈에 띈다. 중국사서에서 남흉노는 한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한나라의 북방 변경을 담당했던 것과 달리 유적의 수는 매우 적다. 이에 대해 강인욱(2003)은 한의 지원으로 자급자족할 필요가 없어 대형 성지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부여 역시 문헌과 고고자료의 격차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1세기를 지나서야 확인되는 부여 경내 외의 부여계 위신제와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확인되던 두형토기 B류가 수분하유역과 연변 일대, 삼강평원 일대로 확산되는 양상(유은식 2016)은 부여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

기까지 강하게 유지하던 대내 네트워크(윤정하 2020)에서 부여 외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요 생계경제를 바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묘제

유적 간의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우선 묘제의 차이이다. 운양동 유적의 두 유구는 성토분구묘로, 한강 하류와 서해안을 따라 주로 분포하고 있는 묘제이다. 흔히 강안이나 해안의 낮은 구릉에 5기 이상이 묘역을 이루며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며, 인천·김포에서 충청 해안지역을 거쳐 호남지역까지 이어지는 분포를 보이며 마한계 사주식 주거지의 분포와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한성백제박물관 2017). 한편, 오송 유적은 주구토광묘가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토광묘와 주구토광묘가 함께 조성되었다. 주구토광묘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묘제로서, 마한의 동쪽 경계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김낙중 2016). 이처럼 성토분구묘와 주구토광묘는 마한에서 지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되어 조성된 묘제이기 때문에 마한 내에서도 교류빈도가 높은 권역을 상징하기 용이한 고고학적 지표가 된다.

두 번째로 피장자 지위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나선형 금제이식이 출토된 유구들은 유적 내 피장자의 지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운양동 유적에서는 총 35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대부분 무덤의 부장품의 비율이 토기보다 철기무기와 철제농공구류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더하여 장식구류의 경우 금제이식 3점을 제외하면 모두 마노·유리·수정 등의 구슬류로 한정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유적의 성격으로 인해 김길식(2014)의 경우 운양동 유적 자체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면서 군사적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던 집단의 무덤군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격의 유적일 경우, 위신재로서 기능하는 철제장검과 장신구류의 부장양상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운양동 무덤군의 경우 철검과 장신구류의 부장이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검류인 철검과 환두도, 소도는 중복 없이 매납하는 양상이 확인되어 철제무기 가운데 이 세 종류의 유물이 계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장신구의 부장 크기 및 양은 검류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검류가 부장되지 않은 무덤에서도 출토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다만, 금제이식이 확인된 두 유구의 경우 다른 유구들과 비교했을 때 부장품의 종류와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유적 내에서 가장 위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유적 내에서 금제이식은 대표적인 위신재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송 유적은 동병철검이 출토한 유구의 입지나 크기에서 다른 유구들과 차별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같은 지점 내 철모 4점·철부 2점·철촉 16점·재갈 등의 부장이 확인된 8호묘나, 토기류 5점·철검 1점·철촉 20점·재갈·구슬류가 확인된 합장묘 23호묘 등과 비교했을 때 17호묘의 피장자가 생전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철검류가 출토한 다른 유구들의 공반유물이나 유구의 입지를 검토해보아도 철검이 부장된 유구가 위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송 동병철검 역시 위신재의 기능보다는 피장자의 특정한 직업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병부가 재사용되고 임시적으로 수리

하여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점도 오송 동병철검이 위신보다는 직업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피장자가 유독 다른 병부의 형식을 채택한 것은 그 병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부장유물

마지막으로, 부장된 유물 종류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이다. 특히 구슬류의 부장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양동 유적은 철기무기류 부장과 더불어 구슬류의 부장이 두드러지는 유적으로, 총 35기의 무덤이 발굴된 가운데 카넬리안 115점, 석영 116점, 유리 10,633점, 수정 80점, 관옥 13점 등의 구슬류 유물이 확인되어 한강 수계 유적 중 가장 많은 구슬류 출토량을 보인다. 이에 반해 오송 유적 내 오송 동병철검 출토 유구와 같은 단계(보고서상 1·2단계)에 해당하는 199개의 유구 중 3개의 유구에서 각각 3점 내외의 유리구슬이 출토되었다.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중 40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성분분석(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결과 포타쉬 구슬과 소다구슬이 모두 확인되었다. 금제 이식이 확인된 유구의 일부 유리구슬도 분석시료에 포함되었는데, 1-11지점 12호 유구에서 출토한 유리구슬의 경우 포타쉬 구슬 3점과 소다구슬 2점이, 2-9지점 1호 유구에서는 포타쉬구슬 1점이 포함되었다.

원삼국시대의 구슬류 부장 양상에 대해서는 해양교역권에 관련되어 연구(권오영 2017; 허진아 2018b·2019)가 진행된 바 있다. 동아시아 포타쉬구슬과 소다구슬의 생산지는 중국 남부, 남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로 추정되고 있으며, 운양동 유적에서 100점 이상 발견된 카넬리안 구슬 역시 남아시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한 수많은 구슬류 유물은 유적의 조성집단이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허진아 2019). 또한 운양동 유적을 포함하여 한강 하류에서 주로 출토하고 있는 백색토기³⁾는 이형토기(대부토기)와 함께 이 일대 마한 세력의 원거리 교역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낙랑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 산둥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견해(정인성 2016)가 부각되고 있어 한반도의 서해안 일대가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인성(2016)에 따르면 백색토기의 유통망은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를 거쳐 압록강 하류를 지나 한강 하류로 들어오는 루트로 상정되며, 북단으로는 부여의 초기 왕성 혹은 위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길림시 내 남성자고성(동단산평지성)까지 올라간다. 부여가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하는 구슬류의 수량적·종류적 다양성과 한강 하류에서만 출토하는 백색토기의 분포양상, 상대적으로 이른 유적의 조성시기를 고려했을 때, 운양동 유적을 비롯한 한강 하류 일대의 정치집단(혹은 경제집단)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해상교역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인천 운서동 능들, 김포 양곡리, 파주 갈현리 등의 유적에서 출토한 사례가 있다.

이에 반해 오송 유적에서는 구슬의 부장이 확연히 적은 대신, 토기 부장이 활발하며 운양동 유적에서는 표비 1점을 제외하고는 출토하지 않은 마구류와 마형·호형 대구가 확인되고 있다. 오송 유적은 원삼국시대 토광묘만 733기가 발견되었을 정도의 대형 무덤군이면서 한 집단이 장기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성격의 무덤군이지만 위신재의 성격은 비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경호와 원저발을 포함한 발형토기류가 일반적으로 부장되는 가운데, 시기에 따라 유개대부호나 흑색마연토기가 가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토기가 시기적으로 변천하는 모습이 단절성이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종류의 토기가 출현하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도 단경호와 발형토기의 조합이 사라지지 않는 양상으로 보아 한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오송 유적은 위신재의 성격을 지닌 유물의 종류가 극도로 적은 특징이 있다. 특히 2세기 후반에서 3세기에 해당하는 유구들에서는 일부 구슬류를 제외하면 동물형 대구가 유일한 장신구류에 해당하고, 구슬류 역시 한 유구에서 유리 소재의 구슬이 3점 내외 출토한 점과 각 구슬의 모양이 상이하여 특정한 장신구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위신재로 추정하기 어렵다. 오송 유적에서는 주구토광묘가 사라지고 구획묘가 등장하는 단계에 들어서야 호형대구나 중층금박구슬, 그리고 그 외의 다량의 구슬류가 출토하는 등 위신재로 볼 수 있는 유물의 종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 환두도가 대표적인 위신재로 전환되는 양상도 함께 보인다. 그러나 이전 단계까지는 철검과 마형대구로 위신재가 한정된 양상이 보이는 것이다.

다만 마형대구는 최고위층의 전유물이었던 초기철기시대와 달리 목관묘 단계가 된 후부터는 개인 내지는 특정 집단의 기호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강인욱 2004)을 고려한다면, 마형대구와 동병철검 역시 최고위층의 상징품보다는 피장자 개인의 심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양상은 철검류와 대구류가 출토하는 유구들의 공반유물 혹은 유구의 입지나 크기가 다른 유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무덤유구의 차이가 집단의 차이를 말해준다면, 위와 같은 유물의 차이는 단순히 집단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조성집단들이 이용하는 교역망 자체가 달랐음을 시사한다. 운양동 조성집단이 해양교역을 주도한 집단이라면, 오송 유적의 조성집단은 내륙지역의 교역망을 위주로 중·장거리 관계를 맺은 집단으로 보이며 특히 영남지역과 중서부지역의 교역관계를 설명할 때 주된 근거로 드는 음각문의 마형대구가 오송 동병철검이 출토한 지점 내 3개의 유구에서 출토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호남지역에서 기원전후 출현한 사주식 주거지가 마한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3세기 이전까지는 호서와 호남의 각 지역에서 구별되는 전개과정을 거치며 지역적 확산과정을 거쳤다는 연구(허진아 2018a) 역시 2-3세기 경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교역망과 집단 간 교류망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일 것이다.

그러나 2-3세기대 해안에서 30km 이내에 위치한 유적(고청 선동·만동·남산리, 김포 운양동, 서산 예천리, 아산 명암리 등)과 30km 이상의 거리를 가진 유적(청주 송대리·송철동, 충주 금릉동 등)들이 구슬 종류와 수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3세기 이후부터는 해안의 접

근성과 구슬의 양이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허진아 2018b). 오송 유적 역시 구획묘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3·4단계에 들어서면 구슬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마한 권내 전반에 걸쳐 환두도가 위신재로 우위를 점하고 사주식 주거지가 전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부여계 유물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할까? 우선 두 유적 간의 교역루트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그간 부여계 유물 혹은 북방계 유물의 유입 맥락에 대해서 북방계 집단과의 직접 교류 혹은 북방계 집단의 거주지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차운환 2012·2013; 황다운 2019)이나 낙랑이나 고구려의 중간지를 거친 유입(권도희 2020; 황다운 2019) 혹은 부여·고구려계 지배세력의 입성(김길식 2014)으로 보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부여계 유물은 단발적·산발적으로 출토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부여계 유물을 모두 하나의 루트를 통해 유입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각 유적의 상황에 맞춰 해석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즉 운양동 유적에서 출토한 금제이식의 경우 같은 장식구류의 유입루트와 같은 교역권의 차원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한 무제의 정복전쟁 이후 남해9군이 설치되면서 동남아시아와 한의 교섭이 본격화되면서 한나라뿐만 아니라 한나라와 교류하던 여타 지역의 나라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유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나라와의 교역권에 있던 여타 지역의 정치체들 역시 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나 한나라 묘에서는 후한시기 무덤에서 유리구슬의 부장이 더 많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권오영 2017), 후한시기 역시 이러한 해상교역권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한의 구슬 부장도 크게 이 해상교역권에 포함되었다는 고고학적 물질자료로 해석된다.

한편, 부여와 한과의 관계는 문헌사뿐만 아니라 한식 동경과 오수전의 출토뿐만 아니라 중원계로 추정되는 기와와 칠기(이종수 2010) 등의 물질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길장지구에서 이전까지는 잘 확인되지 않았던 구슬류가 부여 형성기 이후부터는 부여 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식류에 첨가되고, 그 외에도 출토를 보이는 양상으로 봤을 때 부여 정치체가 형성된 이후 부여와 한의 교류를 통해 부여 역시 해상교역에 포함되었거나 혹은 해상교역을 통해 한에 유입된 물질문화에 접할 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덧붙여 1세기 초·중엽으로 편년되는 만발발자 적석묘에서 같은 형식의 이식과 노하심 유적 출토와 같은 남색 귀막이 구슬(璜)이 출토하는 등의 유사성을 봤을 때 한나라와의 교역 외에도 위신재를 교류할 수준의 교역망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여의 교역망과 당대 한나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해상 교역망을 고려했을 때, 운양동에서 출토한 금제이식은 부여와의 직접 교역이나 운양동 정치체가 해양무역을 주도하는 가운데(허진아 2019)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전까지는 마한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금제이식’이라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송 동병철검은 유입루트를 상정하기 힘들고, 위신재로서의 상징성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여와의 직·간접적 교류의 증거나 부여계 이주민의 흔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 무리이며, 아직까지는 1)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의 후손이 사용했을 가능성, 2) 백제 혹은 마한의 토착인이 부여와 교역 또는 사신 파견 등의 교류 등을 통하여 사여 받고 대를 이어 장기간 사용 등의 두 가지 가능성로 보고, '박제화되어 상징화된 계승의식의 표현품'(윤정하·강인욱 202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문헌상 백제와 부여의 출자관계로 인해 부여는 한국사에서 중요하지만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여의 물질문화상이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내에서 출토된 부여계 유물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2010년대에 등장한 철검과 금제이식은 만발발자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이식 1점을 제외하고는 부여의 대표적 유적인 노하심 유적에서만 확인되었던 형식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 유입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단일 유물만으로 이주나 교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 상조일 것이다. 다만, 그간 부여계 유물의 출토 자체, 특히 동일한 형식의 위신재 출토는 더욱 희소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철검류 혹은 유라시아 전반에서 출토한 사례가 있는 S자형 표비와 같은 유물의 출토를 부여와의 직접 교류로 연결시키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부여계 유물을 각 유적, 특히 조성집단의 교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당시 교역망과 연관지어 부여계 유물의 유입맥락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유물의 한계로 분석이 거칠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서 끝났지만, 만발발자에서 출토한 나선형 금제이식처럼 부여계 경내와 한반도에서만 확인되는 유물들이 앞으로 중국 동북지역이나 한반도 일대에서 다시 출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이후 부여의 교역망에 대한 물질문화적 정황이 밝혀져 중부지역과 부여의 교류관계에 대한 해석이 진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욱, 2004, 「한반도 출토 동물형 대구의 원류에 대한 시론적 검토」, 『호남고고학보』19, 호남고고학회.
- , 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한국고고학보』106, 한국고고학회.
- , 2021,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 『동북아역사논총』71, 동북아역사재단.
- 권오영, 2017, 「한반도에 수입된 유리구슬의 변화과정과 경로 -초기철기-원삼국기를 중심으로-」, 『호서고고학』37, 호서고고학회.
- 김길식, 2014, 「2-3세기 한강 하류역 철제무기의 계통과 무기의 집중유입 배경- 김포 운양동 철제무기를 중심으로-」, 『백제문화』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김낙중, 2016, 「분묘 출토 토기로 살펴본 마한의 성장과 지역성」, 『문화재』49,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새봄, 2011, 「原三國後期 嶺南地域과 京畿·忠清地域 鐵矛의 交流樣相」, 『한국고고학보』81, 한국고고학회.
- 김수빈, 2022, 「국내성기 고구려 금공장식 연구」, 『고구려발해연구』72, 고구려발해학회.
- 김중엽, 2021, 「원삼국시대 마한대구의 의미에 관한 고찰」, 『마한백제문화』3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서현주, 2011, 「3-5세기 금강유역권의 지역성과 확산」, 『호남고고학보』37, 호남고고학회.
- , 2014, 「충청지역 마한 분구묘 사회의 연구 성과와 과제」,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 , 2016, 「호서지역 원삼국시대 분묘유물의 변천과 주변지역과의 교류」, 『호서고고학보』35, 호서고고학회.
- 송만영, 2016, 「한강 하류 마한 취락의 편년과 전개 과정」, 『송실사학』36, 송실사학회.
- 오강원, 2014, 「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금속제 이식의 시공간성과 제작 방식」, 『호남고고학보』48, 호남고고학회.
- , 2018, 「서풍현 서차구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 -토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58, 호남고고학회.
- 유나리, 2015, 「고구려 금제 이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은식, 2016, 「전기 부여 토기문화의 변천과 확산」, 『한국고고학보』100, 한국고고학회.
- 윤정하, 2020, 「토기와 위신재로 본 부여의 성립과 교류 네트워크」, 『한국상고사학보』108, 한국상고사학회.
- 윤정하·강인욱, 2021, 「청주 오송 유적 출토 부여계 동병철검의 의의」, 『한국상고사학보』112, 한국상고사학회.
- 이송란, 2015, 「보요기법과 누금세공기법으로 본 신라 금공예의 수용 과정」, 『고문화』8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이승호, 2020, 「1-3세기 중국 동북지역 정세 변화와 모피 교역」, 『동국사학』67,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 2010, 「고고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대외교류 관계 검토」, 『선사와 고대』33, 한국고대사학회.
- 이종수, 2013, 「부여의 대외교류와 교통로 연구」, 『백산학보』96, 백산학회.
- 정인성, 2016, 「원사시대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구축과 상호작용」, 제4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상고사학회.
- 차윤환, 2012, 「원삼국후기-백제초기 한강중류역 묘제의 지역성」, 『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 , 2013, 「백제초기 한강 중·하류역에 위치한 정치체의 존재양상 -묘제를 중심으로-」, 『고문화』8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허진아, 2018a, 「호서-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 등장 과정과 확산 배경」, 『한국고고학보』108, 한국고고학회.

——, 2018b, 「마한 원거리 위세품 교역과 사회정치적 의미 -석제 카넬리안 구슬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보』41, 호서고고학회.

——, 2019, 「초기철기-원삼국시대 구슬 해상교역과 환황해권 정치 경관의 변화」, 『한국상고사학보』106, 한국상고사학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풍납토성 13』.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오송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김포 운양동 유적 I』.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김포 운양동 유적 II』.

Anthony, D.W., 1990, Migration in Archaeology: The Baby and the Bathwater, *American Anthropologist* 92:895-914.

孙守道, 1960, 「“匈奴西岔沟文化”古墓群的发现」, 『文物』Z1, 文物出版社.

田耘, 1984, 「西岔沟古墓群族属问题浅析」, 『北方文物』1, 黑龙江省文物考古研究所.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编, 1987, 『榆树老河深』, 文物出版社.

토론문 2

‘유물로 본 한반도 중부지역 부여계 문화의 유입’에 대한 토론

유은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발표문은 최근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부여계 유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여의 유적·유물과 직접 비교하여 부여계 유물의 유입 맥락을 당대의 다양한 교역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토론 소임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부여의 물질문화 관련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부여의 물질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즉 부여의 중요한 고고자료로 활용되는 노하심유적과 서차구유적은 부여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주변 유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 조성연대가 초기 부여(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전후)에 해당되어 부여 전반의 물질문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요령성과 길림성의 접경지역에서 확인되는 서차구유형과 대가산문화의 조영집단을 부여보다는 오환으로 비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에 자주 언급된 서차구유형의 집단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2. 한반도 중부지역 부여계 유물 관련

발표자는 김포 운양동유적 출토 금제이식, 서울 풍납동 미래마을부지 유적의 은제 장식품, 청주 오송유적 출토 동병철검을 중부지역 부여계 유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김포 운양동유적에서 확인된 금제이식은 금판을 나선형으로 말아 제작한 것으로, 호편형(弧片形)으로 분류되고 뉴환이식의 착상부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동형의 이식은 노하심유적에서만 5점이 알려져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는 압록강 중류 지역의 석호 왕팔발자유적 출토품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특히 인근의 환인 망강루고분에서는 부여 유적에서 출토량이 많은 뉴환이식

1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양동유적의 금제이식의 출토 배경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고지였던 압록강 중류 지역과의 모종의 관련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풍납동 출토 은제 장식품은 상단이 둥글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여서 뉴환대엽형(扭環大葉形, 보요형) 이식의 대엽으로 추정되는 유물입니다. 노하심유적에서 뉴환대엽형 이식은 1호분을 비롯하여 3점이 알려져 있으며 뉴환이식에 비해 출토량은 많지 않습니다. 뉴환대엽형 이식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는 선비와 관련 있는 요령성 라마동유적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납동 은제장식품과 공반된 유물이 적어 편년적 위치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동 유적에서 한성백제 주거지가 대다수를 점하는 양상으로 볼 때, 노하심유적 보다는 라마동유적의 이식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③ 청주 오송유적 출토 동병철검은 검신이 직선적이고 검파부가 죽절형이며, 그 상면에 돌점문으로 장식된 형태입니다. 특히 죽절형의 검파부에 돌점문이 있는 형식은 노하심 115호묘에서 유일하게 출토되었습니다. 발표자의 지적과 같이 부여 현지 제작품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노하심유적의 중심연대가 기원 전후로 편년되어 오송유적의 조영시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 지역에서 직접 유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모종의 지역을 거쳐 한반도 중부지방으로 유입되었을 여지도 있습니다.

④ 중부지방 부여계 유물과 관련해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청주 봉명동유적, 충주 금릉동유적, 여주 용은리유적 등에서 출토된 바 있는 2조선 인수와 철봉을 끼지 않은 함으로 구성된 재갈을 부여와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발표문에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동형의 출토 사례가 많아서 제외한다는 간단한 언급이 있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이 부여 또는 동북지역 계통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설명이 필요합니다.

3. 중부지방 부여계 유물의 유입 배경 관련

발표문의 중심주제인 중부지방 부여계 유물의 유입 배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발표자는 다양한 교역루트를 상징하고 있지만, 운양동유적에서 금제이식과 공반된 남아시아산 카넨리안 구슬류를 주목하여 내륙 교역망 보다는 해상교역 루트를 보다 강조한 듯합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이점이 높은 내륙 교역로를 나두고 굳이 해상으로 교역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산지 추정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정확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동형의 금제이식이 출토된 석호 왕팔발자유적에서 다양한 구슬류가 공반되기 점에서 중국 동부지방 또는 한반도 북부 지역집단과의 원거리 교류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유은식, 2020, 「부여고고학의 쟁점」,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박장호, 2021, 「부여계·한(漢)식계 유물과 중서부지역의 세력」, 『동북아역사논총』71호, 동북아역사재단.

주제발표 3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의 전개와 사회

: 중원-북방-흉노 차마구의 유입과 변용

이후석(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 목 차 —

- I. 머리말
- II.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의 종류와 특징
- III.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의 전개와 사회
- IV. 맺음말

I. 머리말

차마구는 고대 중원 문화권과 북방(초원) 문화권을 불문하고 물질문화의 광역적인 교류 또는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차마구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 마차(또는 전차)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거나, 이를 소유하고 부장했던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차별화된 권위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즉, 차마구는 광역적인 교류 네트워크와 계층화된 사회 구조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사회고고학의 여러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고조선 문화권¹⁾의 차마구도 그와 같은 사회고고학의 측면에서 주목된다. 고조선 문화권에서는 독자적인 차마구도 있었지만, 보통 시베리아-몽골지역에서 기원하는 초원계통 차마구와 중원지역에서 비롯되었거나 재지화된 중원계통 차마구가 다양하게 복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조

1) 고조선 문화권은 고조선의 물질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청동단검 문화권을 의미한다.

선이 존속했던 기원전 1천년기의 청동단검문화 단계에만 한정하면 대개 이른 시기에는 초원계통 차마구가 주류지만, 늦은 시기에는 대부분이 중원계통 차마구로 대체되며, 거점으로 추정되는 유적군을 중심으로 차마구가 집중되는 것도 확인된다.

고조선과 관련되는 요령~북한지역의 청동단검문화를 중심으로 보면, 차마구는 시공간적 분포 및 계통, 기종 구성 등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관념이나 성격 역시 같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고조선 문화권에서는 청동단검문화의 변천 과정을 고려하여 차마구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청동단검문화 이전 단계, 비파형동검문화와 세형동검문화 단계, 철검문화 단계(또는 원삼국기) 등과 같이 시기별로 차마구의 분포권과 그 기종 구성의 상사성과 상이성을 확인하여 그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차마구는 고조선이 형성되기 전의 상대 후기부터 중국 북방지역에서 확인되기 시작하여 서주 시기에는 요서지역까지 일부 확산된다(烏恩岳斯圖 2007). 그렇지만 요령지역의 차마구는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로 대표되는 청동단검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본격 확인된다(강인욱 2021; 孫璐 2011; 田立坤 2017). 주로 북방계통 물질문화와의 교류 과정에서 차마구가 유입되며, 일부 기종들은 재지화되었다. 전국시대 이후 중원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중원계통 차마구가 대거 유입되었는데, 특정 지역에만 밀집되는 양상으로 변화한다. 이는 수장층의 권력 기반 변동이나 네트워크의 전환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양상인데, 그럼에도 실제 마차(또는 전차)가 얼마만큼 운용되었는지 단정하기 쉽지 않다.

한편 고조선 문화권이 요동~북한지역으로 한정되는 초기철기시대 또는 세형동검문화 단계에도 차마구가 확인되나, 이전 단계 요령지역에 비해서는 기종 수와 양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다만 소위 비한식계 차마구가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은 토착집단이나 위만조선에서 독자적인 차마구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조사 보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자에 따라 계통관과 연대관이 상이하여 그 역사적·문화적 의미 추론 역시 매우 상반된다(吳永贊 2001; 孫璐 2012).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먼저 고조선 문화권의 범주에서 확인되는 차마구를 기종별로 집성하여 계통 및 변천 관계의 흐름을 파악하려 한다. 이는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의 전개와 성격을 추정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조선 문화권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차마구의 전개 양상과 이를 통해 파악되는 사회 관계를 추정하려 한다. 고조선의 청동단검문화 변천 과정에서 유입·변용되는 차마구는 수장층의 권력 강화 또는 사회 분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선, 차마구가 요하유역으로 처음 유입되는 청동기시대의 전환기적 특수성을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후 비파형동검문화의 확산 단계 요령지역에서 차마구의 유입과 변용 양상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는 요서지역에만 한정되는 전기 단계와 요중지역까지 확장되는 후기 단계로 구분하여 그 성격과 의미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세형동검문화 단계 요동~북한지역에서 확인되는 차마구의 전이 과정에 주목하여 고조선 문화권에서의 상징성과 의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낙랑 설치 전후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일부 지역까지 확인되는 중

원계통 및 흉노계통 차마구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류망이 기존과는 다른 사회 변화를 초래하였음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II.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의 종류와 특징

1. 고대 차마구와 전차마차

차마구(車馬具)는 소나 말에 수레를 연결시켜 마차(馬車; carriage, wagon) 또는 전차(戰車; chariot)을 운용하게 하는 도구이다. 말의 머리 또는 몸에 착장되는 마구와 수레칸의 일산, 차상 등에 사용되는 차구로 크게 구분된다. 차구류는 흔히 거여구(車輿具)로 지칭된다. 차마구는 기원전 3천년경 메소포타미아지역에서 수메르인에 의해 나귀 또는 소를 사용하는 마차가 사용되고, 기원전 2천년경 시베리아의 안드로노보문화권(신타시타문화)에서 말을 사용하는 전차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 청동기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신타시타문화에는 전차 부장 무덤까지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데이비드 W. 앤서니 저, 공원국 역 2015).

시베리아의 전차와 차마구는 몽골지역을 거쳐 중국 방면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암각화와 사슴들의 화상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기원전 14-13세기경 카라수크문화 단계에는 중원지역까지 전차 및 차마구가 확산된다(강인옥 2021). 중원지역에는 상말주초 단계부터 춘추시기까지 전차전이 성행하였으며, 전국시대 이후에는 점차 기마병을 활용하는 보병전이 이를 대체하며 기마병이 중시되기 시작한다(烏恩 1994; 楊泓 2005).²⁾ 다만 시베리아에는 2마 2륜차에 검-활-모-투부 등을 구비하여 1-2인 병사가 탑승하는 경량 또는 중량 전차로 복원되며, 중원지역에는 2-4마 2륜차에 검-활-모-과 등을 구비하여 2-3인 병사가 탑승하는 중량 전차로 복원된다.³⁾

서아시아에는 약간 이른 기원전 2천년기 후반경을 전후하여 전차전이 성행한다. 전차전은 기원전 17-16세기경 이집트와 힉소스족의 충돌부터 13세기경 이집트와 히타이트 간의 카데시(Kadeshi) 전투(전 1274년)에서 절정기를 이룬 후에 기원전 6세기경 스키타이와 메디아가 경쟁하는 시기 양마 육성으로 기마전이 중시되는 과정에서 쇠퇴하였다고 한다(모토무라 료지 저, 김효진 역 2021). 기원전 4세기경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 간의 가우가멜라(Gaugamela) 전투

2) 경량 기마병은 기원전 4세기말 조나라의 무령왕이 '호복기사(胡服騎射)'를 채택했던 것이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미 호(胡)로 대표되는 전국시대 북방 민족들은 경량 기마병이 조직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서한시기 회자되는 '한혈마(汗血馬)'는 기마병의 육성책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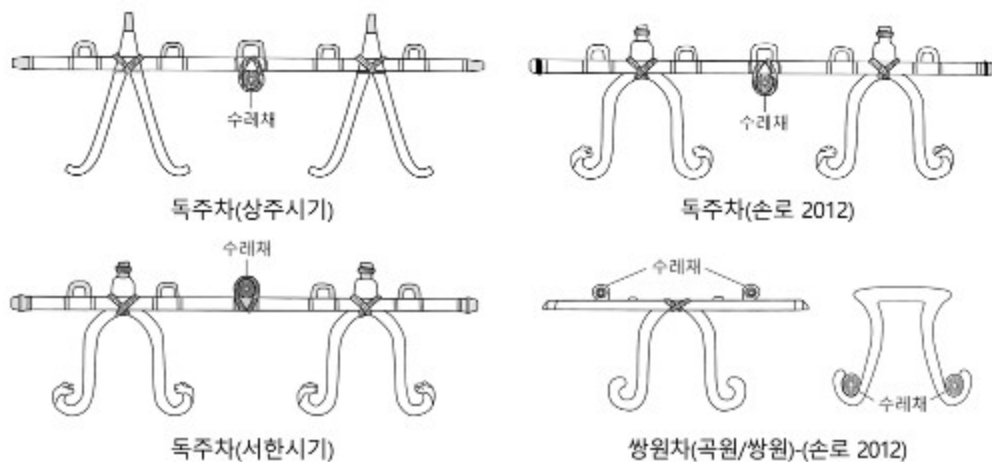
3) 시베리아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전차 복원은 무덤 속에 남아 있는 전차 흔적 및 솔로비예프(Alexander Solovyev)의 전차 복원도가 참고되며, 중원지역의 전차 복원은 차마구에 남아 있는 전차 흔적 및 진시황릉 병마용 경 청동차마 등을 통해 추정되고 있다.

(전 331년)는 장창기병으로 대표되는 경량 기마병이 중량 전차병에 비해 효율적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벽화, 조각 등의 양상으로 보면 대개 2~4마 2륜차에 검·활 등을 구비하여 2~3인 병사가 탑승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의 전차에는 대개 2륜차가 사용되었는데, 초기철기시대 이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4륜차가 등장하여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알타이지역의 파지리크문화를 대표하는 기원전 4~3세기경의 파지리크 5호분(김재윤 2021)과 기원전 3~2세기경의 몽골 치헤르틴 저 201호묘(오재진 외 2018)의 예로 보아 이미 서한시기 이전부터 월지 또는 흉노에서 4륜차가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강나리·이현우 2021). 이때 전차들은 말 2~4마리가 1개의 수레채로 연결되는 독주차(獨軸車)에 해당된다<그림 1>.

중국 동북 방면에는 요하유역보다 난하유역에서 먼저 차마구가 확인된다. 난하유역에는 기원전 12세기경 위방3기문화를 대표하는 난주 후천의 유적에서 차마구가 확인되기 시작하며, 이후 기원전 11~10세기경 서주 연국문화를 대표하는 북경 유리하 유적에서 전차 부장 및 차마구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전차문화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하유역에는 기원전 10~9세기경 위영자유형을 대표하는 조양 위영자 유적에서 차마구가 일부 확인되나,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서 전차문화가 확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요하유역에는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가 공존하는 단계부터 차마구가 본격 확인된다. 하가점상층문화에는 영성 남산근 102호묘의 각문골판에서 확인되는 전차 그림이나 영성 소흑석구 85A I 2호묘의 차마구를 고려하면, 늦더라도 기원전 9세기경에는 전차문화가 수용되었으며, 이후 기원전 7세기경까지 차마구가 확인된다. 십이대영자문화에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조양 십이대영자나 호로도 오금당 유적에서 차마구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다만 일부 기종만이 출토되어 전차문화의 상징성만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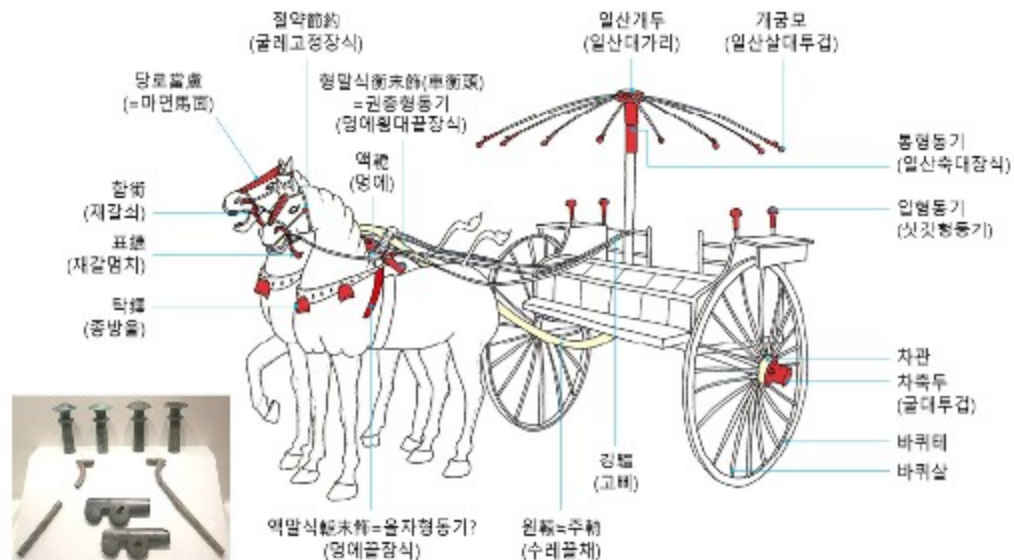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고대 계가법에 따른 마차의 종류(孫璣 2012 수정)

기원전 8~6세기경에는 인접 지역에서 북방계통 차마구가, 기원전 5~4세기경에는 연국과의 교류하여 중원계통 차마구가 주로 사용된다(이후석 2020). 결국 요하유역에는 2마리나 4마리의 말이 끄는 2륜 독주차가 수용된다(孫路 2011; 田立坤 2017)<그림 1>.

차마구는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며 적지 않은 기종들이 확인되나, 대부분은 소량이다. 그러므로 전차문화는 위세적인 상징성을 수용하는 것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함(銜; 재갈쇠), 표(鑣; 재갈멈치), 당로(當廬) 또는 마면(馬面), 정식(頂飾), 절약(節約; 말띠고리, 굴레고리), 탁(鐸; 환(環) 등의 마구류와 패강구(掛綱鉤; 고삐걸이), 개궁모(蓋弓帽; 일산살대투겁), 통형동기(筒形銅器; 일산축대장식), 차축두(車軸頭; 수레굴대투겁), 난령(鑿鈴) 축령(軸鈴) 등의 차령(車鈴; 마차방울) 등과 같은 차구류가 주로 확인된다<그림 2>.

수레 본체에서 말로 연결되는 끌채(輶/輓), 말의 목에 거치되는 명에(靛/靛) 및 명에(고정)횡대(衡) 등은 모두 목제여서 잔존하지 않는 예가 많다. 다만 그 부속구에 해당되는 차액미(車靛末) 또는 액말식(靛末飾; 명에끝장식, 울자형동기), 차형두(車衡頭) 또는 형말식(衡末飾; 명에횡대끝장식, 권총형동기), 입형동기(笠形銅器; 난간끝장식, 삿갓형동기) 등이 확인된다<그림 2>. 이와 같이 말과 수레를 직접 연결하는 부속구는 마차가 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고조선 문화권에서는 기원전 2~1세기경 북한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북한지역에는 중원계통 차마구가 주로 확인되나 독자적인 양식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 소위 비한식계 차마구가 해당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림 2> 낙랑 초기 차마구의 착장 모습(국립중앙박물관 2001 수정)

2. 고대 차마구의 종류와 특징

1) 청동재갈(동함·동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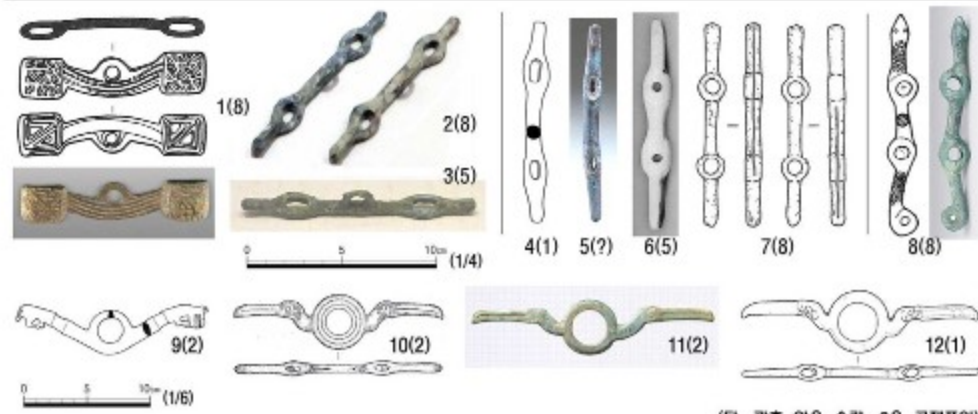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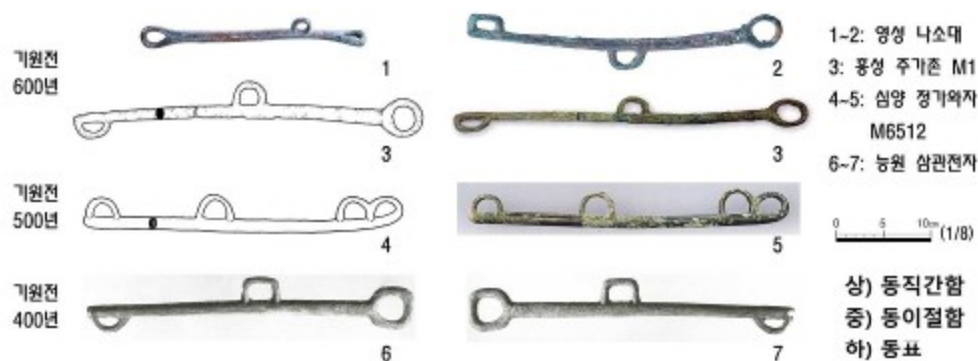
재갈류는 광역으로 분포하는 가장 보편적인 마구이며, 말을 제어하는 실용 마구로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기원전 2,000년경 또는 그 이전 처음에는 골각제로 만들어지지만, 청동재갈이 기원전 1,500년경 서아시아에서 등장하여 기원전 1,000년경 시베리아 초원지대를 거쳐 중국 북방지역까지 확산되어 널리 유행한다(邵會秋 2004). 최근 투바공화국의 아르잔 1호분이 조사되어 청동재갈은 기원전 9~8세기경의 스키타이문화 초기 단계부터 등장하였음이 밝혀졌다(강인욱 2015).

요하유역에는 하가점상층문화권에서 기원전 9세기경부터 확인되며, 십이대영자문화권에는 기원전 6세기경에야 등장한다(이후석 2020). 기원전 8~7세기경에는 청동재갈이 확인되지 않아 나무 등의 유기물로 만든 재갈들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청동재갈과 공존하는 철재갈은 시베리아~몽골지역에서 기원전 4~3세기경 이전부터 등장하나, 중국 북방지역에는 기원전 4~3세기경 이후에야 확인되기 시작한다. 요동~북한지역에는 기원전 2~1세기경부터 중원계통과 흉노계통의 청동-철재갈류가 확인된다. 동함(銅銜)과 동표(銅鑣)의 결합 관계에 주목하면, 하가점상층문화의 청동재갈이 일체형인 것과 달리 십이대영자문화의 청동재갈은 조립형인 것이 특징이다.

십이대영자문화의 동함에는 직간함(直杆銜)과 이절함(二節銜)이 있다. 직간함은 하가점상층문화의 쇠퇴하는 단계부터 적봉(영성) 일대에서 출현하여 요서지역으로 확산되고, 요중지역까지 파급된다. 영성 나소대, 흥성 주가촌, 심양 정가와자, 능원 삼관전자 등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나소대 출토품은 소형 1점(길이 21cm)과 대형 1점(길이 30.9cm)가 조합되는 것이어서 발생 단계에 해당된다. 이를 제외하면 길이 31~38cm이며,⁴⁾ 좌우 비대칭인 것과 결마에만 사용된다(孫璐 2011). 대개 이절함과 공반되며, 짝수 부장되는 예가 많다. 주로 수장급의 대형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어 피장자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잘 나타내는 기종으로 판단된다(이후석 2020; 孫璐 2011).

이절함은 중국 북방지역에는 기원전 8~7세기경부터 등장한다. 요하유역에는 하가점상층문화의 후기 단계, 특히 기원전 700년경 전후부터 보이는데, 영성 천거천과 소흑석구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십이대영자문화도 후기 단계, 즉 기원전 600년경 전후부터 확인된다. 흥성 주가촌, 조양 문장자, 심양 정가와자 등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중환형(重環形)만 보이다가 이후 전국시대에는 건창 및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단환형(單環形)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4) 요서지역의 직간함은 요동지역의 것과 달리 중앙부와 가장자리 양쪽의 고리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동표에서 확인되는 속성으로 제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된다. 직간함의 등장 배경은 이와 관련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단, 괄호 안은 수량, 6은 골재품임)

1: 호로도 오금당(M1-M3), 2-3: 조양 십이대역자 M1·M2, 4: 영성 소흑석구 92AⅡM11, 5: 영성 나소대, 6: 조양 원대자 M122, 7: 풍성 주가존, 8: 심양 정가역자 M6512, 9: 연경 옥황묘 M156, 10: 난평 포대산 M6, 11: 건장 동대장자 M10, 12: 건장 동대장자 M45

<그림 3> 청동기시대의 고조선 문화권 청동재갈과 비교 자료

청동재갈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기종으로 외환 형태에 따라 '삼각형→마등형→원방형→내원외방형→원형(타원형)'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다. 춘추시대에는 삼각형을 시작으로 이중고리식의 내원외방형이 유행하며, 전국시대에는 원형(또는 타원형)이 널리 유행한다(鄒會秋 2004). 타원형의 바깥고리가 커지면서 수면문이 있는 것은 중원지역에서 재지화된 형식이다. 길이 21~26cm이며, 짝수로 출토되는 예가 많다. 내환 안쪽이 닳아 있어 사용하던 것을 부장하였다고 생각된다(이후석 2020). 이절함의 형식 분포 양상으로 보면, '하가점상층문화→옥황묘문화→십이대영자문화'의 순서대로 수용됐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원방형과 내원외방형은 시기차가 크지 않으므로 옥황묘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는 거의 동시기에 수용하였다고 생각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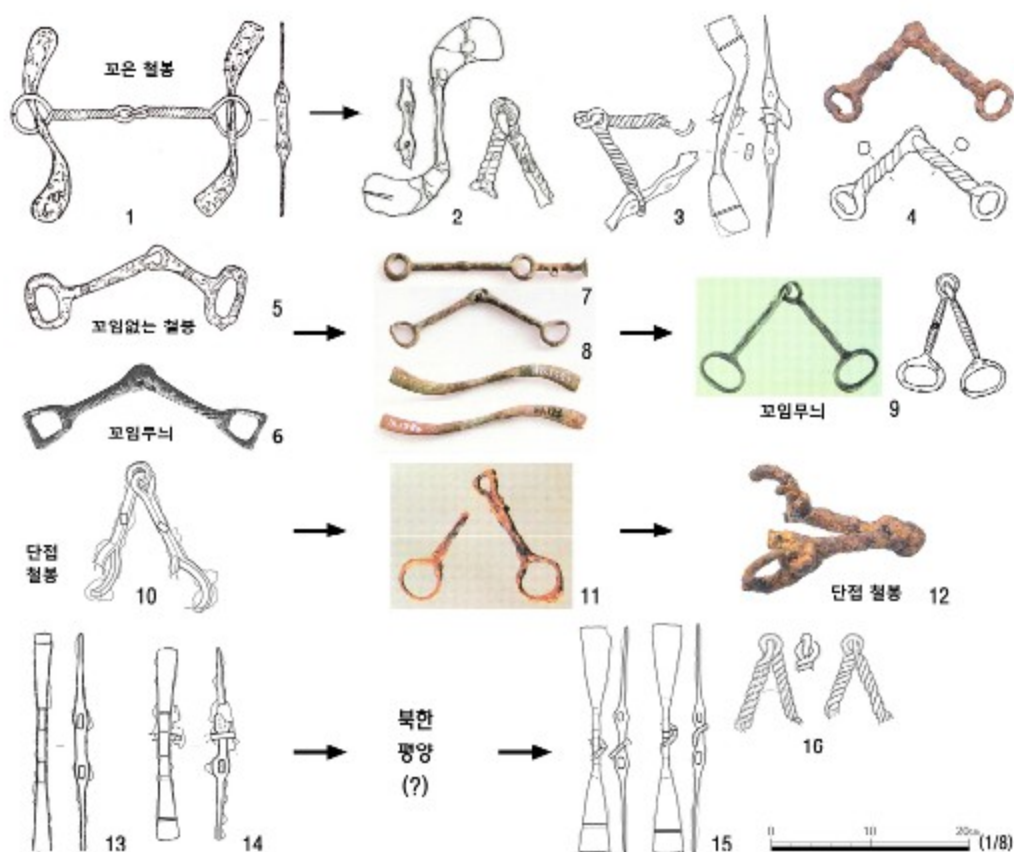
십이대영자문화의 동표에는 중간고리나 중앙투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2공식(신식)인 것과 3공식(고식)인 것이 확인되어 있다. 고식에는 조양 십이대영자(M1·M2)나 호로도 오금당(M1~M3) 유적 출토품이 있고, 신식에는 영성 나소대, 흥성 주가촌(M1), 조양 원대자(M122), 심양 정가와자(M6512) 유적 출토품이 있다. 양단부가 동물형인 장식동표는 옥황묘문화의 것과 관련된다(鄒會秋·石嫻靜 2018, 2019). 다만 건창 동대장자(M10·M45) 유적 출토품과 같이 옥황묘문화와 연하도문화가 복합되는 과정에서 재지화된 것도 확인된다. 길이 10~20cm이며, 장식동표는 보통 이절함과 조합되어 부장된다<그림 3>. 그러므로 십이대영자문화의 동표는 처음에는 하가점상층문화와 관련하여 재지화된 것이 사용되었다가 나중에는 옥황묘문화의 쇠퇴 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받으면서 상위계층에만 한정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후석 2020).

한편 요동-북한지역의 토착문화에는 원래 재갈류가 없었는데, 정가와자유형을 제외하면 서한 중기 또는 기원전 2세기경에야 금속재갈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기원전 3세기경의 요동군과 기원전 2세기경의 위만조선에는 재갈류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자료로는 검증하기 쉽지 않다. 다만 초원계통 또는 중원계통 변형 청동재갈 및 연식 철제표비가 확인되고 있고, 흉노계통의 철제표비도 일부 확인되고 있어 재질, 계통, 형태, 제작기법 등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이 매우 증가하였음이 주목된다<그림 4>.

먼저 기존 연구에서 간과했던 변형 청동재갈부터 검토한다. 변형 청동재갈은 나선형의 새김문이 있는 이연식함과 S자형표가 조합되는 청동표비를 가리킨다. 요동지역에는 보란점 화아산 8호묘를 비롯하여 서한 분묘에서 일부 확인되며, 북한지역에는 평양 토성동 4호묘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림 4-8,9>. 이연식함은 봉의 외관만을 보고 꼬은 철봉 또는 동봉으로 오해하여 왔던 형식이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동봉 여러 개를 꼬은 것이 아닌 주조 새김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기 스키타이문화에서 비롯되어 중원문화에서 재지화된 기법으로 생각된다. 이와 조합되는 S자형표도 가장자리 판상, 중앙 측면 2공식의 철제S자형표와 같은 형식이다. 이와 같은 변형 청동표비는 연식 철제표비와 대비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원전 3세기경부터 있었다고 생각되나 요동-북한지역에는 기원전 2-1세기경의 것만 출토된다. 그러므로 서한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주목하여 왔던 연식 철제표비를 간단하게 짚어본다. 연식표비는 꼬은 철봉과 꼬지 않은 철봉이 함께 확인되는 이연식함과 S자형(프로펠러형)표가 조합되

는 철제표비이다. 북한지역이나 영남지역에서 다수 확인되어 위만조선 이래 차마구로 인식되는 기종이다. 평양 상리 목곽묘와 정백동 1호묘를 비롯하여 북한지역에서 단장목곽묘가 유행하는 기원전 1세기대 전반 전후 가장 유행한다. 중부지역에는 가평 달전리 3호묘가, 영남지역에는 성주 예산리 1호묘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거의 같은 시기라고 생각된다<그림 4-2~4>.



1·5: 연해도 무양대, 2: 성주 예산리 M1, 3: 평양 상리 목곽묘, 4: 가평 달전리 M3(목곽묘), 6: 투배 어르전 1호분, 7·8: 보린점 화어산 M7·M8, 9: 평양 토성동 M4, 10: 몽골 도르리나르스 M2, 11: 평양 석암리 목곽묘(1962), 12: 보성 우산리 현촌 1호목곽묘, 13·14: 몽골 도르리나르스 M2·M5, 15·16: 경주 화천리 M5(단, 6,7,8은 청동)

<그림 4> 낙랑 초기 금속재갈(함표)의 계통과 비교 자료

다만 기존에는 상리 목곽묘의 S자형표가 연하도나 다른 유적 출토품에 비해 가장자리가 더욱 납작해진 것을 재지화된 것으로도 보았는데, 하북 녹천 북신성촌 2호묘에서도 거의 같은 것이 출토되고 있고, 형태 변화가 미미하여 독자적인 형식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끝으로는 최근 조사자료가 확보되어 일부 구체적인 면을 추정하게 하는 흉노계통 철제표비를 살펴본다. 흉노계통 철제표비는 단점 철봉이 확인되는 2연식함과 1자형(착납형)표가 서로 조

합되는 철제표비를 가리킨다(張恩晶 2012). 단점 2연식함이 북한지역의 평양 석암리 목곽묘(1962)는 물론 동시기로 추정되는 호남지역의 보성 현촌 1호묘에서도 확인되며, I자형표가 영남지역의 경주 화천리 5호묘를 비롯하여 일부 유적에서 출토되는 점이 주목된다<그림 4-11-12-15>. 다만 몽골지역의 흉노 표비들은 대부분이 골모드(M20)나 도르릭나르스(M2-M5)와 같은 기원전 1세기경 이후의 대형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이기에 일찍부터 수용되었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원전 4~3세기경의 알타이 파지리크 5호분에서도 단점 2연식함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에도 낙랑 설치 이전부터 유입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이후석 2022).

2) 청동당로(청동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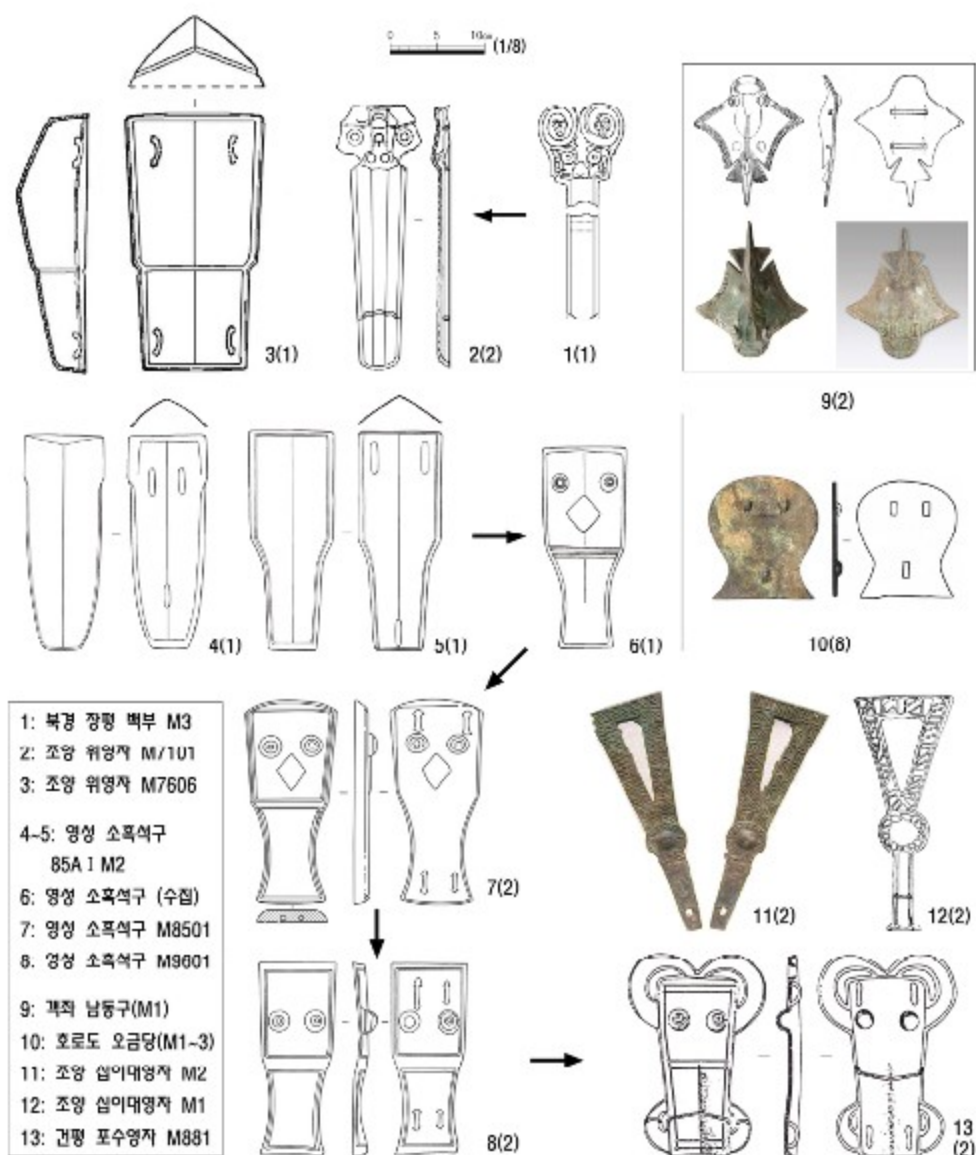
청동당로(靑銅當廬)는 말 머리의 중앙부에 세로 방향으로 덮는 장식으로 청동마면(靑銅馬面)이라고도 한다. 말 머리의 모양대로 종방향의 세장형이 기본 형태이다. 다만 상단부를 동물얼굴 형상으로 장식한다거나 전체 형상을 간략화된 동물 형상으로 만든 것이 많고, 이와 함께 장식 문양을 표현하여 넣은 것도 있다. 요하구역에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확인되는 가장 오랜 기종이다. 중원계통의 것이 재지화되면서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된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쇠퇴 이후에는 동물 형상의 것이 일부 확인되나, 기원전 4~3세기경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북한지역에서 기원전 2~1세기경 중원계통의 것이 다시 확인된다.

먼저 요서지역에는 위영자유형의 것이 처음이다. 기원전 10~9세기경의 조양 위영자 유적(M7101-M7606) 출토품이 거의 유일한데, 수면형(M7101)과 방패형(M7606)이 확인되어 있다. 북경 유리하 연국묘지에서 최고 등급 무덤으로 평가되는 1193호묘 출토품을 기원으로 보기도 하지만(春成秀爾 2010), 수면형은 북경 백부 3호묘 출토품과 더욱 비슷하며, 방패형은 북경 유리하 1193호묘 출토품과 크기와 문양 등이 달라 별도 전입 과정에서 재지화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림 5-1-3>.

하가점상층문화는 위영자유형의 것과 거의 같은 방패형과 이를 변형시킨 마두형이 확인된다. 다만 영성 소혹석구 유적 출토품을 조양 위영자 유적 출토품에 비해 고식으로 보더라도(春成秀爾 2010), 선후 관계를 논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전장 19.0~23.0cm, 장폭 8.0~10.2cm이며, 주로 수장급의 무덤에서 출토된다. 어찌 보더라도 처음에는 각진 방패형에 가깝지만 나중에는 점차 편평화된 마면형을 이루면서, 형태 또는 문양 구획 역시 종방향의 좌우 대칭에서 횡방향의 상하 대비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인정된다. 위영자 7606호묘 출토품과 비슷하게 생긴 소혹석구 85A I 2호묘 출토품이 고식이고, 포수영자 881호묘 출토품과 거의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소혹석구 9601호묘가 신식으로 판단된다. 즉, 영성 소혹석구(85A I M2→채집→M8501→M9601)에서 건평 포수영자(M881)로의 변천 관계가 상정된다<그림 5-4-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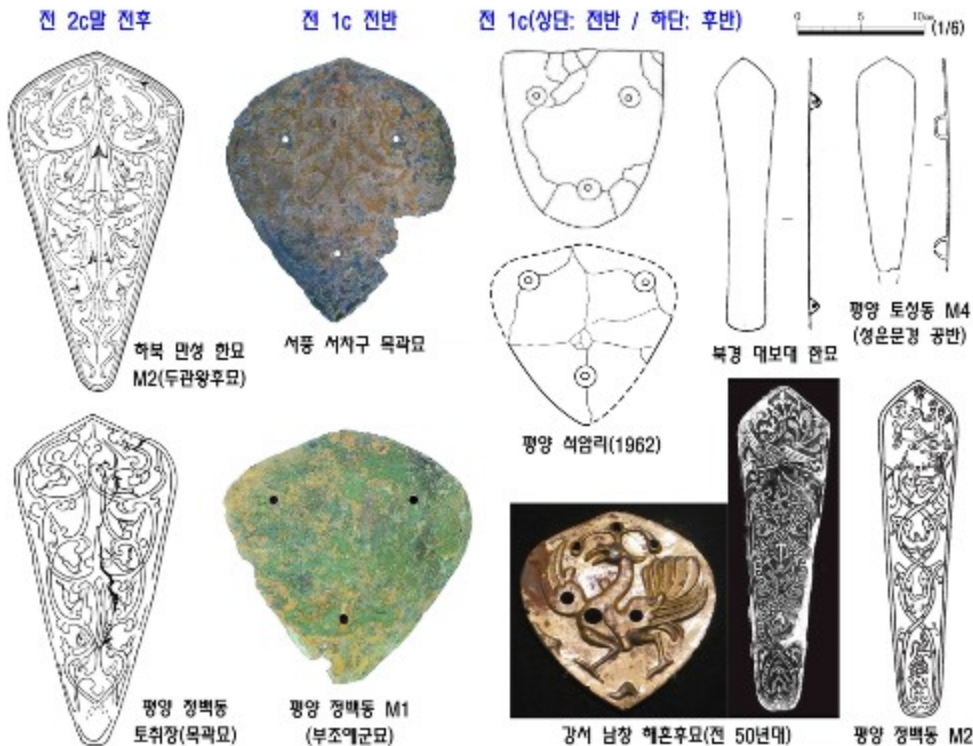
십이대영자문화는 대개 주변 문화의 것이 재지화된 것이 확인된다. 전장 13~25cm, 장폭 10~15cm이며, 수장급의 무덤에서 간혹 출토된다. 십이대영자문화의 전기 단계에는 북방계통으로 추정되는 상원하방형과 재지적인 'Y'자형이 확인되며, 이후 하가점상층문화의 마두형이 일부

수용된다. 십이대영자문화의 후기 단계에는 옥황묘문화와 관련되는 동물형이 등장하나, 요어형(魷魚形)은 재지화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가점상층문화의 마두형당로를 남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검파형동검과 관련시켜 보기도 하지만(이양수 2020; 春成秀爾 2010), 수량이나 부장 맥락, 시공간성 등이 서로 달라 현재로는 구체적인 관련성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그림 5-9-13>.



<그림 5> 청동기시대의 고조선 문화권과 주변 지역 청동당로(마면) 비교

한편 요동-북한지역의 토착문화에는 원래 청동마면(청동당로)이 없었으며, 정가와자유형에도 청동정식(나팔형동기)만이 확인된다. 이후 서한 중기 또는 기원전 2세기경에야 중원계통의 청동마면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기원전 3세기경의 요동군과 기원전 2세기경의 위만조선에도 청동마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현재 자료들은 모두 서한 중기 이후의 한식 마면이다. 서한 시기 한식 마면은 중국 거의 전역에서 확인되며, 흉노 및 부여 문화권과 북한지역에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대표적인 한식 차마구라 할 수 있다. 청동제도 보이지만, 금동제나 은입사의 세공 기법으로 만든 것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그러므로 상위계층에서 특히 유행했던 기종으로 볼 수 있다<그림 6>.



<그림 6> 낙랑 초기 청동마면(청동당로)의 계통과 비교 자료

북한지역의 마면들은 역시 서한 중기 이후 낙랑군과 관련되는 무덤에서 주로 출토된다. 대부분은 서한 영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양식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원전 2-1세기경에 유행했던 규형 또는 검능형에 해당된다. 다만 내군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개 세장형이지만, 낙랑군에서는 이와 함께 흉노 문화권에서도 확인되는 북방계통의 수적형(水滴形)에 가까워진 것도 확인된다. 기존 연구에서 비한식계 마면으로 인식했던 평양 정백동 1호묘와 석암리 목곽묘(1962)의 청동마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지만 이는 한계 마면으로, 은장금동으로 만든 재질만을 제외하

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서풍 서차구 목곽묘의 출토유물 중에 확인되는 점이 흥미롭다. 서차구의 한식 마면은 중원지역에도 있는 것이지만, 중국 동북지역에는 서차구유형과 낙랑 초기 유적에만 극소량이 분포한다. 그러므로 이는 평양과 서풍의 두 지역 집단 간의 교류 관계 하에 전해졌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지역에서 확인되는 한식 마면 중에 이른 시기이자 높은 등급으로 이해되는 것이 평양 정백동 토취장(채토장) 일괄유물 및 정백동 2호묘 출토품속에서 확인된다. 정백동 토취장 출토품은 하북 만성 한묘(M2) 출토품과 같은 것이어서 기원전 2세기말 이전으로 소급시켜 볼 수 있는 형식이며,⁵⁾ 정백동 2호묘 출토품은 강서 해훈후묘 출토품을 고려하면 유입 시점은 다소 올라가겠지만, 공반되는 한경이나 명문 양산으로 보면 기원전 1세기말로 편년된다. 즉, 초기 단장목곽묘에서는 전자가, 초기 합장목곽묘에서는 후자가 각각 대표 형식이며, 이를 통해 낙랑 초기 마면은 모두 한계(또는 한식) 그 변형 마면임을 알 수 있다. 평양 정백동 토취장에서는 을자형동기의 주변에서 권총형동기가 삽입되어 있는 멩에횡대(車衡)까지 수습되어 초기 마차 복원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독주차와 쌍원차의 여부에 대한 논쟁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살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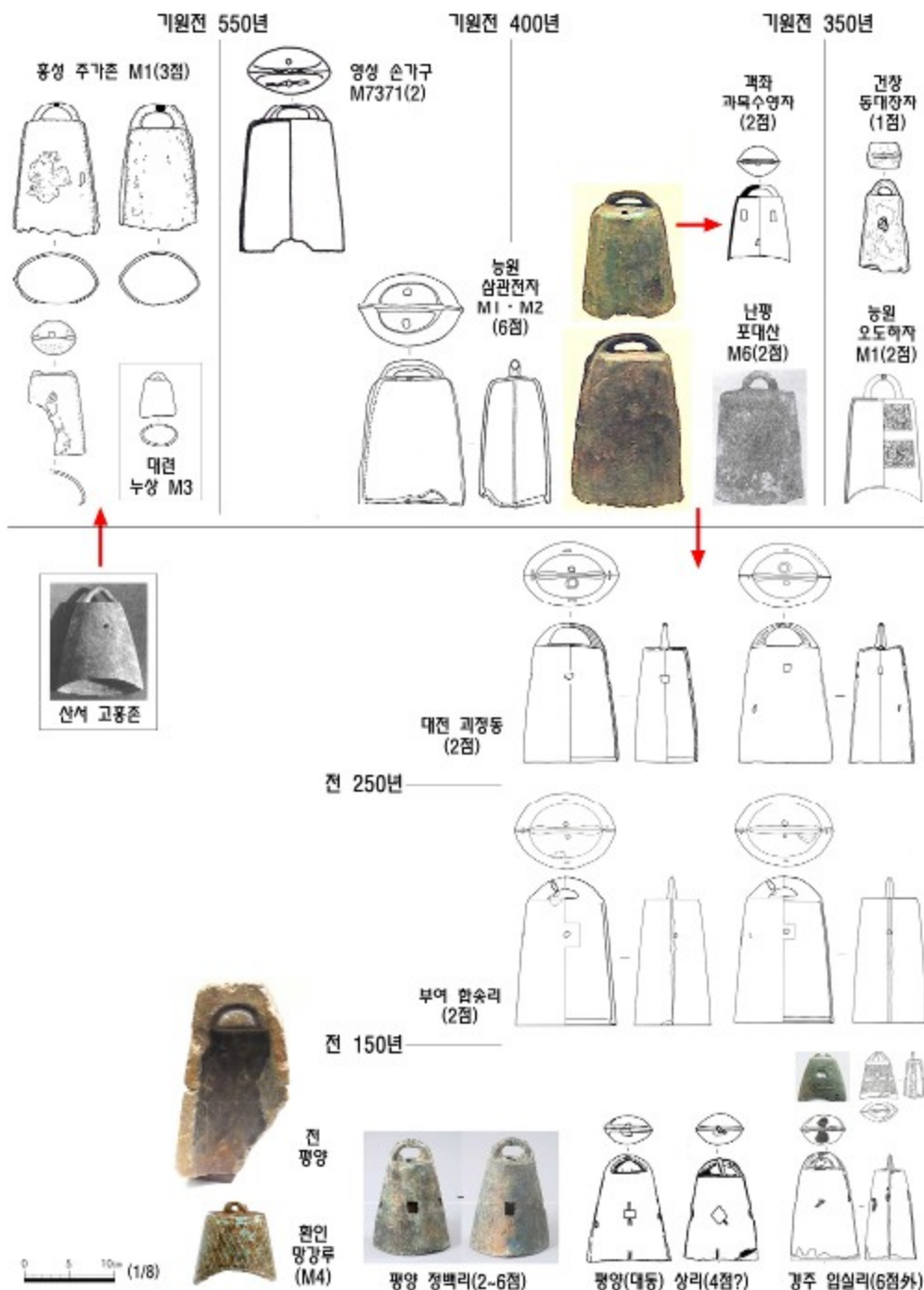
3) 동령(동탁/청동차령)

동령(銅鈴)에는 종령(鐘鈴), 난령(鑿鈴), 장방판령(長方板鈴) 등이 확인되며, 종령으로 판단되는 것이 가장 많다. 종령으로 분류되는 것은 크기가 매우 다양한데, 소형(길이 5cm이하)보다 훨씬 큰 대형(길이 12cm~20cm)은 청동마탁(靑銅馬鐸) 또는 동탁(銅鐸)이라고도 한다. 소형 종령은 주로 피장자의 가슴이나 허리에서 출토되고 있어 마장용보다는(孫路 2011) 복식구(이후석 2020)로 추정된다. 대형 종령, 즉 동탁은 다른 차마구와 출토되는 예가 많아 보통 차마구로 인식된다.

중국 북방지역의 동탁에는 무문식의 대형과 유문식의 소형이 주로 보이는데, 청동기시대는 대개 무문식의 대형 동탁 위주지만, 중원 계통 뉴종(紐鐘) 형태 역시 일부 확인된다. 초기철기시대 이후에는 중원 계통 동탁들이 확산되었는데, 특히 서한 중기 이후에는 요하 이동지역으로 유문 소형의 한식 동탁들이 널리 확산된다.

요하유역의 동탁들은 하가점상층문화의 쇠퇴 이후 십이대영자문화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된다. 황하 중상류의 이가에문화와 관련되는 기원전 11세기경의 산서 고흥촌 유적 출토품이 그 기원으로 추정되나, 중간 단계의 것이 보이지 않다가 기원전 6~4세기경 요서 서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정가와자유형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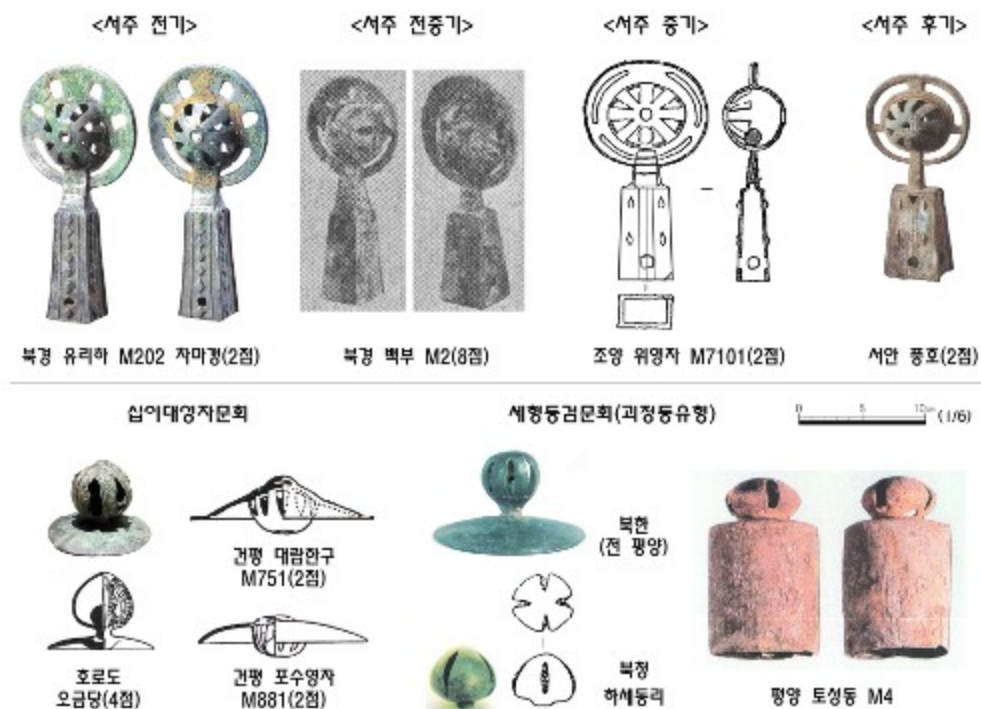
5) 평양 정백동 토취장과 만성 한묘(두관왕후묘)의 금동마면 초화문을 살펴보면, 정백동 토취장보다는 만성 한묘 출토품이 더 간략화된 것일 수도 있다. 두관왕후묘의 조성 시점(기원전 118~104년)이 낙랑 설치 직전후로 이해되며, 정백동에서는 고식으로 볼 수 있는 무문형의 한국식동과도 공반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림 7> 고조선 문화권 동탁의 계통과 변천

기원전 4세기대 중엽부터 소형화되거나 중원 계통 동탁(뉴종)이 유입되고 있어 늦더라도 이 때 요동 또는 남한지역으로 전이되었음이 확인된다. 기원전 2-1세경에는 북한지역에도 확인되고 있어, 요동지역을 거치면서 남북한의 양쪽으로 시기차를 두고 분화됐을 가능성도 있다. 전이 이후 뉴가 점차 얇아지고, 형지공이 상단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며, 몸체 측선이 더욱 벌어지는 등의 변천 양상 역시 확인된다<그림 7>.

동탁 외의 차마구로 쓰인 청동방울들은 대개 난령같은 차령, 즉 마차 방울이다. 청동난령은 청동당로와 함께 동검문화 형성 이전 단계부터 확인되는 기종이다. 위형자유형의 조양 위영자 유적(M7101) 출토품은 서주시기 중원 계통 난령인데, 역시 예외적인 유일 사례이다. 다만 기원전 11세기경의 북경 유리하 유적(M202) 출토품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기원전 10세기경의 북경 백부 유적(M2) 출토품과 같은 형식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당로난령 모두 서주 초기 연국 중심부보다는 약간 늦은 주변부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림 8의 상>.



<그림 8> 고조선 문화권 청동차령 종류와 계통 및 비교 자료

요하유역에는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하가점상층문화의 것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십이대영자문화도 흔치 않은 기종이다. 기원전 8-7세기경 하가점상층문화와 접이지대 또는 교류 관계가 확인되는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원개형의 동판

위나 중앙부에 방울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인데, 짝수 부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변 지역에서 간혹 출토되는 청동난령을 고려하면, 다른 형식일지라도 요서지역에도 일부나마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시공간적 공백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이 매우 흡사하여 향후 자료 증가가 기대된다<그림 8의 하>.

북한지역에는 기원전 2세기경의 세형동검문화 유적에서 다시 확인된다. 북청 하세동리 유적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거의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다. 하세동리 것은 세형동검동모-동과가 공반되어 보통 기원전 2세기대 전반으로 편년되며(이후석 2022; 趙鎭先 2005), 보통 차축두령(車軸頭鈴) 같은 청동차령이나 그 투겹장식방울(리순진 2001;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1989)로 이해한다. 다만 최근 이와 같은 영두통형동기를 명에횡대 끝을 마감하는 차형두(車衡頭)로 보는 견해 역시 제시되어 있다(孫璐 2012). 그렇지만 강서 태성리 유적에서 동차축두가 영두통형동기에서 발견되었으며, 막힌 통형동기와는 원통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용도 역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찌보든 기원전 2세기경의 세형동검문화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은 위만조선 시기 거여구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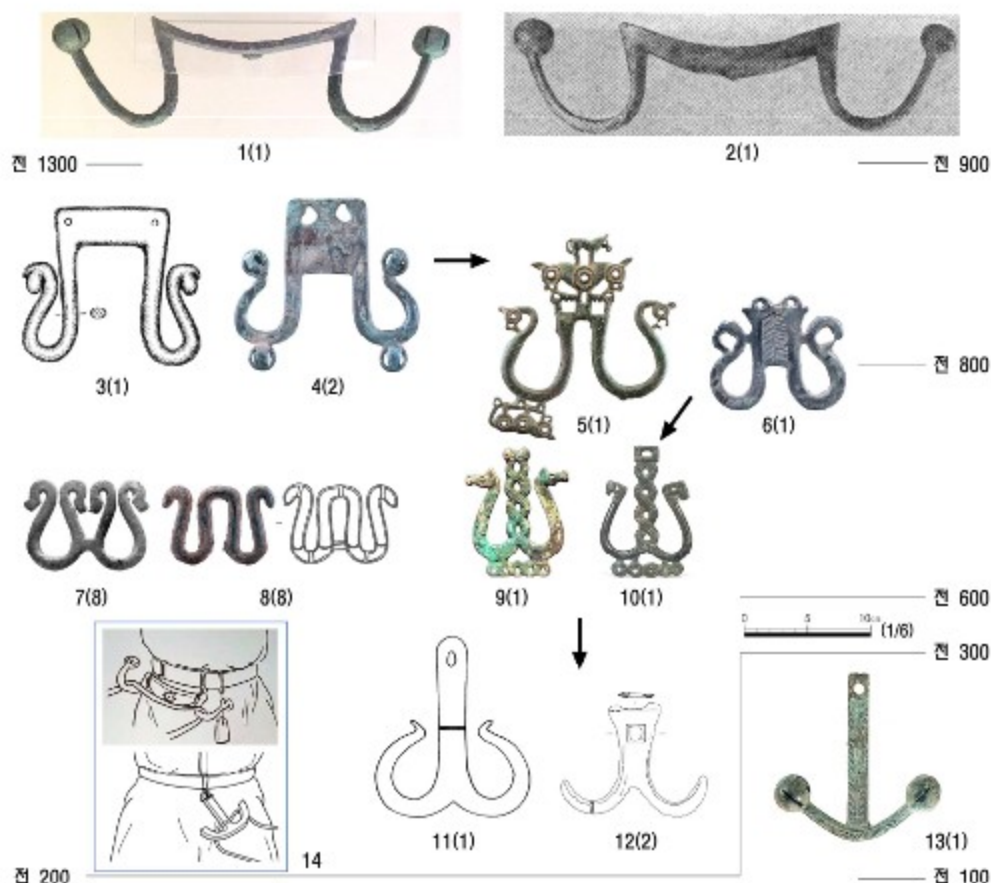
4) 동괘강구(청동고삐걸이)

동괘강구(銅掛繩鉤)는 보통 ‘고삐걸이’ 또는 ‘고삐걸개’라고 불리는데, 말을 모는 이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말고삐를 걸어두는 고삐 고정용의 거여구에 해당된다. 실제 마차(또는 전차)가 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착용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역시 컸다(강인욱 2021). 시베리아-몽골지역에서 등장하여 중국 북방지역 및 중원지역까지 확산되었는데, 시공간적 변천 과정에서 특징적인 형태 등이 다소 달라 울자형동기(兀字形銅器), 궁형동기(弓形銅器), W자형동기, 닳형동기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청동고삐걸이는 한때 활의 부속구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으나, 바료노프 등의 구 소련 및 林灝 등의 중국 학계 연구성과를 통해 말고삐를 고정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 밝혀졌다(Варенов, A. B. 1980(강인욱 2021 재인용); 烏恩 1994; 林灝 1980, 2007). 청동기시대의 시베리아-몽골지역이나 중원지역 모두 피장자의 허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예가 많아 가죽 허리 띠에 차고 있는 모습으로 복원된다<그림 9-14>. 몽골지역의 암각화나 사슴돌에서는 물론 중원 지역의 상주시기 차마갱에서도 차상(車箱) 위의 좌석으로 추정되는 중앙에서 출토되고 있어 역시 같은 양상으로 이해된다(滕銘予 2011; 李剛 2013). 다만 일부 그림에서 고삐걸이가 마부와는 이격되어 있고, 일부 차마갱 출토품에서는 나무못의 흔적으로 판단되는 목질흔이 확인되고 있어 어떤 경우에는 수레 전면 난간 등의 목재 기물에 고정시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滕銘予 2011).

청동고삐걸이는 카라수크문화 단계부터 초기 스키타이문화 단계까지, 즉 기원전 14-8세기경 시베리아지역에서 중원지역까지 널리 유행하였는데, 특히 기원전 14세기경 2륜 독주차가 북방에서 중원으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물자료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중국 동북방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학계에서 보통 ‘궁형기’로 명명하는 중원지역에서 재지화된

형식이다. 난하 하류 일대의 위방3기문화를 대표하는 난주 후천의(M5)와 장가원상층문화와 병행하는 북경 백부(M2-M3) 등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어 기원전 13~10세기경 북경 일대에는 전차문화가 확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1~2>.



1: 난주 후천의 M5, 2: 북경 장평 백부촌 M2, 3: 자백이굴 탁푸허르 M68, 4: 영성 소목역구 M8061, 5: 내동고(오르도스박물관), 6: 영성 남산근, 7: 영성 남산근 58MA, 8: 영성 영가영자 M8071, 9: 내동고(영박조원문화박물관), 10: 조양 십이대영자 M2, 11: 능원 오도허저 M1, 12: 대련 위룡천 M5, 13: 경주 압실리, 14: 착장 복원모습(북경수도박물관, 고상혜 외) (단, 괄호안은 수량)

<그림 9> 고조선 문화권 동래강구(고배걸이)의 기원과 변천

요하유역에는 기원전 9~8세기경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유적에서 차례대로 등장하는 것이 확인된다. 하가점상층문화는 '兀'형과 'W'형이 함께 확인되고, 십이대영자문화는 'W'형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순차적인 전이 양상을 잘 보여준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은 자바이칼 및 오르도스 일대에서 먼저 확인되고 있어 초원계통의 것이 중국 북방지역에서 재지화된 형식으로 판단된다. 사실 시베리아-몽골지역에서 확인되는 사슴돌에서는 거의 모든 형식의 고

뼈걸이가 확인되고 있어(李剛 2013), 요하유역에서 확인되는 초기 고뼈걸이들은 독자적인 형식 변화를 거쳤다가보다 초원 문화권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그 모티브를 수용(林滢 2007)하였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림 9-3-10>.

한편 요하유역에는 기원전 6-5세기경을 전후하여 실물자료의 공백기가 확인되나, 기원전 4세기경에는 요서지역의 능원 일대와 요동지역의 대련 일대에서 각각 간략화된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그림 9-11-12>. 이는 하가점상층문화의 쇠퇴 이후에도 십이대영자문화의 범주 또는 그 주변에서 고뼈걸이가 지속되었음을 반영하는 양상으로 생각된다. 전국시대 이후에는 중원계통 차마구가 요하 방면으로 다수 유입되어 복합되는 때이기도 해서 고뼈걸이의 전통이 다시 부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능원 오도하자 유적(M1)에는 차마구가 다수 공반되고 있고 고뼈걸이의 크기 역시 적당하며, 그 중앙부의 구멍 역시 닳아 있어 사용했던 흔적으로 추정된다<그림 9-11>.

북한지역에는 기원전 2-1세기경 청동고뼈걸이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지역의 낙랑 초기 차마구에 고뼈걸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중원지역에는 전국시대를 넘어서면 확인되지 않는 데다 낙랑 초기 마차들은 쌍원차로 보이기에 고뼈걸이가 없는 것이 순리라는 인식이다(孫璐 2012: 92). 그렇지만 영남지역에서 기원전 1세기경으로 편년되는 경주 입실리 유적에는 청동고뼈걸이가 확인된다<그림 9-13>. 특히 고뼈걸이 중앙부의 구멍에서 상하 방향으로 닳은 흔적까지 확인되고 있어 실제 사용하였음이 틀림없다(이양수 2009). 다만 사용방식이 약간 바뀌었다(고상혁·김훈희 2014). 이는 공반되는 차마구의 대다수가 위만조선-한계이며, 기원전 1세기대 전반 등장하는 닳형철기의 조형(고상혁·김훈희 2014)임을 감안하면, 기원전 2세기경 북한지역에서 제작되어 낙랑 설치 이후 영남지역으로 전입(이양수 2009)됐던 유물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고조선 문화권에서는 청동고뼈걸이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기원전 8-4세기경 요하유역(요령지역)에서 초원계통 고뼈걸이를 수용하는 한편 이후 현지에서 간략하게 변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원전 3-2세기경에는 북한지역으로 전이되었다고 생각된다. 요령지역의 능원 오도하자 유적, 영남지역에서 경주 입실리 유적 출토품은 실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며 초기 형식과는 달리 다소 변형되었지만, 실용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지나치게 장식화된 수두형(獸頭形)은 실용성이 떨어지고 상징성을 지닌 것이지만, 영두형(鈴頭形)은 실제 널리 사용됐던 형식으로 이른 시기부터 늦은 시기까지 확인되는 보편적인 형식이다. 그러므로 북한지역에는 청동고뼈고리를 사용하는 독주차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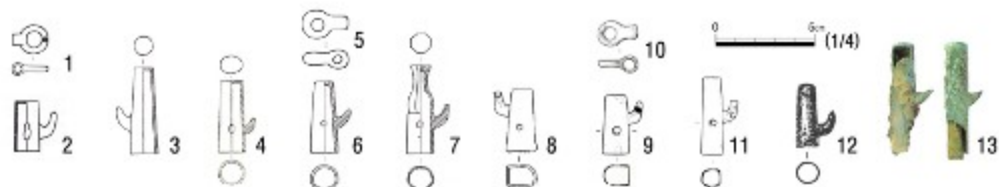
5) 동개궁모(일산살대투겁)

개궁모(蓋弓帽)는 차상 위에 설치하는 양산(日傘, 車蓋)의 살대투겁으로 양산대가리(日傘蓋頭)와 함께 마차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 탑승자의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알려주는 기종으로 주목된다. 중원지역에는 마차 부장시에 일산 전체를 함께 부장하는 예도 보이는데, 중국 동북 방면에는 개궁모를 중심으로 금속제의 부속만이 일부 부장된다. 춘추전국시대

에는 민머리의 투겁만이 있는 청동제의 고식 개공모(孫璐 분류 I 식 유사)가 주로 사용되며, 한 대에는 장식화된 투겁(金華)이나 금제 또는 금동제로 만든 부장용위세용의 신식 개공모(孫璐 분류 II~IV)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고식 동개공모는 중국 동북 방면에는 춘추시대를 전후하여 북경 일대에서 주로 확인되며, 요하구역에는 전국시대부터 확인된다. 기원전 5~4세기경 연국 중심의 중원문화 확산 과정에서 연산 일대의 옥황묘문화와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 거점 유적에서 중원계통 동개공모가 소량 확인된다. 요동~북한지역에는 기원전 3~2세기경부터 보이는데, 특히 장백 전림자 유적 출토품은 낙랑 설치 이전 북한 권역에서 전국계통 동개공모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는 평양 정백동 1호묘 출토품과 같이 대개 기원전 1세기경의 낙랑 초기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들이다<그림 10>. 이외에도 낙랑 고분에는 장식투겁의 신식 동개공모가 다수 보이는데, 이는 모두 한식 개공모라 할 수 있다.

고식 동개공모의 개략적인 변천 과정은 길이 속성과 거치대의 형태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이른 시기에는 몸체가 짧고 거치대의 끝이 꺾인 것이 많고, 늦은 시기에는 몸체가 길고 거치대의 끝이 뾰족하며 직선적인 것이 많다. 이를 고려하면 장백 전림자 유적 출토품은 대략 전국말~서한초 무렵, 평양 정백동 1호분과 같은 평양 일대 출토품은 대부분이 서한 중기 무렵으로 편년된다. 다만 일제시기 유리건판사진(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른 속성의 고식 동개공모가 확인되고 있어(이현우 2020) 기원전 2세기에 속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한지역에도 낙랑 설치 이전부터 전국계통 또는 비한식계 동개공모가 있었음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⁶⁾



1·2: 회례 북신보 M1·M2, 3: 연하도 낭정존 10호공방, 4: 연하도 무양대존 21호공방, 5~7: 연하도 채집, 8: 탁록고성 M2, 9·10: 건창 동대장자 M32, 11: 건창 동대장자 M34, 12: 장백 전림자 채집, 13: 평양 정백동 1호분(부조예군묘)

<그림 10> 고조선 문화권 비한식계 동개공모의 계통과 비교 자료

6) 한편 북한지역 전통으로 인식했던 것(孫璐 분류 V 식)은 실상 동개공모(銅蓋弓帽)가 아닌 동원수식(銅纒首飾)이다. 즉, 멩에횡대와 연결되는 수레골채 끝의 투겁장식으로 양산 부속과는 전혀 무관하다. 원수식은 정면 짐승 머리모양, 측면 'C'자형을 띠며, 서한 중기 이후에는 명기화된 것이 많다. 하북 녹천 북신성존 2호묘와 평양 정백동 2호묘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북한지역에는 최상위층으로 보기 힘든 무덤(서흥 문무리)에도 동개공모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동차축두(수레굴대투겁)

차축두(車軸頭)는 수레 축의 가장자리 끝을 마감하는 금속제의 투겁으로 수레바퀴에서 사용되는 거여구의 핵심 부품이다. 말과 마차 수를 추정하게 하는 근거 자료로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차축두의 투겁 몸체를 세(害)라 하고, 그 고정쇠를 할(轄)이라고 한다. 중원 문화권과 흉노 문화권의 대형 무덤에는 마차 전체를 부장하여 차축 관련 부속들이 한꺼번에 출토된다거나, 차축 부속구만 부장하더라도 차관 등의 여러 기종들이 함께 출토되는 예가 많다. 그렇지만 중국 동북 방면에는 북경 일대의 연국 중심지를 제외하면 대개 차축두만 부장되고 있어 실용성보다는 상징성이 훨씬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서한 시기 이전에는 모두 청동으로 제작되나, 그 이후에는 차축두를 제외하면 철제품이 많다.

요하유역에는 위영자유형의 조양 위영자 유적(M7101)에서 중원계통 차축두가 처음 보이는데, 1점만이 출토되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그림 11-1>. 이후 하가점상층문화에 비중원계 차축두가 일부 보이지만, 비주류로 소량이다.⁷⁾ 하가점상층문화가 쇠퇴하는 십이대영자문화의 후기 단계에야 중원계통 차축두가 다시 부상한다. 대부분이 북경-당산 일대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하여 연국과의 직간접적 교류 과정에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길이 5-9cm이며, 보통 2점 또는 4점으로 짝수 부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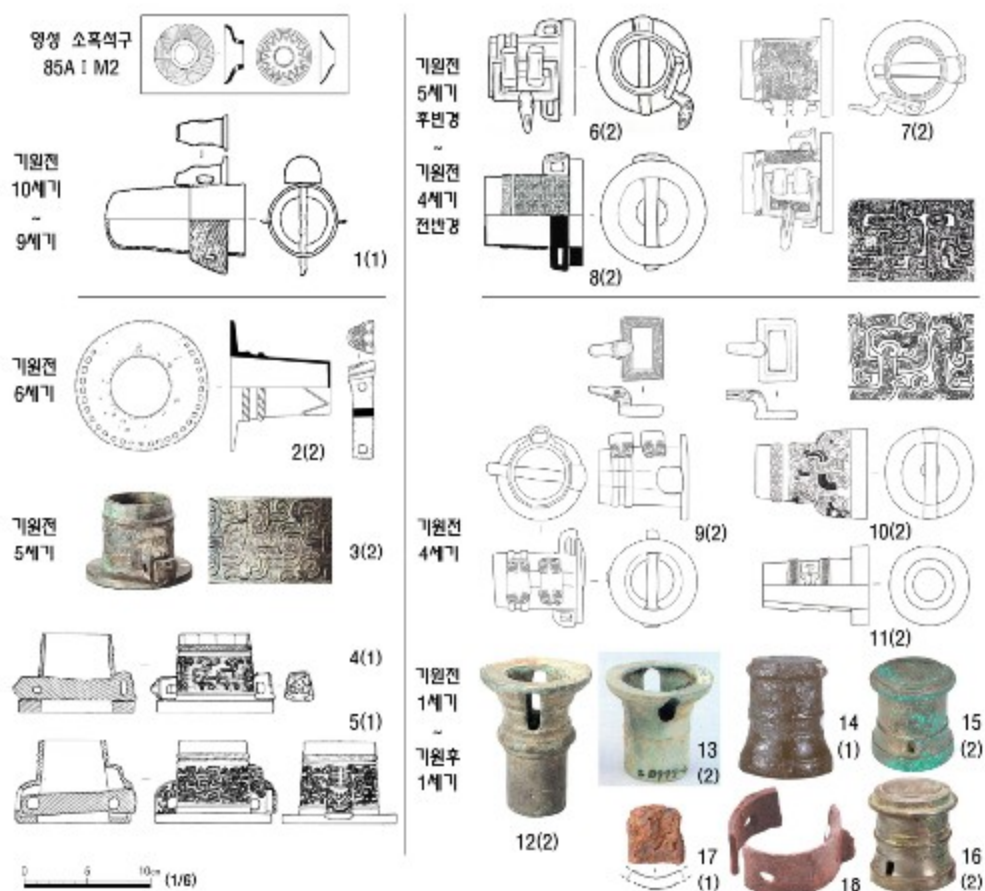
춘추시대에는 투겁 끝이 얇은 것(고식)이 주로 사용되고, 전국시대에는 투겁 끝이 두툼해져 단이 지는 것(신식)이 주로 사용된다. 기원전 6세기경의 흥성 주가촌 유적(M1)과 기원전 5세기경의 객좌 남동구 유적(M1) 출토품이 각각 이에 해당된다. 또한 기원전 5-4세기경부터 청동에 있어서 확인되는 용문이나 조형방책이 채용된다. 건장 동대장자 유적에는 8개 이상의 무덤에서 차축두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신식이다. 차축두의 문양 등을 고려하면 이른 단계(M32-M28)와 늦은 단계(M11-M45)로 세분된다<그림 11-2-12>. 모두 상위등급 무덤임이 확인된다. 기원전 3세기경 자료들이 매우 희소한데, 크기가 작아지고, 무문양화 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동-북한지역에는 기원전 2세기경 늦은 시기부터 중원계통 차축두만 확인된다. 특히 초기 단장목곽묘에서는 전국시대의 것을 잇는 유단식의 테를 가진 것이 주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는 내측 선단부가 단순하게 단이 지는 철자형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나팔형이 있다. 이후 합장목곽묘에서는 내측 단이 사라지는 대신 외측 단이 형성되는 것이 보이는데, 금동제도 확인되고 있어 점차 명기화된 양상으로 생각된다<그림 11-12-16>. 합장목곽묘와 관련되는 것은 흉노 문화권의 무덤에도 자주 확인되는 한식 차축두에 해당된다.

한편 압록강권의 환인 망강루 적석묘(1973)와 한강하류권의 인천 운북동 주거지(수혈)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의 철차축두가 출토되어 주목된다<그림 11-17-18>. 망강루유형을 대표하는 적석묘 출토품은 철제임을 제외하면, 동차축두와 같은 형태이다. 차축두는 중원 문화권에서는 서한 시기에 청동으로 제작된다. 이에 비해 흉노 문화권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을 기준으로 보통 그 이전에는 청동으로, 그 이후에는 철로 제작된다. 다만 철관 등의 관련 부속구는 철로 제작

7) 영성 소혹석구 유적(85A | M2, 92A | M5, 92A | M11)에서 일부 확인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다(강나라이현우 2021).⁸⁾ 이를 고려하면, 원고구려의 철차축두는 흉노 문화권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도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 교류 창구로는 공반유물들로 보아 서차구유형이 주목된다.



1: 조양 위영자 M7101, 2: 풍영 주기존(M1), 3: 북경 순의 용만도, 4-5: 격좌 남동구, 6-9: 견장 동대장자 M32·M5·M28·M11, 10-11: 견장 동대장자 M45, 12: 전 방양, 13: 방양 토성동 M4, 14: 환인 방강두 M1, 15: 몽골 골모드 M20, 16: 방양 석암리 M9, 17: 인천 운북동 유적(F1) 출토품은 다소 불명확하지만, 차축두가 아닌 차관 파편으로 추정된다. 14·17·18은 철제)

<그림 11> 고조선 문화권 동차축두의 계통과 변천, 비교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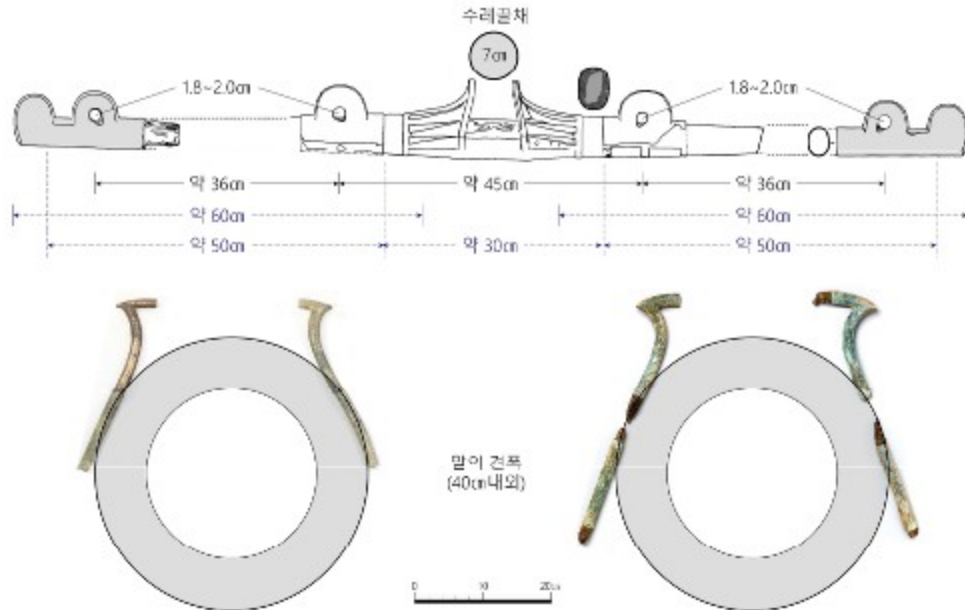
7) 멩에횡대와 권총형동가을자형동기

멩에횡대(車衡)는 수레끝채 끝과 직교하게 설치하는 멩에 고정용의 횡대인데, 보통 독주차에서는 수레끝채 위에 설치하고, 쌍원차에서는 그 밑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착장 방식이다

8) 인천 운북동 유적(F1) 출토품은 다소 불명확하지만, 차축두가 아닌 차관 파편으로 추정된다.

(劉永華, 2002). 다만 독주차와 쌍원차가 공존하는 기원전 3~1세기경, 특히 서한 시기에는 독주차가 끝채 밑에 설치된다거나 쌍원차가 끝채 위에 설치되는 예도 확인된다.⁹⁾ 이는 서한 시기 독주차와 쌍원차의 공존기에 확인되는 점진적·부분적 구조 변용 모습으로 보이는데, 낙랑 초기 마차의 종류를 단정하기 쉽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북한지역에서 확인되는 초기 단계 실물 명에대는 평양 정백리 토취장의 일괄유물 속에 확인된다<그림 12>. 이는 권총형동기와 을자형동기를 공반하는 것인데다 낙랑 설치 전후 무렵으로 편년되는 것이기에 주목된다. 과거에는 이를 독주차의 부속으로 보았지만(국립중앙박물관 2001; 岡内三眞, 1979), 최근에는 쌍원차의 부속으로 인식하는 반론 역시 제기되어 있다(孫璐 2012). 먼저 권총형동기는 실물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에횡대 끝장식(衡末飾; 車衡頭)인 점이 분명하다. 횡대 끝에 있는 권총형동기는 횡대 중간에 있는 P자형동기와 함께 말고삐가 통과되는 부속(軛; 轅)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을자형동기는 중원지역 자료들과 비교하면 일단 명에끝장식(軛末飾)일 가능성이 높다(孫璐 2012).



<그림 12> 명에횡대(평양 정백동)와 권총형동기·을자형동기 착장 모습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명에횡대와 그 부속들이 과연 독주차를 배제하고 쌍원차만 설명하는 자료인지 명확하지 않다. 기원전 1세기경 쌍원차는 점차 독주차를 밀어내고 보편적인 마차로서 널리 사용되나, 제후급의 상위계층 이외에도 독주차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음이 최근 산서 진중

9) 독주차와 쌍원차의 공존기에 구조적인 복합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북 만성 한묘 출토 독주차의 복원도(하북성박물관 실내 전시)나 초기 쌍원차의 모식도(孫璐 2012)를 통해 추정된다.

류촌 유적 예를 통해 밝혀졌다(이현우 2021). 이에 권총형동기와 을자형동기가 사용되는 마차 구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 을자형동기와 관형동기 조합으로 추정했던 대련 영성자 한묘(M10) 출토 반원호식(半圓弧式) '원승(輓承)'이라 하는 것도 멍에 끝장식과 무관하게 생긴 수레끝채 머리장식이다. 즉, 서한문화와의 연관성이 있더라도 중원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¹⁰⁾

III. 고조선문화권 차마구의 전개와 사회

고조선 문화권에 해당되는 요령-북한지역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차마구는 다수 기종들이 확인되나, 그 조합이나 수량에서 중원이나 초원 문화권에 못미친다. 독자적인 것도 일부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초원계통이나 중원계통 차마구를 수용하였거나 이를 변형시켜 재지화한 것이 많다. 또는 차마구의 구성이나 성격에서 시기별로 차별성을 보이는데, 이른 시기 차마구는 대개 초원계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고, 늦은 시기차마구는 대부분이 중원계통으로 볼 수 있다.

고조선 문화권에 마차(또는 전차) 문화가 유입되었음은 틀림없다. 다만 차마구가 출토되는 유적들이 보통 거점 유적의 중상위급 이상 무덤으로 한정되고, 차마구의 구성이나 수량 역시 주변 문화권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라는 것은 마차나 전차를 본격 사용하는 일상으로 연결되지 못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 고조선 문화권의 지역 엘리트가 마차(또는 전차) 문화를 군사조직이나 전쟁행위 등에 직접 활용했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차마구로 대표되는 마차(전차)의 상징성과 위세성을 차용하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아마 일부 최상위층은 마차(전차)를 제작하여 퍼레이드(parade) 등과 같은 의례적인 행진 행위, 그 자체에서 그들 자신만의 권위-권력을 과시하는 데에 활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청동기시대의 요하유역과 초기철기시대의 요동-북한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는 상사성에 못지 않게 상이성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요하 상류의 하가점상층문화와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는 각각 공병식동검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로 구분되는 청동단검문화이며, 고조선 문화권은 하가점상층문화가 아닌 십이대영자문화에 한정된다. 또한 십이대영자문화를 고조선의 배경문화로 보더라도 시공간적으로 얼마만큼 관련시켜 볼 것인지는 해명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위만조선의 물질문화 역시 자료 부족과 견해 차이가 심해 현재 상황에서 매끄럽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차마구의 전개 맥락 속에 단계별로 추정되는 사회 관계를 간단하게나마 짚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0) 평양 정백동의 멍에횡대를 통해 복원되는 것이 쌍원차와 유사하더라도 구조적인 습합 현상이 가능하다. 권총형-P자형동기의 연결부만 잔존하지 않는 것은 멍에 장착부가 쉽게 탈락되는 조립 구조 때문이며, 말의 간격 역시 증(脛:果下馬)에 따라 달라 45cm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우선 고조선 문화권에서는 2·4마리의 말이 끄는 2륜 독주차로 복원되는 차마구가 주로 확인된다. 다만 비파형동검문화권 중에 십이대영자문화(정가와자유형 포함)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세형동검문화 단계에는 북한지역(압록강권 포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십이대영자문화는 하가점상층문화와 주로 교류하는 기원전 8~7세기경에는 요서지역 중심, 옥항묘문화나 중원문화와 주로 교류하는 기원전 6~5세기경에는 요중지역까지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에 더해 위만조선 시기까지 포함되는 세형동검문화 단계와 낙랑 초기의 철검문화 단계(또는 원삼국기)에는 문화 변동이나 교류 관계의 역사·고고학적 맥락 등이 다르므로 역시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1. 선동검(문화)기

선동검(문화)기의 차마구는 기원전 10~9세기경 요하유역에서 일부 확인된다. 요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위영자유형의 중원계통 차마구가 유일하다. 조양 위영자 유적(M7101, M7606)에는 청동당로, 청동굴레장식, 청동난령, 동차축두 등이 확인되나, 기종 구성이나 수량에서 체계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모두 서주 시기 북경 일대의 연국 문화와 관련되는 것들이 주목된다. 연국문화는 서주 중기부터 쇠락하였는데, 이는 백부유형으로 대표되는 초원계통 물질문화를 수용했던 토착집단이나 그 담당집단에게 연국 세력이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기원전 10세기경 후반 무렵을 전후하여 차마구가 유입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거의 같은 시기 하가점상층문화의 일부 유적에도 중원계나 초원계로 볼 수 있는 차마구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비파형동검은 요동지역에서 등장하였으며, 아직 요서지역으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때 하가점상층문화의 차마구는 용두산유형이 아닌 남산근유형의 형성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성 남산근 102호묘의 각문골판, 영성 소흑석구 85A I 2호묘의 청동당로, 동차축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시 기종 구성이나 수량에서 정합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다. 전차문화가 유입되었으나 아직 정착하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비파형동검문화기(전기)

비파형동검문화의 전기 단계(기원전 8~7세기경)에는 차마구가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요서지역에도 북방계통 차마구가 유입되었는데, 일찍부터 변용되는 것이 주목된다. 다만 이때 차마구는 십이대영자문화가 아닌 하가점상층문화가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재갈류는 동함 없이 동표만이 확인되며, 청동당로, 청동난령, 청동고삐걸이(동괘강구) 정도만이 확인된다. 대개 차마구의 주요 기종만이 확인되고, 기하문이 유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점 유적이라 할 수 있는 호로도 오금당, 조양 십이대영자, 건평 포수영자 등의 유적에만 일부 확인되고 있어, 지역 수장층의 권력 기반 강화 과정에서 전차문화가 일부 수용되었다고 생각된다.

3. 비파형동검문화기2(후기)

비파형동검문화의 후기 단계(기원전 6-5세기경)에는 차마구가 요서지역의 흥성, 조양, 객좌 일대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요중지역의 심양 일대 등을 중심으로 차마구의 분포권이 형성되는 것이 주목된다. 차마구가 가장 유행하는 때라고도 할 수 있다. 요서지역에는 북방계통 차마구에 중원계통 차마구가 공존 또는 복합되기 시작하고, 요동지역에는 거여구보다는 재지화된 마구류가 주로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차마구 중에서 재지화된 것으로는 나팔형동기, 당로형동기, 동함(직간식함/이절식함), 청동어형절약, 동탁 등이 대표적인 기종이다. 중원계통 차마구는 대개 동차축두 등과 같이 일부 기종에만 한정된다. 요서지역은 흥성-객좌 일대, 요동지역에는 심양 일대에서 수장권의 강화 현상이 확인된다.

한편 기원전 400년경 전후부터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중원계통 차마구가 크게 유행한다. 세형동검문화로의 이행기에 해당되는 이때에는 전국시대 연국과의 교류 관계가 밀접하게 전개됨에 따라 다수 유입된다. 차마구의 대부분은 건창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동대장자유형 유적에서 주로 확인된다. 이전 단계와는 달리 차마구의 대부분의 기종들이 중원계통 일색으로 변화된다. 동포 같은 옥황묘문화의 차마구를 재지화한 것도 일부 확인되나 동함(이절식함), 청동절약, 동개공모, 동차축두 등의 대부분의 기종들이 중원계통이다. 건창 동대장자 유적을 중심으로 차마구가 건창 일대에만 밀집되는 것은 수장층의 권력 기반이 매우 강화되었으며, 건창 일대를 중심으로 수립되는 정치체가 성장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동함, 동차축두 등의 기종 조합에서 규칙적인 면도 일부 확인된다. 말과 마차수를 추정하게 하는 '동함-동차축두' 조합 관계는 대개 서로 호응하는 예가 많다. 특히 '동함2-동차축두2'의 조합 관계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어 2마리의 말이 끄는 2륜 독주차를 상정하게 한다. 다만 흥성 주가촌(3점-2점)과 건창 동대장자 45호묘(2점-4점)의 예는 '동함-동차축두'의 조합 관계가 잘 호응되지 않는 사례이다. 그렇지만 전자에는 직간함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에는 독주차(1대)가 아닌 쌍원차(2대)가 있었다고 보면 일정부분 호응하는 면도 있다. 이때 독주차가 아닌 쌍원차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자료 증가를 기대하여 본다. 어찌됐든 마차문화가 어느 정도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세형동검문화기(철검 이전 단계)

세형동검문화 단계(기원전 4~2세기경)에는 차마구의 중심 분포권이 달라진다. 기원전 300년경 전후 요령지역을 둘러싸는 역사문화 변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원계통 차마구가 동쪽으로 더욱 확산되고 토착계통 차마구는 남쪽으로 전이되나, 차마구가 주로 출토되는 토착문화 분포권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고조선 문화권의 차마구도 많지 않고, 있더라도 특정하기 힘든 면이 있다. 유적 수가 매우 적고, 차마구의 종류와 수량도 매우 한정된다. 다만 기원전 4세기경의 전환기는 요서지역의 건창 일대와 능원 일대, 요동지역의 대련 일대에서 차마구가 일부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때 확인되는 차마구는 대부분이 중원계통인데, 능원-대련 일대에서 청동고삐걸이가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청동고삐걸이는 쌍원차보다는 독주차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근거자료로서 중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청동고삐걸이는 늦더라도 기원전 2세기경에는 북한지역으로 전이되었으며, 이후 기원전 1세기경에는 영남지역의 경주 일원으로 유입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기원전 200년경 전후 압록강변에서 확인되는 동개궁모는 북한지역에도 있는 투갑장식 없는 민머리의 고식 동개궁모여서 주목된다. 이외에도 북한지역에는 평양 및 북청 일대에서 차축두령으로 추정되는 청동차령이 확인되어 위만조선 시기 비한식계 차마구가 존재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편 남한지역에는 기원전 4세기대 후반 이후 십이대영자문화(또는 정가와자유형)로 연결되는 재지화된 차마구가 일부 확인된다. 나팔형동기, 검파형동기(또는 당로형동기), 동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동탁류를 제외하면 초기 단계에만 확인되며 북한지역에는 발견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출토 맥락이나 문양 등의 속성으로 보아 의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대 후반으로 편년되는 동탁석범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앞에 언급했던 비한식계 차마구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기원전 4-3세기경에는 요령지역의 차마구가 북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전이되기 시작하며, 기원전 2세기경 북한지역에는 위만조선 차마구와 관련되는 소위 비한식계 차마구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동탁, 청동차축두령, 동개궁모, 청동고삐걸이 등이 대표적인 기종으로 역시 종류와 수량이 한정되고 있어 거마제도가 얼마만큼 정착되었는지 알 수 없겠지만, 실물 자료가 확인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낙랑 초기 유행하는 중원계통 차마구의 일부 기종은 위만조선 후기부터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들이 있다. 권총형동기와 을자형동기로 대표되는 거여구와 철제이연식함 등의 마구류가 그 대상인데, 낙랑군의 설치 이전에는 평양 일대에만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5. 원삼국기(철검 이후 단계)

철검 단계에는 위만조선의 중심지인 북한지역이나 부여 문화권인 송화강과 동요하의 상류 일대에서 중원계통과 흉노계통 차마구가 확인된다. 이때 특징적인 것이 바로 동병철검인데, 기원전 2세기대 후반경에 출현하는 것이어서 위만조선 시기까지 소급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병철검 단계의 차마구는 요동군의 동쪽과 남쪽에서 한의 군현이 설치되는 기원전 2세기 말의 역사문화 변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원삼국기 초두 단계이다.

먼저 압록강권의 한중 접경지역 원고구려사회에서 중원계통과 또는 흉노계통 차마구의 복합으로 볼 수 있는 철차축두가 확인되며, 한강하류권의 해안 일대에서 철제차관편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기본적으로는 중원계통 거여구로 보이지만, 기원전 1세기경 차축두는 중원 문화권에서는 주로 청동으로 제작되는 것에 비해 흉노 문화권에서는 주로 차관처럼 철로 제작되는 점

이 주목된다(강나라·이현우 2021). 그러므로 일부 철제거여구는 흉노 문화권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거나 변형됐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에는 중원계통이나 흉노계통 차마구가 모두 확인된다. 중원계통 차마구는 소위 비한식계 차마구와 한식 차마구가 함께 유행한다. 거여구는 대개 청동제가 많고, 마구에는 이연식합이나 차축두와 같은 철제품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재갈류는 가장 다양한데, 전국연계 재갈, 한계 재갈, 흉노계통 재갈 등이 확인된다. 마면들은 모두 한식인데, 중국 동북 방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수적형에 가까워진 청동마면은 서차구유형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전이됐을 가능성도 있다. 방울류는 토착계통과 서한계통이 함께 확인되며, 개궁모는 고식으로 볼 수 있는 전국계통과 신식으로 볼 수 있는 한식 계통이 함께 확인된다. 차축두는 모두 한식이며, 이외에도 한식으로 판단되는 동원수식이 확인된다. 낙랑 설치 직전 또는 낙랑 초기에도 여러 계통의 차마구가 공존하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지역에는 쌍원차와 함께 독주차도 일부 운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남한지역에도 이때 중원계통이나 흉노계통 차마구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중원계통 차마구는 철제재갈류가 가장 많고, 을자형동기와 동개궁모, 청동고삐걸이 등이 확인되어 있다. 중부지역에서 철제이연식합과 을자형동기가 보이는데, 중도유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낙랑계통 무덤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낙랑군이 설치되고 나서 유입되는 물질문화의 이차 확산현상과 관련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흉노계통 차마구는 청동재갈류와 철제재갈류가 모두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남해안의 보성 일대에서 철제단점식합이 보이는데, 당시 영남지역에도 철제자형표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흉노계통 차마구는 낙랑 설치 무렵부터 재갈류를 중심으로 삼한지역까지 유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에는 토착계통 차마구는 물론 중원계통 및 흉노계통 차마구가 모두 확인된다. 대개 기원전 1세기경으로 편년되는 것이지만 낙랑 설치 직전으로 소급되는 것도 확인된다. 위만조선에도 차마구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특징적인 것은 중원계통 외에 흉노계통 차마구가 이른 시기부터 유입됐을 가능성과 함께 유입 경로에 대한 정보이다. 남한지역의 흉노계통 차마구는 요동~북한지역을 거쳐 2차적인 유입 과정으로 생각되나, 북한지역이나 한중 접경지역의 흉노계통(또는 관련 요소) 차마구는 북방지역과의 1차적인 교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심스럽지만 서차구유형을 매개하여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IV. 맺음말

고조선 문화권의 차마구를 대상으로 계통 및 변천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광역적인 교류 및 사회 계층화의 양상들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본적인 분석에만 머물렀다. 향후 사회고고학의 측면에서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에 대한 고민들을 더욱 구체화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선학제현의 많은 가르침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나리·이현우, 2021, 「홍노 마차의 특징과 성격」, 『유라시아 고대 네트워크 : 匈奴와 漢』,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중양아시아학회 국제학술회의.
- 강인욱, 2015, 「스키토-시베리아 문화의 기원과 러시아 투바의 아르잔 1호 고분」, 『중양아시아연구』 20-1, 중양아시아학회.
- 강인욱, 2021, 「청동기시대 고대 북방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네트워크 -전차의 확산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66, 韓國古代學會.
- 고상혁·김훈희, 2014,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 닻형철기 연구」, 『嶺南考古學』68, 嶺南考古學會.
- 권도희, 2018, 「철기 : 마구」, 『마한고고학개론』, 진인진.
- 국립문화재연구소·몽골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20, 『홍노, 제국의 미술』.
- 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특별전시도록).
-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 편, 2011, 『몽골 도르릭 나르스 홍노무덤 (I)』, 한-몽공동학술조사보고 제5책.
-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 편, 2014, 『몽골 도르릭 나르스 홍노무덤 (II)』, 한-몽공동학술조사보고 제5책.
- 김상민, 2022, 「북한강유역 서북한계 금속기의 출현과 전개과정」, 『고고학』21-1, 중부고고학회.
- 김재운, 2021,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라와 여신상』, 진인진.
- 데이비드 W. 앤서니 저, 공원국 역, 2015, 『말, 바퀴, 언어』, 에코리브르.
- 리순진, 2001,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원(도서출판 중심).
- 모토무라 료지 저, 김효진 역, 2021, 『말의 세계사』, AK커뮤니케이션즈.
- 孫璐, 2011, 「中國 東北地域 先秦時代 車馬具의 登場과 變遷」, 『韓國考古學報』81, 韓國考古學會.
- 孫璐, 2012, 「韓半島 北部地域 車馬具의 登場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76, 韓國上古史學會.
- 吳永贊, 2001, 「樂浪 馬具考」, 『古代研究』8, 古代研究會.
- 오재진·안재필·조상기·임동재·김형곤, 2018, 『몽골 치헤르틴 저 홍노 무덤의 특징과 의의』, 『중양고고 연구』26, 중앙문화재연구원.
- 李健茂, 1992, 「韓國 青銅儀器의 研究-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28, 韓國考古學會.
- 이양수, 2009, 「青銅器의 磨研과 磨耗 -慶州 入室里 出土 닻모양 雙頭鈴의 觀察」, 『考古廣場』4, 부산고고학회.
- 이양수, 2020, 「한반도의 이형동기」, 『2020 한국의 청동기문화』(특별전시도록), 국립청주박물관.
- 李清圭,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 사회」, 『北方史論叢』6, 고구려연구재단.
- 이현우, 2020, 「기원전 6-1세기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의 마구」, 『북방의 재인식』, 제52회 한국상고사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상고사학회.
- 이현우, 2021, 「산서성 진중시 유차구 류춘복 묘지 한 대 무덤에 부장된 마차의 의미 - 서한 시기 동북 아시아 마차에 대한 새로운 이해」, 『중국고고학동향』2021년 夏,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후석, 2016,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94, 韓國上古史學會.
- 이후석, 2019, 「요서-하북지역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전개와 성격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를 중심으로」,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이후석, 2020, 「요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전개와 교류 - 십이대영자문화를 중심으로 -」, 『한국청동기 학보』27, 한국청동기학회.
- 이후석, 2021,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 네트워크와 교류」, 『先史와 古代』66, 韓國古代學會.
- 이후석, 2022,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 과정」, 『고고학』21-1, 중부고고학회.
- 이희준,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58, 嶺南考古學會.

- 張恩品, 2012, 「匈奴系 鐵轡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中央아시아研究』17-1, 중앙아시아학회.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2(고조선-부여-진국편), 외국문종합출판사.
-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동북아역사재단·중국내몽고고문물고고연구소 편, 2006, 『내몽고 중남부의 오르도스 청동기와 문화』, 한중공동학술조사보고서1.
- 한국동북아역사재단·중국 내몽고고문물고고연구소 편, 2007, 『하가점상층문화의 청동기』, 한중공동학술조사보고서2.
- Ch. 유돌에르테네, 2008, 「골모드 유적 흉노 귀족 무덤 출토 거마구」, 『조원의 대제국, 흉노』, 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G. 에렉젠, 2019, 「흉노 마구와 마차」, 『東洋美術史學』9, 東洋美術史學會.
- G. 에렉젠·양시은, 2017, 『흉노』, 진인진.
- 邵向平, 2007, 「略論商周青銅弓形器的形制演變」, 『華夏考古』2007-1.
- 滕銘子, 2011, 「也談弓形器的形制及相關問題」, 『考古』2011-8.
- 邵會秋, 2004, 「先秦時期北方地區金屬馬銜研究」, 『邊疆考古研究』3.
- 邵會秋·石綿靜, 2018, 「中國北方地區先秦時期馬銜研究(一)」, 『草原文物』2018-2.
- 邵會秋·石綿靜, 2019, 「中國北方地區先秦時期馬銜研究(二)」, 『草原文物』2019-1.
- 烏恩, 1994, 「論古代戰車及其相關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 吳曉筠, 2002, 「商至春秋時期中原地區青銅車馬器形式研究」, 『古代文明』1.
- 劉永華, 2002, 『中國古代車與馬具』, 上海辭書出版社.
- 李剛, 2013, 「中國北方青銅器與鹿石的若干聯繫」, 『秦始皇帝陵博物院』3, 三秦出版社.
- 林濤, 1980, 「關於青銅弓形器的若干問題」, 『吉林大學社會科學論叢』2.
- 林濤, 2007, 「青銅掛繩鉤補說」, 『邊疆考古研究』6.
- 田立坤, 2017, 「遼西地區先秦時期馬具與馬車」, 『考古』2017-10.
- 井中偉, 2012, 「夏家店上層文化的分期與原流」, 『邊疆考古研究』12.
- 趙凌熾, 2020, 「兩周遼西地區‘銅鐸’命名問題及源流探究」, 『北方文物』2020-4.
- 鍾雪, 2020, 「也論玉皇廟文化馭馬器」, 『文物春秋』2020-4.
- 朱永剛·王立新, 2006, 「西拉木倫河流域先秦時期文化遺存的編年與譜系研究」, 『邊疆考古研究』4.
- 楊泓, 2005, 『古代兵器通論』, 紫禁城出版社.
- 岡内三眞, 1979, 「朝鮮古代の馬車」, 『震檀學報』46-47, 震檀學會.
- 高久健二, 2018, 「日韓の樂浪系文物 - 平壤市樂浪區域一帯の古墳の上限年代を中心に」, 『第29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研究會 交流會 研究發表會資料集』.
- 吉本道雅, 2009, 「先秦時代の內蒙古東南部における考古學的諸文化 - 近年の環境考古學的研究に寄せて-」, 『史林』92-1.
- 榎本杜人, 1980, 「付章 朝鮮古代金屬器實測圖」, 『朝鮮の考古學』, 同明舎.
- 石川岳彦, 2009, 「紀元前10世紀前後の遼東遼西」, 『彌生時代の考古學2:彌生文化誕生』, 同成社.
- 春成秀爾, 2010, 「當盧の系譜」,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58, 國立歷史民俗博物館.

토론문 3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의 전개와 사회: 증원·북방·흉노 차마구의 유입과 변용」에 대한 토론

순루 孫魯 (중국 내몽고대학교)

이후석 선생님의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의 전개와 사회: 증원·북방·흉노 차마구의 유입과 변용」에서는 중국 동북지방, 한반도 청동시대 출토된 차마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기종별로 검토하였다. 마차의 기본 형태와 차마구 종료별(현표, 당로, 패강구, 개궁모, 차위, 멍에 등)로 분석하고 증원·북방·흉노 차마구의 유입과 변용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 문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목에서 증원·북방·흉노로 표현하였는데 북방과 흉노의 구분 표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흉노도 중국 북방지역에서 활동한 인간집단인데 이렇게 병렬하게 토론하면 서로 개념이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자는 고조선 문화권으로 고조선의 물질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여러 동북아시아 청동단검문화를 총괄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접 흉노 마차와 자료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흉노의 동쪽에서 동호, 산융 등 인간 집단 여러 개 기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하가점상층 문화나 위영자 문화가 중국에서 관련된 인간 집단이 따로 눈술이 있어서 모두 고조선 문화권으로 총괄하는 것이 약간 범위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천년기의 청동단검문화 한 초원계통 차마구 주류라고 하였는데 초원계통 마차가 어디에 있어요? 烏恩岳斯圖(2007) 책을 인용하였지만, 이 책에서 기승용 현표만 보고하고 차마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상대 후기 차마구 증원지역에만 확인하고 중국 북방지역에 보이지 않습니다. (책 이름 『北方草原考古學文化比較研究(2008)』입니다.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아닙니다)

2. 발표문에서 사륜마차와 상륜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동시대의 전차에는 대개 2륜 마차

가 사용하고 초기철기시대 이후에는 일부 지역 4륜 마차가 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아시아 지역 기원전 2500년경 사륜과 상륜마차 모두 있습니다.



<그림 1> 기원전 2500년 전후 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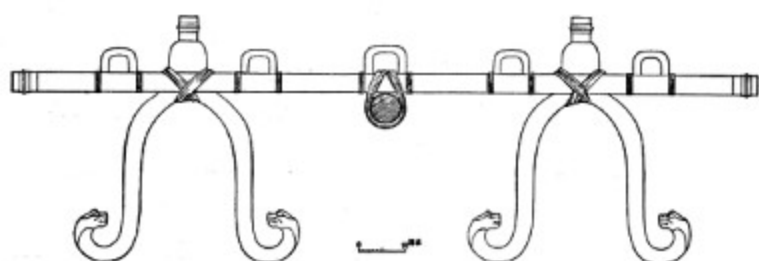
3. 중원 마차와 초원 마차의 기술 표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가 계속 고조선 마차가 초원 계통과 중원 계통의 영향을 각자 받았다고 표현하였는데 유물에서 동물 조형이나 동물문 제외하면 어떤 기능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까?

4. 방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형 방울이나 종형 방울이 란령 보다 장식품일 가능성이 역시 높은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흑시 동탁 뉴종과 박종(縛鐘)이 시기적으로 구분이 흑시 가능할까요?

5. 청동 패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궁형기가 중원 계통의 패강구에 대한 인식이 이미 통일 하지만 W자형 동기나 닳형 동기는 발표문에도 논술하지만 사슴들에게도 보입니다. 허리에 물건을 걸은 기능으로 생각합니다. 꼭 고삐를 거는 것 아니라 고삐도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멩에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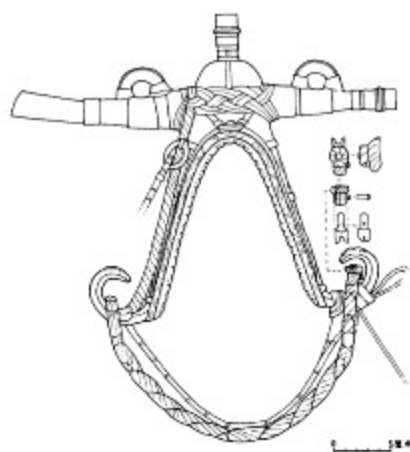
현재까지 발견된 실물 독주차나 모형 독주차(선진시대와 한 대를 포함됨)는 모두 멩에대가 수레체의 위에 위치하고 반대로 수레체가 멩에대 위로 설치한 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발표문 <그림 1>에 표현된 서한시기 멩에대와 수레체 조합 방식의 의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의 논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의하면 정백리 멩에대가 독주차라도 서한 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만성한묘에 의하면 역시 수레체가 멩에대 아래에 위치합니다<그림 2>.



图二一五 衡、轡、鞅关系复原图

<그림 2> 满城汉墓

발표문 그림 12에서 말의 견폭이 40cm로 표시하였는데 어디서 측량 결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시황 동마차가 1/2로 추측되는데 멍에 너비는 가장 자리에서 11cm 내외, 실제로 역시 22cm로 추측합니다<그림 3>. 그리고 6월 6일에 제가 실제로 초원 가서 수레를 끄는 말을 측량하였는데 견폭이 역시 22cm 내외입니다<그림 4>.



<그림 3> 진시황 동차마 멍에



<그림 4> 2022년 6월 6일에 측량된 실제 수레를 끄는 말의 견폭이 22cm 정도입니다.

페이지 111의 각주 10에 말 간격 45cm에 있어서 과하말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后汉书·东夷传》에서 “(濊)有果下马”, 其注曰: “高三尺,乘之可于果树下行” 라고 하였습니다. 후한 시대의 3척이 약간 현재 69cm입니다. 과하마가 아주 작은 말이라서 수레를 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69cm 높은 말이 40cm 목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현대 mini말이라도 길이 90cm이상

되어야 기승이 됩니다. 수레를 끌 수 없습니다. mini말 몸 수치가 <그림 5, 6>과 같습니다.

表1 贵州矮马体尺指标 [导出到EXCEL](#)
Tab.1 Body size index of Guizhou pony

	雄性贵州矮马	雌性贵州矮马 (未妊娠)	雌性贵州矮马 (妊娠)
样本数(匹)	26	25	34
体高(cm)	114.48±0.71	113.40±0.77	115.73±0.52
体长(cm)	111.65±1.06	110.66±0.89	113.82±1.48
胸围(cm)	131.12±1.23 ^A	129.08±1.04 ^A	138.18±2.17 ^B
臀围(cm)	15.58±0.19 ^A	14.50±0.15 ^A	14.58±0.18 ^B
头长(cm)	38.31±0.36	37.87±0.35	38.88±0.73
颈长(cm)	44.81±1.38	44.62±0.81	45.40±1.35

注: 同行相比较, 不同大写字母表示差异极显著(P<0.01), 不同小写字母表示差异显著(P<0.05), 下同。

<그림 5> 현대 mini말의 몸체 수치

表1 德保县矮马三种年龄体尺统计 [导出到EXCEL](#)

年龄	性别	匹数	体高(厘米)	体斜长(厘米)	头围(厘米)	管围(厘米)
2岁	公	68	94.41±3.43	89.96±5.62	101.35±5.90	11.89±0.88
	母	73	94.84±3.62	91.35±7.22	102.72±6.68	11.68±1.65
3岁	公	51	98.00±3.24	94.02±5.12	107.44±5.82	12.45±0.88
	母	83	98.84±4.35	96.26±6.60	109.00±8.99	12.42±1.61
4岁以上	公	137	101.84±3.55	100.25±5.22	112.68±11.52	12.80±1.38
	母	191	102.51±2.93	103.15±5.31	116.95±10.52	12.91±0.70

<그림 6> 현대 mini말의 연령별 몸체 수치



<그림 7> 현대 mini말

현대 수레를 끌 수 있는 말의 몸체 수척이 표준이 있습니다. 키나 가슴 수척이 너무 작은 것이 수레를 끌기 어렵습니다. 현대 말의 몸체 기본 수척이 <그림 6>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의 배 직경이 약 70cm 정도로 크지 않은 말입니다. 6월 6일의 실제 측량 결과에 따라 68cm입니다. 그래서 독주차 수레대 양쪽 멍에 간격이 적어도 진시황릉 동마차처럼 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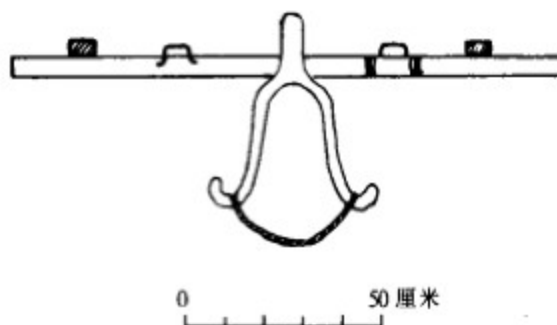
<그림 8> 6월 6일 현대 말 실측

体 格 (cm)		大	中	小		
	公	156 以上	145 ~ 155	144 以下		
	母	151 以上	140 ~ 150	139 以下		
类	管 围 率 (%)	重	适重	适轻	轻	
		公	14.1 以上	13.6 ~ 14.0	13.0 ~ 13.5	12.9 以下
	母	13.9 以上	13.4 ~ 13.8	12.8 ~ 13.3	12.7 以下	
型	胸围率(%)		123 以上	120 ~ 122	117 ~ 119	116 以下
	体长率(%)		106 以上	104 ~ 105	102 ~ 103	101 以下
	体 重 率 (%)	公	3.50 以上	3.23 ~ 3.49	3.03 ~ 3.22	3.00 以下
母		3.45 以上	3.21 ~ 3.44	3.01 ~ 3.20	2.90 以下	
对照黑龙江 马育种指标		超过	重型	轻型	不足	
品种类型		重型	兼用型		轻型	
适于用途		挽用	乘挽或挽乘用		骑乘用	

<그림 9> 현대 수레를 끄는 말과 기승용 말의 체형 표준

역시 페이지 111에서 중원 지역 쌍원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동 유청유적에서 쌍원차가 출토(<그림 10>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간쑤성 진나라 때 무덤에서도 쌍원차 흔적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초기 철기시대 명에대가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완전한 나무 명에대인데, 55cm로 정백동 명에대와 길이가 비슷합니다.



<그림 10> 汉代双乳山汉墓双辕车复原图

주제발표 4

고구려와 선비의 문화교류 양상

-모용선비를 중심으로-

양시은(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목 차

- | |
|---|
| I. 머리말
II. 역사적 배경
III. 고분을 통해 본 문화교류 양상
IV. 유물을 통해 본 문화교류 양상
V. 맺음말 |
|---|

I. 머리말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夫餘)에서 내려온 주몽(朱蒙)이 졸본(卒本, 중국 요녕성 환인)에서 기원전 37년에 건국하였으며, 이후 국내성(國內城, 중국 길림성 집안)으로 천도하였다가, 427년에는 평양성(平壤城)으로, 586년에는 다시 평양의 장안성(長安城)으로 도읍을 옮겼다. 668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는 약 700년간 존속하였다.

고구려는 뛰어난 제철 기술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는데, 4세기 초반부터 요동 지역과 한반도 중부 지역 진출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완전히 영역화 한 것은 광개토왕대의 일로, 요동군(遼東郡)의 치소였던 양평(襄平, 요녕성 요양)도 이 때 차지하였

다. 광개토왕은 396년에는 아리수(阿利水, 한강)를 건너 백제의 수도를 포위하여 아신왕(阿莘王)의 항복을 받아내고 백제의 58성(城) 700촌(村)을 획득하였다. 또한 400년에는 5만의 군사를 한반도 남부로 보내 신라를 구원하고, 왜(倭)와 가야(加羅)를 물리쳤다. 이어 등극한 장수왕(長壽王)은 475년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을 죽이고 한성(漢城)을 점령하였다.

이로 인해 최대 전성기였던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영역은 북으로는 중국 길림성(吉林省) 일대의 송화강(松花江) 유역에서 남으로는 대전의 금강 유역까지, 서로는 중국 요녕성(遼寧省)의 요하(遼河) 유역에서 동으로는 두만강 너머까지였다.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은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처럼 고구려는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고대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건국하면서부터 한(漢)을 비롯한 중원의 고대 왕조 및 북방의 여러 세력들과 끊임없이 경쟁하였던 고구려는 한반도의 다른 고대 국가들보다 사회문화적 기반이 넓었다. 역동적이고 실용적이었던 고구려의 문화는 백제, 신라, 가야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통일신라와 발해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 진출하였던 고구려의 문화 형성 과정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4세기부터 5세기 전반까지 고구려와 요동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였던 모용선비(慕容鮮卑)와의 문화 교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실 우리 학계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모용선비의 삼연문화(三燕文化)에 주목해 오면서 그간 삼국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한 여러 건의 비교 연구가 있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유물이나 유적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비교 검토 보다는 양국의 문화 교류 양상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어떠한 방식과 경로로 외부 문화를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고구려적인 색채로 승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역사적 배경

모용선비(慕容鮮卑)는 중국의 5호16국시기에 중국 중원과 동북 지역에 전연(前燕), 후연(後燕), 남연(南燕), 서연(西燕), 북연(北燕)의 5개국을 건립한 종족이다. 이 중 요서의 조양(朝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전연, 후연, 북연을 학계에서는 편의상 삼연(三燕)이라 칭한다. 모용선비는 전연을 수립하기 이전인 4세기 초부터 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하였는데, 이후 고구려는 오랜 기간 이들 모용선비를 상대로 군사적 대결과 함께 외교적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고구려와 모용선비 간의 문화 교류 양상을 검토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바, 이하에서는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전개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하겠다.

1.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요동 진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는 미천왕대인 4세기 초반부터 요동 지역과 한반도 중부 지역 진출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미천왕(美川王, 300~331년 재위)은 302년 현도군(玄菟郡)¹⁾과 311년 서안평(西安平)²⁾ 공격을 시작으로 요동 진출을 본격화했음이 확인된다. 『양서(梁書)』에도 미천왕(乙弗利)이 자주 요동을 침범하였으나 모용외(慕容廆)가 막을 수 없었다³⁾는 관련 기사가 전한다.



<그림 1> 4세기 고구려와 서·북 주변 세력 지형도(박세이 2016: 지도 1)

- 1) 당시의 현도군은 제3현도군으로, 치소는 요녕성 무순시(撫順市)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요녕성 단둥시(丹東市)에 있으며, 치소는 매하첨고성(靉河尖古城)으로 지정된다. 장방형의 평지 토성으로, 한, 고구려, 요급시기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유적에서는 '安平'과 '安平城'이 새겨진 토기와 '安平樂未矣'이라는 명문이 찍힌 와당이 출토되었다. 현재 단둥시박물관에 유물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
- 3) 『梁書』東夷列傳 高句麗

<표 1> 미천왕대 요동 진출 관련 기사(『삼국사기』)⁴⁾

연도	사건
미천왕 3년(302)	가을 9월에 왕이 병력 30,000명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침략하여 8,000명을 포로로 잡아 이들을 평양으로 옮겼다.
미천왕 12년(311)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미천왕 16년(315)	봄 2월에 현도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미천왕 21년(320)	겨울 12월에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하니 모용인이 막아 싸워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당시 요동 지역은 후한(後漢, 25-220년)의 멸망 이후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魏, 220-265년)를 거쳐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이 건국한 서진(西晉, 265-317년)이 지배하고 있었다. 서진은 요서와 요동 지역에 평주(平州)를 설치하고 평주자사(平州刺史)·동이교위(東夷校尉)에게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던 서진의 통제력은 내분과 5호(胡)의 반란이 이어지면서 붕괴하였고, 요동 지역의 정세도 급변하였다. 309년 요동태수 방본(龐本)이 동이교위 이진(李臻)을 주살한 뒤 제거되는 혼란이 일어났고, 새로 평주자사·동이교위가 된 최비(崔毖)는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이 틈을 타고 세력을 키워 혼란에 빠진 요동 지역의 질서를 회복한 세력이 모용선비였다(이성제 2020: 289). 이와 관련하여 『양서(梁書)』에는 ‘서진의 영가(永嘉, 307-313년)의 난⁵⁾ 때 선비족의 모용외가 창려(昌黎)의 대극성(大棘城)을 점거하니, 원제(元帝)는 평주자사를 제수(除授)하였다’⁶⁾는 기록이 있다.

모용선비의 세력이 점차 강성해지자 319년에 최비는 고구려, 선비족 단부(段部)와 우문부(宇文部) 등과 연합하여 모용외(慕容廆)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최비는 고구려로 망명하였고 모용씨는 요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요동 진출을 본격화한 고구려로써는 모용선비와 요동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

2. 고구려와 전연의 각축

333년 모용외가 사망하고 모용인(慕容仁)과의 후계 다툼에서 승리한 모용황(慕容皝, 337-348년 재위)은 337년에 연왕(燕王)을 자처하며 전연(前燕, 337-370년)을 건국하였다. 341년 동진으로부터 연왕에 정식 책봉되었고, 342년에는 용성(龍城, 요녕성 조양)을 도읍으로 삼았다.

4) 본고에 제시한 기사의 내용은 편의상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국역문을 이용하였다. (<http://db.history.go.kr>)

5) 흉노(匈奴)의 유연(劉淵)이 침공하여 당시 서진의 수도였던 낙양(洛陽)이 함락되고 회제(懷帝)를 포로로 삼고 사마 씨들을 전부 학살하거나 노비로 만들면서 결국 서진을 멸망에 이르게 한 난(亂)이다. 서진의 마지막 황제였던 민제(愍帝) 마저 유연에 의해 죽자 일족이었던 사마예(司馬睿)는 317년 건강(建康, 구 건업)에 동진(東晉)을 세웠다. 이로 인해 북중국에서는 5호 16국이 시작되었다.

6) 『梁書』東夷列傳 高句麗

7) 『三國史記』卷第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20年

이후 전연은 증원 진출을 위해 차례로 고구려(342년), 우문부(344년), 부여(346년) 등을 공격함으로써 배후의 위협요소를 제거한 뒤 동진, 전진(前秦, 351~394년) 등과 증원 대륙의 패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고구려 역시 전연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인 행동과 함께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였다. 『삼국사기』에는 5호16국 중의 하나로 흉노의 일파인 갈족(羯族) 출신의 석록(石勒)이 세운 후조(後趙, 319~350년)와의 교섭을 시도한 기록이 확인된다. 후조가 전조(前趙)와의 다툼에서 승리하여 화북(華北)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자 미천왕은 330년에 사신을 파견하여 호시(楛矢)를 선물로 보냈다⁸⁾고 한다.

후조는 338년에 전연과 연합하여 단부(段部)를 멸망시켰는데, 이 때 후조는 전연까지 정벌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후조는 양곡 30만 곡(斛)을 배 300척에 실어 고구려로 보내 전연의 협공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결국 후조는 전연에게 패배하였고, 당시 모용황에게 반기를 들었던 봉추(封抽), 송황(宋晃), 유흥(游泓) 등은 고구려로 망명하였다.⁹⁾ 사실 고구려는 중국 왕조의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망명자들을 그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앞서 언급한 이들 외에도 모용황과 모용인의 후계 다툼 과정에서 동수(修壽), 곽충(郭充) 등도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한편, 미천왕에 이어 등극한 고국원왕(故國原王, 331~371년 재위)은 335년에 고구려 서북방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新城)을 축조¹⁰⁾하면서 혼하(渾河) 일대를 영역화 하였다. 신성은 현재 요녕성 무순시에 있는 고이산성(高爾山城)으로 비정된다. 고이산성은 요동평원과 동부 산간지대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혼하와 소자하(蘇子河)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산성의 둘레가 4km에 달해 인근 고구려 성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신성은 고구려의 서쪽 변방의 요해지로 먼저 점령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성들도 쉽게 빼앗을 수 없다'라는 당나라 장수 이적(李勣)의 언급¹¹⁾은 신성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구려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과 외교적 대응은 전연을 자극하였고, 모용황은 증원을 도모하기 위해 결국 342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모용한(慕容翰)이 제안한 전술에 따라, 모용황은 정예병 40,000명을 거느리고 험하고 좁은 남도(南道)로, 왕우(王寓) 등은 병력 15,000명으로 평탄하고 넓은 북도(北道)로 진격하였다. 전연에게 허를 찔린 고구려는 결국 패하여 당시 수도였던 환도(丸都)를 내어주고 말았다. 고국원왕은 도망갔으나, 모용황은 고국원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묘를 파서 시신을 싣고 창고에 있던 여러 대의 보물과 남녀 5만명 등을 포로로 잡고, 궁실을 불태우고 환도성을 파괴하고 돌아갔다.¹²⁾ 이로 인해 고구려의 요동 공략은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8) 『三國史記』 卷第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31年

9) 『資治通鑑』 卷第96 晉紀18 咸康4年 5月

10)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5年

11) 『三國史記』 卷第22 高句麗本紀 第10 賈滅王 26年

12)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12年

349년 석호(石虎)의 죽음으로 후조가 혼란에 빠지자, 모용황을 이은 모용준(慕容儁, 348-360년 재위)은 후조를 멸하고 화북을 차지하였다. 352년에는 황제국을 표방하며 대연(大燕)이라 칭하였으며, 353년에는 수도를 요서의 용성에서 하북의 업(鄴)으로 옮겼다.

고구려는 355년 전연에 사신을 보내 볼모를 바치고 조공을 하며 왕모를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모용준은 고국원왕을 '영주제군사(營州諸軍事)·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영주자사(營州刺史)·낙랑공(樂浪公)·고구려왕(高句麗王)'으로 책봉하였다. 전연과 고구려가 당시 맺은 책봉·조공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구려는 전연이 전진에 의해 멸망하는 370년까지 군사적 긴장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 고구려와 전연 간의 주요 기사(『삼국사기』)

연도	사건
미천왕 20년(319)	겨울 12월에 진의 평주자사 최비가 도망쳐 왔다. 처음에 최비가 은밀히 우리와 단씨, 우문씨에게 말하여 함께 모용위를 공격하게 하였다. ... 우리의 장수 여노는 하성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모용위가 장군 장동을 보내 습격해서 그를 사로잡고, 그 무리 1천여 가를 포로로 잡아 극성으로 돌아갔다. 왕이 자주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하였다. 모용위가 모용환과 모용인을 보내 이들을 쳤다. 왕이 화해를 청하니 모용환과 모용인이 돌아갔다.
미천왕 21년(320)	겨울 12월에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하니 모용인이 막아 싸워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고국원왕 9년(339)	전연의 왕 모용황이 침략해 와 군대가 신성에 이르렀다. 왕이 화약을 요청하니 돌아갔다.
고국원왕 10년(340)	왕이 세자를 보내 전연의 왕 모용황을 조현하게 하였다.
고국원왕 12년(342)	11월에 모용황이 스스로 정예병 40,000명을 거느리고 남도로 출정하여, 모용환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고, 별도로 장사 왕우 등을 보내 병력 15,000명을 거느리고 북도로 출정하게 하여 침공하였다. 왕이 동생 무를 보내 정예병 50,000명을 거느리고 북도를 막게 하고, 자신은 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남도를 방어하였다. ... 모용황이 그 말에 따라 미천왕의 묘를 파서 그 시신을 싣고, 창고에 있던 여러 대의 보물을 거두고, 남녀 5만여 명을 사로잡고, 궁실을 불태우고, 환도성을 파괴하고 돌아갔다.
고국원왕 13년(343)	봄 2월에 왕이 그의 동생을 보내 신하를 칭하며 전연에 조현하게 하고, 진기한 물건 1천여 점을 바쳤다. 이에 전연의 왕 모용황이 바로 그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주었지만, 여전히 그 어머니를 억류하여 볼모로 삼았다.
고국원왕 13년(345)	겨울 10월에 전연의 왕 모용황이 모용각에게 공격하도록 하여 남소를 빼앗고, 주둔병을 두고 돌아갔다.
고국원왕 19년(349)	왕이 전 동이호군이었던 송황을 전연에 압송하였다. 전연의 왕 모용준은 그를 용서하고, 이름을 바꾸어 활이라 하고, 벼슬을 내려 중위로 삼았다.
고국원왕 25년(355)	겨울 12월에 왕이 사신을 보내 전연에 이르러 볼모를 바치고 조공을 하며 어머니를 요청하였다. 전연의 왕 모용준이 이를 허락하고 전중장군 조감을 보내 왕의 어머니 주씨를 호송하여 귀국하게 하고, 왕을 정동대장군 영주자사로 삼고 낙랑공에 봉하고, 왕은 예전과 같이 하였다.
고국원왕 40년(370)	전진의 왕맹이 전연을 정벌하여 무너뜨렸다. 전연의 태부 모용평이 도망해보자 왕이 잡아서 전진으로 압송하였다.

3. 고구려와 후연·북연의 각축

전연의 멸망 이후 왕족이었던 모용수(慕容垂, 384~396년 재위)는 전진의 부견(苻堅)에 의탁하였는데, 부견이 383년 동진을 공격했다가 비수(淝水)에서 패하자 384년에 후연(後燕, 384~407년)을 건국하였다. 이후 업(鄴)을 점령한 모용수는 과거 전연의 영역을 회복하였고, 모용좌(慕容佐)를 과거 전연의 수도였던 용성(조양)에 진주하게 하였다.

고구려 역시 한동안 주춤하였던 요동 진출을 재개하였다. 당시 고국양왕(故國壤王, 384~392년 재위)은 385년에 군사 4만명으로 요동을 습격하였는데, 후연군을 물리치고 요동과 현도를 점령하여 남녀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그렇지만 얼마되지 않아 후연의 모용농(慕容農)에 의해 다시 요동을 잃고 말았다.¹³⁾ 요동 지역을 차지하게 된 후연은 모용좌를 평곽(平郭, 요녕성 개주)으로 전진 배치하여 고구려를 경계하고, 용성에는 모용농을 두어 후연의 동북방을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이후 후연은 394년에 서연(西燕)을 멸망시켰으며 동진을 축출하고 산둥반도 일대를 점령하였다. 선비족 탁발부(拓跋部)가 건국한 북위(北魏, 386년~534년)가 화북 일대에서 성장하자 395년에는 북위를 공격하였으나 참합과(參合陁)에서 탁발규(拓拔珪)에게 대패하였다. 모용수의 뒤를 이은 모용보(慕容寶, 396~398년 재위)는 396년에 북위의 침공에 맞섰으나 내부에서 반란까지 일어나자 수도였던 중산(中山)을 버리고 용성으로 천도하였다.

이처럼 북위와 내분에 의해 후연의 세력이 약해지자 광개토왕(廣開土王, 392~413년 재위)은 요동 진출을 다시 본격화 하였는데, 후연과 몇 차례의 공방을 치르고서 5세기 초반에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양서(梁書)』에는 “모용수가 죽고, 아들 보가 즉위하여, 구려왕 안(安, 광개토왕)을 평주목(平州牧)으로 삼고, 요동·대방의 2국왕에 봉하였다. 안은 처음으로 장사(長史), 사마(司馬), 참군(參軍)의 관직을 설치하였고, 후에는 요동군을 차지하였다.”¹⁴⁾는 기록이 전한다. 이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이었던 후연이 북위를 상대하기 위해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하는 외교적 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연과 고구려는 400년부터 7년 동안 무려 다섯 차례나 공방전을 벌였다. 400년 후연 왕 모용성(慕容盛, 398~401년)의 고구려 신성(新城)과 남소성(南蘇城)의 공격, 402년 고구려의 후연 숙군성(宿軍城, 요녕성 복진) 공격, 404년 고구려의 후연 영토 공격, 405년 후연 왕 모용희(慕容熙, 401~407년 재위)의 고구려 요동성(遼東城, 요녕성 요양) 공격, 405년 후연의 고구려 목저성(木底城) 공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한족 출신의 풍발(馮跋)은 고구려 출신으로 모용보의 양자였던 모용운(慕容雲, 고운)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후연이 멸망하고 북연(北燕, 407~436년)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모용운은 다시 성을 고쳐 고운(高雲, 407~409년)으로 개명하였다.

13)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壤王 2年

14) 『梁書』 東夷列傳 高句麗

광개토왕 역시 408년에 북연에 사신을 보내 종족의 예를 배풀었고, 고구려와 북연은 화친하였다. 요동 일대는 이제 고구려의 확고한 영토가 되었다.

<표 3> 고구려와 후연·북연 간의 주요 기사(『삼국사기』)

연도	사건
고국양왕 2년(385)	여름 6월에 왕이 병력 40,000명을 내어 요동을 습격하였다. 이에 앞서 후연의 왕 모용수가 대방왕 모용좌에게 명하여 용성을 지키게 하였다. 모용좌는 아군이 요동을 습격하였다는 것을 듣고 사마 학경을 보내 병력을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였다. 아군이 공격하여 물리치고,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점령하고, 남녀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겨울 11월에 후연의 모용농이 병력을 거느리고 침공해 요동·현도 두 군을 다시 차지하였다. 처음에 유주와 기주의 유민이 많이 투항해오므로 모용농이 범양사람 방연을 요동 태수로 삼아 이들을 불러 위무하게 하였다.
광개토왕 9년(400)	봄 정월에 왕이 사신을 보내 후연에 가서 조공하였다. 2월에 후연의 왕 모용성이 우리 왕의 예질이 오만하다고 하여 몸소 군대 3만을 거느리고 습격하여왔다. 표기대장군 모용희를 선봉으로 삼아, 신성과 남소성 등 두 성을 빼앗고, 7백여 리의 땅을 넓히고 5천여 호를 옮기고 돌아갔다.
광개토왕 11년(402)	왕이 군대를 보내 숙군성을 공격하니, 후연의 평주자사 모용구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광개토왕 13년(404)	겨울 11월에 군대를 출병시켜 후연을 침공하였다.
광개토왕 14년(405)	봄 정월에 후연의 왕 모용희가 요동성을 공격해왔다. ... 이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 방비를 엄히 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갔다.
광개토왕 15년(406)	겨울 12월에 후연의 왕 모용희가 거란을 습격하였는데, 행복에 이르렀다가 거란의 무리가 두려워하여 되돌아가려 하였다. 드디어 군수 보급품을 버리고 병사들을 가볍게 하여 우리나라를 습격해왔다. 후연의 군대가 3천여 리를 행군하여 병사와 말이 지치고 얼어서, 죽은 자가 길에 이어졌다. 우리의 목저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광개토왕 17년(408)	봄 3월에 사신을 북연에 보내 종족으로서 예를 배푸니, 북연왕 모용운이 시어사 이발을 보내 답례하였다.
장수왕 23년(435)	가을에 북위의 사람들이 자주 북연을 쳐서 북연이 날로 위태롭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북연왕 풍홍이 말하기를, "만일 일이 급해지면 동쪽으로 고구려에 의지하였다가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려 한다."라고 하고, 풀래 상서 양이를 보내 우리에게 맞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수왕 24년(436)	여름 4월에 북위가 북연의 백랑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왕이 장수 갈로맹광을 보내 무리 수 만을 거느리고 양이를 따라 화룡에 이르러 북연 왕을 맞이하게 하였다. 갈로맹광이 성에 들어가 군사들에게 명하여 남은 옷을 벗게 하고 북연의 무기고에서 정교한 무기를 취하여 나누어 주고 성 안을 크게 약탈하였다. 5월에 북연왕이 용성에 거주하던 호구를 이끌고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궁전을 불태웠는데 불이 열흘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다. 부인에게 갑옷을 입고 중앙에 있게 하고, 양이 등은 정에 병력을 통솔하여 바깥에 서게 하였다. 갈로맹광은 기병을 거느리고 후미에서 방진을 이루어 나아가니 앞뒤의 80여 리나 되었다. 위주가 이 소식을 듣고 산기상시 봉발을 보내 와서 북연왕을 압송하라고 하였다.
장수왕 26년(438)	봄 3월에 처음 북연왕 풍홍이 요동에 도착하자 왕이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용성왕 풍군이 이곳까지 와서 노숙을 하느라 군사와 말이 고달프겠다."라고 하였다. 풍홍이 부끄럽고 화가 나서 황제의 명을 칭하며 이를 꾸짖었다. 왕이 그를 평광에 두었다가 곧 북풍으로 옮겼다. ... 왕이 풍홍을 남쪽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장수 손수와 고구 등을 보내 풍홍을 북풍에서 죽이고, 아울러 그의 자손 10여 인도 죽였다.

이후 복위가 북연을 공격하자 고구려의 장수왕(長壽王, 413~491년 재위)은 436년 북연의 수도였던 용성으로 장수 갈로맹광(葛盧孟光)을 보내 북연왕 풍홍(馮弘)과 화룡(和龍)의 주민들을 고구려로 받아들였다. 『삼국사기』에는 당시 갈로맹광이 용성에 들어가 북연의 무기고에서 여러 무기들을 취하고 성을 약탈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연의 멸망과 함께 북연의 여러 물자와 장인 집단 및 기술 등이 고구려로 대거 유입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요동의 주도권을 두고 모용선비와 오랫동안 경쟁하였다. 삼연과의 전쟁과 외교를 통한 당시의 인적·물적 교류는 당연히 양국의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III. 고분을 통해 본 문화교류 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는 4세기 초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북중국의 모용선비와 끊임없이 각축을 하였는데, 437년 북연이 멸망할 때까지 이들은 치열한 전쟁은 물론이고 외교를 통한 교섭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삼연문화(三燕文化)’¹⁵⁾로 지칭되는 모용선비가 세운 전연, 후연, 북연의 물질문화는 고구려와의 오랜 접촉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 등을 통하여 고구려는 물론이고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쳤음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삼연문화와의 관계가 논의되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물질문화로는 벽화고분, 마구, 보요장식, 대금구, 토기 등이 있는데, 본 장에서는 고분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고구려의 전통적인 묘제는 적석총으로, 4세기가 되면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지역에서는 계단식적석총의 매장주체부가 석실로 변화하거나 석실봉토분이라는 새로운 묘제가 등장한다.

우선 집안(集安) 만보정(萬寶汀)242호분은 4기의 계단식적석총이 연접된 무덤으로, 그 중 두 번째 무덤인 만보정242-2호묘는 비록 천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형 현실과 우편재 연도가 남아있어 고구려의 적석총이 수혈식의 석곽 구조에서 횡혈식의 석실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만보정242-1호묘에서 출토된 재갈이나 금동방울이 유수(楡樹) 노하심(老河深) 중층 56호 목곽묘 출토품과 유사하여 해당 무덤은 3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된다(강현숙 외 2020: 171). 연접된 만보정242-2호묘는 이보다 늦은 3세기 말 혹은 4세기 초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집안 지역의 초기 석실봉토분으로는 만보정1368호분을 들 수 있는데, 장방형 현실과 우편재 연도를 갖추고 있다. 석실 내부와 천장에 백회를 발라 정면한 후에 벽화를 그렸는데, 벽면의 네 모서리에는 검은색으로 기둥을, 기둥 사이에는 들보를 그렸으며, 사아식 천장에는 서까래를 표현하였다. 장방형 현실의 우편재 연도 평면은 초기 석실에서 주로 확인되는 형태이고, 벽에

15) 삼연문화와 관련한 그간의 연구사는 오진석(2019)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비해 천장이 높은 구조 역시 초기 벽화분에서 보이는 특징이므로 해당 무덤은 4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강현숙 외 2020: 197).

그런데 이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황해도와 평안남도 일원에서도 석실봉토분이 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지역은 고구려가 장악하기 이전에는 낙랑군과 대방군의 영역으로, 중국 중원의 전통 묘제인 황혈식 장법의 전실묘(塋室墓)가 유행하였다. 미천왕은 313년에 낙랑군을, 314년에는 대방군을 공격하여 고구려로 복속시켰는데, 고구려의 영역이 된 이후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한동안 전실묘의 전통이 지속되었다. 대표 사례로 서읍태수 장씨묘(342년)¹⁶, 대방태수 장무이묘(348년)¹⁷, 동리무덤(353년)¹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전실묘는 벽돌과 돌을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천장부를 돌로 덮는 변형된 전실묘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구려의 지방에서 낙랑군과 대방군이 기능하던 시기에 유행하였던 전실묘가 점차 사라지고 안악3호분으로 대표되는 석실봉토분이라는 새로운 묘제가 출현하는 양상과도 연결된다.

공석구(2020: 242~243)는 앞서 언급한 무덤의 벽돌에서 확인되는 관직명을 실제 관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무덤 구조에서 보이는 미묘한 변화상 등을 근거로 고구려에 의해 낙랑군과 대방군이 멸망한 지 40여 년 지난 시점에 축조된 이들 전실묘는 평양과 황해도 일대에서 기존 세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중원 왕조의 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로 중국에서 고구려로 이주해 온 집단이 축조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이어지는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무덤의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북서명으로 인해 무덤의 축조 시기와 피장자의 내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안악3호분(357년)¹⁹과 덕흥리무덤(408년)²⁰은 황해도와 평양 일대에 축조된 이른 시기의 석실봉토분이자 벽화무덤이다. 무덤이 조성될 당시 고구려의 왕도였던 집안지역에는 초대형 계단식 적석총이 왕릉이었던 만큼, 고구려의 변경이었던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에서 적석총이 아닌 석실봉토분과 고분벽화라는 새로운 묘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두 묘제가 외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16) 황해남도 안악군 노암리에 있다. 전실묘로 연도, 현실로 이루어진 단실묘이지만, 천장은 돌로 덮여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西邑太守將軍塋(서읍태수장군전)'와 '建武八年西邑太守(건무8년서읍태수)'의 명문전이 출토되었다. 건무는 후조(後趙) 무제의 첫 번째 연호로, 건무 8년은 342년에 해당한다.

17) 황해북도 봉산군에 있다. 전실묘로 연도, 연도부 양쪽 감실,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塋(대세재 무어양장무이진)', '太歲申漁陽張撫夷塋(태세신어양장무이진)', '使君帶方太守張撫夷塋(사군대방태수장무이진)', '張使君塋(장사군전)' 등의 명문전이 출토되었다. 정인성(2010)은 무덤의 구조와 축조 기법, 전돌의 명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무덤이 석가전장을 지닌 전실묘로 그 축조 시기가 288년이 아닌 고구려가 대방군을 점령한 이후인 348년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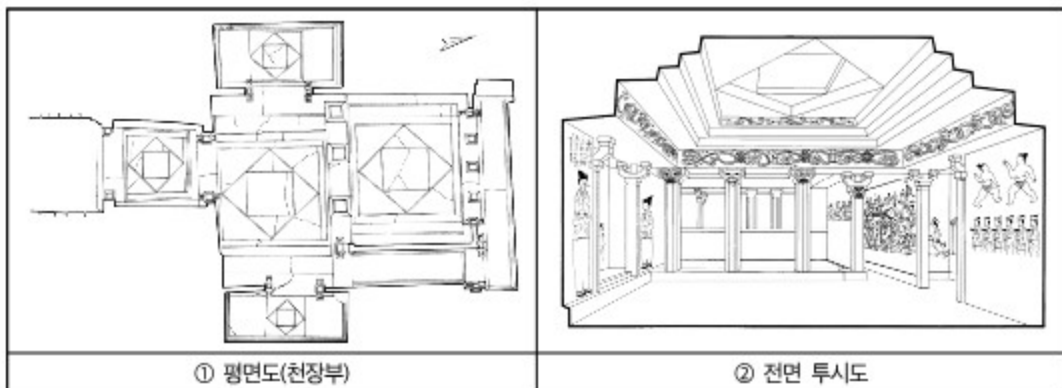
18) 평양시 중구역 역전동 평양역구에서 발견된 전실묘이나 벽체 위와 천장부는 돌로 쌓았다. 연도와 현실로 이루어진 단실묘이다. '永和九年三月十日遼東韓玄苑太守領修利造(영화9년3월10일요동한현도태수령동리조)'라는 명문전이 출토되었다. 영화는 동진(東晉) 목제의 첫 번째 연호로, 영화9년은 353년에 해당한다.

19)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에 있다. 석실봉토분으로, 연도, 전실, 축실, 회랑, 현실로 이루어진 다실묘이다. 벽화는 석벽에 직접 그렸으며, 기본 주제는 생활풍속이다.

20)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 있다. 석실봉토분으로 연도, 전실, 동로, 후실로 구성된 이실묘이다. 석실의 벽면에 회를 칠하고 벽화를 그렸는데, 기본 주제는 생활풍속이다.

고구려 초기 고분벽화인 안악3호분에는 전실 서벽 북쪽 벽면 위에 묵서(墨書)가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동수(冬壽)는 '유주 요동 평곽 도향 경상리(幽州 遼東 平郭 都鄉 敬上里)' 출신으로, '사지절 도독제군사 평동장군 호무이교위 낙랑상 창려·현도·대방태수 도향후(使持節 都督諸軍事 平東將軍 護撫夷校尉 樂浪相 昌黎玄菟帶方太守 都鄉侯)'를 지냈는데, 영화(永和) 13년에 69세의 나이로 죽었다.

요동군 평곽현은 현재 중국 요녕성 개주시(蓋州市) 일원으로 비정되며, 무덤의 구조나 벽화의 기본 제재 등은 기본적으로 요양(遼陽)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석실벽화분과 유사하다. 묵서명에 명기된 영화는 중국 남조(南朝) 동진(東晉) 목제(穆帝)의 연호로, 345년에서 356년까지 12년 동안만 사용하였다. 영화 13년은 357년으로 환산될 수는 있겠으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묵서명에는 동진에서 새로 제정한 연호인 승평(升平) 1년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는 황해도에 묻힌 동수가 동진에서 연호를 교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안악3호분(『조선유적유물도감』5)

한편, 묵서명의 주인공인 동수(冬壽)는 전연을 세운 모용황의 사마(司馬)로 336년에 고구려로 망명한 동수(修壽)²¹⁾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정호섭 2011: 190). 동수(冬壽)가 요동 평곽현 출신인 점, 전연에서 고구려로 망명해 온 사람 중에 유사한 이름이 있는 점, 활동 시기가 겹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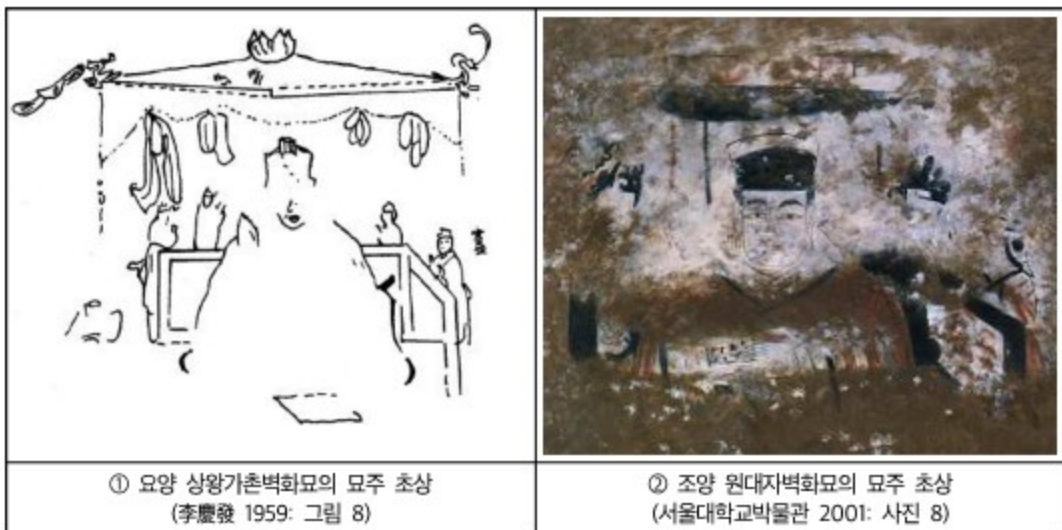
그런데 안악3호분의 경우 석실의 규모나 구조, 벽화의 수준과 내용 등에서 고구려 당대의 최고급 무덤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 학계에서는 안악3호분의 피장자를 미천왕 또는 고국원왕의 무덤으로 추정하면서 동시에 동수는 왕의 호위무관으로 보기도 한다(박진욱 1990). 묵서가 무덤 주인공의 주변이 아닌 장하독(帳下督)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동수는 묘지기에 불과

21) 『晉書』나 『資治通鑑』에 따르면, 동수(修壽)는 전연의 모용황 아래에서 사마(司馬)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모용인(慕容仁)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패하여 모용인의 수하가 되었으나, 이후 모용황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 모용인을 물리치자 336년 곽충(郭充) 등과 함께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廣韻』이나 『姓解』에는 冬壽로 기록되어 있다(정호섭 2011: 190)

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덤에 묘지기의 생애를 묵서로 남긴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고구려의 9대 고국천왕부터 18대 고국양왕까지 왕호(王號)를 장지(葬地)의 지명을 따서 사용하였던 점과 당대 왕릉은 집안지역의 초대형 적석총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황해도에 조영된 안악3호분은 고구려의 왕릉이 아니라 전연의 국가성립 과정에서 고구려로 망명한 동수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림 3> 안악3호분의 고분벽화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4> 요녕성 지역 고분벽화와의 비교

한편, 안악3호분 주인공의 초상은 요양 상왕가촌(上王家村)의 서진대(西晉: 265~316년) 벽화묘와 4세기대 초에서 중반 사이로 편년되는 조양(朝陽) 원대자(袁台子) 벽화묘의 초상과도 많이 닮아있다. 이들 주인공은 장막 내 평상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비단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으며,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다는 점 등이 공통된다. 주변에 수발을 드는 시종들은 주인공 보다 작게 그리고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주인공의 표현은 408년에 축조된 덕흥리무덤과도 연결된다.

그리고 안악3호분은 회랑을 갖춘 석실봉토분으로,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태성리3호분을 제외하면 고구려 석실봉토분에서는 이러한 회랑 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회랑은 후한(後漢) 말기 화상석 무덤에서 유행하였던 구조로, 요양 지역의 위·진시기 벽화묘에서도 발견된다.

이처럼 안악3호분의 피장자인 동수가 모용선비의 관리였고, 정치적인 이유로 고구려로 망명하여 과거 대방군의 영역이었던 황해도 일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그가 거처하였던 요서 지역의 서진시기의 문화나 혹은 모용선비의 문화가 고구려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구려의 수도가 아닌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고구려의 전통 묘제인 적석총이 아니라 벽화로 장식된 석실봉토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점, 또 비슷한 시기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멸망한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변형된 전실묘가 여전히 축조되고 있는 점, 그리고 고구려가 중국의 유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던 점 등은 북중국 세력과의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석실분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무덤을 축조하거나 고분벽화라는 새로운 장의예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장인이 있어야만 가능했을 것이므로, 당시에 북중국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관련 장인도 함께 고구려로 이주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5> 덕흥리벽화분

삼연(三燕)을 위시한 중국의 여러 왕조와 고구려의 인적 내지는 문화적 교류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는데, 덕흥리벽화분 역시 이러한 양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강서구역에 있는 덕흥리고분은 기본적으로는 안악3호분의 벽화 구성과 유사한데, 전실 북벽의 상단에 목서 묘지가 남아있어 피장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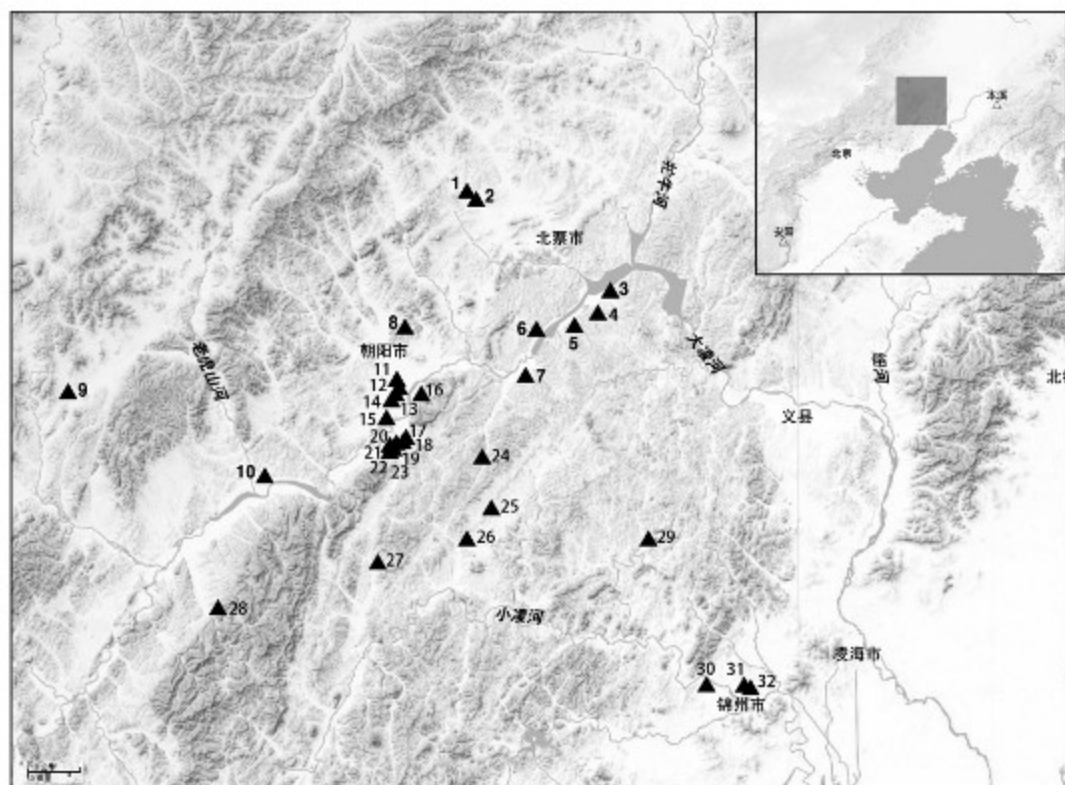
목서명에 따르면 무덤의 주인공인 진(鎭)은 '□□군 신도현 도향 □감리(□□郡 新都縣 都鄉 □甘里)' 출신으로, '건위장군 국소대형 좌장군 용양장군 요동태수 사지절 동이교위 유주자사(建位將軍 國小大兄 左將軍 龍讓將軍 遼東太守 使持節 東夷校尉 幽州刺史)'를 역임하였다. 그런데 진이 태어난 신도현에 대해 하북성(河北省)의 기현(冀縣)인지 아니면 고구려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는 관직도 마찬가지로인데, ○○장군은 중국의 군호(軍號)로 동진시대의 직위로 본다. 다만 고구려의 관등에 대형(大兄)과 소형(小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국소대형은 고구려의 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지절은 주의 장관이나 장군에게 주는 칭호이기도 하지만, 요동태수와 동이교위, 유주자사 등은 중국에서 역임했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로 망명 후에 자칭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정호섭 2011: 204~207).

진(鎭)은 77세에 사망하여 영락(永樂) 18년에 안장되었다. '영락(永樂)'은 광개토왕의 연호로, 영락 18년은 408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진(鎭)이 전연에서 후연에 걸쳐 관리 생활을 하다가 고구려로 망명한 실제 유주자사(幽州刺史)를 역임한 인물인지, 아니면 고구려 사람으로 광개토왕대 유주 경락과 관계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안악3호분과는 달리 덕흥리벽화분은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요동을 차지하였는데, 여기에는 북중국 세력의 거점 지역이었던 양평(陽平, 요양)도 포함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양 지역은 안악3호분을 비롯하여 태성리3호분, 요동성총 등 다실분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초기 벽화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후한~위진대 다수의 벽화고분이 조성된 곳이기도 하다. 목서의 내용이나 묘주의 초상 등을 종합해본다면 덕흥리고분의 주인공인 진(鎭) 역시 안악3호분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고구려로 넘어온 망명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모용선비의 고분 문화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고구려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발견된 모용선비의 무덤은 기본적으로 모두 수직으로 구덩이를 파서 묘광을 만든 지하식인데, 토광묘, 석곽묘, 전실묘, 석실묘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 토광묘와 석곽묘는 목관을 안치하는 것이 기본이며, 묘광의 평면은 앞쪽이 크고 뒤쪽이 작은(前大後小) 사다리꼴의 평면 형태와 장방형으로 나뉜다. 제형 평면의 토광묘나 석곽묘에서는 벽감(壁龕) 내지는 이실(耳室)이 설치되기도 한다. 전실묘는 그 사례가 많지 않은데, 현재까지 금주(錦州) 이괴묘(李廩墓)와 전산십육국시기묘(前山十六國時期墓)만 확인되었다. 석실묘는 묘도와 묘문, 연도, 현실로 구성되는데, 석실의 정상부 및 덮개석에 따라 3형식으로 나뉜다. A형(석조형) 석실은 할석으로 벽체를 조성하며 평면형태는 대체로 제형이고, 평천장이다. B형(석관형) 석실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인데, 상부를 대형의 판석으로 마감하며, 평천장이다. C형(권정형) 석실은 할석 벽체에 궁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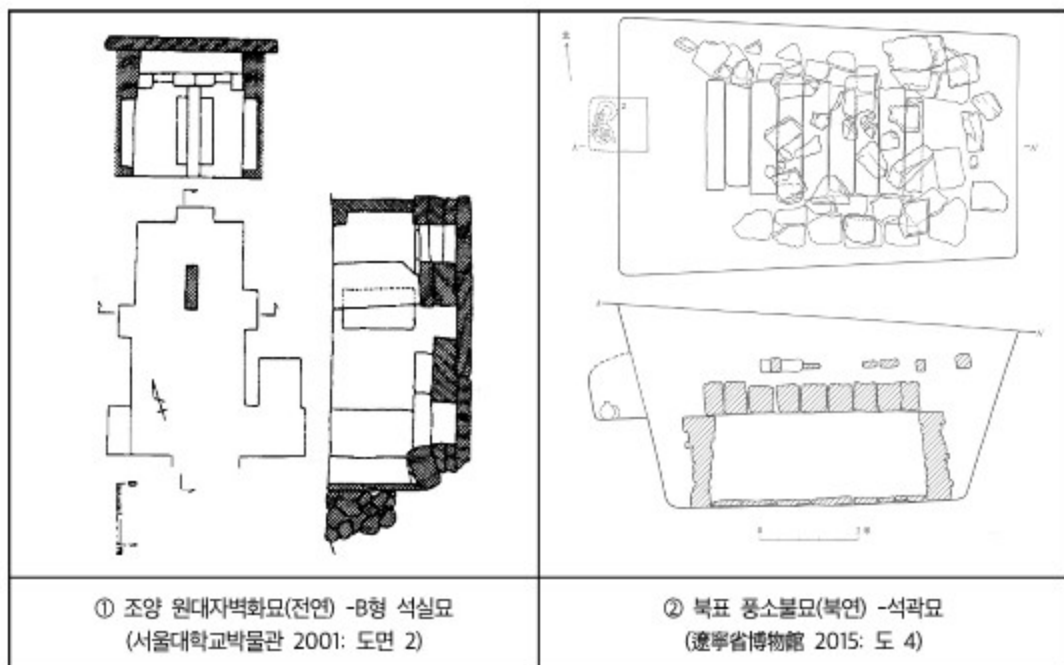
상 천장으로 현재까지 조양 십이대전창(十二台磚廠)88M1과 괘가전두지(郭家箭頭地)M1만 확인되었다(오진석 2019: 50-55).



<그림 6> 모용선비 무덤의 분포(오진석 2019: 도면 1)

북표: 1서관영M4 2풍소불묘(북연) 3창량교선비묘 4대관영자묘 5대관영자묘(A) 6라마동묘 24방신촌진묘 / 조양: 7우양구묘 8봉차도위묘 9북묘촌묘 10대평방촌벽화묘 11중형기기창묘(북연) 12남대가M5 13이삼사의원M3 14초가촌묘 15괘가전두지M1 16팔보촌M1 17최홀묘(후연) 18소동산묘(북연) 19십이대전창88M1 20왕자분산묘 21십이대항전창묘 22원대자묘(북연) 23원대자벽화묘(동진) 25삼합성묘 26선초구진묘 27단가점묘 28구문자벽화묘 / 금주: 29보안사묘 30전산십육국시기묘 31안화가묘 32이외묘(전연)

모용선비의 무덤은 토광묘와 석곽묘를 기본으로 하되, 중원의 영향으로 황철식 장법의 전실묘와 석실묘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고대화(高大化)된 초대형 계단식 적석총 이후 내부에 다채로운 벽화로 장식된 석실봉토분이 지배 계층의 무덤으로 변화하는 고구려와는 달리 모용선비의 경우에는 북연시기 풍소불(馮素弗)의 무덤이 여전히 석곽묘를 채택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7> 모용선비 고분의 평·단면도

모용선비의 대표적인 부장품인 금제 보요관 역시 초창기에는 사다리꼴 평면의 목곽묘인 조양 왕자분산묘(王子墳山墓)에서 발견되었다. 모용외가 모용부의 수장이었던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는 토광묘와 석곽묘 외에도 중원의 영향으로 석실묘와 전실묘가 추가된다. 보요관식의 부장 전통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무기와 마구류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리고 단경호와 청동용기와 같은 중원계 유물도 추가된다. 전연 수립 이후에는 전실묘는 사라지게 되며, 고분벽화가 새로 등장한다. 부장품 중에는 마구의 종류와 수량이 증가하며, 답수부에 돌기가 있는 등자가 나타난다. 선비문화의 요소는 더욱 감소되고 중원계 유물의 영향력이 보다 강해진다. 후연과 북연 시기에도 토광묘와 석곽묘, 석실묘가 모두 확인되며, 모용선비의 전통과 주변에서 유입된 문화가 융합되는 양상이 관찰된다(오진석 2019: 62-6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는 국가성립기부터 지상에 적석총을 축조해온 반면 모용선비는 사다리꼴 평면의 지하식 토광묘나 석곽묘를 기본 묘제로 삼았다. 그런데 고구려와 모용선비 모두 4세기에 들어 석실과 고분벽화라는 새로운 묘제가 유입되었다. 고구려에 비해 요동 지역을 먼저 차지한 모용선비는 요양 일대에 널리 유행하였던 위·진 시기의 문화와 직접 접촉할 기회를 얻었지만, 서북한 지역에 도입된 석실벽화분은 모용선비에서 고구려로 망명한 관리를 위시한 중국계 유이민들이 매개가 되었다.

삼연의 벽화고분은 수도였던 조양과 그 인근의 북표 지역에 한하여 발견된다. 조양에는 석실묘에서, 북표는 석곽묘에서 벽화가 확인된다. 이들 석곽 및 석실의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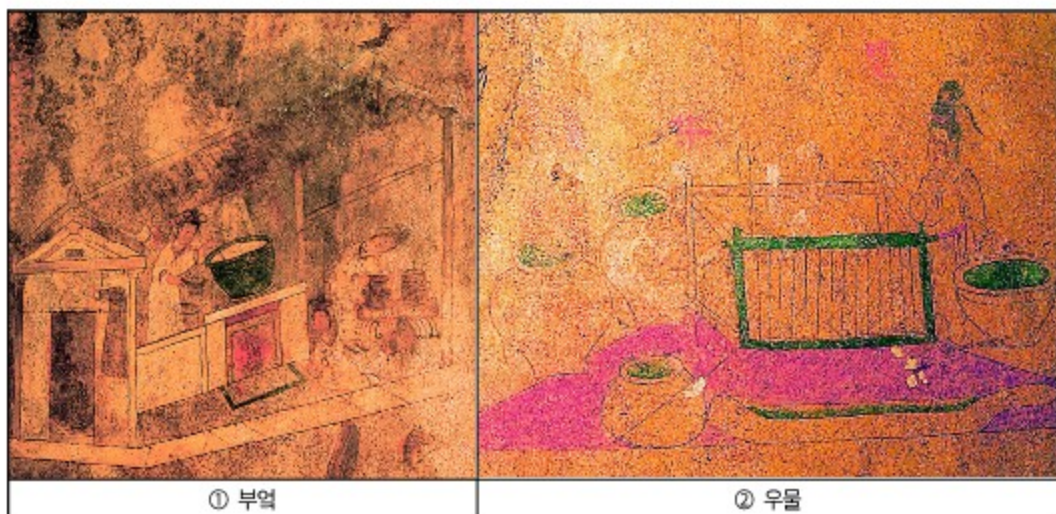
묘실 천장이 평천장이라는 점에서 선비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다. 벽화의 주제는 생활풍속이고, 주요 제재에는 행렬, 사냥, 상차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 지역에서 위·진시기부터 유행하고 있던 고분벽화의 영향임을 짐작케 한다. 다만 삼연에서는 고분벽화가 현재까지 6기만 발견된 관계로, 삼연 사회에서 고분벽화의 제작은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는 문화 현상에 불과하다(전호태 2017: 14-16).

반면 고구려는 삼연과는 달리 고분벽화와 석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벽화가 그려진 석실본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초대형 적석총을 대신하여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채택되기까지 하였다. 고구려에서 유행한 고분벽화는 이후 백제, 신라의 변경 지역, 그리고 일본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고분벽화는 특이하게도 당시 고구려의 왕도였던 집안 지역이 아니라 지방이었던 황해도와 평양 인근에서 시작되었다. 모용선비로부터의 도입 이후 고분벽화가 그 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지역이 과거 낙랑군과 대방군의 영역이었던 관계로 한(漢) 문화에 친숙한 환경이었기 때문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고분벽화와 석실의 도입 이전까지 이 지역의 묘제는 토광묘와 전실묘였다는 점에서 이를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여하튼 모용부에서 관리를 지내다가 난리를 피해 고구려로 망명한 동수의 무덤인 안악3호분은 고구려 벽화 도입 과정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고구려가 외래문화요소를 수용하고 소화하는 방식은 선택적이며 제한적이었음이 확인된다. 벽화 도입 초기에는 전연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삶을 묘사한 생활풍속을 공통의 벽화 주제로 삼으면서도 위·진시기 요양 지역의 고분벽화에서 주요한 제재이던 연음백희(宴飲百戲) 장면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무덤의 주인의 위세를 보여주는 행렬도와 사냥도는 주요한 제재로 취급되었다(전호태 2021: 285). 또한 인물의 복식이나 기물에는 고구려 실생활의 모습을 담았다. 안악3호분 동쪽 측실 내부에 그려진 부업의 부뚜막이나 쌓여 있는 접시, 우물가의 동이와 웅 등은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실제 유물과 동일하다. 행렬도에 그려진 각종 무구나 종장기병의 모습 등도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무덤에 부장된 유물 역시 고구려의 것이다. 또한 천장부의 제재와 구성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해, 달, 별자리 위주의 비교적 단순한 구성의 삼연 벽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인 발전을 거쳤다. 생활풍속에 이어 연꽃 장식이나 각종 기하문으로 장식한 벽화가 중심 주제가 되었다가 점차 죽은 자의 세계를 지키는 신수(神獸)로서의 사신(四神)이 벽화의 전면을 차지하게 된다. 고분벽화에서 유일한 제재로 등장하는 사신은 벽화의 기원지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것이었다.



<그림 8> 안악3호분 벽화(©동북아역사재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 중기 이후에 유행한 고분벽화와 석실묘는 비록 모용선비에서 고구려로 망명한 유력 인사로 인해 당시 고구려의 지방이었던 황해도와 평양 일원에서 도입되어 결국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고구려가 고분벽화라는 외래의 문화를 수용한 방식은 모용선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유물을 통해 본 문화교류 양상

삼연문화와의 관계가 논의되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물질문화로는 앞서 살펴 본 벽화고분 외에도 마구, 보요장식, 대금구, 토기 등이 있다.

1. 마구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4세기대 무덤에서는 마구류가 많이 출토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와 삼연 마구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모용선비 마구 세트가 고구려에 비해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王巍 1997).

모용부에서 벗어나 국가로 성장한 전연에는 4세기 중엽이 되면 마주와 마갑으로 구성된 전마구 세트가 등장한다. 특히 원형과 심엽형 판비, 환판비, 등제 등자, 목심 등자, 경식안, 마면, 규형행엽, 심엽형행엽, 영부운주, 입주부운주 등을 갖춘 장식마구도 완비된다. 무기와 갑주, 전마구, 장식마구 등은 그 이전 시기의 선비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흉노시

기 활을 든 기병 집단을 의미하는 소위 “공현지사(控弦之士)”로 대표되는 기존의 유목민족적 무기 구성과 전술을 탈피하고 인마용(人馬用) 갑주, 경식안, 쌍등자, 장신 철모로 구성된 중장기병의 무장체제와 전술로의 변화는 전연이 단기간에 광대한 영토를 획득하게 된 원동력으로 이해되고 있다(이현우 2021: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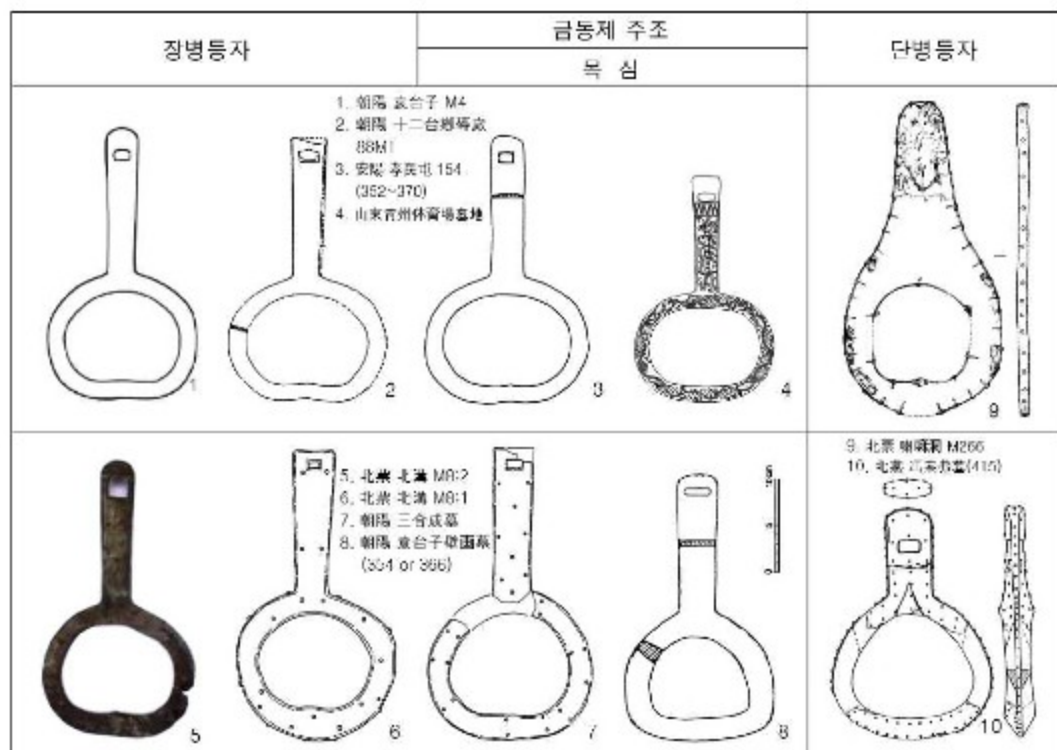
전연의 마구가 고구려에 비해 이른 시기의 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중장기병술이 전연에서 먼저 도입되고 발전하여 고구려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북중국에서 5호16국시대가 개막되기 이전 이미 중국에서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던 무장방식 겸 전술로, 고구려와 전연이 북중국이 혼란기에 접어들자 각각 별도로 중장기병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한다(전호태 2017: 25). 후자의 입장에서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고구려와 전연의 중장기병 관련 유물이 유사하지만 세부 기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큰 시차 없이 독자적으로 중장기병술을 도입, 발전시켰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마구는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일본 간의 문물 교류 양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등자는 신라 적석목곽분의 편년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고대 동아시아의 교차 편년 자료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특히 풍소불묘에서 출토된 단병등자의 시기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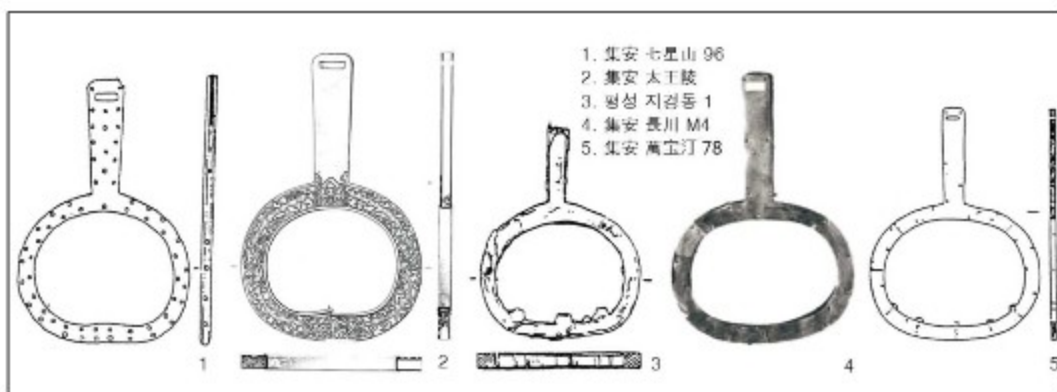
삼연에서 발견된 단병등자는 전연시기로 편년되는 북표 라마동(喇嘛洞) M266호묘 출토품과 415년에 사망한 북연 풍소불묘 출토품이 있다. 라마동 출토품은 특이한 형태의 목심 단병등자로, 병부와 윤부의 측면과 내면에만 동판을 덧대었다. 풍소불묘 출토품은 병부의 폭이 넓고 길이가 짧은 삼각형 윤부를 가진 목심 단병등자로, 목심의 취약부인 답수부와 병부에만 금동판을 덧대었다.

장병등자의 경우 4세기 중엽경 전연의 무덤에서 출토된 장병등자가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실물 자료²²⁾라는 점에서 전연에 의해 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림 9> 상단부의 등자들은 모두 금동제 주조품이고, 하단부 등자들은 모두 목심등자로 가죽을 씌운 조양 원대자 벽화묘를 제외하면 모두 전면에 금속판을 씌웠다. 남중국에서는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윤부 삼각형의 목제 또는 목심 단병등자가 단등자(單鐙子)로 출현하여 곧 쌍등자(雙鐙子)로 전환되었으며, 북중국에서는 모용선비에 의해 장병등자가 출현하여, 단병등자와 장병등자가 공존해 간 것으로 이해된다(최병현 2021: 240).

22) 그렇지만 호남성 장사(長沙)의 금분령(金盆嶺) 21호묘에서 출토된 서진시기의 도용에는 등자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무덤에서 서진 혜제(惠帝)의 다섯 번째 연호였던 영녕(永寧) 2년(302)명 벽돌이 발견되어 등자의 출현은 그보다 빨랐음이 확인된다. 다만 출현기의 등자는 기수가 말등에 올라갈 때만 밀고 올라가는 단등자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최병현 2021: 238).



<그림 9> 삼연의 등자(최병현 2021: 그림 6)



<그림 10> 고구려의 목심 장병등자(최병현 2021: 그림 7)²³⁾

23) 칠성산 96호묘에 정식으로 부여된 명칭은 칠성산 1096호묘이고, 만보정 78호묘는 만보정 1078호묘이다.

반면 고구려에서는 장병등자만 발견되었다. 목심에 철판을 씌워 못으로 고정한 목심철판피운 등(木心鐵板被輪鎧)과 철제 주조 등자²⁴⁾의 두 형식이 있다.

고구려의 등자 중에서 전연 등자와 주로 비교되는 것은 칠성산(七星山)96호묘와 태왕릉(太王陵) 출토품이다. 이들 모두 목심의 전면을 금동판으로 씌웠는데, 태왕릉의 경우에는 금동판에 용 무늬를 정교하게 투조하여 장식한 것이다. 이들 등자는 답수부의 가운데가 약간 용기되어 있고, 병부의 아래쪽이 좁아지는 등 전연의 등자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이들 등자가 출토되는 두 유적은 모두 계단식 석실 적석총인데, 칠성산96호묘의 경우 공반되는 황유도기나 증원계 청동용기 등을 함께 고려해볼 때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초로 추정된다.

이후 고구려의 목심등자는 병부의 상하 폭이 같고 윤부의 형태가 타원형이며 답수부에는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 개의 돌기(뿔)가 박혀있는 등의 변화가 관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평성 지경동1호묘와 집안 만보정(萬寶汀)78호묘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지경동1호묘 출토 등자는 함께 공반되는 마구(재갈, 심엽형 행엽, 운주)와 토기(시루, 술, 호) 등으로 볼 때 4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칠성산1096호묘 보다는 늦고 5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되는 장천(長川)4호묘와 만보정78호묘보다는 이르거나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재갈은 재갈받침에 따라 표비(鑣轡)와 판비(板轡)로 구분된다. 보통 표비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확인되는데, 흉노와 부여 고분 출토품과 계통을 같이 한다. 대체로 2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봉상의 표비가 S자형 표비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안 만보정242호묘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판비는 장방형 입문이 달린 원형 또는 타원형의 경판과 2연식의 함(銜, 재갈쇠)과 2조식의 긴 인수(引手, 고삐이음쇠)로 구성되어 있는데(강현숙 외 2020: 336-338), 표비에 비해 늦은 4세기대 중엽 이후에나 출현한다. 이 중에서 심엽형 경판(鏡板)에 삽자루형 인수가 달린 재갈이 선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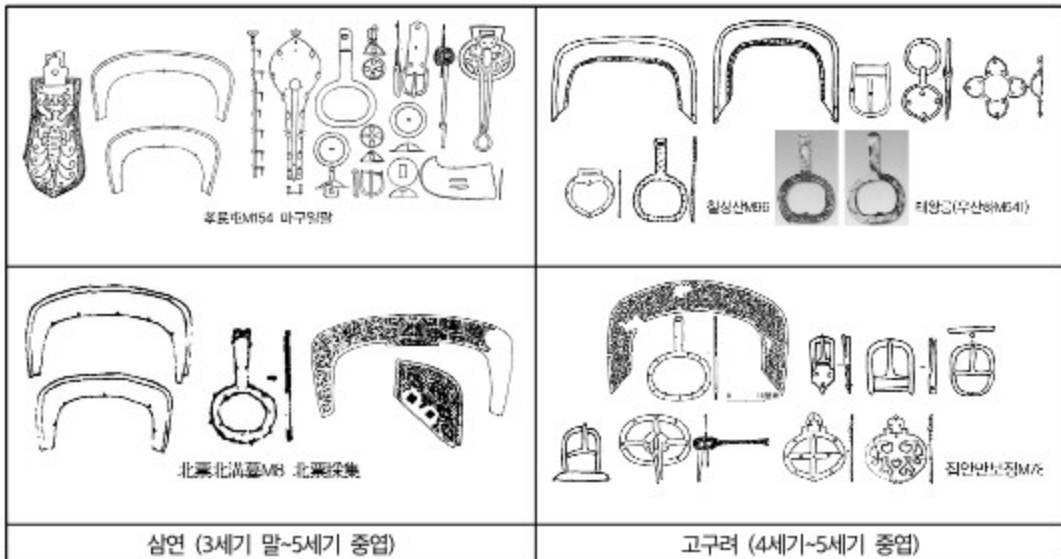
안장의 앞뒤를 가리기 위한 고구려 안교(鞍橋)는 집안 칠성산96호묘, 지경동1호묘, 만보정78호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안교는 높고 직립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만보정1078호묘 출토품은 금동제로 권운문이 정교하게 투조되어 있다. 이들 역시 전연의 안양(安陽) 효민둔(孝民屯) 154호묘, 조양 원대자묘와 십이대향전창(十二台鄉鄉磚廠)88M1호묘 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연 마구와 고구려 마구의 유사성은 특히 마구 부장의 조합상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 집안 칠성산96호묘와 만보정78호묘 등에서 출토된 고구려 마구 세트는 삼연 마구의 개별 성형기법이나 형태적인 측면, 그리고 조합상과 상당히 유사하다(조윤재 2015: 119-121).

이들 고구려의 마구류는 유사한 조합을 보이는 전연 무덤의 연대가 주로 4세기 중엽에서 후

24) 철제 주조 등자는 아차산 4보루, 국내성, 석대자산성, 고이산성 등에서 확인된다. 목심등자에 비해 병부의 길이가 짧아지고, 장방형 현수공은 윤부와 직교하게 뚫려있다. 윤부는 세로로 긴 타원형에 가까우나 답수부는 완전히 직선화되고 바닥은 렌즈 모양으로 넓어졌다. 이들 철제 등자는 대체로 6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강현숙 외 2020: 338-340).

업에 해당하므로, 4세기 후엽에 완성된 형태로 전연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앞 장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입 과정에서 고구려의 선택적 수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4세기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마구인 등자의 경우 전연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등자 양식이 모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심 장병등자만을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여 자체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고구려 등자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은 삼연 내지는 동북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마구의 변화와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림 11> 삼연과 고구려 마구의 비교(조운재 2105: 표 9 재편집)

그리고 비록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역심형 행엽(杏葉, 말띠드리개)이나 입주부 운주(雲珠, 말띠꾸미개)와 같은 마구 장식 역시 전연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역심형(하트형) 행엽은 등자와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특정 형태만 선택적 수용을 하고 십자형의 장식을 덧대는 등 자체적인 발전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역심형 행엽의 경우 지금까지 조양 십이대향전창88M1호묘에서 1점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에서 먼저 제작되어 전연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정동민 2017: 19).

2. 보요장식

모용선비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가 바로 보요관(步搖冠)이다. 금제 보요관은 전연 수립 이전 시기인 3세기말부터 확인되는데, 4세기까지 확인되는 보요관식은 모두 산모양의 기부에 가지형의 금사에 보요가 매달린 수지식인 반면, 5세기에 확인되는 보요관식은 하부의 모자골조위에 가지형의 금사가 있고, 금사 중간 중간에 보요를 매단 형태로 변화하였다(오진석 2019: 60).

보요관은 모용선비의 특징적인 유물이기는 하나 고구려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금제 보요장식만 집안지역의 고분유적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임강묘(臨江墓), 만보정75호묘, 우산하(禹山下)992호묘, 마선구(麻線墓)2100호묘, 천추총(千秋塚), 태왕릉, 장천2호묘 등에서 금제 보요엽(步搖葉) 장식 즉, 영락(瓔珞)이 발견되었으며, 태왕릉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고구려의 보요장식은 삼연의 대표적인 수지형(樹枝形) 보요장식과는 달리 수엽형(樹葉形, 심엽형) 보요장식을 금박에 금실로 부착하는 기법, 금구슬과 석제구슬 등을 함께 꿰맨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조운재 2015: 124), 보요 역시 고구려의 선택적 수용과 자체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금제 보요장식은 전연 외에 보다 이른 시기에 부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초기 적석총인 환인(桓仁) 망강루(望江樓) 고분군에서는 금실을 꼬아 금제 보요엽을 연결하는 장식이 출토되었는데, 부여의 유수 노하심 고분군과 서풍(西豐) 서차구(西岔溝) 고분군 출토품과 계통을 같이 때문이다.

3. 대금구

대금구(帶金具)는 기본적으로 의복의 허리에 두르는 과대(跨帶)에 부착한 금속제 장식으로, 과관(跨板)과 수하식으로 구성된다. 중국에서 대금구의 출현은 춘추시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동한시기와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치면서 광범위한 분포가 이루어졌다.

이 중 서진과 동진의 무덤에서 출토된 특색있는 금동제 대금구를 ‘진식대금구(晉式帶金具)’로 칭하는데, 교구(鈎具)와 대선금구(帶先金具)에 용과 봉황 등의 문양이 투조(透彫)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진식대금구는 중국 중원왕조에서도 소유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고급 물품으로, 지배층의 지위를 표상하는 물품이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 내 관료 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물품이지만 진식대금구는 주변국으로도 전해졌다. 출토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삼연이며, 고구려에서도 발견된다. 이처럼 주변국으로 전해지는 계기는 조공책봉으로 대표되는 외교관계 속에서 공식적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이한상 2011: 376).

삼연 지역에는 진에서 직접 유입된 진식대금구도 있었으나, 삼연에서 자체적으로 모방하여 만든 것도 여러 점 확인된다. 주로 원대자벽화묘, 십이대향진창88M1, 라마동M101묘 등 진연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이들 대금구는 진식대금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도상을 채용하고 있다(조운재 2015: 127)

한편, 고구려의 경우에는 서진과 동진 외에도 삼연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진으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혹은 삼연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받은 진식대금구가 발견된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고국원왕은 355년 전연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체결하였고, 광개토왕 역시 396년에 후연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며, 장수왕은 413년에 동진으로부터 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림 12> 고구려 출토 대금구 각종(강현숙 외 2020: 그림 VI-3)

고구려의 대금구는 그 형태가 다양한데, 가운데가 오목한 장방형과 방형, 심엽형, 역심엽형으로, 수하식은 상방하원형, 방형, 말각방형, 심엽형 등으로 구분된다. 과판과 수하식의 결합방식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방식과 2개의 고리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그림 12-①-④>는 전형적인 진식대금구로, 산성하(山城下)152호묘와 우산하3560호묘 출토품 등은 유사한 형태가 삼연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장식의 세밀함 등을 고려해볼 때 진으로부터 직접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산하3162호묘와 같은 과판에 요폐가 달린 형태의 대금구<그림 12-⑬-⑮>나 고구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횡장방형 과판에 말각방형의 수하식을 2개의 고리로 연결한 대금구<그림 12-⑧-⑩>는 중원지역이나 삼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고구려화된 것이다(강현숙 외 2020: 264-265).

이처럼 대금구는 기본적으로 중원계 유물로 지배층을 상징하는 표상적인 유물이다. 고구려는 진 외에 삼연과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던 만큼, 삼연을 통해 대금구가 고구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횡장방형 과판의 대금구나 과판에 요폐가 달린 대금구의 경우에는 삼연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고구려만의 것으로, 고분벽화의 도입 및 전개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가 자체적으로 발전시켰음이 확인된다.

4. 토기

모용선비 토기²⁵⁾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호와 관(罐)이다.

우선 호는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외반구연호(侈口展沿壺), 장경호(侈口壺), 반구호(盤口壺)로 구분이 가능하며, 모두 평저 토기이다. 외반구연호와 장경호는 초창기부터 등장하여 변화하지만, 반구호는 4세기 후반에 가장 늦게 등장한다.

우선 외반구연호는 니질 태토의 회색 토기(灰陶)가 다수를 차지하며, 건부에는 횡침선(橫紋)

25) 모용선비 토기에 대한 기본 내용은 오진석(2019)의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이 1~2조 돌아가기도 한다. 암문(暗文)도 관찰되는데, 주로 경부를 중심으로 시문이 이루어지나 일부 토기는 동체부까지 시문되기도 한다. 해당 기종은 3세기 말부터는 구연부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동체부의 폭과 경부가 세장해지나, 전연시기가 되면 동체부가 다시 동체부가 약간 납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문양은 전연시기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다.

장경호 역시 니질 태토에 회색 토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외반구연호에 비해 구연의 외반도가 약하며, 동체부가 볼록한 특징이 있다. 외반구연호와 마찬가지로 경부와 동체부에 암문이 시문되는 경우가 많은데, 견부에 2조의 횡침선 등을 그어 암문 시문공간을 구획하기도 한다. 견부에는 횡침선 대신 돌대를 돌리기도 한다. 전연 시기가 되면 경부가 좀 더 길어지고 동체부는 약간 납작해지는 편구 경향을 보이며, 횡침선이나 돌대를 제외한 문양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관은 태토와 형태에 따라 심발(夾砂大口罐), 단경호(矮領罐), 대계관(帶系罐)으로 구분되는데, 단경호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단경호는 대체로 니질 태토로, 짧은 목과 평저를 특징으로 한다. 무문도 많지만 일부 토기에서는 견부에 횡침선으로 구획된 문양대를 만들고 내부에 파상문을 시문하기도 한다. 단경호는 모용외가 서진과 부여 등을 공략하던 시기인 3세기 말에 등장하고 있어서 중원 문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전연시기가 되면 단경호의 기종과 수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며, 구연부는 점차 직립하고 기형도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토기 이외에도 전연 시기 이후부터는 각종 시유도기와 청자 계수호도 등장하게 된다.

한편, 고구려 토기는 4세기가 되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운 점토질의 니질 태토, 회전대(돌림판)를 사용한 성형기법, 평저 기형, 횡위 대상파수, 일부 기종의 시유(施釉), 특정한 문양의 시문 조합과 암문 기법 등이 나타난다. 특히 고구려 중기부터는 거의 모든 기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삼연 토기와 비교하면 기종 구성이 무척 다양하다. 토기의 동체부는 기본적으로 테쌓기와 함께 회전대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타날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시유도기는 주로 고본에서 확인되는데, 3세기 말이나 늦어도 4세기 초가 되면 저화도의 녹갈유가 시유된 도기가 등장한다. 전연과는 달리 고구려에서는 자기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구려 중기 토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기종에서만 문양이 확인된다. 전체 토기에서 문양 시문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주로 병이나 호의 어깨 부위에 중호문(重弧文)이나 파상문, 점열문 등이 횡침대 구획 안에 시문된다. 그리고 중기 이후에는 암문 기법도 확인된다. 암문이란 토기의 표면을 단단한 도구로 문질러 시문하는 문양 장식을 말하는데, 종방향이나 횡방향의 암문 외에도 연속고리문이나 격자문 등이 있다. 암문은 니질화된 태토로 제작된 토기에서 주로 관찰되지만, 호, 옹, 시루, 동이 등 다양한 기종에서 폭넓게 확인된다.

현재 삼연 토기와 고구려 토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큰 특징은 평저 기형과 니질 태토, 암문 등이다. 특히 암문은 고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시기를 달리하며 확인되는 매우 특징적인 시문기법으로, 흉노, 삼연, 북위, 거란 토기를 비롯하여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받은 사비양식 백제토기와 발해 토기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구분	A형 외반 구연호	B형 외반 구연호	A형 장경호	B형 장경호	반구호	A형 단경호	B형 단경호	C형 단경호	D형 단경호	E형 단경호
3세기초 ~ 3세기말										
3세기말 ~ 4세기초										
4세기초 ~ 4세기후										
4세기후 ~ 5세기초										

<그림 13> 삼연문화 토기의 편년(오진석 2019: 도면 16)

1조양 왕자분산대M9022 2왕자분산대M8708 3왕자분산대M9014 4왕자분산요M9001 5,7조양 전초구M2 6전초구M1 8 북표 라마동M328 9금주 심육국시기묘 10라마동M196 11라마동M204 12,14안양 효민둔M195 13효민둔M165 15효민둔 M196 16,17조양 원대지역화요(M1) 18원대지역화요 19조양 광가전두지M1 20조양 단가점M1 21조양 십이대향전창M2 22북표 북연풍소불M1:29 23본계진묘 24십이대향전창M4 25조양 북묘촌M2

삼연과 고구려 토기는 일부 기종의 형태나 제작기법상에서 유사한 점도 관찰되나 흉노와 삼연 토기의 경우에서처럼 암문이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세력의 토기는 암문이 시문되는 기종과 암문의 시문 위치, 문양의 선호도에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고구려 토기에서 태토의 니질화가 이루어진 이후 문양을 장식하는 과정에서 3세기대 선비 토기의 특징 중 하나인 암문 시문기법이 고구려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이윤용 2022: 69-7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용선비 토기와 고구려 토기 간에는 직접적인 계승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고구려 토기가 모용선비의 초기 토기 성립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견해(조운재 2015: 129-130)와 반대로 삼연 토기가 고구려 중기 토기의 기형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孫顯 2012: 242)도 존재하지만, 두 견해 모두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문이라는 특징적인 시문 기법은 흉노에서 선비 그리고 고구려로 이어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토기에서도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고구려의 선택적 수용이 확인된 셈이다.

V. 맺음말

고구려와 모용선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연, 후연, 북연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군사적 대립과 함께 외교 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342년 전연의 고구려 수도 공략 당시 잡혀간 수많은 포로들과 355년 전연과 고구려의 책봉·조공 관계의 수립에 따른 일부 인원의 귀환, 436년 북연의 멸망 과정과 함께 이루어진 용성 주민들의 고구려로의 대거 유입, 그리고 삼연의 정권 교체기나 혼란한 상황 때마다 고구려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망명객들은 고구려와 모용선비 간의 상호 문물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고구려와 삼연의 물질문화는 고분벽화, 마구, 보요장식, 대금구, 토기 등 여러 방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들 두 세력 간의 고고학적 양상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고분벽화와 대금구는 모용선비의 문화가 고구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중원계통의 문화가 고구려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매개의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토기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보다는 암문과 같은 특정 시문기법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보요관은 모용선비를 상징하는 중요 유물이었음에도 고구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보요장식에서만 관련이 있었다. 다만 마구의 경우에는 마구 세트 간에 상당한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다만 당대 혼란한 사회에서 전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증장기병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세력의 물질문화의 전개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드러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와 삼연의 지속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두 세력의 문화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뚜렷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물질문화의 교류에서도 고구려는 모용선비를 통해 외래적인 문화 요소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선택적 수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고구려화를 통해 자체의 물질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으나 고구려의 불교 문화의 유입 경로와 관련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고구려의 불교는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²⁶⁾으로 알려져 있으나, 357년에 조영된 안악3호분에는 묘주 초상의 장막 꼭대기에 연꽃문양이 이미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용선비를 통해 고구려에 불교가 이미 고구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金洪培 2016: 27).

최근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형성 과정에 중원뿐만 아니라 북방문화 또는 유라시아문화의 영향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박아림 2019)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분벽화의 문화가 시작하는 3-4세기에는 흉노를 위시한 북방민족이 중원 지역으로 내려와 여러 왕조를 설립하였던 시기라는 점에서 소위 한계(漢系)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북방문화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벽화의 발전과정에 영향을 준 이란 페르시아문화 역시

26) '진(秦)의 왕 부견(苻堅)이 사신과 승려(浮屠) 순도(順道)를 보내 불상(佛像)과 경문(經文)을 주었다.'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2年)

그 기원을 스키타이·흉노 미술에서 찾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사실 선비의 물질문화 중에는 토기의 암문 장식이나 바닥의 축대흔 외에도 각종 동물 장식이나 께기의 장례 풍습 등과 같이 그 이전 시기 흉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도 상당수 확인된다. 이는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삼연문화와의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흉노는 물론이고 흉노에서 독립해 나온 선비·오환 등의 세력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임을 말해준다. 고구려와 북방지역의 관계 연구에서 유라시아 동부지역 전반적인 편년체계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강인욱 2017: 65).

<참고문헌>

- 강인욱, 2017,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역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 강현숙, 2006,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는 중국 삼연 요소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51, 한국상고사학회.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공석규, 2020, 「고구려의 낙랑군·대방군 지역 지배」, 『고구려 중기의 정치와 사회』, 고구려통사3, 동북아역사재단.
- 김도영, 2021, 「삼연·고구려 대장식구의 전개와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73, 동북아역사재단.
- 金洪培, 2016, 「中國學界의 高句麗와 慕容鮮卑 관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5, 고구려발해학회.
- 동북아역사재단, 2009,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2-고분과 유물」.
- 박아립, 2015, 『고구려 고분벽화 유라시아 문화를 품다』, 학연문화사.
- 박진욱, 1990,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사회과학출판사.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2000년전 우리 이웃: 중국 요령지역의 변화와 문물 특별전』.
- 양시은, 2017, 「몽골지역 흉노 토기의 제작기법 연구」, 『호서고고학보』 38, 호서고고학회.
- G.에렉젠·양시은, 2017, 『흉노』, 진인진.
- 오진석, 2019, 「삼연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65, 고구려발해학회.
- 이성재, 2020, 「요동 진출과 요동 지역 지배」, 『고구려 중기의 정치와 사회』, 고구려통사3, 동북아역사재단.
- 이운용, 2022, 「고구려 암문토기의 기원과 변천 양상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한상, 2011, 「허리띠 본체에 반영된 고대 동북아시아의 교류양상」, 『동북아역사논총』 33, 동북아역사재단.
- 이현우, 2021, 「三燕文化의 성립과 遼西-鮮卑慕容部에서 燕으로」, 『“한국”고고학, 한반도를 넘어서』, 제4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5.
- 전호태, 2016, 『고구려 벽화고분』, 돌베개.
- 전호태, 2017, 「고구려(高句麗)와 모용선비(慕容鮮卑) 삼연(三燕)의 고분문화」,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 전호태, 2021, 「고분벽화」, 『고구려 고고·유적편』, 고구려통사8, 동북아역사재단.
- 정동민, 2017, 「고구려 騎乘用 馬具의 출토 양상과 계통」, 『역사문화연구』 6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정인성, 2010, 「대방태수 張撫夷墓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69, 한국상고사학회.
-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造營과 祭儀』, 서경문화사.
- 조운재, 2015, 「考古資料를 통해 본 三燕과 高句麗의 문화적 교류」, 『선사와 고대』 43, 한국고고학회.
- 최병현, 2021, 「한국 고대의 單鏡子 자료와 그 의의」, 『고고학』 20-1, 중부고고학회.
- 최종택, 1999, 「高句麗 土器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慶發, 1959, 「遼陽上王家村晉代壁畫墓清理簡報」, 『文物』 1959-7.
- 吳珍錫, 2017, 「三燕文化及其與高句麗·朝鮮半島南部諸國文化交流의 考古學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王巍, 1997, 「從出土馬具看三至六世紀東亞諸國的交流」, 『考古』 1997-1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 『朝陽袁臺子』, 文物出版社.
- 遼寧省博物館, 2015, 『北燕馮素弗墓』, 文物出版社.
- 孫危, 2007, 『鮮卑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 孫頤, 2012,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토론문 4

‘고구려와 선비의 문화교류 양상’에 대한 토론

오진석(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본문은 4-5세기 高句麗와 慕容鮮卑 사이의 문화교류를 고고학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II장에서는 兩者의 역사적 배경을 『三國史記』, 『梁書』, 『資治通鑑』 등의 문헌사료 이용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와 모용선비는 고구려가 遼東地域으로 진출을 시작한 4세기 초반부터 복원이 멸망하는 5세기 초반까지 요동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전쟁과 외교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였다.

III장에서는 모용선비가 세운 여러 정권 중 요동지역에 세력을 형성했던 前燕, 後燕, 北燕, 즉 三燕의 물질문화 중에서 고분과 관련된 고고자료의 비교를 통해 양자간의 문화교류 양상을 살폈다. 4세기 이전까지의 고구려는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위치한 적석총을 축조했던 것에 비해, 모용선비는 매장주체부가 지하식이며, 평면형태가 前寬後狹인 토광묘나 석곽묘를 기본 묘제로 삼았다. 4세기 이후 고구려에는 벽화로 내부를 장식하는 석실묘제가 새롭게 유입되었다. 석실 벽화분의 등장배경에는 모용선비에서 고구려로 망명한 관리들이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중원에서 바로 오거나 혹은 모용선비를 거쳐 고구려로 유입된 중국계 유이민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중기 이후 점차 유행한 석실벽화분을 통해서 요서지역의 서진시기 문화나 혹은 모용선비의 문화가 고구려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삼연문화에서 나타나는 석실벽화분은 고분의 구조, 벽화의 제재 등에 있어 고구려문화의 석실벽화분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삼연문화 석실벽화분은 평면형태가 전관후착인 경우가 많으며, 묘실 천정도 대부분 평천정으로 구축되었다. 벽화의 주제는 생활풍속이지만, 이는 모용선비가 요서지역에 정권을 성립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확인되던 벽화분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며,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수량이 적어 삼연문화 자체에서는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고구려는 석실벽화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평양 천도 이후 초대형 적석총을 대신하여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고구려는 외래문화요소인 ‘벽화’를 수용할 때,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제재를 취사선택

하여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갔음을 확인하였다. 四神을 벽화의 유일한 제재로 하여 석실 전면에 장식하는 방법 역시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고구려만의 특징이다. 고구려에서 유행한 고분벽화는 이후 백제, 신라의 변경 지역, 그리고 일본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즉, 고구려가 묘제 및 묘제장식 등 외래의 문화를 수용한 방식은 모용선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마구, 보요장식, 대금구, 토기 등 삼연문화와 관계가 논의되는 대표적인 유물을 통해 고구려와 삼연의 문화교류 양상을 살폈다. 마구는 형태, 성형기법, 부장 조합에 있어 유사점이 확인되며, 4세기 후엽 정도에 선택적으로 수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요장식은 보요를 장식의 소재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부착 기법을 고려할 때 부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대금구는 지배층의 지위를 표상하는 물품 중 하나로 외교를 통해 삼연과 고구려에서도 전해졌다. 삼연에서는 껍에서 유입된 물품 외 자체적으로 제작된 것도 있다. 고구려에서 확인되고 있는 진식대금구는 삼연문화의 그것과 유사한 것도 있으나, 횡장방향 과판의 대금구나 과판에 요패가 달린 대금구와 같이 고구려에서만 확인되는 형태도 존재한다. 토기는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찾아볼 수는 없다. 다만, 평저 기형, 니질 태토, 암문 등에서 공통점이 확인되고 있다. 고구려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암문은 호, 웅, 시루, 동이 등 다양한 기종에 시문되고 있다. 3세기대 선비 토기의 암문 시문기법이 고구려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결론에서는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문물교류를 정리하고, 이후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고구려는 삼연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외래적인 문화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고구려화를 통해 자체의 물질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음을 확인하였다. 외래요소 중 고분벽화와 대금구는 증원문화의 고구려전파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고, 토기는 암문과 같은 특정 시문 기법만, 보요장식 역시 보요를 연결하는 기법만 선별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구 부분은 부장 세트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나타나지만, 당시 전쟁의 핵심 병종이었던 중장기병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며, 통일된 견해가 제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사료, 고고자료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구려가 선비문화요소를 도입함에 있어 선택적 수용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렇게 선택된 문화요소들은 수용 이후 자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졌음을 논증하였다. 논증에 사용된 제재들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소재들로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여 토론에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토론자는 본문의 내용 중에서 평소 관심사와 연관된 질의사항을 아래의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삼연문화 토기의 경우 표면에 암문을 시문하는 유행은 전연 성립 이전부터 나타나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구려문화 토기의 경우 5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토기 표면에서 암문이 시문되고 있다. 암문이 시문된 선비토기의 기종은 외반구연호(侈口展沿壺), 장경호(侈口壺)와 단경호(矮領罐)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고구려토기는 호, 웅, 시루, 동이 등 선비토기 보다도 더욱 다양한 기종에서 암문이 확인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암

문이 시문된 선비토기가 라마동 유적에서도 적지 않게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왕의 연구를 통해서 라마동유적은 부여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시 부여 토기 중에서도 압문이 확인되는 토기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 고구려와 선비의 교류를 ‘문화교류’라고는 표현하고 있지만, 본문에 인용된 상당수의 자료들은 일방적인 한쪽 방향으로의 ‘전파’ 혹은 ‘전달’의 근거로 보인다. 논문에서는 선비에서 고구려로의 문화 유입이 355년 이루어진 전연과 고구려의 외교 관계에 따른 포로 귀환, 436년 북연 멸망시의 유입집단, 삼연 각국의 정치 혼란기에 발생한 망명객, 유이민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본 토론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른 중심 시기인 4~5세기 동아시아의 정치 상황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당시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지역은 불안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원지역이었으며, 선비문화지역은 중원의 주변에 위치하면서 고구려로 ‘중원의 문화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만 보일까 걱정되는 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고대사회의 문화는 큰 흐름으로 보면 중원에서 변방으로 전파되어 갔다. 하지만 문화를 구성하는 속성들은 본문에서도 다룬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지역간 혹은 주변지역에서 중원지역으로의 전이 내용도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본문의 결론처럼 최근까지 확인되고 있는 물질자료로 보면, 고구려와 선비 양자간 독자적인 문화에 대한 교류는 상당히 선별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혹시 5세기 고구려가 북연보다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하에서 선비문화지역으로 교류된 문물에는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을지 필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끝으로 본문에서는 이후 연구와 관련하여, 선비지역을 통한 불교문화의 유입, 고분벽화 등에 대한 북방문화와 유라시아문화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 토기의 압문장식, 동물장식, 궤기 장례 풍습 등 고구려문화와 주변문화와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유라시아 동부지역 전반적인 편년체계의 틀 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동북지역의 시유도기와 자기에 관련한 연구, 그리고 선비·고구려·가야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평저 동북과 관련된 진일보한 연구도 기대한다.

주제발표 5

소와 말 유존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반도 중부지역의 고대 교역

- 유전학적 분석 보고를 중심으로 -

홍종하(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목 차

- I. 서론
- II. 고대 중국의 사육소 도입과정과 그 확산
- III. 중국에서 소와 흑소 분포의 경계
- IV. 原牛 유전자의 사육소 移入(Introgression)
- V. 한국 소의 기원
- VI. 일본 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VII.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발견된 소 유존체 연구
- VIII. 유전학적으로 살펴본 말 사육과 전파
- IX.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발견된 말 유존체 연구
- X. 맺음말

I. 서론

소와 말은 인류사에 있어 가족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동물이다. 제사용 희생, 운송수단, 육류공급, 낙농품, 농사에서 노동력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말은 교통수단, 운송수단, 전쟁 도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류문명의 유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소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흑이 없는 소(*Bos taurus*)가 사육화 되었고 흑이 있는 소(흑소, *Bos indicus*)의 경우 인더스강 유역에

서 처음 가속화 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육 소 거의 대부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인더스 강 유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 점은 동아시아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한국, 일본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들 대부분은 고대 특정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중앙아시아 등을 거쳐 화북지역으로 들어온 사육소의 후손이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게 된 이유는 90년대 후반부터 고고학계를 강타한 고대 DNA 연구 붐 때문이다.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얻어진 시료를 대상으로 유전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염기서열을 획득한 다음 이를 분석하면 사람과 동물의 계통과 이동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동아시아 지역의 사육소를 분석한 결과 거의 전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한 사육소의 후손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유전학적 분석 기법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동물사육의 기원과 확산에 대해 온갖 이설이 난무하였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계속 오리무중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최근 동물고고학의 발전으로 이 주제가 이전보다 보다 분명한 해답을 주게 된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아직도 사육소의 기원과 진화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사육소가 언제 어떻게 각국으로 전파되어 들어갔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은 여전히 의문에 싸여 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이 지역 유전학적 연구의 학술적 공백이 메워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최근 이 분야 연구동향을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결과를 고고학적 보고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 사육소의 도입과 확산과정은 보다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진도 유전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밝혀진 동북아시아 소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개략적 연구동향을 먼저 보고한 바 있었다(홍종하·신동훈 2019). 하지만 그 보고가 있었던 후 동아시아 지역 소의 유전형에 대한 추가적 연구보고가 각국에서 잇따르면서 이 지역 소의 확산과정에 대해 전보다 훨씬 명료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한 補遺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숫말의 Y DNA가 거의 동일하여 현대 숫말의 유전형 분석만으로 지역 간 특징을 살피거나 교역을 증거를 찾는 일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지 고고학 현장에서 기존 현대 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Y DNA 유전형이 속속 보고되면서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옛 말의 전파와 지역 간 교역의 증거를 찾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 말 미토콘드리아 유전형은 Y 보다 다양한데, 지역 간 발견되는 빈도의 차이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옛 사람들의 이주와 교역에 관한 증거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숫말에서만 나타나는 Y 유전형과는 달리 미토콘드리아 유전형의 경우 암수 모두에게서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해당 유전형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 특히 중부지역에서 소와 말 유존체에 대한 유전학적 분석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어 해당 자료들만으로 옛 중부지방과 유라시아 지역 간 이동과 교류를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소와 말 두 가속에 대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육과 우리나라 도입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한반도 중부지역 고고학 발굴현장에

서 수집한 해당 가축들에 대한 유전학적 분석 사례 또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에게 고대 인구의 이동과 교역에 대한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고대 중국의 사육소 도입과정과 그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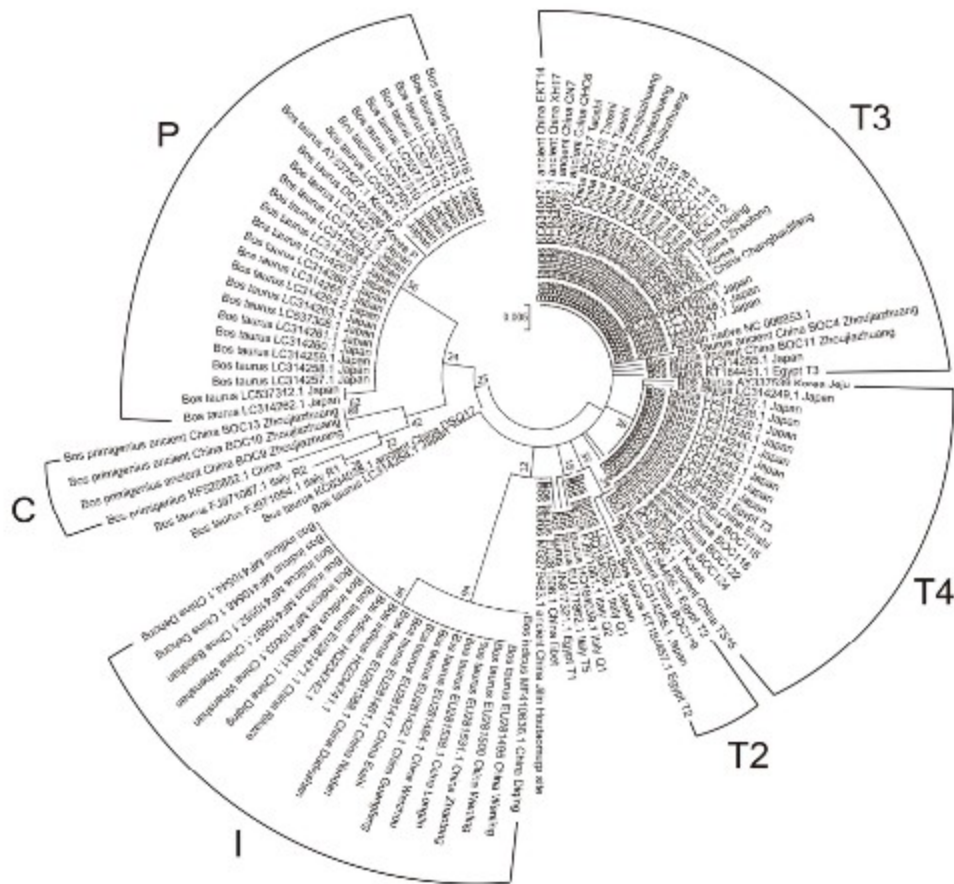
소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가 본격화하기 이전에는 동아시아지역에 다른 대륙과 구분되는 독자적 소 사육의 전통이 있다고 보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유전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현재 이러한 견해는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¹⁾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일차적으로 가축화에 성공한 후 소는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기원전 3,600-2,000년 경 중국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서북부 지역으로 진입한 경로이며 또 다른 경로는 중국의 북방으로부터 남하하는 경로이다(趙欣 외 2018). 이 중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방식은 중국으로 소가 도입된 경로 중 주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실제로 황하 유역에서 확인된 고고 유적의 소 유전체 보고와 표리관계를 이루며 이를 잘 설명되는 것 같다. 반면에 북방에서 남하하는 경로는 고고학적 보고를 통해 그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아직 그 전모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경로 중 어떤 경로가 옳건 간에 사육 소는 일단 황하유역에 도입된 신석기 말기부터 크게 번성하였는데 바로 이 무리 중 일부가 후일 한국과 일본으로 이동하여 들어가는 소와 유전학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소의 유전학적 기원과 확산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는 모계유전 하는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형 분석을 통해 얻어진다. 최근까지 보고를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육화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간 소는 거의 모두 하플로그룹 T형으로서 이는 다시 T1-T5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T1은 아프리카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T2는 근동지역에, T3와 T4는 각각 근동-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Peng et al. 2017). 동아시아 지역의 소에 대한 유전형을 조사하면 이 중 T2-T4가 동아시아 소에서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종하·신동훈 2019).

최근까지 황하유역에서 확인된 신석기 말(龍山文化)-상대에 걸친 고고 유적에서는 유전학적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잘 보존된 소 유전체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趙欣 등, 2020).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는 山西성 陶寺(용산문화) 및 周家庄(용산문화), 河南성 偃师二里头(용산문화), 河南성 郑州花地嘴 및 望京樓 유적 등이 있는데 이로부터 화북지역 도입 초기에 속하는 사육소 유전형에 대한 정보가 대량으로 얻어졌다(趙欣 외 2018, 2020; Brunson et al.

1) 물론 야생소의 유전자가 사육소에 혼입되어 들어온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소 가운데에는 이 지역 야생소의 유전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개체들이 존재한다.

2016; Cai et al. 2014). 한편 殷墟는 商代 왕조의 후기 수도로(기원전 1300-1046) 일찍부터 당시 동물유존체가 주변 유적지에 대한 고고발굴에서 다수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는데 이 중 소 뼈에 대해 유전학적 분석이 실시되어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다(赵欣 외 2018, 2020; Cai et al. 2014, 2015, 2018). 이러한 보고 이전에는 동아시아 소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여러 학설이 매우 불안정한 추측에 기반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처럼 사육 소 도입 초기의 유전학적 정보가 분명히 알려지면서 이 지역 소의 확산과정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보고된 여러 유전학적 정보를 취합하여 그린 동아시아 소의 계통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현재까지 보고된 유전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동아시아 소 계통도

소 미토콘드리아 DNA D-loop 중 일부(16022-16332)를 MEGA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렬한 후 계통수를 그렸다. 사용된 모델은 Kimura 2-parameter이고, DNA 서열 영역 간 진화 속도의 불균일성은 감마분포를 통해 조정하여 계산하였으며, 100회 반복계산하여 계통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 C, I, T2, T3, T4, P는 각각 미토콘드리아 하플로 그룹을 뜻한다.

이 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각 국에 존재하던 소가 유전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로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얻게 되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아 한-중-일 삼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육된 소에 대해 그 유전적 고유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²⁾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 T4는 일본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관찰되는 것에 주목하여 일본소의 유전적 독자성을 중시하는 등의 시각도 있었다(Mannen et al. 2004; Sasazaki et al. 2006). 하지만 신석기말 - 殷墟유적의 소 유전체 분석 결과, 동아시아 사육 소에 많이 보이는 T2, T3, T4 등 하플로그룹은 황하유역 초기 사육소의 단계에 이미 모두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 빈도도 T3가 가장 높았지만 T4가 그 다음이었고, 마지막으로 T2가 가장 적어 T4의 비율은 이 시기 중원 지역 소에서도 이미 낮지 않았다(趙欣 외 2020). 이는 소의 계통적 분화가 동아시아 각국으로 이동하기 이전 이미 황하유역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황하유역에서 도입 초기 사육되던 소는 현대 동아시아 각국 소의 직접적 조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황하유역에 일단 확립된 소 사육은 처음에는 소수개체가 고립되어 사육되는 양상이었지만 늦어도 西周 초가 되면 대규모 소 사육이 완전히 정착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었는데 『詩經』 등 문헌에도 이러한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³⁾ 아마도 화북지역에서 처음 사육되던 소는 지배층의 제사 희생 등의 용도로 이용되는 목적이 가장 컸다고 생각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발전이 거듭되어 소의 개체수가 크게 팽창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Peng et al 2017). 아마도 황하유역에서 사육되던 소가 한반도와 일본열도로 도입된 것은 대체로 이 시기 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한국·일본으로 도입되는 단계에 이미 충분히 기술적으로 완성되고 유전적으로도 다양성을 확보한 상태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 각국의 소 사육 전통이 개별 국가에서 완성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큰 흐름은 중국 황하유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로 사육 소가 매우 발달된 형태의 사육기술과 함께 흘러갔으며 이렇게 성립한 소 사육의 기술적, 유전적 특징은 20세기 이후 서세동점과 함께 이 지역에 격변이 일어날 때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할 것이다.

2) 중국소가 메소포타미아 소와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강조한다면가 한국과 일본에서 큰 재래종(한우와 화우)의 유전적 고유성을 강조한다면가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 각국의 재래종에 대한 민족주의적 편향과 상업적 필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3) 『詩·王風·君子于役』에는 <군자의 부역은 그 돌아올 기약을 알수 없으니 지금 어디에 계신고 닭은 헛대에 깃들고 날은 저물어 저녁이라 양과 소가 돌아오나니. 군자의 부역이며, 어찌 생각하지 않을수 있으리오(君子于役 不知其期 曷至哉 雞棲于埘 日之夕矣 羊牛下來 君子于役 如之何勿思)> 라 하였고 『詩·小雅·無羊』에는 「누가 너에게 양이 없 다하리오 삼백(마리)로 떼를 이루었도다. 누가 너에게 소가 없다 하리오 검은 입술의 소가 90마리나 되도다. 너의 양이 오노니 그 뿔이 화하고 화하도다. 너의 소가 오니 그 귀가 축축하고 축축하도다(誰謂爾無羊, 三百維群, 誰謂爾無牛, 九十其疇, 爾羊來思, 其角濇濇, 爾牛來思, 其耳濕濕)> 하였다.

III. 중국에서 소와 흑소 분포의 경계

전술한 바와 같이 소는 크게 등에 흑이 있는 소와 없는 흑소의 두 종류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중국에는 현재 이 두 종류의 소가 사육종으로 모두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흑소보다 흑 없는 소가 먼저 도입된 것이 분명한데 소 도입 초기 황하 유역에는 흑소는 전혀 볼 수 없었고 오직 흑 없는 소만 존재하였다(趙欣 외 2018). 흑소는 인더스 강 유역에서 처음 가축화 한 것으로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 남부로 도입되었다고 보는데 중국에 처음 출현하는 시기가 흑이 없는 소보다 비교적 늦다고 본다.⁴⁾ 오늘날 대체로 양자강 이남 지역에는 흑소의 유전적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지만 이 지역에 원래부터 이런 종류의 소가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중국 남부에 흑소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사육되던 화북지역 흑 없는 소가 어느 지역까지 남하했는가에 하는 점이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양자강 이남에서도 북방에서 먼저 남하한 흑 없는 소가 먼저 사육되다가 후대에 흑소가 남방에서 도입되어 전자를 압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현재 흑이 없는 소와 흑소 분포는 중국 북방과 남방을 구분하는 전통적 지리적 경계인 진령-회하선(秦嶺-淮河線)을 경계로 갈라진다고 보며⁵⁾ 이 두 지역의 경계 지역에는 두 소가 혼재하여 잡종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Chen et al. 2018). 현재 동아시아 지역 소를 대상으로 수행한 유전학적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1>. 한국과 일본은 위도 상으로 볼 때 진령-회하선 보다 북쪽에 존재하였고 역사적으로도 흑소의 유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황하 이북지역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흑이 없는 소만 사육되던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 지역 소의 기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현재로서 중국 남방지역에 흑소가 언제 보급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현재의 중국대륙 내 소의 분포를 고려하면(Chen et al. 2018) 한국과 일본에 도입된 소는 진령-회하선 이북에서 사육되던 소가 역사상 특정 시점에 전파되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볼 때 북중국의 소는 흑소의 영향 없이 한반도 및 일본열도의 소와 유전적으로 한데 묶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반도와 일본열도 소의 유전적 기원을 이야기 할 때 흑소의 유전형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일부에서 주장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原牛 유전자의 사육소 移入(Introgression)

동아시아 소 사육의 역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原牛 유전자가 이 지역 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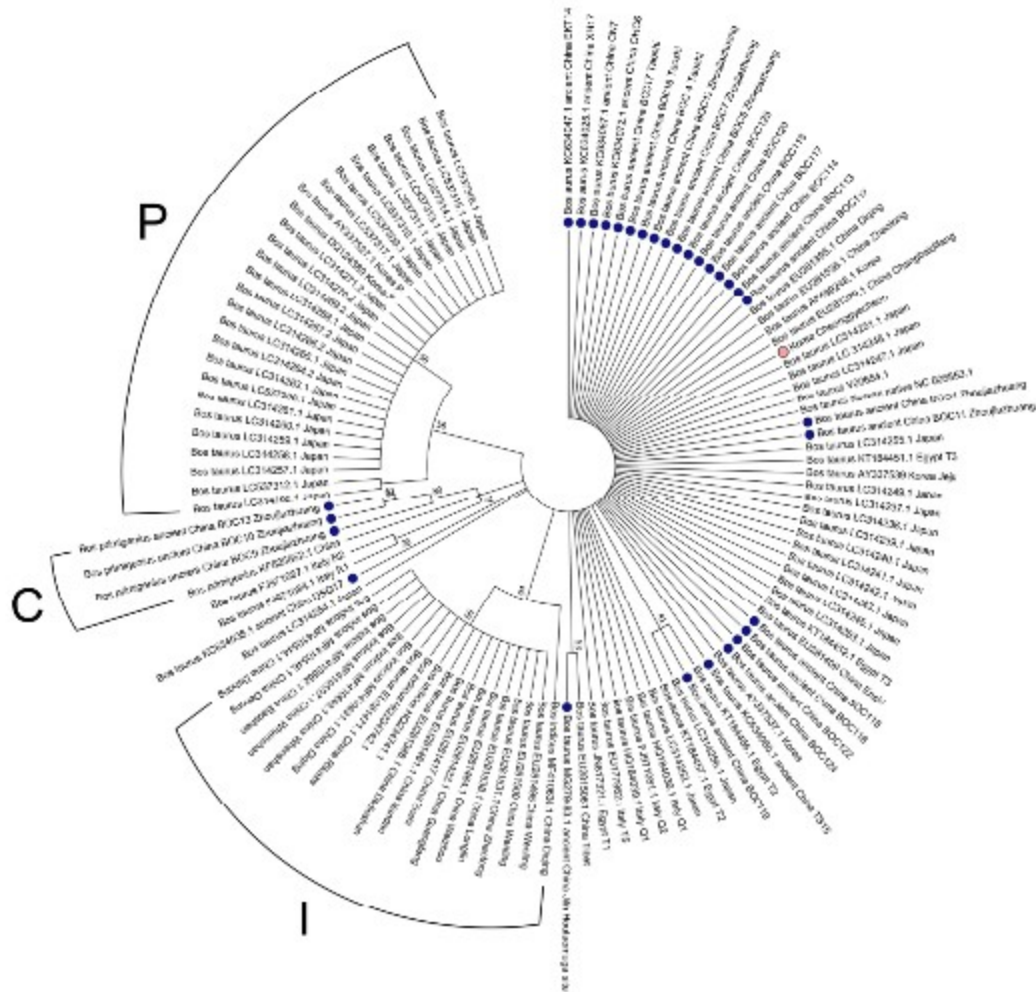
4) 흑소의 뼈가 이른 시기 유적에서 확인된 보고는 현재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흑소 사육과 관련하여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증거는 운남성 쿤밍시 인근 石寨山 유적(戰國時代로 편년)에서 발견된 청동유물에 묘사된 흑소 형상이다(張增祺 1998; Peng et al. 2017).

5) 유사한 유전형을 무리지어 묶은 것을 하플로그룹(haplogroup)이라 부르는데 중국의 경우 전술한 진령-회하선의 북쪽 소는 T형이며 남쪽 소는 I형임이 잘 알려져 있다<그림 1>.

섞여 들어온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우는 야생소로서 현재 멸종하여 존재하지 않지만, 한때 유라시아 대륙 넓은 지역에 분포하였던 야생 동물로 현생 사육소의 직접적 조상에 해당한다. 뼈 연구로 유추한 원우의 모습은 대체로 오늘날 남아 있는 鬪牛와 비슷한 외모로서 사람들이 쉽게 다루기 힘든 동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사시대 벽화 등에 사냥감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어 그 숫자가 한때 야생상태에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우의 분포지역은 매우 넓었지만 지역에 따라 멸종했던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기록에서 확인되는 한 가장 늦게까지 원우가 생존해 있던 지역은 폴란드로 이곳에서는 서기 1627년까지도 여전히 원우가 야생에서 발견되고 있었다고 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원우가 멸종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통설로서 대체로 지금부터 10,000년 전 경에는 이미 야생에서 원우가 사라졌다고 보았다(홍종하·신동훈 2019). 하지만 최근 새로운 고고학적 보고가 잇따르면서 동아시아에서 원우가 멸종한 시점이 계속 하향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동북지역 및 황하유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소 뼈 중에는 원우의 뼈가 혼재해 있음이 유전학적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Cai 등(2018)은 길림성 后套木嘎(Houtaomuga) 유적에서 5,000-6,000년 전의 原牛뼈를 발견하여 보고한 바 있고 Brunson 등(2016)도 山西省 周家庄 유적에서 3,900여년 전의 原牛유전체를 확인한 바 있었는데 추후 발굴에서 추정연대가 더 내려오는 原牛뼈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보고처럼 原牛가 중국대륙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멸종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華北지역에서 야생 原牛와 사육소는 상당기간 공존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Brunson et al. 2016) 이 지역 이른 시기 유적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소뼈가 야생종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보고된 '소뼈'의 실체의 규명과 관련하여(국립중앙박물관 2015) 의미하는 점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앞으로 추가 보고를 계속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原牛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原牛 유전자가 사육소에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전 세계 사육소는 유전학적 조사를 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인더스강 유역에서 처음 사육화 된 개체의 후손으로 확인되며 동아시아의 소도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다. 동아시아 소의 유전형을 분석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 눈에 띄는데 이 지역 소에서 原牛의 유전형이 혼입되어 있는 소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발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청동기시대 북방 지역의 소 유전체에 대한 분석에서 원우 유전형 C가 확인되었으며(Cai et al. 2018), 같은 유전형 P는 원래 유럽에서 번성하던 원우의 하플로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뜻밖에도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현대 사육소에서 제법 확인되었다(Mannen 2020). 원우 유전형이 현대 사육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른 대륙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아마도 동아시아 소에 그 유전적 흔적을 남긴 原牛는 원래 북방(시베리아)에서 살던 것으로 서기 10,000년경에는 멸종되었다고 보았던 것이 생각보다 훨씬 후대까지 생존하면서 동시기에 화북지역에서 번성하던 현지 사육 소와 교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학자들 중 일부는 원우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현지인에 의해 사육화가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Zhang et al. 2013) 이에 대해서는 아직 반론이

많아 원우가 사육을 통해 소의 유전형에 혼입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야생종인 원우와 사육종의 소가 교배를 하여 후손을 낳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는 듯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한 소가 화북지역에 처음 도입된 후 이 지역에서 대량 사육이 확립되어 크게 번성하지만, 그 후 중국 남방에는 흑소가 새로 유입되어 북상하며 이에 혼입하는 한편 시베리아에 남아 있던 원우 유전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지역 사육소에 흘러들어오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던 듯하다.



<그림 2> 그림 1에서 반복계산확률(bootstrap value)값이 40 미만인 노드(node)들을 제거한 계통수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 C, P, I 형은 여전히 명확한 군집화 양상을 보여 상대적으로 짧은 DNA 서열 분석임에도(총 16332bp 중 331bp) 결과의 신뢰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 중부지역 조선시대 출토 소; ■: 중국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소

V. 한국 소의 기원

전술한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화북지역으로 소가 도입된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3,600-2,000년경으로 본다(Cai et al. 2018; Chen et al. 2018; Flad et al. 2007; Lu 2010). 늦어도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화북지역에 소가 도입된 후 전술한 바와 같이西周시대에 들어오면 대규모 소 사육이 완전히 중원에 정착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황하유역에 정착한 소 사육이 한반도로 전파되어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유전학적으로 보면 한국의 소는 흑소 계통은 전혀 없기 때문에 황하 유역의 소가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소 유전형은 그 대부분이 T2, T3, T4형이며 그 중에서도 T3형이 가장 많아(Kim et al. 2005)⁶⁾ 중국 商代 황하유역 소 유전형과 거의 일치한다<그림 1>.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흑소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 북부지역에서 한반도 쪽으로 사육소의 전파는 아마도 요하 유역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들어 온 후 한반도 남부로 순차적 전파되었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해방이후 북한 지역의 발굴 성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없어 현재로서 이 문제를 정확히 규명할 방법은 없다. 다만 사육동물의 도입 시기를 보면 한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상당히 시간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소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확인된 소 유존체에 대한 동물고고학적 연구 보고를 보면 신석기(단양 상시 3바위그늘, 영월 연당 쌍굴) 및 청동기시대(춘천 발산리, 서천 옥북리)에도 소뼈로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차이가 큰 부분이 있다.⁷⁾ 대체로 초기철기시대 이후의 소 유존체를 믿을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이준정 2012). 한반도에서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소 유존체는 강릉 강문동, 사천방지리, 사천늑도, 동래낙민동, 김해회현동, 부산고촌리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중 사천방지리 패총에서 출토된 소 유존체가 가장 믿을 만 한 것이라 한다(이준정 2012). 삼국시대까지도 한반도에서는 소보다는 말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고 소만 단독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희귀하다고 하는데(이준정 2012) 한국에서 도작문화가 청동기시대에 이미 확립되었음을 감안하면 이처럼 소를 비롯한 여러 가축의 도입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이유가 더욱 확실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육 소에 대한 고고학적, 유전학적 연구 성과는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미흡한데 향후 조금 더 분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소는 다양한데, 옛소, 물소, 들소 등 갱신세 동안에 주로 서식한 것들과 현생소와 같이 현세에 들어와서 등장하는 종도 있다. 특히 이러한 소들은 각기 기후환경을 잘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물소는 아열대 기후에 물과 연관된 환경 속에서 서식하며, 스텝이나 툰

6) 현재 한국소 중에는 T3형이 가장 많아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T4 (16%), T1 (10%), T2 (8%)의 순이다(Kim et al. 2005).

7)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에 확인된 소뼈가 후대에 혼입된 것이 아니라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빌어 후술하고자 한다.

드라와 같이 춥고 서늘한 기후에서는 들소가 서식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당시의 기후를 복원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조태섭 2009). <표 1>은 소뼈가 출토된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물소는 구석기-신석기, 들소는 구석기, 옛소는 구석기, 현생소는 신석기-삼한시대에 걸쳐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검증해야 할 많은 과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물유존체 자체에 대한 정확한 분류, 출토된 층위 검증을 통한 정확한 시기 판명 등을 통해 명확한 시기와 소의 분류가 필요한데, 아직은 이러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계사적인 견지에서 사육종의 확산과 한반도 소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1> 한반도 소과 동물출토 유적 일람(조태섭 2009 재정리)

시대	유적	종류	출토품	최소 개체수	비고
구석기	검은모루	물소	아래어금니2, 위어금니1, 옆니4, 뿔달린 머리뼈1 총8점	2	
	중리		위어빨2, 아랫니빨2, 앞축뼈5, 손등뼈3 등 총16점	3	
	랭정 동굴		아래턱2, 아랫니빨5, 위어빨8, 앞축뼈10 등 총31점	5	
	대현동		이빨4, 앞팔뼈1, 앞축뼈9, 뒤축뼈3, 등뼈3 등 총23점	7	
	화천동		아래 세 번째 어금니1 총1점	1	사멸동물
	굴재덕2호동굴		이빨, 앞축뼈 등 총18점	3	사멸동물
	승리산		이빨7, 위팔뼈4, 앞팔뼈2, 정강뼈3 등 총29점	6	
	로동리		앞축뼈, 뒤축뼈 등		몰이사냥터
	룡곡1호동굴		이빨2	2	
신석기	공산	물소	뿔2, 위어빨1, 아래턱1, 갈비뼈4, 앞축뼈1 등 총19점내외	2	
	목도		손등뼈1, 발등뼈1, 뒤축뼈1, 발목뼈1, 발가락뼈3 총7점		
	황성동267		이빨1	1	자른자국
	비봉리		이빨2, 앞축뼈1, 발가락뼈1 총4		
	쌍굴		손등뼈1		추정
구석기	중리	들소	손등뼈1, 발등뼈2, 앞축뼈 2 총 5점	1	
	랭정		위어빨3, 아랫니빨1, 앞축뼈5, 손등뼈3, 총 12점	6	
	대현동		앞팔뼈2, 손등뼈4, 앞축뼈12, 뒤축뼈8 등	6	사멸동물
	승리산		위팔뼈3, 앞팔뼈3, 손등뼈2, 발등뼈1, 발목뼈2, 총11점	3	사멸동물
	청파대		위어금니1, 아래어금니1, 발가락뼈1, 정강뼈1	3	
	점말 동굴		-	-	사멸동물
	동관진		뿔을 포함한 머리뼈1, 손등뼈1	1	
구석기	대현동	옛소	이빨5, 앞팔뼈1, 손등뼈1 총7점	2	
	승리산		위팔뼈1, 앞팔뼈2, 뒤팔뼈1, 허벅지뼈1, 정강뼈2, 총 7점	2	
	만달		정강뼈2, 첫째목등뼈1, 위팔뼈1, 손등뼈1 등		
	금옥 동굴		위어빨2, 아랫니빨2, 앞축뼈1, 첫째발가락뼈1 총6점	2	
	동관진		셋째어금니를 가진 아래턱1, 뿔1, 손등뼈1 총3점	1	

시대	유적	종류	출토품	최소 개체수	비고
	두루봉제2굴		청강이뼈, 손목뼈, 발목뼈 등	2	
	금굴		-	-	사멸동물
	쌍굴		-	-	
신석기	만달리위층	현생 소	발가락뼈	-	
	금굴6문화층		-	-	
	상시3암음		-	-	
	동삼동		위어금니1	-	
	비봉리		위두번째 어금니1, 위 넷째 옆니1	-	
	수가리		위팔뼈, 옆니1	-	
청동기	오동5호주거지	현생 소	-	-	
	범의구석 8호주거지		주걱뼈1	-	
	토성리		위팔뼈3, 주걱뼈1	-	
	입석리		아래턱, 이빨 등 총9점	2	
	조동리		-	1	
철기 시대	오동	현생 소	1	1	
	늑도		뺨1, 아래턱가지1, 위팔뼈2, 허벅지뼈1 등 총22점	2	
	낙민동		아래턱 등 총35점	-	
	수안동		위팔뼈2, 엉덩뼈1 등	1	
	회현동		손등뼈6 등 총26	-	

VI. 일본 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일본에서는 繩文시대 유적에서 소뼈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이는 대체로 발굴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고 대륙으로부터 믿을만한 소의 도입은 古墳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소가 도입된 시기는 초기철기시대로서 기원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대륙으로부터 소의 도입에 대해 서기 2세기경부터 5세기경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古墳시대 정치권력의 성립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丸山真史의 견해(2021)에 따르면 古墳前期부터 산발적인 牛馬의 도래가 시작되었으며 고분 중기부터 소가 말과 함께 대량 도래하였다고 본다(積山 2010; 小林 1951). 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유존체나 유물(하니와 등)에 의해 일본열도로 말과 소의 도입이 확인된 경우는 대체로 서기 5세기 이후부터라 할 수 있어 이보다 앞선 시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명확히 규명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소 유존체 추정연대를 보면 5세기 후반(松井 2003) 혹은 6세기 전반(久保 1999)의 유적에서 처음 발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丸山真史 2021).⁸⁾ 따라서 한국에서 소 유존체가 발견되는 시기를 도입의 시점으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일본에도 적용한다면 양국에서 소 도입의 시기는 초기철기시대(한국)와 5세기(일본)로 상당한 시간적 격차를 보이게 되는 셈이다.

소 사육의 개시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시간차는 『三國志魏志東夷傳』 등 문헌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同書-馬韓傳』에는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라 하여 말과 소는 타는 법을 몰라서 모두 제사지내는 데 써버린다고 하였고 『辰韓傳』에는 <乘駕牛馬>로 말과 소를 타거나 수레를 끌게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부리는 용도에는 차이가 있다 해도 적어도 한반도 남부에 소 사육이 당시 정착해 있었던 것은 확실한 반면 『倭傳』의 경우에는 <其地無牛馬虎豹羊鵝>라 하여 아직 소가 사육되지 않는 모습을 확실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三國志魏志東夷傳』의 편찬자 진수(陳壽, 233~297)의 생물연대를 볼 때 3세기 중-후엽에는 본서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록은 삼국시대(한반도)와 고분시대(왜) 개시 이전의 소 사육 관련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헌이나 고고학적 보고 양쪽 모두 일본에서 소 사육은 최소한 古墳시대 이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소의 도입은 이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유전학적으로 볼 때 일본의 소 도입은 황하유역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북중국 지역 소의 확산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 소의 유전형을 보면 T2, T3, T4가 주류로 중국과 한반도와 비교할 때 일단 큰 차이가 없다. 한때 T4는 일본 소에 고유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유전형으로 보았던 때도 있었지만(Achilli 2008)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소 유존체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가 더욱 진행되면서 T4는 T3에서 분지된 유전형으로서 소가 중국에 최초로 도입된 후 화북지역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하플로그룹임이 규명되어 지금은 이러한 주장이 거의 부정되고 있다(趙欣 외 2020). 최근까지 유전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소는 황하유역에서 확립된 소가 유입된 것으로서 그중에서도 일본 소는 고분시대 한반도로부터 유입되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일본의 전통 和牛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원우 유전형이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 주목을 끈다. 하플로그룹 P는 유럽 지역의 原牛 유전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최근 일본의 화우 중 日本短角種(Japanese shorthorn)에 이 유전형이 매우 높은 빈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다<그림 2>. 따라서 이 소의 경우 한반도에서 들어온 대부분의 다른 사육소와는 다른 유입 경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일본열도의 북방으로부터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았다(Mannen 등 2020). 일본단각종의 조상이 된 원우계의 하플로그룹 P인 소가 일본으로 들어오기 이전 시베리아에 살고 있었다면 이는 중국에서 확인되었던 또

8) 현재까지 확인된 소 유존체 중 가장 이른 것은 奈良県 南郷遺跡에서 발견된 것이다(西本 2010). 일본에서 소 도입 시기를 彌生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기의 소 유존체가 발견된 보고는 아직도 전무하다.

다른 원우 유전형인 하플로그룹 C가 북방(시베리아)으로부터 황하유역으로 침투한 것으로 보는 관점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 사육소가 중앙아시아를 통해 들어와 화북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을 때 그 북방에는 원우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가진 소가 일정 부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로부터 동아시아 원우와 메소포타미아 기원의 사육소 잡종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에 존재하는 하플로그룹 P가 Mannen 등 (2020)이 주장하듯이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북방으로부터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요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하플로그룹 P는 한국과 연변 지역에서도 보고된 바 있어 한반도 소에 P형의 개체가 섞여 있음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Achilli et al. 2012; Mannen et al. 2020). 한반도는 일본보다 외부 소가 유입되어 들어오기 쉬운 지리적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대의 유입에 의해 도입 초기의 P형 소가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P형 소의 도입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VII.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발견된 소 유전체 연구

앞에서 서술했듯 우리나라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소의 경우 그 발견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 3-4세기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소(Kim et al., 2005)를 제외하면 한반도 내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소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내 청계천 유적에서 발견된 소 미토콘드리아 DNA D-loop에 대한 것이 현재까지 거의 유일한 상태이다(Hong et al., 2017). 해당 소의 경우 조선시대(15세기)의 것으로 판별되었는데, 그 하플로그룹이 T3형으로 현재 전 세계 소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하플로그룹과 일치한다. 비록 1개체 사례이기 때문에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중국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소 유전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반도 중세시대에 존재했던 소는 이미 근동지방에서 유래된 T형 소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후 주류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T형 소가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육 소 중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 T형 소가 초기 철기시대에 중국에서 도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보고된 C형 원우와 P형 일본 현대 소에 대한 보고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한반도 옛 소의 유전형은 지금보다 다양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우리나라 중세시대 역사기록에는 한반도 북방지역과의 소 무역에 대한 역사기록들이 서술되어 있다(홍종하, 2016).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 간 무역에서 소는 분명한 거래 품목으로 존재하였고, 그 유전자 또한 지속적으로 혼입되었을 것이라 본다. 다만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소 유전체에 대한 분석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소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극히 일부만 수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특히 중부지방에서의 소 사육과 전파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VIII. 유전학적으로 살펴본 말 사육과 전파

말 또한 소와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는 동물이다. 하지만 말의 경우는 소와는 다소 양상이 다른데, 이는 단순히 고기와 유제품 공급, 축력을 이용한 물자 수송 등에 사용되었던 다른 가축들과 달리 해당 동물이 인류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홍종하 등, 2019).⁹⁾ 현대 말은 거의 대부분이 남 시베리아 지역에서 가축화된 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반도 중부지역 말 또한 남 시베리아 지역 말의 후손이 된다. 다만 최근 세계 각지에서 초기 말 사육의 증거가 속속 보고됨에 따라,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남 시베리아 지역 외 말의 후손이 발견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이는 초기 말 사육화와 전파 양상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은 처음 도입된 이후 그 특성상 여러 문화권에서 군수물자와 같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 교배와 육성에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현재 전 세계 말의 부계 혈통은 거의 통일되어 있어 현대 말 Y DNA 분석을 통해 교역이나 이동과 같은 다양한 인간 활동의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미토콘드리아 DNA의 경우 지금까지 밝혀진 유전형이 대략 16개로 많고 지역 간 인부 차이를 보여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발굴현장에서 발견되는 말 Y DNA는 현대 말과는 달리 보다 다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부지역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발견되는 고유한 말 Y DNA를 타 지역 옛 말의 그것과 비교하여 두 지역 간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

IX.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발견된 말 유존체 연구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부지역 고고학 현장에서 발견된 말 유존체를 이용한 유전학적 연구는

9) 말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결과가 이미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홍종하 등(2019)의 “고고학 및 유전학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사육 말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검토” 리뷰 이후 아직 기존 통설을 흔들 만한 최신 보고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동일주제에 대한 중복게재를 피하고자 본 발표문에서는 홍종하 등(2019)의 검토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0) 이는 야생 숫말을 길들이는 것이 암말을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인데(Warmuth et al., 2012),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옛 말 Y DNA의 지역 간 유사도를 밝히는 것은 두 지역 간 인류의 이동과 교역을 생각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된다.

어떠한 것이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수집한 말 유존체에 대한 DNA 분석은 제주 광지유적 7-8세기대 말(Jung et al., 2002)와 서울시내 공평동 유적에서 발견된 15세기 조선시대 말 뼈, 총 두 개체가 보고된 바 있다(Hong et al., 2022). 이 중 중부지역에 속하는 공평동 유적 말은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이 현재 동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Q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광지유적 말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인 G와는 차이를 보였다. 제주 옛 말 하플로그룹인 G는 홍적세 후기 북동 시베리아(G2), 청동기 유럽(G1), 철기 시대 중국(G3) 등 유적에서 발견된 말 유전형과 유사하지만 현대 제주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전형으로,¹¹⁾ 사례가 적어 단정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 말 유전형이 역사 시기 어느 시점에서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홍종하 등, 2019; Hong et al., 2022).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은 언제 전래되었을까. 물론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발견된 말 유존체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Jung(2002) 등에 따르면 13세기대 몽고말의 전래 이후 토종말과 몽고말 간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히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Kang, 2016; Jung et al., 2002). 실제로 현대 제주마와 몽골 말은 유전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Chon, 2007), 이 주장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고고학 유적 옛 말은 처음 말이 전래되었을 때 들어왔던 말과 몽골에서 들어온 혈통의 말, 두 번에 걸쳐 두 가지 혈통을 가진 말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대 우리나라 말에서 발견되는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 중 I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유형은 현대 몽고마 등 동아시아 말에서도 일부 발견되지만 기본적으로 서부와 남부 유럽 말에 흔히 존재하는 하플로그룹(Ning et al., 2019)으로, 동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체는 아니다. 물론 해당 하플로그룹이 발견된 말은 현대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대 말에서도 이와 같은 유전형이 발견될 것이라 말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 옛 말에 대한 유전형 분석이 보다 많은 개체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면 향후 인구집단의 이동과 말 교역에 대한 많은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 현대 제주마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전형은 B, D, E, I, J, O, Q 등이 있다.

X. 멧음말

소와 말은 인류사에 있어 가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동물로, 많은 인류 문명이 해당 두 가축과 함께 발전하였다고 할 만큼 인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특히 소가 가축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여러 문명의 농업생산량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말의 경우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면서 문명의 전파와 전쟁 등 역사적 사실에 많은 연관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해당 동물의 가축화 및 전파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다. 소의 경우 기존 통설에 따르면 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기원의 흑 없는 소와 인더스 강 유역 기원 흑소가 각각 해당 지역에서 처음 가축화 된 뒤 세계 각지로 퍼져 오늘날 보이는 소의 기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한국 및 일본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들 대부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소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육 소 전파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성과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소 사육과 전파 과정이 기존 통설보다 복잡 다양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의 유전학적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소의 계통적 분화가 동아시아 각국으로 이동하기 이전 이미 황하유역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는데, 이를 통해 기존 일본 소 독자성을 주장하던 학설의 근거가 부정되는 한편, 황하유역에서 도입 초기 사육되던 소는 현대 동아시아 각국 소의 직접적 조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일본에서는 유럽 원우에서 발견되는 P형 소가 현대 일본 소에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한반도와 중국에서도 낮은 비율로 발견되는 유전형으로 동아시아 사육 소 전파 경로가 다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말의 경우 기존에는 남시베리아지역에서 최초로 가축화된 숫말이 전 세계 사육마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유전학적 분석에 따르면 말 사육화 사건은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숫말 Y DNA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옛 말 Y DNA가 곳곳에서 속속 보고됨에 따라 말을 통한 이동과 교역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종래 연구자들이 많이 분석한 미토콘드리아 DNA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여 마찬가지로 연구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중부지역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발견된 소와 말 유존체의 경우 분석이 완료되어 보고된 개체가 각각 1체씩이며, 해당 개체들의 유전형 또한 현대의 것들과 유사하여 해당 자료만으로 옛 중부지역 소와 말의 유전적 특징을 밝히거나 교역과 이주 양상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보다 다양한 시기 다양한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수집한 해당 동물 유전학적 분석결과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타 지역 간 이주와 교역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박물관, 1978, 『대가야 고분 발굴 조사 보고서』, 경북대학교박물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994, 『창원가읍정동유적』,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국립중앙박물관, 1998, 『동래낙민동패총(東萊樂民洞貝塚)』,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풍납토성 6』,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중앙박물관, 2015,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국립중앙박물관.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18, 『중국정사동이전교감』, 동북아역사재단.
- 朴廣春宮崎泰史·安部みき子, 2008, 『泗川勒島 CⅡ』, 동아대학교 박물관.
- 부경대학교 박물관, 1993, 『北亭貝塚』, 부경대학교 박물관.
- 이준정, 2012, 「한반도 선사 고대 동물사육의 역사와 그 의미」, 『농업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사회평론아카데미.
- 조태섭, 2009, 「우리나라 선사시대 소과(Bovidae) 화석에 대한 고찰」, 『한국구석기학보』20, 한국구석기학회.
- 창원대학교 박물관, 1996, 『창원 남산유적』, 창원대학교 박물관.
- 홍이섭, 1946, 『朝鮮科學史』, 정음사.
- 홍종하, 2016, 「서울시내 청계천 유적에서 수집한 조선시대 소 뼈 추출 미토콘드리아 DNA D-loop에 대한 유전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종하·신동훈, 2019, 「유전학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동북아시아 소의 기원과 확산」, 『한국상고사학보』105, 한국상고사학회.
- 홍종하·강인욱·신동훈·김지은, 2020, 「고고학 및 유전학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사육 말의 기원과 확산」, 『대한체질인류학회지』33, 대한체질인류학회.
- 『三國誌』 『魏志』, 東夷傳 韓傳
- 张增祺, 1998, 『晋宁石寨山』, 昆明: 云南美术出版社.
- 久保和士, 1999, 「動物遺体の調査結果と検討」, 『長原遺跡東部地区発掘調査報告Ⅱ』 大阪市文化財協会.
- 西本豊弘, 2010, 「ウシ」, 『事典 人と動物の考古学』 吉川弘文館.
- 小林行雄, 1951, 「上代日本における乗馬の風習」 『史林』 34 (3), 173-190.
- 松井章·丸山真史, 「古代の馬 日本在来馬の起源」, 『ヒオストーリー』 Vol. 21, 生き物文化誌
- 横山洋, 2010, 「日本列島における牛馬の大量渡来前」, 『日本古代の王権と社会』.
- 赵欣, 李志鹏, 东晓玲, 等., 2020, 「河南安阳殷墟孝民屯遗址出土家养黄牛的DNA研究[J]. 第四纪研究 40(2):10.
- 赵欣, 杨东亚, 顾万发, 等., 2018, 「河南省郑州地区青铜时代遗址出土牛骨的DNA研究[J]. 南方文物 (4):10.
- 蔡大伟, 胡松梅, 孙洋, 等., 2014, 「陕西泉护村古代黄牛的分子考古研究[J]. 考古与文物, (5):116-120.
- 蔡大伟, 胡松梅, 孙玮璐, 朱司祺, 孙周勇, 杨苗苗, 邵晶, 周慧. 2016, 「陕西石砭遗址后阳湾地点出土黄牛的古DNA分析. 考古与文物(4): 122-175.
- 丸山真史, 2021, 「古墳時代のヤマトにおける牛馬渡来と普及」, 日本動物考古学会第8回大会.
- Achilli, A., Olivieri, A., Pellecchia, M., Ubaldi, C., Colli, L., Al-Zahery, N., Accetturo, M., Pala, M., HooshiarKashani, B., Perego, U.A., Battaglia, V., Fornarino, S., Kalamati, J., Houshmand, M., Negrini, R., Semino, O., Richards, M., Macaulay, V., Ferretti, L., Bandelt, H.J., Ajmone-Marsan, P., Torroni, A., 2008, Mitochondrial genomes of extinct

- aurochs survive in domestic cattle, *Current Biology* 18(4): 157-158.
- Brunson, K., Zhao, X., He, N., Dai, X., Rodrigues, A., Yang, D., 2016, New insight into the origins of oracle bone divination: Ancient DNA from Late Neolithic Chinese bovine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74: 35-44.
- Cai, D., Sun, Y., Tang, Z., Hud, S., Li, W., Zhao, X., Xiang, H., Zhou, H., 2014, The origins of Chinese domestic cattle as revealed by ancient DNA analysi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41: 423-434.
- Cai, D., Zhang, N., Zhu, S., Chen, Q., Wang, L., Zhao, X., Ma, X., Royle, T.C.A., Zhou, H., Yang, D.Y., 2018a, Ancient DNA reveals evidence of abundant aurochs(*Bos primigenius*) in Neolithic Northeast Chin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98: 72-80.
- Cai, D., Zhang, N., Shao, X., Sun, W., Zhu, S., Yang, D.Y., 2018b, New ancient DNA data on the origins and spread of sheep and cattle in northern China around 4000 BP, *Asian Archaeology* 2: 51-57.
- Chen, N., Cai, Y., Chen, Q. et al., 2018, Whole-genome resequencing reveals world-wide ancestry and adaptive introgression events of domesticated cattle in East Asia, *Nat Commun* 9, 2337. <https://doi.org/10.1038/s41467-018-04737-0>.
- Hong JH, Oh CS, Cho CW, Shin YM, Cho TS, Shin DH. 2018, Mitochondrial DNA analysis of *Bos taurus* bone collected from ruins of the Joseon Period in a tributary of the Cheonggyecheon creek, South Korea. *J Archaeol Sci* 17: 785-792.
- Hong JH, Oh CS, Kim S, Kang IU, Shin DH. 2022. Genetic analysis of mitochondrial DNA from ancient *Equus caballus* bones found at archaeological site of Joseon dynasty period capital area, *Anim Biosci* <https://doi.org/10.5713/ab.21.0500>.
- Kim JH, Oh JH, Song JH, Jeon JT, Han SH, Jung YH, Oh MY., 2005, Molecular genetic analysis of ancient cattle bones excavated from archaeological sites in Jeju, *In Mol Cells* 20(3), pp. 325-330, Korea. PMID: 16404145.
- Mannen, H., Kohno, M., Nagata, Y., Tsuji, S., Bradley, D.G., Yeo, J.S., Nyamsamba, D., Zagdsuren, Y., Yokohama, M., Nomura, K., Amano, T., 2004, Independent mitochondrial origin and historical genetic differentiation in North Eastern Asian cattle, *Molecular Phylogenetics and Evolution* 32: 539-544.
- Mannen H, Yonezawa T, Murata K, Noda A, Kawaguchi F, Sasazaki S, Olivieri A, Achilli A, Torroni A., 2020, Cattle mitogenome variation reveals a post-glacial expansion of haplogroup P and an early incorporation into northeast Asian domestic herds. *Sci Rep* 10(1):20842. doi: 10.1038/s41598-020-78040-8. PMID: 33257722; PMCID: PMC7704668.
- Peng L, Brunson K, Jing Y, Zhipeng L., 2017, Zooarchaeological and genetic evidence for the origins of domestic cattle in Ancient China, *Asian Perspectives*. 56(1): 92-120.
- Sasazaki, S., Odahara, S., Hiura, C., Mukai, F., Mannen, H., 2006, Mitochondrial DNA variation and genetic relationships in Japanese and Korean cattle, *Asian-Australas Journal of Animal Science* 19(10): 1394-1398.
- Zhang H, Pajmans JL, Chang F, Wu X, Chen G, Lei C, Yang X, Wei Z, Bradley DG, Orlando L, O'Connor T, Hofreiter M., 2013, Morphological and genetic evidence for early Holocene cattle management in northeastern China, *Nat Commun* 4:2755. doi: 10.1038/ncomms3755. PMID: 24202175.

토론문 5

『소와 말 유존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반도 중부지역의 고대 교역』에 대한 토론문

김헌석(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번 발표는 고고유전학의 측면에서 사육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연구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발표자도 지적하였듯이 고고유전학 조사를 통한 고대 소와 말의 전모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으며, 기발표된 자료들도 제주도와 서울지역, 그리고 7세기와 조선시대라는 시공간적으로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섬이라는 특수 환경과 역사적인 가족의 유입이 상정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한반도 내부의 사례를 살펴보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정적인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상황의 정리는 한반도 내부의 변동양상을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토론자도 사실은 동물유체의 분석과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유전학적 지식은 많지 않으나 역사적 사실과 동물유체의 출토상황을 고려했을 때의 의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면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한반도 가족 소의 유입시기와 지역에 관한 문제

이번 발표에서는 중국의 경우 용산문화부터 소가 확인되고 은허유적에서도 다수의 소를 확인하고 유전적 정보가 밝혀진 점에서 유전학의 관점에서 소의 확산에 실마리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소의 유입이 방지리유적부터 확인되는 점은 상당한 시차를 보이는 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임에는 토론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특히 방지리유적 이후, 소의 존재가 다수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은 한반도의 소의 사육은 원삼국시대부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청동기시대의 동물유체의 자료가 적은 점을 생각하더라도 전국에서 균일하게 소뼈가 확인된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소의 사육이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발표자는 중국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소의 유입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지를 묻고자 한다. 그리고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 분포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 유전형의 다양성과 유전자 분석기술 발달과의 관계-NGS기법을 통한 전장 유전체 복원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는 T형, C형, P형의 다양한 유전자 형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기원에 해당하는 종의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소의 경우 T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속에 C형과 P형이 혼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형태가 보이지 않았다가 보이는 것인 NGS기법의 적용을 통한 전장 유전체 분석의 영향인지도 궁금하다. 만약 전장유전체 분석의 결과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유형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훨씬 이전부터 원우와 소의 교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 유라시아 대륙의 원우의 확산의 모습과 문화정체지역에서의 유전형 잔존 양상의 문제

일본의 현대 사육소에서 P유형이 많이 보이는 것은 소의 개량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의문이다. 현대의 가축 개량은 유럽품종과의 개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고대의 것과 비교하게 된다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의 현대 사육소에 보인다면 실제로 외국과의 교배가 이루어진 종인지 아니면 재래종인 현대 사육소인지를 확인 가능한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재 재래종이 한반도의 고유유전자를 보존하고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현대의 사육소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개량이 빈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유전자 분석에 이용된 현대 사육소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유럽형 원우의 유전자가 이전부터 잔존의 영향인지 근래의 교배에 의한 영향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또 한가지는 유럽형 원우의 유전자가 과거부터 존재한다면 그 확산의 경로에 대한 문제이다. 발표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우의 유형이 북방에서 화북지역으로 그리고 일본의 북부로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 관점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반도에도 그러한 유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 유전자분석의 자료가 적은 입장에서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 북부지방으로의 원우유전자의 유입은 문서 기록을 통해 16세기로 보는 것과 함께 홋카이도지역의 중세문화의 형성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북방지역으로 대표되는 홋카이도지역은 일본의 본토와는 다른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문화를 만들어왔다. 특히 홋카이도 중세 문화는 연해주지방에 폭 넓게 분포한 집단인 말갈의 영향으로 형

성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안재필 2020). 특히 유목을 동반하는 말갈집단의 이동과 관련해 가축의 이동과 같이 지속적인 소의 전파와 유입을 상정할 수 있지는 않을까?. 고분시대 초기는 한반도를 통한 소와 말의 전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한반도의 소와 말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발표자도 지적하는 바와 한반도 자료에 대한 유전자분석 자료는 적다. 소의 주된 확산 경로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유적 조사의 결과는 남해안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소뼈가 확인되는 점에서 본격적인 가축 소의 유입과 국내에서의 확산이 어땠는지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다. 적어도 소뼈의 출토상황을 보면 초기철기시대에는 드물게 산재하는 것이 삼국시대에는 사육양상이 확립된 것으로 토론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굴상황과 유전자 분석 결과를 고려한 한반도로의 소의 유입과 국내에서의 확산 양상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합니다.

<참고문헌>

- 김현석, 2018, 「최근 소의 기원에 관한 국제적 연구경향과 한반도 신석기시대 소뼈 연구에 관한 제언」 토론, 한국상고사학회.
 안재필, 2020, 「만주·연해주지역 “말갈관(靺鞨罐)” 검토」, 『인문학연구』44,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년 중부고고학회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심 재 연	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평의원	김 선	불교문화재연구소	
부회장	정 해 득	한신대학교		김 규 운	강원대학교	
감 사	박 경 신	송실대학교박물관		김 진 형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운영 위원	총 무	이 숙 임		한림대학교박물관	박 수 영	예맥문화재연구원
	기 획	강 인 옥		경희대학교	소 상 영	한양대학교
		최 영 희		강릉원주대학교	신 연 식	중앙문화재연구원
	출 판	이 종 수		단국대학교	오 경 택	수도문물연구원
	정 보	강 병 학		한양문화재연구원	오 승 환	가대연문화유산연구원
		박 영 구		강릉원주대학교	이 숙 임	한림대학교박물관
재 정	최 종 규	한울문화재연구원		이 승 원	한강문화재연구원	
간사	총 무	최 현 민		한림대학교박물관	정 치 영	한성백제박물관
	출 판	나 용 재		단국대학교	최 영 민	아주대학교도구박물관

중부고고학회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박물관 내 중부고고학회
 TEL 033-248-2853/ FAX 033-252-1826/ E-mail: jbgogo@jbgogo.or.kr
 Homepage <https://www.jbgogo.or.kr>

중부고고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한반도 중부와 유라시아 - 교류의 제 양상

2022년 6월 7일 인쇄

2022년 6월 8일 발행

중부고고학회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편집·발행

고려출판사 인쇄

※ 이 학술대회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됨
 (NRF-2019S1A5C2A01083578)